

국립국어원 2006-1-9 전남(2)

2006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이기갑
- ◆ 연구 보조원 : 오청진 · 유효려
- ◆ 조 사 지 역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국 립 국 어 원

2
0
0
6
년

전
남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이기갑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6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1
제 2 편 어 휘	125
제 3 편 음 운	185
제 4 편 문 법	224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는 진도의 서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과거에는 포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독이 막히고 간척지가 조성됨에 따라 순전한 농촌 지역으로 변화했다.

이곳은 물이 귀하고 농토가 많지 않아 과거에는 농업보다는 염업이 주된 생계 수단이었다. 천일염이 나오기 전,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드는 화염이 번성하였고, 주제보자인 김승철 옹 역시 젊은 시절 한동안 화염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간척지가 만들어지고, 수로를 통한 물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검정쌀을 특화 농작물로 지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 사람들의 통혼은 주로 지산면 내에서 이루어지며, 제보자 역시 지산면 내의 교야리에 처가를 두고 있다. 조사 지점인 소포리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지산면 소재지에 중학교, 그리고 진도읍에 고등학교가 있다. 진도읍까지는 버스를 이용하여 왕래하는 데,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진도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소포리에서 목포까지 여객선이 운행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 지역은 활발한 포구의 활동이 있었던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1.2 조사 기간

2006년 6월 29일-12월 10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 김

나이 : 78세(1928년생)(실제 나이 80세)

출생지 : 전남 진도군 지산면

거주지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선대거주지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직업 : 농업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 및 염전업에 종사하였음.

40대 때에는 수년간 소형 화물선을 운영하면서 신안, 목포 등지로 운송업을 하기도 하였음.

학력 : 초등학교(3년)

병역 : 육군(강원도에서 3년 복무)

제보자 소개 과정 : 지산면 이장으로부터 소개 받음.
제보자의 특기 사항 : 40대에 화물선을 운영하여 신안과 목포 지역을 왕래하는 경력이 있으나, 이러한 경력이 제보자의 언어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크고 발음이 비교적 정확함.
귀는 약간 어두움.
조사 내용을 쉽게 이해하여 적절한 답을 제공하는 수가 많았음.
다만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 농사 방법 등 옛날 일에는 기억이 많이 흐려져 이를 복원하는 데 본질적 어려움이 있었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답변을 하였으나, 질문 이외에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구술발화의 조사 때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2) 보조제보자

이름 : 김
나이 : 80세(주제보자 김승철의 처)
직업 : 농업 및 주부
거주지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친정 : 전남 진도군 지산면

보조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보조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이 정확하고 귀도 밝았음.
비교적 천천히 말하는 습관이 있어 음성을 전사하는 데 용이하였음.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주제보자에 비해 떨어져서 주제보자의 보조원으로 역할 하였음.
주제보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 한하여 구술발화의 일부(약 1시간)를 맡았음.

1.4 조사자

- (1) 이름 : 이기갑(목포대학교 교수)/오청진(목포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박사과정)
- (2) 조사 일시 : 2006년 6.29-12.10(15일간)
-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의 집
- (4) 조사내용

- ① 구술발화 테이프 1-3, 17(4개) 파일 (SJN_JD_01~ SJN_JD_03, SJN_JD_17)
- ② 어휘 테이프 4-11(8개) 파일 (SJN_JD_04~ SJN_JD_11)
- ③ 음운 테이프 12-14(3개) 파일 (SJN_JD_12~ SJN_JD_14)

④ 문법 테이프 15-16(2개) 파일(SJN_JD_15~ SJN_JD_16)

⑤ 보충(어휘, 음운, 문법 섞인 것) 테이프 18-19(2개) 파일(SJN_JD_18~ SJN_JD_19)

tape	파 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SJN_JD_01	1:21	구술발화 1.1-1.2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2006 6. 29
2	SJN_JD_02	2:00	1.3	김승철	이기갑	7. 26
3	SJN_JD_03	1:55	1.4-1.8	김승철	이기갑	7. 26
4	SJN_JD_04	1:50	어휘 20101~204254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8. 03
5	SJN_JD_05	2:00	20501~21024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8. 04
6	SJN_JD_06	1:52	21102~21443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8. 11
7	SJN_JD_07	1:30	21501~21742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8. 22
8	SJN_JD_08	1:50	21802~22258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9. 07
9	SJN_JD_09	2:10	22301~22538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9. 15
10	SJN_JD_10	1:45	22539~23627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9. 22
11	SJN_JD_11	1:40	23101~23441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9. 22
12	SJN_JD_12	1:50	음운 31001~32046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9. 26
13	SJN_JD_13	1:50	32047~32242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오청진	9. 29
14	SJN_JD_14	1:30	32243~32362	김승철	이기갑 /오청진	10. 13
15	SJN_JD_15	2:00	문법 40101~40413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10. 30
16	SJN_JD_16	1:30	40601~41116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11. 05
17	SJN_JD_17	0:40	구술발화 (개인사)	김승철	이기갑	11. 05
18	SJN_JD_18	1:55	보충 (어휘, 음운, 문법)	김승철/김유예	이기갑	12. 10
19	SJN_JD_19	0:50	보충(어휘)	김승철	이기갑	12. 10
합계		32:08				

1.5 전사

(1) 1차 전사(2006년 9월~10월)

구술발화 : 유효려

어휘 : 오청진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2) 1차 점검(2006년 11월)


구술발화 : 유효려
어휘 : 오청진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3) 2차 점검(2006년 11월)

구술발화 : 오근호
어휘 : 이기갑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4) 3차 점검(2006년 12월)

구술발화 : 이기갑
어휘 : 이기갑
음운 : 이기갑
문법 : 이기갑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므로 ‘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2006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3 생업활동

1. 논농사

10302. @ 어, 이어서 {어, 이어서}

10302. @ 구술발화 노그물 구술발화 조사를 하게됩니다. {구술발화 녹음을 구술발화 조사를 하겠습니다.}

10302. @ 오느르뇨, 그: 농사진능거. {오늘은요, 그 농사 짓는 거.}

10302. @ 예, 고 이야기를 줌 {예, 그 이야기를 줌.}

10302. # 예, 그러씨요. {예, 그러시오}

"=1"

저 잡쭈고 하시오. {저 잡수고 하시오.}

@ 아여, 고마쭈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따뜨더니, 잡쭈고 하시오. {아, 따뜻하게 잡수고 하시오.}

#1 잠판 꺼불고. {잠깐 꺼불고.}

@ 꺼불까요? {꺼 버틸까요?}

10302. @ 그: 지금 지남버네 그 노들 저 멤마지거나 지:신다 그러셔씨요. 논 {그 지금 지난 번에 그 논을 몇 마지거나 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논?}

10302. # 저요? {저요?}

10302. # 그 장년까장 열판마지기 지여씨. {그 작년까지 열다섯 마지기 지었어.}

10302. # 열판 마지기면 약 삼천평. {열다섯 마지기면 약 삼천 평.}

10302. # 평쭈로 여그: 함마지기가 이:백평이이~까. {평수로 여기 한 마지기가 이백 평이니까.}

10302. # 약 삼천평. {약 삼천 평.}

10302. @ 그러면 마:니 지으신 퍼닝가요 이쪼게서? {그러면 많이 지으신 편인가요, 이쪽에 서?}

10302. # 아:니요. {아니요.}

10302. # 아::주 소습짜지요. {아주 소수지요.}

10302. # 여그: 마:이~ 진는 사라믄 뽕:마지기 이상 진는 사라미 메찌비 텨니다. {여기 많이 짓는 사람은 백 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이 몇 집이 됩니다. }

10302. # 백 한 오:십마지기 진는 사람도 이쨌요. {백 한 오십 마지기 짓는 사람도 있어요.}

10302. @ 기계로 지니까 그러지요? {기계로 지으니까 그렇지요?}

10302. # 그러지요, 점:부 기계로.{그렇지요, 전부 기계로.}

10302. # 제:일 첫째 트랙타로 농 갈:제. {제일 첫째 트랙터로 논 갈지.}

10302. # 그레가꼬 트랙타로 노:타리 하제. {그레가지고 트랙터로 로타리 하지.}

10302. # 또 상자에다 썬나락 뿌리는 거또 기계로 뿌리고. {또 상자에다 벼씨('썬나락'은 '벼씨'의 방언형) 뿌리는 것도 기계로 뿌리고.}

10302. # 또 뽐마아이~라. {또 뿐만 아니라.}

10302. # 상자 나락 종자 네:는 공장이 이씨요. {상자 벼 종자 내는 공장이 있어요.}

10302. # 쪼아레 가면. {저 아래 가면.}

10302. # 그라문, 상자 한나 네:주는 데 엄:마썹 이케 바꼬. {그러면 상자 하나 내주는 데 얼마썹 이렇게 받고.}

10302. # 또 모를 키여주는 데가 인는데. {모를 키워 주는 데가 있는데.}

10302. # 인자 데:라근 이넉찌비서 마이~ 하지요, 손세. {이제 대략은 자기('이넉'은 재귀대명사로써 '자기'의 뜻) 집에서 많이 하지요, 손수}

10302. # 그레가꼬 이:양기로 심:썰. {그레가지고 이양기로 심지.}

10302. # 또 우리 마으런 기계로 야가제. {또 우리 마을은 기계로 약 하지.}

10302. # 인자 그레가꼬 콤바이~로 비제. {이제 그레가지고 콤바인으로 베지.}

10302. # 건조기로 물리제. {건조기로 말리지.}

10302. @ 어, 기계. {영, 기계.}

10302. # 점:부 기계 아나요? {전부 기계 안 하요?}

10302. @ 점부 기계 허네. {전부 기계 하네.}

10302. # 단 권:네는 나락 가실할때도 농가세가 구뽐고이따가 다: 물려노면 공장에서 차두 가꼬와서 나락 반능거시 이:리여. {단 주인네는 벼 가을할 때도 논 가에서 굿 보고 있다가 다 말려 놓으면 공장에서 자루 가지고 와서 벼 받는 것이 일이야.}

10302. # 그레다보니까 사:시른 점::부 도:느로 주고나면 벨:거시 업씨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전부 돈으로 주고 나면 별것이 없어요.}

10302. # 농사 지여도. {농사 지어도.}

10302. @ 도:니 그 기계 사용료가이~? {돈이 그 기계 사용료가?}

10302. # 점:부 심지여 이 상:토까장 모짜리하는 상:토까장 점부 돈주고 안 사다나요? {전부 심지여 이 상토까지('상토'는 좋은 흙을 뜻함.) 못자리하는 상토까지 전부 돈 주고 사다가 하잖아요?}

10302. # 상:토 사제. {상토 사지.}

10302. # 마:라자문 나락 모짜리 해:주제. {말하자면 벼, 못자리 해 주지.}

10302. # 또 논 가라서 노:타리 하제. {또 논 갈아서 로타리 하지.}

10302. # 또 이:양기로 모심썰. {또 이양기로 모 심지.}

10302. # 또 머:단 사람은 기계로 야가제. {또 어떤 사람은 기계로 약 하지.}

10302. # 또 콤바이~로 비제. {또 콤바인으로 베지.}

10302. # 건조기서 물리제. {건조기에서 말리지.}

10302. # 점:부 도나~이요? {전부 돈 아니요?}

10302. # 점:부 돈. {전부 돈.}

10302. # 그라이~까 나라끄문 싸제. {그러니까 벼 값은('금'은 '값'의 방언형) 싸지.}

10302. # 실상언 보자꺼시 업썸니다. {실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10302. # 그라니까 인자 농사 마:이~ 지는 사람언 점:부 이녁꺼시지요, 기계가, 점:부.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전부 자기 것이지요, 기계가, 전부.}

10301. @ 그: 나락 종:뉴가 여러가지잔습니까? {그 벼 종류가 여러가지이잖습니까?}

10301. @ 어떤 종뉴가 이썸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301. @ 요즈메는 마:니 하능거? {요즘에는 많이 하는 거?}

10301. # 우더른 기영녀기 업썸게 잘모르거썸니다마는 지그 혀:네 네가 하기는 동진 이로, 일밤벼는. {우리들은 기억력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시다마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은 동진1호, 일반 벼는.}

10301. # 동진 이로하고. {동진1호하고.}

10301. # 검정 나라근 중생종이꼬 만생종이꼬 조:생종이꼬 그레라. {검정벼는 중생종 있고, 만생종 있고 조생종 있고 그레요.}

10301. # 그란데 장녀네는 네가 중생종을 헐는데 오레는 만생종을 잔 해:보까 그람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내가 중생종을 했는데 올해는 만생종을 좀 해 볼까 그럽니다.}

10301. # 왜냐하면 검:정 나라기로 바서는 만생종이 제::일 향네가 향이 조코 쥬: 조아요. {왜냐하면 검정벼로 바서는 만생종이 제일 향내음이 향이 좋고 제일 좋아요.}

10301. # 그란데 단 그거시 병:충해가 좀 시:맙떠다 그거시. {그런데 단 그것이 병충해가 좀 심합디다, 그것이.}

10301. @ 근데 진도에서 왜 검정 나라글 마:니 해요? {그런데 진도에서 왜 검정벼를 많이 해요?}

10301. # 주로 이부라기 검정나락 고장입니다. {주로 이 마을이 검정벼 고장입니다.}

10301. @ 이러케 해 왜 여그 머 땅이 그러케 조은 {이렇게 해 왜, 여기, 뭐 땅이 그렇게 좋은}

10301. # 예 마:라자면 이 우리 부라기 검정나락 검정쌀 고자기요 바로. {예, 말하자면 이 우리 마을이 검정벼 검정쌀 고장이요('고작'은 어떤 물건이 많이 나거나 유명한 곳), 바로.}

10301. # 그라이~까 주로 검정쌀. {그러니까 주로 검정쌀.}

10301. @ 언:제부터 그러케 해썸니까 검정싸를?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검정싸를?}

10301. # 한: 거:이 십:년 되야쓰꺼시오. {한, 거의 십 년 되었을 것이요.}

10301. @ 아 그레썸니까? {아, 그랬습니까?}

10301. # 예 그런데 십:년도 더데야꺼제? {예, 그런데 십 년도 더 됐겠지?}

10301. #1 더 데야꺼썸. {더 됐썸소.}

10301. # 그: 검정쌀 종자가 우더리 학씨리는 모르제마는 거:제 싸라미 중국 강강가가꼬 그 종자를 쪼간 가꼬와뜨라게. {그 검정쌀 종자가 우리들이 확실히는 모르지마는 거제 사람이 중국에 관광 가가지고 그 종자를 좀 가지고왔더라고 해.}

10301. @ 중국씨요? {중국서요?}

10301. # 그레가꼬 인자 하기 시작항거신데. {그레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인데.}

10301. # 마:라자면 인자는 만생종뽀마 아이~라 조:생종도 이꼬 중생종도 이꼬. {말하자면 이제는 만생종뿐만 아니라 조생종도 있고 중생종도 있고.}

10301. # *** 검정나라기 여:러가집니다. {*** 검정벼가 여러가집니다.}

10301. @ 엔:나레는 다라 달라쥬요, 나락 그 종 종:뉴가. {옛날에는 달랐지요, 벼, 종류가.}

10301. @ 지금 가튼 동진 이로가 아니라. {지금 같은 동진 1호가 아니라.}

10301. # 예, 엔:나레는 달라쥬요. {예, 옛날에는 달랐지요.}

10301. @ 어:땡거뜨리 이씨씨요 엔:나레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10301. @ 기영나시능게 이썸니까 엔:날?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옛날?}

10301. # 가마이꺼라. {가만 있자.}

10301. @ 밤만조키로 이름 낭건 머 머요? {밤맞 좋기로 이름난 거 뭐 뭐예요?}

10301. # 기여기 잘 안납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10301. # 늘궁께. {늘으니까.}

10301. # 이:저네 워낙 오래데야나서. {이전에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10301. # 시시방은 주로 아라주기로 동진 이로. {지금은 주로 알아주기로 동진1호.}

10301. # 이렇거슬 아라줍따. {이런 것을 알아줍디다.}

10302. @ 그러면 인제 그 나락 농사 지을때 고 처음부터 함번 쪽: 이러케 지, 지금처럼 기계로 할 하실때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벼농사 지을 때 그것 처음부터 한번 쪽 이렇게 지금처럼 기계로 하실 때 말고.}

10302. @ 엔:나레 소느로 실제로 할때는 어떤 시그로 헨:능가? {옛날에 손으로 실제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10302. # 엔:나레는 우덜 알기에 소로 노를 양가요, 소로? {옛날에는 우리들 알기에 소로 논을 갈잖소? 소로?}

10302. # 소로 강:께 체:소한도 소로는 한 니:부를 가라야데. {소로 가니까 최소한도 소로는 한 네 벌을 갈아야 돼.}

10302. # 지그든 기계로 함불 가라가꼬. {지금은 기계로 한 번 갈아가지고.}

10302. # 기계로 노:타리를 떼레서 해:봉께. {기계로 로타리를 때려서 해 버리니까.}

10302. # 놈빠닥 호기 기양 죽떼야부는데. {논바닥 흙이 그냥 죽처럼 되어 버리는데.}

10302. @ 로타리랑거슨 돌려버려요? {로타리란 것은 돌려버려요?}

10302. # 사리 썩:: 도라감시로 조사부요. {살이 썩 돌아가면서 마구 쪼어서 잘게 만들어 버려.('쪼다'는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찍어서 잘게 만드는 것을 뜻함)}

10302. @ 아 밀가루 반주가드시 막 그러. {아, 밀가루 반죽하듯이 막 그러}

10302. # 막, 예, 막 조사봅니다. {막, 예, 막 쪼어서 잘게 만들어 버립니다.}

10302. # 그 사리 질:게 이썸가꼬 학::도라감서 조사봉께 기양 덩어리가 이썸도 기양 죽떼야부러라. {그 살이 길게 있어 가지고 확 돌아가면서 쪼아 버리니까 그냥 덩어리가 있어도 그냥 죽처럼 되어 버려요.}

10302. # 그란데 엔:나레는 순:저니 소로 가라가꼬 하니까 텔쭈 이썸든 여:러 부를 가라사 부드러지거등이라, 마:라자면. {그런데 옛날에는 순전히 소로 갈아가지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벌을 갈아야 부드러워지거든요, 말하자면.}

10302. # 그레가꼬 백길 생가리 중가리 이까지 요러케 니:부를테:락 감:니다. {그레가지고 뱃길, 생갈이, 중갈이, 이까지 이렇게 네 벌을 대략 갑니다. }

10302. @ 아 고거시 이르미 다 이썸요? {아, 그것이 이름이 다 있어요?}

10302. # 예, 이르미테야썸. {예, 이름이 되었어.}

10302. @ 처 처으미 머:예요? {처, 처음이 뭐예요?}

10302. # 처:으미 {처음이}

10302. @ 아까 백길? {아까 뱃길?('뱃길'은 처음으로 하는 논갈이를 뜻함)}

10302. # 예, 백길 베탄다고. {예, 뱃길 배 탄다고.}

10302. @ 예? {예?}

10302. # 배판다고 백길. {배판다고, 뱃길.}

10302. @ 배를 따요? {배를 따요?}

10302. # 이: 놔빠다글 처:메 판다고, 마:라자면. {예, 논 바닥을 처음에 판다고, 말하자면.}

10302. # 그라고는 인자 그테:미 두불차 하능거 생:가리. {그리고는 그 다음이 이제 두 벌째 하는 것은 생갈이.('생가리'는 두번 째 하는 논갈이)}

10302. @ 생가리? {생갈이?}

10302. # 그 다으메는 중:가리. {그 다음에는 중갈이.('중갈이'는 세번 째 하는 논갈이)}

10302. @ 중가리. {중갈이.}

10320. # 그라고는 니:불차는 이까지. {그리고는 네 벌째는 이까지.('이까지'는 네번 째 하는 논갈이)}

10302. @ 이까지? {이까지?}

10302. # 예, 이까지라 하지요. {예, 이까지라고 하지요.}

10302. # 음: 그레가꼬는 인자 소가 씨:레로인자 이:중을 할라믄 씨:레라고 함:발 쪼까 모:떼꺼시오. {그레가지고는 이제 소가 씨레로 이제 이중을 하려면 한 발 조금 못 될 것ियो.}

10302. # 거가인자 동글동글한 이빠리 달려썰라. {거기에 이제 동글동글한 이빨이 달렸어요.}

10302. # 고노미로인자 소가 꼬꼬 밀:고 가지요, 소가 꼬꼬. {그것으로 이제 소가 끌고 밀고 가지요, 소가 끌고.}

10302. # 그레사 인자 더 여러가지 여러:불 가:능거슨 호기 부드러사 그노미 조:케 골라지제 그라나고 조케 골라지거썸니까? {그레야 이제 그 여러가지 여러 벌 가는 것은 흙을 부드러워야 좋게 골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좋게 골라지겠습니까?}

10302. # 양골라지지요. {안 골라지지요.}

10302. # 그레가꼬는 인자 딱: 골라가꼬. {그레가지고 이제 딱 골라가지고.}

10302. # 예:저네는 머 금비가 이썸 머:디썸? {예전에는 뭐 금비가 있소, 뭐 있소?}

10302. # 단수니 하능거슨 사네가 풀: {단순히 하는 것은 산에서 풀.}

10302. # 보메 풀 비여다가 노네다 여:초 {봄에 풀 베어다가 논에 넣지요.}

10302. @ 푸를 바로 너어버려요 아니며는? {풀을 바로 넣어 버려요, 아니면은?}

10302. # 예, 씨쿠자네 부드러운 푸를 비여다가 막 바로 여:요. {예, 썩히지 않고 부드러운 풀을 베어다가 막 바로 넣어요.}

10302. # 그라고 모자리 할라글 할 때는 여자드리 호무로 푸를 캐:서 고노를 몰러가꼬. {그리고 못자리 하려고 할 때는 여자들이 호미로 풀을 캐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10302. # 몰러아꼬 인자 모자리할 때다가 소로 씨:러가꼬는 고노를 허치고는 발로 그 풀을 점:부 불바썰요. {말려가지고 이제 못자리할 곳에다가 소로 썰어가지고는 그것을 흘뜨리고는('허치다'는 '흘뜨리다'의 방언형) 발로 그 풀을 전부 밟았어요.}

10302. # 인자 흑쏘그로 드러가게.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게.}

10302. # 불바가꼬는 소느로 맥썰를 딱: 치지요 마:라자면. {밟아가지고는 손으로 매끈하게 하지요('맥질'은 못자리를 손이나 판자 따위로 매끈하게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10302. @ 머 멀: 처요? {뭐 멀 처요?}

10302. # 요케 메끼:나이~ 메끼:나이~ 소이~로. {이렇게 매끈하게 매끈하게 손으로.}

10302. @ 아 메끼나이. {아 매끈하게}

10302. # 예 이러케 처. {예, 이렇게 처.}

10302. # 그레가꼬는 썬나라글 마:라자면 어느정('어느정'은 '어느 정도'의 뜻) 네:가꼬는 인자 물시러노코 안 이케 안 치요? {그레가지고는 뽕씨를 말하자면 어느 정도 내가지고는 이제 물을 실어 놓고 이렇게 치잖아요?}

10302. # 물씨러나쑤게 화:나니 베:지라 인자 요러케치면 씨거따.{물을 실어 놓았으니까 환하게 보이지요 이제 이렇게 치면 되겠다.}

10302. # 처가꼬는 어느정 초기 좀 크면 무를 빼:서 몰려야데라. {처가지고는 어느 정도 축이 좀 크면 물을 빼서 말려야 돼요.}

10302. @ 노네 무를 빼:서. {논에 물을 빼서.}

10302. # 예 왜냐 암빼면 떠부러, 나 썬나라기. {예, 왜냐 안 빼면 떠버려요, 뽕씨가.}

10302. # 소:게가 인자 아리차아꼬 처:메는 까랑전는데 . {속에 이제 알이 차가지고 처음에는 가라앉았는데.}

10302. # 초기 크기 시작하면 아리 인자 비:거등이라. {축이 크기 시작하면 알이 이제 비거든요.}

10302. # 꺼풀만 낭:꺼던. {껍질만 남거든.}

10302. # 그랑게 떠부러, 마:라자면. {그러니까 떠 버려요, 말하자면.}

10302. # 그라니깐 무덜빼:서 인자 하루나 몰려사 저도 살:라고 인자 흐게다 뿌렁구렁 주거덩이라. {그러니까 물을 빼서 이제 하루나 말려야 자기도 살려고 이제 흙에다 뿌리를 주거든요.}

10302. # 그라문 인자 그다으메는 무를 썰: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을 담아 놓지요.}

10302. # 마:라자면 그레가꼬 인자 키 모는 키:고. {말하자면 그레가지고 이제 모는 기르고.}

10302 # 역씨는 인자 키여논노를 아까 말:항거가치 인자 이:종할라문 씨:레로 싹:: 씨:러가꼬는 예 이:종얼하는데. {역시나 이제 길러 놓은 것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제 이종하려면 씨레로 싹 썰어가지고는 예, 이종을 하는데.}

10302. # 그 예:저네는 이런 상자도 아이~고 바로 놔빠다게다 모를 칭께 모를 뜯다하지요 뽕씨요 인자. {그 예전에는 이런 상자도 아니고 바로 논바닥에다 모를 치니까 모를 '뜯다'고 하지요, 뽕씨요, 이제.}

10302. # 마:라자면 이:종할라문. {말하자면 이종하려면.}

10302. @ 고거를 여기서 뜯다갑니까? {그것을 여기서 뜯다고 합니까?}

10302. # 예 무를 모 뜯다가지라, 그걸. {예, 물을 모 뜯다 하지요, 그것을.}

10302. @ 찌:그 곡썩 가떠니 모 찢다갑떠다. {저기 곡성 갔더니 모 찢다고 합디다.}

10302. # 아 그걸 찢다가요? {아, 그걸 찢다고 해요?}

10302. # 여기는 모 뜯다가지요. {여기는 모 뜯다고 하지요.}

10302. # 떠가꼬는 인자 지비로 딱:딱 묵씨요. {떠 가지고는 이제 짚으로 딱 묵씨요.}

10302. @ 모 뜯다. {모 뜯다.}

10302. # 무꺼서 인자 건저가꼬 이노를 인자 지게로 저다가 인자 노네다 안 치요? {뭍어서 이제 건저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게로 저서 이제 논에 치잖아요?}

10302. # 여그저그 인자 알:마께 그레가꼬는 여자가 데야뜯지 남자가 데야뜯지 주를 딱 떠:고는 인자 점:부 소니로 심:씨요, 마:라자면. {여기저기 이제 알맞게 그레가지고는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줄을 딱 떼고는 이제 전부 손으로 심지요, 말하자면.}

10302. # 시머가꼬 머 예:저네는 금비가 업썩께 어짖쑤업썩 그테로 인자 나라글 두능거여. {심어 가지고 뭐 예전에는 금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제 벼를 두는 거야.}

10302. # 할 거르미 업:썩 마:라자면 예:저네는. {할 거름이 없어, 말하자면, 예전에는.}

10302. @ 예, 그럼 아까 그 풀 가통걸 이러케 썩쿠고. {예, 아까 그 풀 같은 걸 이렇게 썩히고.}

10302. # 함번 인자 여:쓰니까 이:종해:가꼬는 풀 가통거 열:쑤가 업:썩요. {한 번 이제 넣었으니까 이종해가지고는 풀 같은 것 넣을 수가 없지요.}

10302. # 그라고 이:종하기 저네 사네서 보메 보미드와서 푸리 부드럽게 나는 노를 비여다 여:채. {그리고 이종하기 전에 산에서 봄에 봄이 들어와서 풀이 부드럽게 나는 것을 베어다 넣지.}

10302. # 빠썩 노른 안 데고. {억센('빠썩다'는 '억세다'의 뜻) 것은 안 되고.}

10302. # 그레가꼬 인자 농꼬랑예가 푸리 안 생하요? 바다게가 그러머 소니로 메:, 점:부. {그레가지고 이제 농꼬랑에 풀이 성하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손으로 매요, 전부. }

10302. # 고노르 놈메기 참 징하요. {그 놈의 논매기 참 힘들어요.('징하다'는 '징그럽다, 힘들다'의 뜻)}

10302. # 하여간, 그노를 점:부 메:고. {하여간 그것을 전부 매고.}

10302. # 인자 그 메루라고 인자 그: 충이 생기면 페:유를 사다가 한나는 아프로 텅임시로 페:유를 이러케 놔빠다게다가 가마이~ 떨체. {이제 그 떨구라고('메루'는 '떨구'의 방언형) 이제 그 해충이 생기면 페유를 사다가 하나는 앞으로 다니면서 페유를 이렇게 논바닥에 가만히 떨어뜨려.('떨치다'는 '떨어뜨리다'의 뜻)}

10302. # 그라문, 페:유가 썩: 버러가꼬 무루게가 썩: 안 보이요? {그러면 페유가 썩 번져가지고('떨다'는 '번지다'의 방언형) 물 위에 썩 보이잖소?}

10302. # 그라문 인자 쏘박가통거시로 나라글 시썩요, 품:는다고. {그러면 이제 쏘박 같은 것으로 벼를 썩지요, 품는다고(기름이 섞인 물로 벼의 잎이나 줄기 등을 썩는 일을 '품다'라고 한다.)}

10302. # 나라게가 충이 인는 뇌미 무레가 널쳐라 이거시여. {벼에 해충이 있는 것이 물에 내려뜨려라('널치다'는 '내려뜨리다'의 방언형) 이것이야.}

10302. # 널치라고 푸머. 물로. 푸르먼 그노미 안 널치요? {내려뜨리라고 품어. 물로. 품으면 그것이 내려뜨리잖소?}

10302. # 그라문 무루게는 페:유가 딱 까라저가꼬 이꺼덩. 지르미 버러가꼬 이썩. {그러면 물 위에는 페유가 딱 가라앉아 있거든. 기름이 번져가지고 있어.}

10302. # 그라문 그 충 몸뎡예가 지르미 머거불면 주끼 마려니쑤. {그러면 그 해충 몸뎡이에 기름이 먹어버리면 죽기 마련이지요.}

10302. # 그르케 충을 자버썩니다. {그렇게 해충을 잡았습니다.}

10302. # 그레가꼬 나라기 인자 거자 이그먼. {그레 가지고 벼가 이제 거의('거자'는 '거의'의 방언형) 익으면.}

10302. # 인자 가시를 하게테든 나까꼬와 인자 비지요. {이제 가을을 하게 되면 낫 가지고와 이제 베지요.}

10302. # 비여서 노네다 점:부 까라요. {베어서 논에다 전부 깔아요.}

10302. # 까라가꼬는 그 노를 메뎡기라고 지블 딱: 함무썩 무께. {깔아가지고는 그것을 메뎡기라고('메뎡기'는 짚단을 묶기 위해 짚으로 만든 끈) 짚을 딱 한 뭇썩 묶게.}

10302. # 양: 짹 꼬터리털 이서가꼬는 흐: 뽀 해:가꼬와서는 고노믈 묵찌요, 인자, 나라글.
{양쪽 끝을 이어가지고는 많이('흐뽀'은 '충분할 정도로 많이'의 뜻)) 해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묵지요, 이제, 벼를.}

10302. # 무껴서 지게로 인자 저오요, 지비로. {묵어서 지게로 이제 지고 오요, 집으로.}

10302. @ 뭐, 노네다 안 나두구요? {논에다 놔두지 않구요?}

10302. # 노네다 어:치케 뺏는데서 어:치게하거쑈? {논에다 어떻게 빠지는('뺏는'은 '빠지는'의 방언형) 데서 어떻게 하겠소?}

10302. # 이걸 지비로 저와야제. {이것을 집으로 지고 와야지.}

10302. # 지비로 저와서 우덜 나:키저네는 한나한나 요케 홀타딱함띠다, 마:라자면 한나한나. {집으로 지고와서 우리들 낱기 전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훑었다고('훑다'는 '타작하다, 훑다'의 뜻)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하나.}

10302. @ 하나. {하나.}

10302. # 그: 나락 이케 한나한나 이케 홀타쑈. {그 벼 이삭('이케'는 '이삭'의 방언형) 하나 하나 이렇게 훑었어.}

10302. # 그라니까 듣는말로 해서는 서루다 인자 시야네 추운뎡게 일치가이~ 가서 자리를 잡는다게, 이녁짜리를 따순데를. {그러니까 듣는 말로 해서는 서로 다 이제 겨울에 추울 때니까 일찍('일찍하니'는 '일찍'은 방언형)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해, 자기 자리를 따듯한 데를.}

10302. # 그레가꼬는 홀른데 수꾸라글 시여서 안 자빠질 쟁도면 설:참 멍는다게라우. {그레가지고는 홀는데('홀른데'는 '홀는데'의 방언형) 숟가락을 세워서 안 넘어질 쟁도면 결두리('설:참'은 결두리의 방언형) 먹는다고 해요. }

10302. # 그 엄:마나 하거쑈? {그 얼마나 하겠소?}

10302. # 하여간 나락뎡을 이케 땅에다 이케 헨:는데 홀튼 노믈 수꾸락 시여가꼬 안 자빠질 쟁도 데면 설:참 때가 텐다게. {하여간 벳단을('둥'은 '단'의 방언형)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했는데 훑은 것을 숟가락 세워서 안 넘어질 쟁도 되면 결두리 때가 된다고 해.}

10302. # 그 디:로는 어찌게 데안능가니 홀:테라고 요마나 너룽거시 가작찌 참:부 이 마라자면 이빨 세:다구만헤쓰 세:다구 이써가꼬는 고노메다 홀터쑈, 고노믈.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홀테라고 이만큼 넓은 것이 가지마다 전부 이 말하자면 이빨 사이만헤 사이 있어가지고는 그것에다 훑었어, 그것을.}

10302. @ 홀테라구? {홀테라고?}

10302. # 예. 홀테라고. {예, 홀테라고.}

10302. # 그 다크메는 족탁끼라고 탈고끼가 나와쑈. {그 다음에는 족탁기라고 탈곡기가 나왔지요.}

10302. # 고노믈 인자 발로 딛:늬시룽 인자 이노미 도라가는데 도라가는데가 사리 이써가꼬 나라글 가파데:면 나라글 떼레봉게 홀터지쑈. {그것을 이제 발로 디디면서('딛늬시룽'은 현재형 '딛는다'에서 채구조화 된 어간 '딛는-'의 활용형이다.) 이제 이것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데에 살이 있어가지고서 벼를 갖다 대면 벼를 때려 버리니까 훑어지지요.}

10302. # 고노미로 홀파가 인자 그디로는 겨웅기가 나오제. {그것으로 훑다가 이제 그 뒤로는 경운기가 나오지.}

10302. # 인자 마:라자면 나락 타:자가는 기계가 나와서 인자 기계다 영:께 바로 물고드러가서 딱 안 홀타지요? {이제 말하자면 벼 타작하는 기계가 나와서 이제 기계에다 넣으니깐

바로 물고 들어가서 딱 훑어지잖아요?}

10302. # 그라고 인자 그디로는 마:라자면 콤바이~라고 그거시 바로 나락 놔빠다게서 비고 안 텅기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말하자면 콤바인이라고 그것이 바로 벼 논바닥에서 베고 다니잖아요?}

10302. @ 음 움겨올꺼또 업:씨? {움겨 올 것도 없이?}

10302. # 예, 지금 현:시데 인자 켈: 발팔할때로 발팔해씨요, 마라자면. {지금 현 시대 이제 제일 발달할 대로 발달했지요, 말하자면.}

10302. # 그레가지고 나라글 열:마를 해:뜯지 하든 덕씨게다 인자 몰려야 데요. {그레가지고 벼를 얼마를 했든지 하면 멍석에다('덕썩'은 '멍석'의 방언형) 이제 말려야 돼요.}

10302. # 인자 멍서기라냐 어짜냐. {이제 멍석이라냐 어짜냐.}

10302. @ 여기 말로는 덕씨기라고. {여기 말로는 덕석이라고}

10302. # 여그성 말로 덕씨기제. {여기 말로 덕석이이지.}

10302. @ 덕씨기지요. {멍석이지요.}

10302. # 물리가꼬는 인자 도:구떼로 거놈 머글랑께 찌여야 데요. {말려가지고는 이제 절굿공이로 그것 먹으려니까 찼어야 돼요.}

10302. # 쟁미끼가 업:쓰니까. {정미기가 없으니까.}

10302. # 도:구떼로 찼라든 징아요, 그걸. 징아에도 안 찌여싱. {절굿공이로 찼으려면 힘들어요, 그것. 징그럽게도 안 찼어져.}

10302. # 서:투른 사라든 네:쳐지고 베까트로. {서툰 사람은 내쳐지고 밖으로.}

10302. # 그레가꼬 쪼간 찌여가꼬는 또 치로 까불라가꼬 또 찌:코. {그레가지고 조금 찼어가지고는 또 키로 까불러가지고 또 찼고.}

10302. # 그러케 해서 바블 해:머꼬 사라썸니다, 야:튼. {그렇게 해서 밥을 해먹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10302. @ 어, 어떤 데서는 바블 헐 때마다 찌여따그래요. {어, 어떤 데서는 밥, 밥을 할 때마다 찼었다고 그래요.}

10302. @ 아, 다 찌여나:둥게 아니라 지금 이러케 항 가마니 찌여. {아, 다 찼어 놓아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한 가마니 찼어.}

10302. # 어:찌게 그때는 그런 때는 아무러지 죽꼬살고 찼는데도 업:마나 찌여서 냉가 노커쑈? {어떻게 그 때는 그런 때는 아무래도 죽고살고 찼는대도 얼마나 찼어서 남겨놓겠소?}

10302.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0302. @ 니까 오늘 머글꼐 찌거서. {니까, 오늘 먹을 것 찼어서 }

10302. # 예, 그런 정도지요, 마라자면. {예, 그런 정도지요, 말하자면.}

10302. # 그라이~께 예:전 어른드리 고생 마이~ 하고 사라찌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요, 우리나라.}

10302. # 일본놈 소꾸기로 데야가꼬 하여간 발찌는 모:다제. {일본놈 속국으로 되어가지고 하여간 발전은 못하지.}

10302. # 마랄꺼업씨 고생 마이~ 하고 사라썸니다. {말할 것 없이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1"

꺼불까? {꺼버릴까?}

너무 뜨겁따. {너무 뜨겁다.}

10303. @ 그: 까, 모, 이, 뭐, 이:중할 때 이:중한다고 그러서쪄요이~, 이:중할 때. {그러니까 모, 이중할 때 이중한다고 그러셨지요, 이중할 때.}

10303. @ 고걸, 인제, 저, 아까 씨:레에도 말:쓰를 해주셔쪄. {그것을 이제, 저, 아까 씨레에도 말쓰를 해주셨고.}

10303. @ 아, 그러케 헐는데. {아, 그렇게 했는데.}

10303. @ 지금 여기서는 씨:레로 주로 고른다고 그러서쪄요. {지금 여기서는 씨레로 주로 고른다고 그러셨지요?}

10303. # 그러치요, 그런 때, 소:가 꼬쪄 예. {그렇지요, 그런 때 소가 끌고.}

10303 @ 그리고 어, 그, 이케, 주를 자바가지고 사람드리 모를 심:는다고 그러서쪄요? {그리고 그 이렇게 줄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심는다고 그러셨어요?}

10303. # 예, 양:짜게서 줄, 줄잠는 사라미 따로 이쪄요, 남자가. {예, 양쪽에서 줄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남자가.}

10303. # 그레가꼬 인자 논, 요 놀비든 놀비 요쪽 까서 저쪽 까서 헤,까, 서가꼬 짹뻐기에 다 인자 가머가꼬. {그레가지고 이제 논, 이 넓이면 넓이 이쪽 가서 저쪽 가서 서가지고 작대기에다 이제 감아가지고.}

10303. # 딱: 쪄든 인자 그 주레가 점:부 꼬시 이쪄니다. {딱 쪄으면 이제 그 줄에 전부 쪄이 있습니다.}

10303. # 줄 보세쪄 그 줄? {줄 보셨소, 그 줄?}

10303. @ 엔:날 어릴때 벤 기여기 납니다. {옛날 그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10303. # 아, 보고싶. {아, 보고 싶.}

10303. @ 먼 고,고동가통 거이 달려이뻐거 가뻐데. {뭇 고동 같은 것이 달려 있던 것 같은데.}

10303. # 보:고시프면 이따 네가 베:쪄시다, 우리 지비 이쪄. {보고 싶으면 이따 내가 보여주쪄소.('-음시다'는 '-쪄습니다'의 뜻) 우리집에 이쪄.}

10303. @ 예, 이쪄, 아시게쪄니. {예, 있어, 아시쪄습니다.}

10303. # 그랑게 베:, 베:쪄시다. {그러니까 보여, 보여주쪄소.}

10303. #1 우리 그제 이쪄? 그거시. {우리 아직('그제'는 '그때'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아직'의 뜻) 이쪄? 그것이}

10303. # 잉, 이쪄. {응, 있어.}

10303. # 그 줄: 꼬딘는디다 점부 싱거쪄요. {그 줄 쪄 있는 데다 전부 심었지요.}

10303. @ 실 그, 쪄, 꼬지라구 그레요, 쪄? {실, 그 쪄 쪄이라고 그레요? 쪄?}

10303. # 영, 꼬시라 하지요. {영, 쪄이라 하지요.}

10303. # 인자 마라자면 쪄시니까, 쪄시. {이제 말하자면 표시니까, 표시.}

10303. # 그라든 양:짜게 선는 사라미 보든 다 안 시머쪄? {그러면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든 다 심쪄왔소?}

10303. # 시든 사라든 인자 허리 아퐁게 스제. {심은 사람은 이제 허리 아프니까 서지.}

10303. # 마라자면 어찌게 스지마:라게도 스지라, 허리 아퐁게. {말하자면 어떻게 서지 마라고 해도 서지요, 허리 아프니까.}

10303. # 다: 스든 인자 딱 어:이 하고는 양:짜게서 드러서 또 앵게노요. {다 서면 이제 딱 '어이' 하고는 양쪽에서 들어서 또 옮겨 놓소.}

10303. # 그럼 또 싱:쪄. {그럼 또 심고.}

10303. @ 그, 줄 잡는 사라미 제:일 떠나건데요? {그 줄 잡는 사람이 제일 편하겠네요?}

10303. # 사:시른 그러치요. {사실은 그렇지요.}

10303. # 사:시른 젤: 펜치요. {사실은 제일 편하지요.}

10303. # 줄띠 자븐사라미 젤: 펜치요. {못줄('줄띠'는 못줄을 가리킨다) 잡는 사람이 제일 편하지요.}

10303. # 그라고 인자, 모시로 간다고 남자 한나 뒤에, 그 모 심:는 사람 뒤에 요:리저리 뎅임시로 모 엄:는디다 그걸 잔 가따주고.{그리고 이제 모 세우러('시:다'는 '세우다'의 방언형) 간다고 남자 한 명 뒤에 그 모 심는 사람 뒤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 없는 데다 그것을 조금 갖다주고.}

10303. # 남:는 디는 또 이러케 치:네고, 고러케 하조. {남는 데는 또 이렇게 치우고('치네다'는 '치우다'의 방언형) 그렇게 하지요.}

10303. @ 그런 사라미 또 이씨요이~?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10303. @ 그, 그럼 그사라물 며:한다 그레요? {그 그럼 그 사람을 뭐한다고 그레요?}

10303. # 그: 모시중한다 그러지요. {그 모시중한다 그러지요.}

10303. @ 모시중? {모시중?}

10303 # 시:중 {시중}

10303. @ 시:중한다고? {시중한다고?}

10303. @ 아, 모 시:중한다고? {아, 모 시중한다고.}

10303. # 게, 우덜 알:기에도 어려서 보면 부:자 사라문 모암시로 세:북치고 모암니다, 북짱구 침시로. {우리들 알:기에도 어려서 보면 부자 사람은 모내기 하면서 쇠북 치고 모내기 합니다, 북장구 치면서.}

10303. @ 힘드니까 노래 들려주면서. {함드니까 노래 들려주면서.}

10303. # 거:루카이~ 하지요. {거룩하게 하지요.}

10303. @ 그러치요이~. {그렇지요.}

10303. @ 지그든 인제 인제, 그런 줄 줄로 된 모 모는 인제 아나고 거방 기계로 인제 이:앙기로 기계로 자동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제 그런 줄 줄로 했던 모는 이제 안 하고 거의 기계로 이제 이앙기로 기계로 자동으로 하는 거지요?}

10304. @ 그 다으메 노네 무를 델:라면 어떤 시그로 무를. {그 다음에 눈에 물을 대려면 어떤 식으로 물을 .}

10304. # 예:저네는 어쩔 쭈가 엽:찌요. {예전에는 어쩔 수가 없지요.}

10304. # 마:라자면 예:저네 물 마:이~ 나고 안 모른노니 젤: 상토로 가고 어이서. {말하자면 예전에 물 많이 나고 안 마르는 논이 제일 상토로 가고 어디서.}

10304. @ 마:니 날 논자체에서 물. {많이 논 자체에서 물.}

10304. # 소:게서 무리 나는 땅소게선 나야 노니 안 모르지요. {속에서 물이 나는 땅 속에서는 나야 논이 안 마르지요.}

10304. # 그라고 어이서 물 함빵을 나도아나고 올때도 엽:꼬하는 노는 젤: 하:토 박토로 그러케 헤씁니다. {그리고 어디서 물 한 방울 나지도 앓고 올 데도 없고 하는 논은 제일 하토 박토로 그렇게 했습니다.}

10304. # 그런데 시데가 바까저씨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10304. # 시방은 소:게서 물라고 그런 조은 노는 제일 하:토로 가고. {지금은 속에서 물 나고 그런 좋은 논은 제일 하토로 하고.}

10304. # 마라자면 물 함빡울도 안 나고 이런 노는 상:토로 가는데. {말하자면 물 한 방울도 안 나고 이런 논은 상토로 가는데.}

10304. # 웨냐 소:게서 땅 소게서 무리 난 노는 스 처제 빠저요, 빠저, 마:라자면. {왜냐하면 속에서 땅 속에서 물이 나는 논은 첫째 빠저요, 빠저. 말하자면.}

10304. # 여까장 빠:꼬 장비가 드러가든 빠저부러. {여기까지 빠지고 장비가 들어가면 빠저버려.}

10304. @ 그러치 기계가 너무. {그렇지, 기계가 너무 .}

10304. # 예, 그랑께 처제 이:라기가 성가시지라. {예 그러니까 첫째 일하기가 힘들지요.('성가시다'는 '힘들다'의 뜻)}

10304. # 그라지마는 어이서 물 함빡울 안 나고 이런 노는 빠:또 아나고. {그렇지마는 어이서 물 한 방울 안 나고 이런 논은 빠지지도 않고.}

10304. # 지금 무리 여름:네 농사지슬 무리 읍니다, 마:라자면. {지금 물이 여름내 농사 지을 물이 읍니다, 말하자면.}

10304. @ 수로 수로로 이러케. {수로 수로로 이렇게.}

10304. # 예, 수로로 사:방이로. {예 수로로 사방으로.}

10304. # 길 잘데야제, 수로 잘데야제. {길 잘 되어 있지, 수로 잘 되어 있지.}

10304. # 물 게:소기 오제. {물 계속 오지.}

10304. # 농사 지끼가 아::주 조치요. {농사 짓기가 아주 좋지요.}

10304. # 그라이~까 예:저네는 이 턴노니 조:타고 그레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텃논이('텃논'은 마을 곁에 있는 논) 좋다고 그랬어요.}

10304. # 턴노니라하든 동:네 저테. {텃논이라 하면 동네 곁에.}

10304. # 웨냐 동:네 지붕엔들 어디 물 비 쪼까노면 얼:름 무리 그 노느로 안 드러가거쑈? {왜냐하면 동네 지붕엔들 어디 물 조금 오면 얼른 물이 그 논으로 들어가잖겠소?}

10304. # 그란데 시방은 젤: 하토에라. {그런데 지금은 제일 하토예요.}

10304. # 웨냐 쥐달라들제 그런 무로면 건:다리가 나서 나라기 안조체. {왜냐 쥐 달려들지, 그런 물 오면 건다리가(오염된 물처럼 건 물에서 자라난 곡식을 가리킨다. 이런 곡식은 옷자랄 뿐 아니라 열매도 부실하다.) 나서 벼가 안 좋지.}

10304. @ 그러치 오염되고 ***이꼬. {그렇지, 오염되고 ***있고.}

10304. # 예,오염데야가꼬 그라니까, 덜 조치요, 마:라자면. {예, 오염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덜 좋지요, 말하자면.}

10304. @ 그니까 지그미야 인자 물 물 데능거 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물물대는 것 일도 아니,}

10304. # 농사 진는데 무래 데에서는 절:때 구애를 암바꼬 지썬니다. {농사 짓는데 물에 대해서는 절대 구애를 안 받고 짓습니다.}

10304. @ 근데 엔:나레는 그게 엄:청나게 어려워짜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10304. # 이 우리 마으리 가무물 젤: 타쏘, 마:라자면. {이 우리 마을이 가뭄을 제일 탕소, 말하자면.}

10304 @ 귀하다고 ****(귀하다고 ****)

10304. # 예, 보이, 선생님 보다시피 어디가 사니 사니 이썬야 무리 이썬요. {예, 선생님 보다시피 어디가 산이 산이 있어야 물이 있지요.}

10304. # 사니 엄:는데. {산이 없는데.}

10304. # 그라니까 지그른 정:기가 드와가꼬 지하수를 파서 땅 소게서 무를 뽑바올리고 그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땅 속에서 물을 뽑아올리고 그러는데.}

10304. # 예:저네는 순:저니 세:메서 나는물로 식쭈를하니. {예전에는 순전히 샘에서 나는 물로 식쭈를 하니}

10304. # 쪼까만 가물면 식쭈:가 딸려가꼬. {조금만 가물면 식쭈가 달려가지고.}

10304. # 여자드른 밤::세 자물 안 자고 무를 세:메서 떼:라날려쑤. {여자들은 밤새 잠을 안 자고 물을 샘에서 고이는 족족 훑어 날렸소.('떼:루다'는 물이 부족한 샘에서 물이 고이는 족족 훑어 퍼내는 것을 가리킨다.)}

10304. # 떼:린다는 거슨. {퍼나른다는 것은.}

10304. @ 거기 그 세:미 그 공동 세:미 이쭈니까? {거기 그 샘이 공동샘이 있습니까?}

10304. # 예, 여러 반디 이쭈요. {예, 여러 군데('반디'는 '군데'의 방언형) 있지요.}

10304. # 지금 선생님 시가니쭈면 보십쭈요마는 우리 큰 세미라고 요 세:믄. {지금 선생님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마는 우리 큰 샘이라고 이 샘은.}

10304. # 도:기로 여보 여보단도 굴:근 도기로 딱 짜저쭈요. {돌로 이보다도 굵은 돌로 딱 짜졌어요.}

10304. # 바닥또 이케 데고. {바닥도 이렇게 되고.}

10304. # 여보단도 굴:근 노미로 짜전는데. {이보다도 굵은 것으로 짜졌는데.}

10304. # 쪼:미테 바닥 그 두름박 두름박 그니까는 도:기 이케 다라저쭈요. {저 밑에 바닥 그 두레박 두레박 그러니까는 돌이 이렇게 닳아졌어요. }

10304. @ 아, 두름바게 부디쳐가꼬. {아, 두레박에 부딪혀가지고.}

10304. # 예, 또 밤:며네 수:리 요케 선는데 요 귀팅이는 예:전 웅:구동우 논 자리가 요리케 나 파저쭈. {예, 또 반면에 주둥이 가장자리 둘레가('술:'은 항아리 따위의 주둥이의 가장자리 둘레를 가리킨다.) 이렇게 섰는데 이 귀통이는 예전 웅기동이 놓은 자리가 이렇게나 파졌어.}

10304. # 그라믄 메첼러니 데야꺼소? 순:저니. {그러면 몇 천 년이 되었겠소? 순전히}

10304. # 그라이~까 우리 마으른 무리 딸리니까 쪼까만 가물들면 들:썰미로 드:레 저론디로 무를 마이~ 질:로 텅이꼬.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물이 달리니까 조금만 가물들면 들에 파 놓은 샘으로('들샘'은 들에 파 놓은 샘을 뜻함.) 들에 저런 데로 물을 많이 길러 다니고.}

10304. # 고길 우:똥네로도 텅이고 그레쭈. {고길(마을이름) 웃동네로도 다니고 그랬어.}

10304. # 그런데 시방은 지하수를 파가꼬 땅소게서 정:기로 뽑바올리제.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땅 속에서 전기로 뽑아 올리지.}

10304. # 마:라자면 여그 강에서 바로 농사 진는 무로제. {말하자면 여기 강에서 바로 농사 짓는 물 오지.}

10304. # 그랑게 무레는 한:나 구애를 암바꼬 삼:니다. {그러니까 물에는 하나 구애를 안 받고 삼니다.}

10304. @ 그러지요이~, {그러지요.}

10304. @ 근데 인제 그러면 엔:나레 인제 무리 노네 무를 텔:라면 그러면 무슨 방버브로 댐: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옛날에 이제 물이 논에 물을 대려면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댐니까?}

10304. @ 머, 인제 그 물 기리 이썬꺼 아넝니까? {뭐 이제 그 물길에 있을 것 아넝니까?}

10304. # 물길 업:찌요, 이:저네는. {물길 없지요, 이전에는.}

10304. @ 그러면 하느레서 {그럼 하늘에서}

1030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04. @ 비올 때만 기다려요? {비올 때만 기다려요?}

10304. # 아, 그러머니요. {아, 그럼요.}

10304. # 산: 단순니 천수다비라고 지, 하느레서 떠러지는 무리여야 데. {산 단순히 천수답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어야 돼.}

10304. # 또 밤:며네 우게서 물 네레가꼬 우젠 노니 무리 차야 미트로도 물 주제. {또 반면에 위에서 물내려가지고 웃논이 물이 차야 밑으로도 물 주지.}

10304. # 인자 베 네리라고 주제 이녕논 물 안 찬는 데 주거쏘? {이제 내리라고 주지, 자기 논 물 안 찬는데 주겠소?}

10304. # 그라랑커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0304. # 예:저네 경지정니 아나고 그랄때는 어디가. {예전에 경지정리 안 하고 그릴 때는 어디에.}

10304. # 머 물 오는 또리이꼬 머:시이맘니까? {뭐 물 오는 도랑('똥'은 '도랑'의 방언형) 있고 무엇이 있답니까?}

10304. # 저:너업찌라. {전혀 없지요.}

10304. # 그라이~까 천수다비라고 순:저니 하느레서 비와서 인자 떠러저사 이: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천수답이라고 순전히 하늘에서 비 와서 이제 떨어져야 이종을 하는데.}

10304. # 그랑게 우리 마으리 어떤 해는 저너 모를 모:단 해가 팍차썬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어떤 해는 전혀 모내기를 못한 해가 팍 찻었어.}

10304. # 그라고 데:락찌기로 바서 이:종때 이:종시기가 지그믐 더 빨리 하지마는 하:지 전후를 이:종시기로 안 자브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봐서 이종 때, 이종 시기가 지금은 더 빨리하지만 하지 전후를 이종시기로 잡잖아요?}

10304. # 그란데 {그런데}

10304. @ 좀 느네요이~, 지금보다이~. {좀 늦네요, 지금보다.}

10304. # 하:지가 넘:뜨러도 비 아노고 그라믐 이:종 모데요. {하지가 넘더라도 비 안 오고 그러면 이종 못해요.}

10304. # 어이서 어이서 어터게 하거쏘?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하겠소?}

10304. # 그라이~까 우리덜 알기는 심:지여 모를 해:나 모짜리 해:나썬게 호무로 그 모를 떠다가 모른 데도 싱게 보고 그렌는데 모른 데 안 땀따, 안 데. {그러니까 우리들 알기는 심지어 모를 해봐 못자리를 해났으니까 호미로 그 모를 떠다가 마른 데도 심어 보고 했는데 마른 데는 안 땀다, 안 돼.}

10304. # 그라고 데:락 우리 마으른 모짜리때도 모짜리할 노네가 비가 아와서 파썬 몰라가꼬 이썬면 그노를 덩구로 인자 곱베라고 고 노미로 인자 뛰디러서. {그리고 대략 우리 마을은 모내기할 때도 모내기할 논에 비가 안 와서 바썬 말라있으면 그것을 흙덩이로('덩구'는 '흙덩이'의 방언형) 이제 곱방베라고('곱베'는 '곱방베'의 방언형) 그것으로 이제 두들겨서.}

10304. @ 곱베요? {곱방베요?}

10304. # 곱베라고, 통나무 요마나한논 여찌러구나 찢라가꼬 가운데 구녁 똥러가꼬 짜루자루 이썬요. {곱방베라고, 통나무 이만한 것 이 길이나('지러구'는 '길이'의 방언형) 찢라가

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자루 있어요. }

10304. # 고노미로 인자 이 덩구를 뚜두러. {그것으로 이제 이 흙덩이를 두들겨.}

10304. # 뚜두러가꼬 모른데다가 마:라자면 찢나라글 허치고. {두들겨서 마른 데다가 말하자면 뽕씨를 흘뜨리고.}

10304. # 모짜리를 하면 인자 흐기로 덩꼬는 우게다 풀 그 바까시나 건:너서 인자 캐:다가 물러가꼬 모자리 할라고 데비에 둔노를 인자 그 우기로 더퍼노치라. {못자리를 하면 이제 흙으로 덮고는 위에다가 풀 그 바깥이나 건네서 이제 캐다가 말려가지고 못자리 하려고 대비해 둔 것을 이제 그 위로 덮어놓지요.}

10304. # 그라든 인자 모른 데서 저도 살:라고 수니 나옴따다. {그러면 이제 마른 데서 저도 살려고 수니 나옴따다.}

10304. # 그러케도 마:이~ 해:썩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10304. # 우리 마으른 위낙 무리 귀:한 데라나서. {우리 마을은 위낙 물이 귀한 곳이라서.}

10304. @ 그러면 머 아래에서 무를 퍼가지고 우:로 올리거나 이렇 거슨. {그러면 뭐 아래에서 물을 퍼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이런 것은.}

10304. # 업:썩요.{없지요.}

10304. # 머 기계가 이썩? {뭐 기계가 있소?}

10304. # 양수기가 이썩?. {양수기가 있소?}

10304. @ 엔:나레 그 발로하면 저네 ****. {옛날에 그 발로하면 전에 ****}

10304. # 아, 수리차, 수리차도 아마 유교나기 저네 마:라자면 유교나기 한 오룽년 한 십:년저네나 요 수리차가 드와썩꺼시오. {아, 수리차, 수리차도 아마 6.25 나기 전에 말하자면 6.25 나기 한 5,6년 한 10년 전에나 이 수리차가 들어왔을 것이요.}

10304. # 마:라자면 이,그 처일~럼하면서 처일~럼하면서 드와썩. {말하자면 이 그 천일엽하면서 천일엽하면서 들어왔지.}

10304. # 그저네는 수리차라는 거또 모르고. {그 전에는 수리차라는 것도 모르고.}

10304. @ 수리차는 그러면 노네 물대기보다도 천일려말 때 가,저, 바닷물 퍼올 때. {수리차는 그러면 논에 물 대기보다도 천일엽할 때 저 바닷물 퍼올 때.}

10304. # 그거시제, 노네 물텐다능거슨 생각또 아네썩요, 마:라자면. {그것이지, 논에 물 텐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지요, 말하자면.}

10304. # 그라고 어디가 푸물 때가 이따요, 무리? 업썩. {그리고 어디에 품을 데가 있대요 물이? 없어.}

10304. @ 여기는 아예 {여기는 아예}

10304. 아예. {아예.}

10305. @ 아까 그 이:종하면 이:종하고 나서 노네 푸리 풀나면 인제 맨:다고 하셔짜나요, 메빠니나 항가요? {아까 이종하면 이종하고 나서 논에 풀이 풀나면 이제 맨다고 하셨지요, 몇 번이나 하나요?}

10305. # 데:락 마이~ 메는 사라든 시:번까양 메:라. {대략 많이 매는 사람은 세 번까지 매요.}

10305. # 그란데 순:저니 나라근 이케 양커썩? 데:락 여르미요, 여르메, 그런 나락 쉼다구 가서 이 세:다구 세:다구 이케 커꺼둥이라. {그런데 순전히 벼는 이렇게 컸잖소? 대략 여름이요, 여름에 그런 벼 사이에('세:다구'는 '사이'의 방언형) 가서 사이 사이 이렇게 컸거든요.}

10305. # 마:라자면 푸를 인자 물렁물렁함께, 궁는데 나라기 모가지 이런데 글케 얼:마 쓰리요 따른 흘리제. {말하자면 풀을 이제 물렁물렁하니까, 굽는데 벼가 목 이런 데 굽혀 얼마나 쓰리요? 땀은 흘리지.}

10305. # 징하지라 징에. {힘들지요, 힘들어.}

10305. @ 그 남자드리 극썸 극썸니까? {그 남자들이 굽습니까?}

10305. # 예,주로 남자드리 마:이~ 메:지요, 그건. {예, 주로 남자들이 많이 매지요, 그것은.}

10305. # 여자드른 바슬 마이~ 메:고. {여자들은 발을 많이 매고.}

10305. @ 아, 남자가 바슬 메:구요? {아, 남자가 발을 매고요?}

10305. @ 그러면 그거 처:음메:고 또 그거 이르미 이썸니까, 메, 함벌 멘:다. {그러면 그것 처음에 매고 또 그것 이름이 있습니까, 한 벌 맨다.}

10305. # 함불 두:불, 세:불 이케 말하지요. {한 벌, 두 벌, 세 벌 이렇게 말하지요.}

10305. @ 예,그래요이~. {예, 그래요.}

10305. @ 그러면 함불 뭇: 때는 그냥 소느로 극. {그러면 한 벌 뭇: 때는 그냥 손으로 굽.}

10305. # 어찌거나 소느로 하지요, 항상. {어쨌든지 손으로 하지요, 항상.}

10305. @ 두 두:불도 그러구요? {두, 두 벌도 그러고요?}

10305. # 아, 그러머이~라. {아, 그럼요.}

10305. # 다른 도:리가 업:췌. {다른 도리가 없지.}

10305. @ 호무나 이렇거 안 써요? {호미나 이런 거 안 써요?}

10305. # 예, 이거 마:라자면 어디는 호무로 이케 해서 딱:딱 어푼다갑떠다. {예, 이거 말하자면 어디는 호미로 이렇게 해서 딱딱 얹는다고 함디다.}

10305. # 어푼다 하더마, 호글. {얹는다 하더구면, 흠을.}

10305. # 그란디 우리게는 어푼 녀싸는 업:꼬 주로 소니로 기양 망 뻬:떠다. {그런데 우리 쪽은 얹은 역사는 없고 주로 손으로 그냥 막 뻬디다.}

10305. @ 소느로 자바뜯능구뇨. {손으로 잡아뜯는군요.}

10305. # 인자 뜯능거보단도 뜨드면 다시 머:당께. {이제 뜯는 것보다도 뜯으면 다시 뭐 하니까.}

10305. @ 뿌리체 뽀바버려요? {뿌리체 뽑아 버려요?}

10305. # 예, 이케 물렁물렁함께 소니로 글그문 뽀바지지요. {예, 이렇게 물렁물렁하니까 손으로 굽으면 뽑아지지요.}

10305. # 그라이~까 인자 무레다 씨쳐저서 인자 푸른 소네가 낭:꼬 호근 인자 씨쳐저서 머:다고 그라제. {그러니까 이제 물에다 씻어져서 이제 풀은 손에 남고 흠은 이제 씻어져서 뭐 하고 그러죠.}

10305. @ 그라면 인제 제:일 마지망 뭇: 때 그거뽀고 머:라고 이르믄 부릉게 이썸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뭇: 때에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이름 을 부른 것이 있습니까?}

10305. # 마중메. {마지막 매}

10305. @ 풀 풀 다 메:따 헐 때. {풀, 풀 다 땀다 할 때.}

10305. # 맘:무리라 하능 거이지라,맘:물. {'맘물'이라 하는 것이지요, '맘물'('맘:물'은 마지막 매는 김매기로서 '마무리'의 방언형)}

10305. @ 맘:무리라 그람니까? {아, '맘물'이라고 합니까?}

10305. # 마지막이라고 맘:무리라 하능거이제. {마지막이라고 '맘물'이라 하는 것이지.}

10305. @ 예, 맘:물. {예, '맘물'.}

10305. @ 그러면 어, 노는 그 정도로 하,하계썅니다, 논 농사 진:능 거슨. {그러면 어, 논은 그 정도로 하썅니다, 논 농사 짓는 것은.}

10305. # 그라고 우리 마으리 바시 마:나고 노는 아::주 저거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밭이 많고 논은 아주 적썅니다.}

10305. @ 아, 그레썅요? {아, 그랬어요?}

10305. # 마:라자면 이:백 한 한 사오시보 사:라미 사라도 노는 한 칠백 뚜락베끼 안 데야썅,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이백 한 사오십호 사람이 살아도 논은 한 칠 백 두락밖에 안 됐소, 그때, 당시에.}

10305. # 그레도 그도 농사 다: 지여가꼬 겐:무리 마:이~ 드려서 워니 터저불면 그테로 끈 나부려요. {그레도 그도 농사 다 지여가지고 갯물이 많이 들어서 독이('원'은 독을 뜻함) 터져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려요.}

10305. # 인자 지금가치 장비가 조:아가꼬 강,강물 모:뜨러오게 이 망는거슬 시라게 마가땀 마리제. {이제 지금같이 장비가 좋아가지고 갯물 못 들어오게 이 막는 것을 실하게 막았던 말이지.}

10302. # 예:전 어른드리 지게로 지고 뽕 파서 포도::시 물만 안드러오게 해:논 노미 떼에 따라서 터지는 수가 마이~ 이썅니다, 우리마으른. {예전 어른들이 지게로 지고 개펄('뽕'은 '개펄'의 방언형) 파서 겨우('포도시'는 '겨우'의 방언형) 물만 안 들어오게 해 놓은 것이 떼에 따라서 터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10305. # 터저불면 그해 농사는 그마니지라. {터져 버리면 그 해 농사는 그만이지요.}

10305. @ 그럼 어:터케 산:답니까? {그럼 어떻게 산답니까?}

10305. # 그마니제 어:찌게 하거썅? {그만이지, 어떻게 하썅소?}

10305. @ 아이고, 어터케 무꼬 밭: 무:꼬 어:터케 무꼬 사라? {아이고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

10305. # 글썅요, 그라이~까 단수니 몬:저 마:라다시 소금 귀:서 {글썅요, 그러니까 단순히 먼저 말했듯이 소금 구어서}

10305. @ 아, 소그므로. {아, 소금으로.}

10305. # 그거시로 연명하지요. {그것으로 연명하지요.}

10305. @ 그니까 소금하고 농사를 가치 헤꾸노. {그러니까 소금하고 농사를 같이 했군요.}

10305. # 예, 그랑께 농사는 소,소습짜고 보너비 주로 소그미여제. {예, 그러니까 농사는 소수고 본업이 주로 소금이었지.}

10305. @ 니까,소그미 이썅니까 농사가 좀 버려도.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니까 농사가 좀 버려도.}

2. 밭농사

10306. @ 그러면 인제 이 마으레서 마:니하는 이 밭농사 이얏, 이야기를 썅끔. {그러면 이제 이 마을에서 많이 하는 밭 농사 이야기를 썅끔.}

10306. @ 여기서는 주로 뭇: 심:습니까, 밭, 바테다가. {여기서는 주로 뭇 심습니까, 밭, 밭에다가?}

10306. # 그제네는 우더리 알기에 일제때는 일본놈드리 억:제를 하기를 모카, 미영, 주로 모카를 마이~. {그전에는 우리들이 알기에 일제 때는 일본놈들이 억제를 하기를 목화, 무명, 주로 목화를 많이}

10306. # 또 뽀마아이~라 모카를 레:몬 귀:한 도:널 다라보게 데고. {또 뿐만 아니라 목화를 내면 귀한 돈을 만져('닿다'는 '만지다'의 방언형) 보게 되고.}

10306. # 모카따면 인자 모카 팜메본다고. {목화 따면 이제 목화 판매 본다고.}

10306. # 와서 인자 금:사가 와서 팜메보고 그니로 다라서 인자 향그네 엄:마씩 인자 사고 그람니다. {와서 이제 검사가 와서 판매 보고 근으로 달아서 이제 한 근에 얼마씩 이제 사고 그람니다.}

10306. # 그런데 모카, 서:숙, 쿵, 우들 알기에는 주로 고 세:가지꼇 헤:따고 봄니다. {그런데 목화, 조, 쿵, 우리들 알기에는 주로 그 세 가지 것을 했다고 봄니다.}

10306. @ 머 보리나 밀 이렇거? {뭐 보리나 밀 이런 거?}

10306. 그리고 보리는 시야네. {그리고 보리는 겨울에.}

10306. # 시야네 인자 주로 보리를 점:부 밤마디 갈:지요. {겨울에 이제 주로 보리를 전부 밭마다 갈지요.}

10306. # 그라고 인자 보리카실 하고는 여름에는 모카, 서:숙, 쿵. {그리고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는 여름에는 목화, 조, 쿵.}

10306. @ 요세느뇨? {요새는요?}

10306. # 요세는 주로 데파를 마이~합니다, 여그는. {요새는 주로 대파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10306. @ 예, 아까 차타고 올라갈 때 그 머 차에다 실:코이떼요, 파. {예, 차 타고 올라갈 때 그 뭐 차에다 싣고 있더군요, 파.}

10306. # 예, 데파. {예, 대파.}

10306. # 금녀네 장녀네는 데파끄미 아::주 엄:써씀니다. {금년에 작년에는 대파 값이 아주쌌습니다.}

10306. @ 아, 사, 싸써썬요? {아 사, 쌌었어요?}

10306. # 예, 사다가 사가도 아나고 그라니까 농:여베서 마:이~ 돈:주고 막 처부러썬라. {예, 사다가 사가지도 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많이 돈 주고 막 처버렸어요.}

10306. # 트랙타로. {트랙터로}

10306. # 그런데, 금녀네는 데파끄미 상당히 조아씀니다. {그런데요, 금년에는 대파 값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0306. # 백평에 보:통 한 벵만원. {백 평에 보통 한 백만 원.}

10306. # 요로케 가썬요. {이렇게 갔어요.}

10306. # 그라고 인자 그 다으메는 주로 베:추를 소:순짜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로 배추를 소수 하는데.}

10306. # 주로 헤:나미 베:추 봉고장아니뎡자? {주로 해남이 배추 봉고장 아넵디까?}

10306. # 그라고 여그는 인자 데파를 주로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파를 주로 하고.}

10306. # 그라고는 고추심, 쪼까석 싱:꼬. {그리고는 고추 조금씩 심고. }

10306. # 서:숙::은 메싸람 아나고. {조는 몇 사람 안 하고.}

10306. @ 예, 요세는 잘 안 머그. {예, 요새는 잘 안 먹}

10306. # 예, 쿵: 소순짜로 인자 이넹 장:다물랑께. {예, 쿵 소수로 이제 자기 장 담그려고

하니까.}

10306. # 다름 거시아이~라 콩도 중국싸니 드로다봉께 가게기 업: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콩도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없어요.}

10306. # 그라이~까 이녀기 인자 농사는 농초네서 삼:시룽 사서 장다물 쑤 업:꼬 그랑께 이녀 장다물로미나 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농촌에서 살면서 사서 장 담글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장 담글 것이나 같지요.}

10306 @ 그래도 우리나라 콩 찬는 사라미 도시에는 꽤 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콩 찾는 사람이 도시에는 꽤 많은데요.}

10306. # 그러, 그러지요, 어찌게 되야꺼나 국산 우리나라 꺼시 조:치요, 마:라자면.{그렇지요, 어떻게 되었건 국산 우리나라 것이 좋지요, 말하자면.}

10306. @ 오느른 제가 거기 장, 시:장에 가보니까 대과, 요즈른 쪽과 자근과 그게 비싸데요. {오늘은 제가 거기 장, 시장에 가보니까 대과, 요즘은 쪽과 작은과 그것이 바싸더군요.}

10306. # 그란데 여그는 그 쪽과 아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쪽과 안 합니다.}

10306. @ 여그는 아나 안. {여기는 안 하 안}

10306. # 예, 여그는 쪽과 아납따다. {예, 여기는 쪽과 안 합니다.}

10306. # 쪽과 요세 나온노른 주로 그 하우스 아네소 벨:꺼요. {쪽과 요세 나오는 것은 주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벨거요.}

10306. @ 그 *** 핑:장히 비싸더라구요. {그 *** 핑장히 비싸더라고요.}

10306. @ 그러머는 요 인제 (3초) 그, 아까, 농사 그 바테서 진:는 거뜨른 말씀해주셨는데 콩 아까 콩 모과 콩 서:숙 그러서쪼이~? {그러면 요 이제 그 아까 농사 그 밭에서 짓는 것들은 말씀해주셨는데 콩 아까 콩, 목화, 콩, 조 그러셨지요? }

10306. # 예, 시방은 모카는 일:쩔 아납니다, 여그는. {예, 지금은 목화는 전혀 안 합니다, 여기는.}

10306. @ 저너? {전혀?}

10306. # 예, 저너업:썌요. {전혀 없어요.}

10306. # 일제때 하고는 그라고 일제때는 아날쑤도 업:썌요. {일제 때 하고는 그리고 일제 때는 안 할 수도 없어요.}

10306. # 웨냐른 그노미로 베: 미영베에서 온니버야제. {왜냐하면 그것으로 베 무명 해서 옷 입어야지.}

10306. # 고노미로 소:메서 이불더퍼야제. {그것으로 솜 해서 이불 덮어야지.}

10306. # 그라니까 주로 모카를 아날쑤가 업:썌썌요, 우더른. {그러니까 주로 목화를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들은.}

10306. @ 근데 소니 마:니 가자나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10306. # 그러머뇨. {그럼요.}

10306. @ 그 일리리 따고 머 이** {그 일일이 따고 뭐 ***.}

10306. # 모카 일리리 잉는 쪽쪽 그노미 함빠네 딱 하게 텐단마제 그거또 아니고. {목화 일일이 익는 족족 그것이 한번에 딱 하게 된단 말이지 그것도 아니고.}

10306. # 인자 이그른 딱: 피른 티 안 드러가게 인자 한:나한나 따:가꼬. {이제 익으면 딱 피면 티 안 들어가게 이제 하나하나 따가지고.}

10306. # 인자 물려가서 인자 미영베 하능거슨 이따가. {이제 말려서 이제 무명 하는 것은 있다가.}

10306. # 저 저분보고 무러보시씨요. {저 저분보고 물어보십시오.}

10309. @ 어,그러면 보리 우선 보리 주로, 얻, 아까 시야네 진:는다고 그러서씀까? {어 그러면 보리 우선 보리 주로 어떠 아까 겨울에 짓는다고 그러셨습니까?}

10309. @ 시야네, 그러면 인자 어터케,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한번 말쓰를 해주실랍니까, 보리. {겨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한번 말쓰를 해주시겠습니까, 보리?}

10309. # 보리:는 데:락찌기로 바서. {보리는 대략적으로 봐서.}

10309. @ 언:제, 언제 씨를 뿌립니까? {언제 언제 씨를 뿌립니까?}:

10309. # 보리:는 마:라자면 약 한 양녀기로 시:월따레나 한 가:꺼요. {보리는 말하자면 약 한 양력으로 시월달에나 갈꺼요.}

10309. # 그라 인자 이 목 예:저네는 모카지만 시방은 인자, 이 보리:도 여그 가:는 사람 벨로 업:습니다, 여그는 현:제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목화지만 지금은 이제 이 보리도 여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10309. # 그런디 예:저네는 모카 미영때 해:네고 서:숙 하리네고 인자 콩 해:네고는 인자 소로 가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목화, 목화대 해 내고 조 해 내고 이제 콩 해 내고는 이제 소로 갈아요.}

10309. # 소로 인자 고랑지게 딱딱 가라가꼬는. {소로 이제 고랑 있게 딱딱 갈아가지고는.}

10309. # 우덜 여그서는 네:나 한 말가치 곰베라고 요마나항 거 그래서 인자 자루 질롱 거. {우리들 여기서는 일껏('네나'는 '일껏'의 뜻) 한 말처럼 곰방메라고('곰베'는 '곰방메'의 방언형) 요만한 것, 그래서 이제 자루 지른 것.}

10309. # 쪽 이따 베:줍시다마는, 고노미로 인자. {쪽 이따 보여 주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이제.}

10309. # 고랑이 요케 쟁기 지:네간데는 집꼬 요러케 안테야꺼쏘? {고랑이 이렇게 쟁기 지나간 곳은 깊고 이렇게 되었잖겠소?}

10309. # 그라이~께 납짜:가게 곰베를 해:가. {그러니까 납작하게 곰방메를 해 가.}

10309. # 그레가꼬는 거그다가 인자, 거름 토:비 잔 뿌리고 인자 보리씨 뿌리고는 곰베로 덮쪼 인자 뚜두러서. {그레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거름 퇴비 좀 뿌리고 이제 보리씨 뿌리고는 곰방메로 덮지요, 이제 두들겨서. }

10309. # 요케 나온 노를 탁탁 때려서 더퍼. {이렇게 나온 것을 탁탁 때려서 덮어.}

10309. # 그러몬 인자 보리씨가 나지요. {그러면 이제 보리씨가 나오지요.}

10310. # 그란데 그 보리::도 나고 그라몬 인자 보메 여자드리 전부 메:야 데, 바슬, 호무로. {그런데 그 보리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봄에 여자들이 전부 매야 돼, 밭을 호미로. }

10310 # 그레야 인자 보리만 냉가노코 다른 풍노무리나 이런 푸를 쌍 메:부러야조. {그레야 이제 보리만 남겨놓고 다른 풋나물이나 이런 풀을 짝 매어 버려야지요.}

10310. # 그레가꼬 인자 보리가 이그몬 나시로 비여요, 역씨. {그레가지고 이제 보리가 익으면 낫으로 베여요, 역시.}

10310. # 비여가꼬 기계나기 저네는 인자 그 노를 어:찌게 하능고 하니. {베어서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능고 하니.}

10310. # 무꺼다가 바테서 잘: 모른노를 인자 무꺼다가 마당에다 딱 피거등요, 고노를. {묵어다가 밭에서 잘 마른 것을 이제 묵어다가 마당에다 딱 피거등요, 그것을.}

10312. # 그라고 인자 도리께로, 도리께 아:시거씨요? {그리고 이제 도리께로 도리께 아시

겠지요?}

10312. # 도리께로 치지요. {도리께로 치지요.}

10312. # 도리께질 모:단 사:라든 몽텅이로 뛰어야테고. {도리께질 못한 사람 몽둥이로 두들겨야 되고.}

10312. @ 무어스로요? {무엇으로요?}

10312. # 몽텅이로 두들려야 안쓰거쑈? {몽둥이로 두들겨야 되잖쑈?}

10312. @ 아, 몽텅이로. {몽둥이로.}

10312. # 그레가꼬는 인자 도리께로 두드러가꼬는 역씨나 인자 치로 까불던지. {그레가지고는 이제 도리께로 두들겨가지고는 역시나 이제 키로('치'는 '키'의 방언형) 까불든지.}

10312. # 바람불면 디리든지 해서 인자 알따구를 네:지요, 마:라자면. {바람 불면 검불을 날리든지('디리다'는 바람의 힘으로 검불 따위를 얹애는 것을 가리킨다) 해서 이제 알곡을('알따구'는 '알'이나 '숙'의 방언형) 내지요, 말하자면.}

10312. # 그레가꼬는 인자 보리를 방에 찢는 디다가 도:구통에다 여:코는 물부꼬는 도:구트를 찢여, 그 노물. {그레가지고는 이제 보리를 방아 찢는 데다가 절구통에다 넣고는 물 붓고는 절굿공이를 찢어, 그것을.}

10312. # 찢:면 아적:찌 찢여야 한 동을 찢:습니다, 두:리, 고노물. {찢으면 아침까지('아적 찢'는 '아침까지'의 뜻) 찢여야 한 동을 찢습니다, 둘이, 그것을.}

10312. # 도:구뎨를 아적:찌 질러야데. {절굿공이를 아침까지 질러야 돼요.}

10312. @ 아적찌 찢, 찢여요? {아침까지 찢여요?}

10312. # 조:반 머끼저네 아치메 이러나서 조:반 머끼전:까장 찢거야데, 야:튼. {조반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 먹기 전까지 찢어야('찢다'는 '짬다'의 방언형) 돼, 하여튼.}

10312. # 그레가꼬 인자 그노물 딱 피여널지요. {그레갓고 이제 그것을 딱 퍼 널지요.}

10312. # 너러가꼬는 인자 치로 까불라가꼬는 제는 날케불고 다시또 쪼까씩 여:코 찢여야데, 고노물 {널여가지고는 이제 키로 까불러가지고 재는 날려버리고('날키다'는 '날리다'의 방언형) 다시 또 조금씩 넣고 찢여야 돼, 그것을.}

10312. # 그레 이:전 어른들 참 세:상 징:한시상 사라쑈. {그레 이전 어른들 참 세상 징그러운 세상 살았어.}

10308. @ 그 보리::도 종:뉴가 이짜나요이~? {그 보리도 종류가 있잖아요?}

10308. # 보리는 데:락 쌀보리이꼬 걸보리이꼬 그러치요. {보리는 대략 쌀보리 있고 걸보리 있고 그렇지요.}

10308. # 걸보리는 껍따기 이퍼진눔. {걸보리는 껍질이 입혀진 것.}

10308. # 쌀보리는 알따구로 나오는눔. {쌀보리는 알로 나오는 것.}

10308. # 머 다른 특뻘란 종:뉴는 업:꼬. {뭐 다른 특별한 종류는 없고.}

10308. @ 걸보리는 그러면 어뎨쑈니까, 그게 딱 부터가지고 잘 안. {걸보리는 그러면 어떻게 습니까,그게 딱 붙여가지고 잘 안.}

10308. # 껍따기 안 버셔지지요, 이거는.{껍질이 안 벗겨지지요, 이거는}

10308. @ 예, 그러치요이~. {예, 그렇지요.}

10308. @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가 머끼가 사:납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가 먹기가 힘들쑈는데요. }

10308. # 예, 사람 머:끼는 사:납꼬. {사람 먹기는 힘들고.('사납다'는 어떤 일을 하기 힘들다는 뜻)}

10308. # 주로 마리카 그런데 주는 머:시라갑따. {주로 말이나 그런데 주는 뭐랍디다.}

10308. # 그라고 그 이 중너네는 맥주보리라고. {그리고 그 이 근년에는 맥주보리라고.}

10308. # 맥주보리가 낱자:가이~ 요케 덴놈 그놈 순:저니 맥주 만든다합따. {맥주보리가 낱작하게 이렇게 된 것 그것 순전히 맥주 만든다 합디다.}

10308. # 그 보리가 나와써쨌요. {그 보리가 나왔었지요.}

10308. # 그란디 고노른 인자 하먼 팜메보고 돈: 사고 회:사에서 사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먼 판매하고 돈 받고 팔고('돈사다'는 돈을 받고 팔다는 뜻) 회사에서 사 가}

10308. # 그란데 시방은 그렇거또 일:절업쨌요, 여그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여기는.}

10308. @ 밀:도 합니까, 여그서 밀:~? {밀도 합니까, 여기서 밀?}

10308. # 여기 그런 때는 밀: 쪼::깐 이너기, 머:달라고 해쨌, 미를. {여기 그런 때는 밀 조금 자기가, 뭐 하려고 했지, 밀을.}

10308. # 여그는 잘 아납따. {여기는 잘 안 합디다.}

10308. @ 아, 그레쨌요이~. {아 그랬어요.}

10308. # 쨌: 강원도나 그런데가든 주로 미:를 하더마. {저 강원도나 그런 데 가면 주로 밀을 하더구먼.}

10308. # 그레가꼬 국쑤빠서. {그레가지고 국수 뽑아서.}

10308. # 그라는데 여그는 그케 아나라쨌요, 그걸. {그라는데 여기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그것을.}

10310. @ 보리밭 갈:때는 무어스로 감:니까? {보리밭 갈 때는 무엇으로 감니까?}

10310. # 소로 갈지요. {소로 갈지요.}

10310. @ 아, 쟁, 쟁기질을 하고? {아 쟁기질을 하고?}

10310. # 주로 소 아이먼, 예:저네 여그 소 아이먼 어쭈고 농사 질:쑤가 업쨌요. {주로 소 아니면, 예전에 여기 소 아니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가 없지요.}

10310. @ 영, 이러케 가라가지고 소로 쟁기로 가라가지고 밀: 이러케 만듭니까, 이러케? {영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로 쟁기로 갈아가지고 밀 이렇게 만듭니까, 이러케?}

10310. # 쟁기로 가라가든 고랑 두두기 딱: 스지요. {쟁기로 갈아가면 고랑 두둑이 딱 서지요.}

10310. @ 영, 고랑 ** 머이고? {고랑 ** 무엇이고?}

10310. # 고랑은 지폰데. {고랑은 깊은 데.}

10310. @ 어, 두두그뇨? {어 두둑은요?}

10310. # 두두근 너피. {두둑은 높이.}

10310. # 호글 가라가든 요케 딱:: 가라가든 이케, 노케 안데거쑤니까? {흙을 갈아가면 이렇게 딱 갈아가면 이렇게 높게 되잖쨌습니까?}

10310. # 그라이~께 이 너풍거뽕고는 두둑, 지폰 데보고는 고랑 그러쑤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것보고는 두둑, 깊은 데보고는 고랑 그렇쑤니다.}

10310. @ 예, 그러케요이~. {예, 그렇쨌요.}

10310. # 그레 인자 쟁기질 자라는 사라든 다시 이케 해:따그라든 쪽:빠로 크고 저근 두두기 업쨌 하고. {그래서 이제 쟁기질 잘 하는 사람은 다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똑바로 크고 작은 두둑이 없이 하고.}

10310. # 쟁기질 서:투른 사라든 꼬그랑꼬그랑 크고 저근 노미꼬 그레요. {쟁기질 서툰 사

람은 꼬불꼬불 크고 작은 것 있고 그래요.}

10310. # 그러 인자 기술:께가 메연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에 달렸는데.}

10310. @ 저이 기여그로 보며는 보리 학교 다닐 때보면 보리 바블 바브라고 어디 한번씩 나가서, 보리밥끼도 하고 그레꺼드뇨, 겨우레. {저희 기억으로 보면은 보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보리밭을 밟으라고 어디 한 번씩 나가서, 보리밟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겨울에.}

10310. # 보리바비요? {보리밥이요?}

10310. @ 보리를 볼바, 볼브라고.{보리는 밟아, 밟으라고}

10310. # 앙, 봄:찌요, 볼바. {아, 밟지요, 밟아.}

10310. @ 영, 웨그러썸니까, 그거는? {왜 그랬썸니까, 그것은?}

10310. # 그라몬 뿌리를 지피워서 더 짱짱하다고 그 한:참 일제때 동:네 찌기로 짐:부 나서서 보리바브로 볼부로 덩게썸. {그러면 뿌리를 깊이 쥘서 더 단단하다고('짱짱하다'는 '팽팽하다, 단단하다'의 뜻) 그 한창 일제때 동네적으로 전부 나서서 보리밭으로 밟으러 다녔어.}

10310. @ 예, 그레찌요이~? {예, 그랬지요.}

10310. # 예, 볼바썸요. {예, 밟았어요.}

10312. @ 보리방아 그니까 보리를 아까 어떠케 그 껌썸을 버킨다고 그러썸썸요, 지베서 그냥? {보리방아 아까 보리를 아까 어떻게 껌썸을 벗킨다고 그러썸썸요, 집에서 그냥?}

10312. # 지베서 도:구뎨로 찌여썸요. {집에서 절긱공이로 쥘었썸요.}

10312. @ 도:구뎨로 찌여요? {절긱공이로 쥘여요?}

10312. # 예, 그레가꼬는 인자. {예, 그레가지고는 이제.}

10312. @ 무를 부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10312. # 예, 물부어가지고. {예, 물 부어가지고.}

10312. @ 그몬 이 도:구 도:구통이 나무로 되여이썸니까, 돌로 되여이? {그러면 이 도구 절구통이 나무로 뎨 있썸니까, 돌로 되여 이}

10312. # 여그는 데, 데:라근 도, 도:리지요. {여기는 대략 돌이지요.}

10312. # 나무도구통은 업:썸요. {나무 절구통은 없어요.}

10312. @ 아 돌:로. {아, 돌로}

10312. # 도:리요. {돌이요.}

10312. # 예, 쫄:그 아니썸니까. {예 저기 있썸썸니까?}

10312. # 거그다 인자 찰차리 부꼬는 물부꼬 쥘능거여, 주로.{거기다 이제 찰랑찰랑하게('찰찰이'는 '찰랑찰랑하게'의 방언형) 붓고는 물 붓고 쥘는거요, 주로.}

10312. # 그란데 처:뿌런 그케 찰차리 한:나 하는데. {그런데 첫 벌은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가득('한:나'는 '가득'의 뜻) 하는데.}

10312. # 낭중에 인자 머글라고 하는 노몬 쫄깸만 여:코는 찌:치요, 기냥.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넣고는 쥘지요, 그냥.}

10312. @ 그몬 인제 기계로 쥘:능거슨 나중에 썸긴. {그러면 이제 기계로 쥘는 것은 나중에 썸긴}

10312. # 예, 낭:중에. {예, 나중에}

10312. # 기계로 쥘:능 거슨 (3초) 그 예:전 그, 발똥기라고 경운기 나기저네 나기저네 육:썸 그 쇠뎨기로 덩거 안 이썸니까? {기계로 쥘는 것은 그 예전 그 발똥기라고 경운기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육상용 그 쇠로 된 거 있썸썸니까?}

13012. # 고놈 나와썸 뎨 썸:미끼가 나와가지고 인자 베르도 거러가지고 그노미 쥘:는데. {그것

이 나왔을 때 정미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벨트 걸어가지고 그것이 쥘는데.}

10312. # 그 똥방에라고 똥방에라고 인자 물 서껴가꼬 보리를 거그다 여:너면 요마나:안 구녀게서 비껴져서 나와썬요. {그 똥방아라고 똥방아라고 이제 물 섞어가지고 보리를 거기에다 넣어 놓으면 이만한 구멍에서 벗겨져서 나왔어요.}

10312. # 그런데 그 뒤:로는 인자 그 발딸함시로는 보리 짙는 기계가 나와가꼬 시방은 보리방에 찌르면 짱까뵈니다, 보리털.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그 발달하면서는 보리 깎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보리방아를 쥘으면 깎아버립니다(짱끄다'는 '깎다'의 뜻), 보리를.}

10312. # 싹 기계가 짱까부러요. {싹 기계가 깎아버려요.}

10312. # 마:라자면 그걸 보면 소:게가 그 머:라하까, 그거시 요런 메뚱까통거시 이써가꼬는 고노미 싹:: 돔시로 짱까부러요. 시방. {말하자면 그걸 보면 속에 그 뭐라 할까, 그것이 이런 땃돌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싹 돌면서 깎아버려요. 지금.}

10312. @ 보리를 도:구때로 찌르면 인제 그 껍지리 나오잔썬니까? {보리를 절곳공이로 쥘으면 그 껍질이 나오잔썬니까?}

10312. # 예,예, 그거뽕고 보리째락 하요. {예,예 그걸 보고 보릿겨라고 해요.}

10312. @ 보리째라고 그레. {보릿겨라고 그레.}

10312. # 예, 보리 제. {예, 보릿겨.}

10312. @ 그거슨 항가지만 이썬니까 더, 고 곱:게 찌르면 또. {그것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더 곱게 쥘으면 또.}

10312. # 고:게 찌:면 더 부드러운 노미 나오거썬요. {곱게 쥘으면 더 부드러운 것이 나오겠지요.}

10312. @ 그러지만 다 이르미 다 보리쟁가요? {그러지만 다 이름이 보릿겨인가요?}

10312. # 예, 그거또 보리째지요. {예, 그것도 보릿겨지요.}

10312. @ 나라근 그거 이르미 아, 큰 노미 이꼬. {벼는 그것 이름이 큰 것이 있고.}

10312. # 나락제, 느무게. {왕겨, 등겨.('느무게'는 '등겨'의 방언형)}

10312. @ 느무게라 그레요? {등겨라 그레요?}

10312. @ 느무게는 더 곱 {등겨는 더 곱}

10312. # 느무게는 싸레서 버겨진 노미지요. {등겨는 쌀에서 벗겨진 것이지요.}

10312. # 그라고 나락제는 순:저니 껍:떡나락, 껍떠기고. {그리고 왕겨는 순전히 껍질나락, 껍질이고.}

10312. # 느무게는 마:라자면 현:미 해:노른 누::라이~ 나라기 그라나요? {등겨는 말하자면 현미 해 놓으면 누렇게 벼가 그리잖아요?}

10312. # 고노를 인자 정:미헤노면 그 껍떠기 버서징게 흐:게지지요. {그것을 이제 정미해 놓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니까 하얘지지요.}

10312. @ 그게 너무썬니까? {그게 등겨입니다?}

10312. # 예, 느무게. {예, 등겨}

10312. @ 엔:나레는 혹씨 그 비, 그,저, 나무집 콩도 몰:레 가져다가 예기드리 머끼도하고. {옛날에는 혹씨 그 저 남의 집 콩도 몰래 가져다가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10312. @ 심:한 예기드른 닥또 자바서 머끼도 하고. {심한 아이들은 닭도 잡아서 먹기도 하고.}

10312. # 그러지, 그라지요, 베고풍게. {그러지, 그렇지요, 배 고프니까.}

10312. # 베고풍게 어썰썬 업썬. {배 고프니까 어썰 수 없어.}

10312. @ 그, 그거 뭐, 머:라고 합니까, 머:던다고 합니까 그렇 거슨. {그 그거 뭐 뭐라고 합니까, 뭐 한다고 합니까 그런 것은? }

10312. # 쿵: 그 여물뜨라고 머:단노른 그노를 뽀바다가 불 피고는 구어서 머거요. {쿵 그 여물고('여물뜰다'는 '알이 여물다'의 방언형) 뭐 하는 것은 그것을 뽀아다가 불 피우고는 구워서 먹어요.}

10312. # 예 좀 마시쎬요. {예, 좀 맛있어요.}

10312. # 베고풍께. {배 고프니까.}

10312. # 그라고 인자 보리도 여물뜰놈 비여다가 불 피고 꼬실려서 소니로 비벼서 머그른. {그리고 이제 보리도 여문 것 베어다가 불 피우고 그을려서('꼬실르다'는 '그을리다'의 방언형)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10312. @ 영, 그레쎬요이~. {그랬지요.}

10312. # 베고풍께 어쎬. {배 고프니까 어쎬}

10312. # 시방은 가 헤:머거라게도 아네머거요, 아네 머거. {지금은 가서 해먹으라고 해도 안 해먹어요, 안 해먹어.}

10312. @ 보리 저도 기여기나네요 그 구어서 머금 마시쎬나요. {보리 저거 기억이 나네요. 그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10312. # 마시쎬요. {맛있지요.}

10312. # 그란데 시방은 잡쎬 보쎬요마는 마딘능가. {그런데 지금은 잡쎬보시오마는 맛있는가}

10312. # 마덥쎬라. {맛없어요.}

10312. # 소:게가 지름끼가 딱:딱차가꼬 마딘능 거시 업:쎬. {속에 기름이 딱딱 차가지고 맛있는 것이 없어.}

10312. @ 잘 **. {잘 **}

10313. @ 그 엔나렌 그 서:리한다고 그러케 이야기헤쎬지 안나요, 쿵서리. {그 옛날에 그 서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않나요, 쿵서리?}

10313. @ 혹시 그렇건 안 드려바쎬요? {혹시 그런 것은 안 들어봤어요?}

10313. # 쿵 {쿵}

10313 @ 남, 나무집 쿵가통거또 이러케 몰:레 가져다가 이러케 머꼬 이런 이런 이:를 {남의 집 쿵 같은 것도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먹고 이런 이런 일을.}

10313. # 그런, 그런 {그런 그런}

10313. @ 따로 부른 이르미 이쎬요? {따로 부른 이름이 있어요?}

10313. # 그건 생각쎬 모:다거쎬니다. {그건 생각 잘 못하쎬습니다.}

10313. @ 예, 그냥, 다른 마른 업:꼬? {예, 그냥 다른 말은 없고?}

10313. @ 저, 광주가튼 데서는 서리한다고 그레요. {저 광주 같은 데서는 서리한다고 그레요.}

10313. @ 쿵서리한다, 탁 서리한다. {쿵서리 한다, 닭서리 한다.}

10313. @ 여기는 그런 말 업:능가요? {여기는 그런 말 없능가요?}

10314. @ 보리 이러케 인제 데가 이쎬나요? {보리 이렇게 이제 대가 있잖아요?}

10314. @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여러가지쎬 만들 쑤 이쎬쎬니까? {그러면 그쎬 가지고도 여러가지 쎬을 만들 수 있잖습니까?}

10314. # 보리떼요? {보릿대요?}

10314. # 보리떼 우덜 생가게는. {보릿대 우리들 생각에는.}

10314. @ 보리떼 아니, 안 머 만들 게 업:씀니까? {보리대 아니 안 뭐 만들 게 없습니까?}

10314. # 머 그 씨워서 거르미나 하제, 머:다거쑈? {뭐 그 씨혀서 거름이나 하지 뭐 하겠소?}

10314. #1 그저네는 우:장 안 녀꺼쑈? 우:장 더러 여꺼쑈. {그전에는 우장 엮었잖소? 우장 더러 엮었지.}

10314. # 지비 귀:항게 우:장또 쪼간 역제. {짚이 귀하니까 우장도 조금 엮지.}

10314. # 그라지마는. {그렇지만}

10314. #1 모함시로 씨는 우:장 {모내기하면서 쓰는 우장}

10314. # 영, 그라지마는, 그라지마는 집뽕당 모:다제. {그렇지만, 그렇지만 짚보단 못하지.}

10314. #1 그랑게. {그러니까.}

10314. @ 밀, 밀:떼는 밀 만들지요, 밀:? {밀 밀대는 밀 만들지요, 밀?}

10314. # 예, 밀:떼로 마:라자면 뜨미라고. {예, 밀대로 말하자면 뜸이라고('뜸'은 밀대나 짚을 새끼로 엮어 발처럼 마루에 치는 것으로서 비가 안으로 들치지 않게 막는 것).}

10314. # 인자 반:치메 바람옴시로 비 오면 안들치게 비 안들치게 뜸도 요꼬. {이제 마루에 바람 오면서 비 오면 안 들치게 비 안 들치게 뜸도 엮고.}

10314. # 또 밀:떼로 여르메 마당께다 피고 밤 머글라고 꺼적또 여코 그러치요. {또 밀대로 여름에 마당에다 피고 밥 먹으려고 거적도 엮고 그렇지요.}

10315. @ 그 다크메 고추, 고추:는 언:제쯔미나 아, 고추는 아나네요. {그 다음에 고추, 고추는 언제쑈미나... 아, 고추는 안 하네요.}

10315. @ 지남번 아까 예:기 이 지방에서 마:니항거슨 서:수글 마:니한다 그레쑈요, 서:숙? {지난 번 아까 얘기 이 지방에서 많이 한 것은 조를 많이 한다 그랬지요, 조?}

10315. # 예, 그 저네는 서:수글 마이~헤쑈요. {예 그 전에는 조를 많이 했지요.}

10315. # 시방은 {지금은}

10315. @ 서:수근 언:제나 심:씀니까? {조는 언제나 심습니까?}

10315. # 서:수근 데:락쑈기로 바서 유:월 중순께나 감:니다, 음:녀기로, 음:녀기로. {조는 대략적으로 봐서 6월 중순께나 갑니다, 음력으로, 음력으로.}

10315. # 요 서:수글 일찍 갈:면 재미업쑈미다. {이 조를 일찍 갈면 재미 없습디다.}

10315. # 마라자면 장:사미 마:나고 그 껌떠기 뚜껍꼬 덜 시라게 데요. {말하자면 장삼이('장삼'은 껌질만 많고 낱알은 없는 곡식) 많고 그 껌질이 두껍고 덜 실하게 돼요.}

10315. # 제 시기에 가라야 그거시. {제 시기에 갈아야, 그것이.}

10315. @ 그 저네는 서:수그로 밥또 마:니 잡쑈쑈쑈요? {그전에는 조로 밥도 많이 잡쑈쑈쑈지요?}

10315. # 그저네는 서:숙뽕 마시쑈요. {그 전에는 조밥 맛있지요.}

10315. # 싸른 귀:하고 보리바베다 서:숙 여:서 헤노른 찰지기도하고 조:치요. {쌀은 귀하고 보리밥에다가 조 넣어서 해 놓으면 찰지기도 하고 좋지요.}

10315. # 그란데 시방은 암머거집따, 서:숙. {그런데 지금은 안 먹어집디다, 조.}

10315. @ 요세는 세:나 주제 그거 누가 세, 세 모시로나 주제. {요세는 새나 주지 그것 누가 새 모이로나 주지.}

10315. # 예, 세:밥또 마:이~하고 그란데. {새 밥도 많이 하고 그란데.}

10315. # 서:수기 올로드러가능가 몰라도 서:수끄미 겐찬헤요. {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조 값이 괜찮아요.}

10315. @ 요세 요세 그 잡곡 서꺼서 멍는 사람도 이써서 그러나? {요세 요세 그 잡곡 섞어서 먹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나?}

10315. # 서:숙 껌딱체 사:십 키로 항 가마에 십마닐 이상 가니까. {조 껌질째 사 십킬로 한 가마니에 십 만원 이상 가니까.}

10315. @ 쌀, 쌀: 정도. {쌀 쌀 정도.}

10315. # 나라근 사:십킬로에 오:마닐 쪼깐 모:단테 서:수근 십마닐 이상 가요. {벼는 사십킬로에 오만 원 조금 못 하는데 조는 십만 원 이상 가요.}

10315. @ 그레요이~? {그레요?}

10315. @ 서:송 농사를 지으셔야 되젠네. {조 농사를 지으셔야 되겠네.}

10315. # 근데 먼 그 듣는 말로 헤서는 맥주 공짜에로 간담말도이꼬 그란테 모르거썸떠다. {그런데 뭐 그 듣는 말로 헤서는 맥주 공장으로 간단 말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디다.}

10315. # 그 서:수기 상:당이 비싸요. {그 조가 상당히 비싸요.}

10315. @ 여기서는 머 감자 가통거또 저네 심:꼬 그러서썸요? {여기서는 뭐 감자 같은 것도 전에 심고 그러셨어요?}

10315. # 그저네는 시머썸요. {그 전에는 심었지요.}

10315. # 지금:도 요 감자 쪼:간썸 심:썸니다 이녕 머글라고. {지금도 이 감자 조금씩 심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10315. # 머 어따 네:거나 그런 머:슨 아이~고, 인자 귀:미리 꺼시로 쪼:까썸 머글라고, 쪼:까썸 심:썸니다. {뭐 어디로 내거나 그런 똥은 아니고 이제 귀물로 조금씩 먹으려고, 조금씩 심습니다.}

10315. @ 감자 승구능거슨 어떤 시그로 승굽니까? {감자 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심습니까?}

10315. # 감자수는 감자를 보메 설: 시고 한 사똥 따레나 바테다 무썸요, 땅에다. {감자수는 감자를 봄에 설 최고 한 삼월달에나 밭에다 묻지요, 땅에다.}

10315. # 무더노른 지가 수니 나요. {묻어 놓으면 제가 순이 나요.}

10315. # 수니 나썸께 수니 안 빠드요? 그람 수늘 찢라다 인자 바테다 조르라이~ 심:능거여, 입싸글 네:노코. {순이 났으니까 순이 뽕잖소? 그러면 순을 잘라서 이제 밭에다 조르르 심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놓고.}

10315. # 윈, 윈숨만 서:그로 드러가게하고 입싸근 네:나야테라. {윈순만 속으로 들어가게하고 잎사귀는 내놓아야 돼요.}

10315. # 그라문 인자 마라자면 거그서 인자 살:지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살지요.}

10315. # 그레가꼬 미뽐니다. {그레가지고 밀뽐니다.}

10315. @ 미시 든다구요? {밀이 든다고요?}

10315. # 예, 감자가 썸게. {예, 감자가 썸겨.}

10315. # 그랑께, 감자:가, 고:구마라 아나요? 고구마? 고구마 아이~요? {그러니까 감자가, 고구마라 하잖소? 고구마? 고구마 아니요?}

10315. @ 저네는 그냥 감자라고 그레썸요. {전에는 그냥 감자라고 그랬어요.}

10315. # 예, 감자라능거슨 부깸자보고 감자라 하드마. {예, 감자라는 것은 '북감자'보고 감

자라고 하더구만.}

10315. # 부감자. {북감자.}

10315. @ 저네는 그러면 그냥 감자하고 부감자하고 이러케 두:게 이썬썬이요? {전에는 그러면 그냥 감자하고 북감자하고 이렇게 두 개 있었지요?}

10315. # 예, 부감자도 이썬썬이요. {예, 북감자도 있겠지요.}

10315. @ 아니, 마:리. {아니, 말이.}

10315. @ 감자라고 할 때는 요세마:른 고:구마를 가르키고. {감자라고 할 때는 요새 말은 고구마를 가르키고.}

10315. # 예, 예, 마썬니다. {예, 예 맞습니다.}

10315. @ 부감자 그러면 요세 감자를 가르키지요? {북감자 그러면 요새 감자를 가르키지요?}

10316. @ 요 지역에서는 무슨 과:일가통건 농사 진:능건 업:썬니까? {이 지역에서는 무슨 과일 같은 거 농사 짓는 것은 없습니까?}

10316. # 과:이른 업:썬니다. {과일은 없습니까.}

10316. # 업:꼬 한참 그 소포 교:인드리 당:감나무를 마:이~심떠마. {없고 한참 그 소포 교인들이 단감나무를 많이 심더구만.}

10316. # 그래가꼬 당:감나무를 시방도 술차니 이썬라 그란테 시방은 마:이~ 파불기도 하고 그랍떠다. {그래가지고 단감나무를 지금도 켜('술차니'는 '켜'의 뜻)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파버리기도 하고 그랍떠다.}

10316. # 그라고 다른 과이른 일:썬 업:썬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은 전혀 없습니다.}

10317. @ 그 다:으메 아까 인제 (4초)그 노니나 바테 이러케 푸리 자라가지고 멘:다 그러썬썬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논이나 밭에 이렇게 풀이 자라가지고 맨다고 그러썬썬이요.}

10317. @ 먼: 푸리 이썬니까, 어떤 풀드리 이썬이요? {무슨 풀이 있습니까, 어떤 풀들이 있어요?}

10317. @ 이르미 이썬니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10317. #1 머:세가? {무엇에?}

10317. # 놈빠다게. {논바닥에}

10317. #1 놈빠다게? {논바닥에?}

10317. # 보, 보풀, 보풀. {보풀 보풀}

10317. #1 피: 이꼬. {피 있고.}

10317. # 피: 이꼬. {피 있고.}

10317. # 또 머디전냐? {또 무엇 있겠냐?}

10317. # 여러 가지꺼시지라. {여러가지 것이지요.}

10317. # 그라나거썬? {그렇잖썬소?}

10317. # 땅에, 왕:두~이, 피:, 보:풀 여러 가지꺼시여. {땅에, 왕둥이(잡초의 하나), 피, 보풀 여러가지 것이야.}

10317. @ 왕둥이요? {왕둥이요?}

10317. #1 예, 왕:둥이. {예, 왕둥이}

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예, 그런 정도 하구요, 그다:메. {예, 그런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318. @ 아까 그 잠깐 말:쓰를 해주셔꺼드뇨. {아까 그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10318. @ 그 탈곡하던 말: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버네는 맨: 처음에는 보시지 아나찌마는 하나씩 하나씩 해파고 그러셔쨌요? {그 탈곡하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에는 맨 처음에는 보시지 않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했다고 그러셨지요?}
10318. # 예, 그거시 어찌게 데안능가나?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데 하니}
10318. # 쉼로 날:카마이~ 간잔주로마이~ 요러케 쉼가 이케 이썬썬요. {쇠로 날카롭게 가늘게('간잔주름하다'는 '가늘고 곧다'의 뜻) 이렇게 쇠가 이렇게 있었어요.}
10318. # 그란데 데마까지를 부쳐서 요러케 해:가꼬는 끈타발로 썩: 동에가꼬 마:라자면 나락 이가지만 드러가게 요러케 해가꼬는 썩: 여:서는 썩 홀코 썩 여:서 썩 홀코 {그런데 대나무 막대기를('마까지'는 '기다란 막대기'를 가리킨다.)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끈으로 썩 동여가지고 말하자면 벼 이삭만 ('이가지'는 '이삭'의 방언형) 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썩 넣어서 썩 홀고 썩 넣어서 썩 홀고.}
10318. # 그라몬 소느로 점:부 홀틀라면 엄:마나 소나푸거쑈? {그러면 손으로 전부 훑으려면 얼마나 손 아프겠소?}
10318. @ 거그 거, 거 머:라고 하신지 아라요, 거 이르미? {그것 그것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 이름이? }
10318. # 그거뵈고 손홀테라 하디야, 소놀테? {그것 보고 손홀테라 하디냐? 손홀테.}
10318. #1 소닐테. {손홀테}
10318. # 손:홀떼 {손홀테}
10318. @ 아 소놀테. {아 손홀테}
10318. # 이:저에는 먼 장:가비 이쑈, 머:디쑈? {이전에는 먼 장갑이 있소, 뭐 있소?}
10318. # 순:전니 흘 이케 디여썬 썩:썩 홀썰. {순전히 이렇게 *** 썩썩 흘지.}
10318. # 그거슨 손홀테. {그것은 손홀테.}
10318. # 그라니까 그거시 나라기 이가지 한:나한나 홀릉거시 엄:마나 홀타지거쑈? 하여간. {그러니까 그것이 벼 이삭 하나하나 훑는 것이 얼마나 훑어지겠소? 하여간.}
10318. @ 손홀테가 이꼬, 그다:메가 인자 홀테가 나오지요이~? {손홀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테가 나오지요?}
10318. @ 일제시대때에 그 족탁끼 나와썬요, 족탁끼랑? {일제시대 때에 그 족탁끼 나왔어요, 족탁끼랑?}
10318. # 그러치요, 일썰때 나와썬요, 일제 때. {그렇지요, 일제 때 나왔지요, 일제 때.}
10318. @ 족탁끼 이:꼬 그다:멘 그 가튼 족탁끼 나중에는 발똥기에다 그 거러가지고. {족탁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족타기 나중에는 발똥기에다 그 걸어가지고.}
10318. # 예, 그거뵈고 탈고끼라헤쑈. {예, 그것보고 탈곡기라 했소.}
10318. @ 고건 탈고끼 {그것은 탈곡기}
10318. # 나락 홀른 탈고끼. {벼 훑는 탈곡기.}
10318. @ 그렇 거뜨리이꼬 그 다멘 인제 요새는 안하능거지요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안 하는 거지요?}
10318. @ 그 다으메 (8초) 그 이저네 아까 손홀테보다 더 이저네는 막 나라글 막 떼려따

고 그러데요,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아까 손 홀태보다 더 이전에는 막 벼를 막 때렸다고 그러데요, 때려가지고.}

10318. # 예, 찌:우게 우더른 구니네 가서 강원도가도 가상친다고. {예 저 위에 우리들은 군대에 가서 강원도 가도 가상친다고.}

10318. # 큰: 몽나무를 이케 놔:두고. {큰 나무 막대기를('목나무'는 커다란 나무 막대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놔:두고.}

10318. # 나라글 딱 줄로 무겨서 돌려때립디다. {벼를 딱 줄로 묶어서 돌려 때립디다.}

10318. @ 아, 강원도에서 근무하셔썬요? {아, 강원도에서 근무하셨어요?}

10318. # 막 돌려때립디다. {막 돌려 때립디다.}

10318. @ 아, 가상친다고 그래요? {아 가상친다고 그래요?}

10318. # 예, 그거뽕고 가상친다게. {예, 그것보고 가상친다고 해.}

10318. @ 그건 이, 이쪽 찌방은 엄:는, 엄:찌요, 그러면? {그건 이 이쪽 지방은 없는, 없지요, 그러면.}

10318. # 이쪽 찌방에서는 그러케 하는 데 모:빠썬. {이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 못 봤어.}

10318. @ 근데 강원도에서는 군대 아직도 유기요때까지도 그렇길 하셔따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군대 아직도 6.25때까지도 그런길 하셨다고}

10318. # 예, 예, 예, 그라니까 함메디로 마레서 이 농사 진는데 발말한 찌:우게가 더 뒤쳐저이십디다, 여그보다, 마:라자면. {예예예,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농사 짓는 데 발달한 저 위가 더 뒤쳐져 있습니다, 여기보다 말하자면.}

10318. @ 그러치요, 뭐, 여가, 여기가 농토가 마느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뭐 여가 여기가 농토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10318. # 암마네도 절라도가 농토가 마:나니까 더 발말하고 찌:우기로는 암마네도 뒤:쳐지고. {아무래도 전라도가 농토가 많으니까 더 발달하고 저 위로는 아무래도 뒤쳐지고.}

10318. @ 아까 그 보리 가통거슨 도리께:로 한다고 안 그러셔썬니까? {아까 그 보리 같은 것은 도리께로 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

10318. # 예, 예, 도리께. {예예, 도리께.}

10318. @ 도리께로 혈떼 이러케 도리께를 헨 방버비 이썬, 여러 가지가 이썬니까, 치는 방버비 돌려가지고? {도리께로 할 때 이렇게 도리께를 하는 방법이 있, 여러가지가 있습니까, 치는 방법이 돌려가지고?}

10318. # 데:락찌기로 바서 도리께:질 하는 사람드른 돌려쳐라, 마:라자면. {대략적으로 바서 도리께질 하는 사람들은 돌려쳐요, 말하자면.}

10318. # 뽕:뽕: 돌려서 그 도리께 여:리 닙게치는 거시아이~라 요리케 도라감시로 치더마. {빙빙 돌려서 그 도리께열이 넘겨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더구만.}

10318. # 그란디 그케 하믄 암:마네도 덜:마저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덜 맞아요.}

10318. # 그란데 이런 데에서는 닙게 치는데.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넘겨치는데.}

10318. @ 닙게, 닙게치능 거슨 어디에 바로 바로 칩니까? {넘겨치는 것은 어디에 바로 바로 칩니까?}

10318. # 너머가따 탁: 너머가따 탁: {넘어갔다가 탁, 넘어갔다가 탁.}

10318. # 그란데 그건 예려라. {그런데 그것은 어려워요.}

10318. # 발달텐 사라미라사 머:다제, 예러라. {발달된 사람이라야 뭐하지, 어려워요.}

10318. # 요노미 들때 도리깨어시로 살짜가게 틴시로 이케 드러서 딱 머:다제. {이것이 들때 도리깨장부로('도리깨어시'는 '도리깨장부'의 방언형) 살짝 틀면서 이렇게 들어서 딱 뭐하지.}

10318. # 기양하문 이 도리깨여:리 기양 이케 미트로 수거봉께 안 너머가부러. {그냥 하문이 도리깨열이 그냥 이렇게 밀으로 숙여 버리니까 안 넘어가 버려.}

10318. # 마:라자면 함메디로 마레서. {말하자면 한 마디로 말해서.}

10318. # 그라이~께 살짜:기 틴시로하문 너머가문 탁 때리문 되:게 마찌라. {그러니까 살짝 틀면서 하면 넘어가면 탁 때리면 되게 맞지요.}

10318. @ 그 다오메 (3초) 그, 저 홀테질 하고 인제 그 놈 까:부러야 되자나요이~? {그 다음에 그 저 홀테질 하고 이제 그것을 까부러야 되잖아요?}

10318. @ 고거시 막 부터짚썸니까? {그것이 막 붙었썸니까?}

10318. @ 그 머:스로 합니까, 엔:나레는? {그 무엇으로 합니까, 옛날에는?}

10318. # 예:저네는 가상친다고. {예전에는 가상친다고.}

10318. # 인자 네:나 소놀테로 이케 홀타가꼬는 저녁꼬테는 점:부 모틴다갑따다. {이제 내나 손홀테로 이렇게 훑어가지고는 저녁 끝에는 전부 모은다고 합디다.}

10318. # 그레가꼬 몽텅이로 뛰딘다하드마. {그레갓고 몽둥이로 두들긴다고 하더구먼.}

10318. # 우더른 실찌는 그거슬 암바썰. {우리들은 실체는 그것을 안 봤어.}

10318. # 그란디 이전 그저네 우리 아버지 말:썸 드러보고 그라문, 뚜드르문 이:전 나라글 어제 그랑가니, 나라기 쉬여미 이따갑따다. {그런데 이전 그전에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두드리면 이전 벼를 왜 그런고 하니 벼에 수염이 있다고 합디다.}

10318. # 마:라자면 나락 꼬트머리가 이거시 달려썰. {말하자면 벼 끝에 이것이 달렸어.}

10318. # 그라이~까 뚜드러서 고거슬 가상친다고 다 모지라부러야데. {그러니까 두드려서 그것을 가상친다고 다 모지라지게 해('모질다'는 '모지라지게 하다'의 뜻) 버려야 돼.}

10318. # 예, 그레가꼬 한다하두마요. {예, 그레가지고 한다고 하더구만요.}

10318. @ 예, 그라고 인제 다 홀타치 안썸니까이~? {예, 그리고 이제 다 훑지 않았습니까?}

10318. @ 홀트기는 홀탄는데 거가 나랑만 인능거시 아니라 망:머시 부터 이짜나요? {훑기는 훑었는데 거기에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무엇이 붙어있잖아요?}

10318. # 그럼 그러치요. {그럼 그렇지요.}

10318. @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

10318. # 그라이~까 인자 몽데~이로 뛰디레가꼬는 바람불면 이케 쪼:빠기로 떠서 바라메 날키지요.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가지고는 바람 불면 이렇게 쪽박으로 떠서 바람에 날리지요('날키다'는 '날리다'의 방언형).}

10318. # 그라고 바람 암불면 어쩔 쑤 업씨 췌~이로 까부러썸니다, 까부러. {그리고 바람 안 불면 어쩔 수 없이 키로('췌'는 '키'의 방언형) 까불렀썸니다, 까불러.}

10318. @ 체로 까:부러요? {키로 까불러요?}

10318. @ 일리리 체로 까:분다고 그러셔. {일일이 키로 까부른다고 그러셔.}

10318. @ 인제 타:작 인제 홀, 홀통 거슨 나라근 고령거신데. {이제 타작 이제 훑는 것은 벼는 그런 것인데.}

10318. @ 쿵이나 이렇 거슨 어:트케 어, 홀튼, 홀튼다고 아나고 타:작. {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훑는다고 안 하고 타작}

10318. # 콩, 콩도 도리깨로 두들지요. {콩 콩도 도리깨로 두들기지요.}

10318. @ 아, 콩도 도리깨로 두드려요? {아 콩도 도리깨로 두들겨요?}

10318. # 콩은, 콩은, 유:드기도 도리깨로 쳐야 땀니다. {콩은 유독 도리깨로 쳐야 땀니다.}

10318. @ 아: 물러가꼬. {말려가지고.}

10318. # 도:리가 업:찌요. {도리가 없지요.}

10318. @ 하고 팍팍 튀:자나요, 그걸. {하고 팍팍 튀잖아요, 그것.}

10318. # 예, 튀기는 튀어도 도리깨로 뛰딜면 점:부 까지면 그 콩때는 자치고 콩만 나며요.
{예, 튀기는 튀어도 도리깨로 두들기면 전부 까지면 그 콩 대는 젖히고 콩만 남아요.}

10318. # 콩은 유:드기도 도리깨로 쳐야땀니다. {콩은 유독 도리깨로 쳐야 땀니다.}

10318. @ 그니까 도리깨질 하능거시 보리가 이꼬. {그러니까 도리깨질 하는 것이 보리가
있고.}

10318. # 보리 이꼬, 콩 이꼬, 주로. {보리 있고 콩 있고, 주로}

10318. @ 포까툽 거또요? {팔 같은 것도요?}

10318. # 포또 마:나면 인자 도리깨로 치면 조:치라마는 그케 마:나담니까, 포는 포순. {팔
도 많으면 이제 도리깨로 치면 좋지마는 그렇게 많답니까, 팔은?}

10318. # 포순 그케 마:이~씩 아납니다. {팔은 그렇게 많이씩 안 합니다.}

10318. @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10318. @ 마:르노, 마:른 마:니 합니까? {밀은요, 밀은 많이 합니까?}

10318. # 여그는 밀 잘 아네. {여기는 밀 잘 안 해.}

10318. #1 여그는 마:른 안 시머요. {여기는 밀은 안 심어요.}

10318. # 잘 아네요. {잘 안 해요.}

10321. @ 이제 그거시 타:작 그 헤쓰며는 집 지픈 지븐 이꼬 인자 나라근 다 떠러저찌앙
커썸니까이~? {이제 그것이 타작 했으면 짚은 있고 이제 벼는 다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럼? }

10321. @ 지븐 어터케 보:과늘 헤요? {짚은 어떻게 보관을 해요?}

10321. # 여그 지븐 아:주 귀하지요. {여기 짚은 아주 귀하지요.}

10321. # 예:저네 아까 말항거가치 주로 소금 구:꼬 농사가 저그니까. {예전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주로 소금 굽고 농사가 적으니까.}

10321. # 예:저네는 마람 여코 지베:여야지요. {예전에는 이엉 넣고 짚 해 넣어야지요.}

10321. # 처째 지붕을 더퍼사 이녀기 살:쑤 이찌요. {첫째 지붕을 덮어야 자기가 살 수 있
지요.}

10321. # 집까꼬 세네키 파야지요. {짚 가지고 새끼 꼬아야지요.}

10321. # 또 우리 소포는 소금 네는 데라나서 지비로 서멸 여꺼야지요. {또 우리 소포는
소금 내는 곳이라서 짚으로 섬을 엮어야지요.}

10321. # 이:저네는 머 가마이~ 이꺼쑤, 머, 머:시 이쑤. {이전에는 뭐 가마니 있겠소? 뭐
무엇이 있소?}

10321. # 그라이~까 지블 아::주 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그는. {그러니까 짚을
아주 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

10321. # 그라니까 집 사로 여그 외:로도 마:이~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짚 사러 외부
로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10321. # 지비 아::주 귀해쥬니다. {짚이 아주 귀했쥬니다.}

10321. # 시방은 지붕 깨끄시 다 데야꺼따. {지금은 지붕 깨끗이 다 되었쥬다.}

10321. # 거름 벨로 아나거따. {거름 별로 안 하쥬다.}

10321. # 집 바로 기양 콤바이~가 빔:시로 바로 놉빠다게다 썬:러부요, 시방은. {짚 바로 그냥 콤바인이 베면서 바로 논바닥에다 썰어버려요, 지금은.}

10321. # 그란디 예:저네는 지비 금:까치 생각해썬라, 아주. {그런데 예전에는 짚이 금같이 생각해썬어요, 아주.}

10321. @ 그러면 그 지블 어디따 무꺼가지고 저:장을 해:둬니까? {그러면 그 짚을 어디에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둬니까?}

10321. # 그러치요, 누르지요, 인자. {그렇지요, 누르지요, 이제.}

10321. # 마:라자면 저 베누를 놀:러요. {말하자면 저 가리('베물'은 '가리'의 방언형) 놀러요.}

10321. # 마:라자면 베눌 놀:러가꼬 인자 물 안드러가게 딱 해:가꼬 인자 까:끔 빼:서 쓰조. {말하자면 가리 놀러가지고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딱 해가지고 가끔('까끔'은 '가끔'의 방언형) 빼서 쓰지요. }

10321. @ 그러면 지블 떼:거나 그러지 불 떼거나 그러지는 안. {그러면 짚을 떼거나 불을 떼거나 그러지 안}

10321. # 부를 땀:쭈 업썬요, 그 귀:항 거슬 어찌게 지블 떼:꺼썬? {불을 땀 수 없어요,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짚을 떼었쥬소?}

10321. # 참::, 집, 하루 점:드록까서 노무 이:레주믄 집 열함물 쥐:썬니다, 열함물. {참 짚 하루 저물도록 일해 주면 짚 열한 뭇 주었쥬니다, 열한 뭇.}

10321. # 무시로 요마냥거, 열한나이~. {뭇으로, 요만한 것, 열하나.}

10321. @ 무슨 함무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뭇은 한 뭇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321. # 요마나 데야요. {요만큼 돼요.}

10321. # 요런 놉. {이런 것}

10321. # 요런 놉 한 열함 무시나 쥐:썬, 하루 점드락 일 해:주면. {이런 것 한 열한 뭇이나 썬어, 하루 저물도록 일 해 주면.}

10321. @ 짐만 {짚만}

10321. # 예, 짐만. {예, 짚만}

10321. # 짐만, 그케 귀해썬요. {짚만, 그렇게 귀했썬어요.}

10321. @ 그거는 그 열함물가꼬 머:답니까, 그 그거 모아가지고 인제. {그거는 그 열한 뭇가지고 뭇 합니까? 그 그것 모아가지고 이제.}

10321. # 아, 이녀기 그도 업썬게 그러치요. {아, 자기가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치요.}

10321. # 그도 업:는데 어찌게 하거썬?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쥬소?}

10321. @ 아::이고, 아니, 머, 머글 꺾::또 아니고 짐만 열함물 가져오고. {아이고 아니 뭇 먹을 것도 아니고 짚만 열한 뭇 가져오고.}

10321. # 예, 먹을꺼 저:너 업썬요. {예 먹을 것 전혀 없지요.}

10321. # 그 지베서 인자 그 이:람시로 먹썬요. {그 집에서 이제 일하면서 먹지요.}

10321. # 그란데 품싸기로 주능거시 고거 쭈어요. {그런데 품샅으로 주는 것이 그걸 쥐요.}

10321. # 품싸기로. {품샅으로}

"=1"

그나저나 아직 머리쑈? 점심 안 잡썰라? {그나저나 아직 멀었소? 점심 안 잡썰래요?}

@ 시가니 그럴까요, 잠깐 쉬여따 할까요? {시간이, 그럴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

@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10318. @ 예, 아까 그 허다가 망:거쑈에가 (4초) 그: 나락 홀트고 그러면 인자 아까 그 막
면: 나락 알 알만 인능 게 아니라. {예, 아까 그 허다가 말았던 것 중에 그 벼 홀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막 된 나락 알 알만 있는 게 아니라.}

10318. # 영, 몽텅이로 막 {어, 몽둥이로 막.}

10318. @ 아니, 다름 거또 막 생기지요, 다른 머 무슨 검부레기 가통거또. {아니 다른 것
도 막 생기지요, 다른 뭐 무슨 검불 같은 것도. }

10318. # 검불도 마:니썰요. {검불도 많이 있지요.}

10318. @ 예, 아니 그니까 홀테 홀톨테 보면 그러지요, 이렇 걸 막 자 떠러네:야 되지 양
커썰니까이~? {예 아니 그러니까 홀테, 홀을 때 보면 그렇지요, 이런 걸 막 자 털어내야 되
지 않썰습니까?}

10318. # 바라메 뒤레야지요 {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애야지요.('될다'는 '검불 따위를 바
람에 날려 없애다'의 뜻) }

10319. @ 예? {예?}

10318. # 바라메 뒤러. {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애.}

10318. # 바람 불 때, 바람 임불면 마:넌노든 이:저네 탈고끼로 홀튼노든 바람 암불면 마당
에다 이케 썩:놔:라. {바람 불 때, 바람 안 불면 많은 것은 이전에 탈곡기로 홀은 것은 바람
안 불면 마당에다 이렇게 썩아 놓아요.}

10318. # 그레가꼬 인자 마라미로 딱: 더퍼놔. {그레가지고 이제 이엥으로 딱 덮어 놓아.}

10318. # 그레따가 바람불:면 인자 그때는 다머다가 뒤릅니다, 쪼:빠기로. {그랬다가 바람
불면 이제 그때는 담아다가 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앵니다, 쪽박으로.}

10318. # 예, 막 뒤러. {예 막 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애.}

10318. # 그라든 검불 가통거슨 잡꺼슨 썩 나가고 알따구는 무경께 인자 쏘다질꺼아님썰?
{그러면 검불 같은 것은 잡것은 썩 나가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이제 쏘아질 것 아닙니까?}

10318. # 마:라자면 그러케 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요.}

10318. @ 예, 예, 그런 방법또 이꼬, 아까 인제 고거또 바라미 안 불머는? {예예 그런 방
법도 있고 이까 이제 그것도 바람이 안 불면은?}

10318. # 인자 체로 체로 까불체. {이제 키로, 키로 까부르지.}

10318. # 그라니까, 농사 저:께 지꼬 그랄 때 썰:그 사누리나 그런 삼 미테 부락뜨른 바라
미 야:간 부러도 바라미 아놔. {그러니까 농사 적게 짓고 그럴 때 저기 산울(고유명사)이나
그런 산 밑의 마을들은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바람이 안 와.}

10318. # 그런 데년 어썰 수 업썰, 듣는 말로 이야면 밤:세 까분다우. {그런 데는 어썰 수
없이 듣는 말에 의하면 밤새 까부른대요.}

"=1"

#1 선생님 이놈 깔:고 하시썰요, **** {선생님 이것 깔고 하십시오. ****}

@ 아:니요, 궂찬썰니다. {아니요 궂찬썰니다.}

아니, 나는 궂찬하네. {아니, 나는 궂찬네.}

@ 방 따수와서 궂찬나요. {방 따뜻해서 궂찬아요.}

10318. @ 아 밤세 까부러요? {아 밤새 까부러요?}

10318. # 우리 누니미 이 사눌로 겨론헌:는데 보리 치고 그라믄 밤:세 까분다게. {우리 누님이 이 산울로 결혼했는데 보리 치고 그러면 밤세 까부른다고 해.}

10318. # 예, 이:저네는 그케 이:를 하고 사라썬니다 {예 이전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습시다.}

"=1"

#1 씨집싸리. {시집살이}

#1 우리 성님 검:나게 헤평거십떠다. {우리 형님 엄청나게('검나게'는 '양이 많거나 정도가 매우 심한 모양을 뜻함) 했던 것입디다.}

예, 다 고:인 데안넌테. {예 다 고인 되었는데.}

10318. @ 검:불 아니고도 또 또 인제 그 나락 소:기 안 든 껍땅만 인능거 이꼬 그거 머:라고 합니까? {검불 아니고도 또 이제 그 벼 속이 안 든 껍질만 있는 거 있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

10318. # 예, 여물 덜: 든 놈. {날알이 덜 익은 것.('여물'은 익은 날알을 가리킨다.)}

10318. # 주근 나락, 그거뽕고 주근 나라기라 하조. {죽은 벼, 그것보고 죽은 벼라 하지요.}

10318. @ 그러구뇨, 고거 고거또 인제 다 이러케.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10318. # 나가지요. {나가지요.}

10318. # 그라이~게 그 주근 나라근 바라미 잠 다음께 불:면 나가고 바라미 저:그믄 잘 안 나가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그 죽은 벼는 바람이 조금 바람답게('다울다'는 표준어와 달리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쓰였다.) 불면 나가고 바람이 적으면 잘 안 나가고 그래요, 그래.}

10318. @ 그레가지고 인제 그 어, 지블 아까 귀하니까 무꺼가지고 잘 보관한다 그러셔쎄요, 인제? {그레가지고 이제 그 어 쥘 아까 귀하니까 묶어가지고 잘 보관한다 그러셨지요, 이제.}

10318. @ 베눌 놀른다고 그러셔뎡가요? {가리 누른다고 그러셨던가요?}

10318. # 예, 베누를 눌치요. {예 가리를 누르지요.}

10319. @ 그 다크메 인제 방에 쩌능거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아 찧는 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10319. @ 방에도 여러가지 방에 이짚썬니까이~? {방아도 여러가지 방아 있잖습니까?}

10319. @ 기계 방에도 이찌마는 그 저네 전통저그로 이. {기계 방아도 있지만은 그 전에 전통적으로.}

10319. # 도:구, 도:구떼로 쩌능거빼끼 업쎄요. {절구 절굿공이로 찧는 것밖에 없지요.}

10319. @ 예, 도:구떼가 이썬니까. {예 절굿공이가 있습니까?}

10319. # 그라고 여그는 그렁 거시 업:쎄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10319. # 그거뽕고 머:시라? {그것 보고 뭐라?}

10319. #1 드들 빵에, 드들 빵에. {디딜 방아, 디딜 방아.}

10319. # 아니, 여그 여그도 디들빵에, 우리가 쩌:깁 해:썬썬, 디들빵에. {아니 여기 여기도 디딜방아, 우리가 조금 했었어, 디딜방아.}

10319. # 그라고 그거시 머:시라헤야?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해?}

10319. # 나무로 해서 나락 부꼬 이:리 저리 이케 돌리믄 좀 까지고 그라드만. {나무로 해서 벼를 붓고 이리저리 이렇게 돌리면 좀 까지고 그러더구먼. }

10319. # 그렇거든 그저네 하는데 내가 썩:간 봐:써 그란디 그거는 문서에 올릴 피료 업:꼬. {그런 것은 그전에 하는 데 내가 조금 봤어, 그런데 그것은 문서에 올릴 필요 없고.}

10319. # 주로 여그서는 도:구떼로 나락 빵에 찌:치요. {주로 여기서는 절굿공이로 벼 방아 찧지요.}

10319. @ 예, 도:구떼로요이~. {예 절굿공이로요.}

10319. @ 디딜빵에도 저네 좀 이써꼬요? {디딜방아도 전에 좀 있었꼬요?}

10319. # 예, 드딜빵에도. {예 디딜방아도.}

10319. @ 그: 무리 귀하니까 물레방에 요령 거슨 업:써견네요? {그 물이 귀하니까 물레방아 이런 것은 없었겠네요?}

10319. # 예, 물레방에는 업:찌요. {예 물레방아는 없지요.}

10319. # 가:망업찌요, 여그, 무른 업:는데. {가망 없지요, 여기, 물은 없는데.}

10319. @ 그러면 인제 그 도:구떼로 찌:꼬 그먼 이 이걸 그러면 도:구떼 미테 요령걸 또 뭐라 합니까, 이르미? {그러면 인제 그 절굿공이로 찧고 그러면 이 이걸 그러면 절굿공이 밑 이런 것을 또 뭐라 합니까, 이름이?}

10319. # 도:구통. {절구통}

10319. @ 도:구통이라고 합니까? {절구통이라고 합니까?}

10319. @ 도:구통이 아까 돌:로 만드러진. {절구통이 아까 돌로 만들어진}

10319. # 예, 돌:로 만드러져썸니다. {예 돌로 만들어졌썸니다.}

10319. # 우리 이썸니다, 시방. {우리 있습니다, 지금.}

10319. # 그 피료가 업:써도 이:저네 씨덩 거슬 기양 버리기가 아깝따다. {그 필요가 없어도 이전에 쓰던 것을 그냥 버리기가 아깝썸니다.}

10319. # 그랑께 봐:뒤써. {그러니까 봐두었어.}

10319. #1 파로생 텅긴 사람이 마이~ 이써도 기양 암 포요. {팔라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냥 안 팔아요.}

10319. #1 더러 쓰는 때가 이써라. {더러 쓰는 때가 있어요.}

1031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19. #1 그렇거. {그런 거.}

10319. @ 저이 지븐 아파트여도 봐, 봐:뒤서 저는 그 물 다마가지고 물고기도 키우고. {저 희집은 아파트라도 놓아뒤서 저는 물 담아가지고 물고기도 키우고.}

10321. @ 그 다으메 그 인제 그, 나라기 인제 터 타:자기 데쓰며는 그 나라글 어:디, 어:디 다 봐똥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벼가 이제 타작이 되었으면 그 벼를 어디에다 봐똥니까?}

10321. @ 어:디다 그러케 두지가통거 가마니고 엔:나레는 어떤 시그로, 너:똥니까? {어디다 그렇게 뒤주 같은 것 가마니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넣어똥니까?}

10321. # 타, 인자 찌여가꼬? {이제 찧어가지고?}

10321. # 찌여가꼬 데:락찌기로 바서 고네기다. {찧어갓고 대략적으로 봐서 향아리에다('고네기'는 '향아리'의 방언형).}

10321. # 인자 두고 그란데 그저네 보문. {이제 두고 그러는데 그 전에 보문.}

10321. @ 머 고네기요? {뭐 '고내기'요?}

10321. # 고:나기, 고네기. {향아리.}

10321. @ 고네기가 뭐예요? {'고내기'가 뭐예요?}

10321. #1 향아리. {향아리.}

10321. # 향아리. {향아리.}

10321. @ 아,향아리 고네기라고 그래썬니까? {아 향아리 '고내기'라고 그랬습니까?}

10321. # 이거 사투리요, 고네기락 하믄. {이것 사투리요, '고내기'라고 하먼.}

10321. # 이, 이거이 사투리 머:한다 아납뎌자? 올케 해:꾸만. {이 이것이 사투리 뭐 한다 고 하잖았습디까? 옳게 했구먼.}

10321. @ 처음 처음 드러본 마:리네. {차음 처음 들어본 말이네.}

10321. # 사투리여, 그란데. {사투리요, 그란데.}

10321. @ 아, 큰 향아리에 너:논. {아 큰 향아리에 넣어놓}

10321. #1 예. {예.}

10321. # 향아리다 인자 향아리 또 지상이라고도 하고. {향아리다 이제 향아리 또 '지상'이라고도 하고.}

10321. # 지상은 향아리하고 웅:구하고 틀러라, 또 만드러징 거시. {지상은 향아리하고 웅기하고 달라요, 또, 만들어진 것이.}

10321. # 그런데 그런 데:락찌기로 이:저네 우덜 시대는 그라네찌마는 우덜 아그들때 보먼 가을:레 찌여서 나락 반절 쌀 반절 요러케 찌여서 향아리에다 저:장을 하덩마. {그런데 그런 대략적으로 이전에 우리들 시대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들 아이들 때 보먼 가을에 찢어서 벼 반 쌀 반('반절'은 '절반'의 방언형) 이렇게 찢어서 향아리에다 저장을 하더구먼. }

10321. # 그레가꼬 인자 까:끔 머글라믄 인자 고노믄 네:서 완:저니 찌여서 머꼬 그랍떠다, 마:라자면. {그레갓고 이제 가끔 먹으려면 이제 그것을 내서 완전히 찢어서 먹고 그랍디다, 말하자면.}

10321. # 그라 그거뽕고 뉘:싸리라 하더마, 뉘: 이따고, 뉘:쌀:, 뉘: {그래서 그걸 보고 '뉘쌀'이라고 하더구먼, 뉘 있다고 뉘쌀, 뉘.}

10321. # 이 나락 싸레가 세깁꺼 보고 뉘라하거등이라 뉘 그라이~께 뉘:쌀. {이 벼 쌀에 섞인 것을 보고 뉘라 하거든요 뉘 그러니까 뉘쌀.}

10321. @ 뉘싸리라고 그래요? {뉘쌀이라고 그래요?}

10321. # 예, 그거뽕고. {예, 그것 보고.}

10321. @ 그믄 이 뉘는 알겐는데 뉘싸른 처음 드러본 마:린데요. {그러면 이 뉘는 알겠는데 뉘쌀은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10321. # 아, 그라이~까 싸레가 뉘가 생겨쓰니까 뉘쌀 아닌지요, 싸레가. {아, 그러니까 쌀에 뉘가 생겼으니까 뉘쌀 아니겠소? 쌀에가.}

10321. # 뉘: 반절 쌀: 반절 고케 되덤마이~라. {뉘 반 쌀 반 그렇게 되더구먼이요.}

10321. # 그거뽕고 뉘쌀 {그걸 보고 뉘쌀.}

10321. @ 그렇게 향꺼버네 놔:뉘요, 쌀, 쌀하고 서꺼가지고? {그런 게 한꺼번에 놔두어요? 쌀, 쌀하고 섞어가지고?}

10321. # 고로케 찌여, 볼레 찢: 떼 고로케 찌여. {그렇게 찢어, 본래 찢을 때 그렇게 찢어.}

10321. # 고로케 찌여서 고만치만 찌여서 두고는 까:끔 네서 완:저니 찌여서 해:머급떠다. {그렇게 찢어서 그만큼만 찢어서 두고는 가끔 내서 완전히 찢어서 해먹습디다.}

10321. @ 어떠케 하나에가 쌀:도 드러이꼬. {어떻게 하나에 쌀도 들어 있고.}

10321. # 아니, 향아리가 한 쪼근 쌀, 한 쪼근 뉘가 아이~라, 싸레가 이케 반절반절 세껴

썩라. {아니 향아리가 한 쪽은 쌀 한 쪽은 뉘가 아니라, 쌀에 이렇게 반반 섞였어요.}

10321. @ 그래요? {그래요?}

10321. @ 그럼 다시 찌여요? {그럼 다시 찹여요?}

10321. # 그노믄 다시 찌치요. {예, 그것을 다시 찹지요.}

10321. #1 다시 퍼서 찌여서 인자. {다시 퍼어 찹어서 이제.}

10321. @ 그러면 쌀: 이미 찌여진노믄 어떻게 또 찌여요? {그러면 쌀 이미 찹어진 것은 어떻게 또 찹여요?}

10321. # 그러치요, 가치 찌치요. {그렇지요, 같이 찹지요.}

10321. # 그런데 마라자면 싸리 나락 껌땡만 버서저제. {그런데 말하자면 쌀이 벼 껌질만 벗어졌지.}

10321. # 완:저니는 안 버서지지라. {완전히는 안 벗어져요.}

10321. # 그라나게쑈? {그렇잖쑈?}

10321. # 그거뽕고 느무게는 완:저니 안 버서저제. {그것 보고 등겨는 완전히 안 벗어졌어.}

10321. # 그라니까 말하자믄 느무게야고 인자 그 뉘야고 버서지기 다시 찌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겨하고 이제 그 뉘하고 벗어지게 다시 찹어.}

10321. @ 뉘싸리요 그니까, 이케 반반 서껴진 쌀도 뉘싸리라고. {'뉘쌀'이요 이렇게 반반 섞어진 쌀도 뉘쌀이라고.}

10321. # 그러치, 그거이 뉘싸립니다. {그렇지, 그것이 뉘쌀입니다.}

10321. @ 아, 엔:나레는 뉘싸를 막 이러케 서껴노으면 머가 존: 모양이지요? {아, 옛날에 뉘쌀 막 이렇게 섞어놓으면 뭐가 좋은 모양이지요?}

10321. # 그랜능가 어젠능가 몰라도 히미 부조게서 그 정도 찌여서 두능가 모르거썩따.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힘이 부족해서 그 정도 찹어서 두능가 모르겠습니다.}

10321. @ 그래요이~. {그래요.}

10321. # 인자 시방은 기계로 찌:니까 막 드러가믄 쌀로 제테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기계로 찹으니까 막 들어가면 쌀로 제대로 나오는데.}

10321. 그런 때는 도:구뽕로 찌여가꼬 또 까부르고 또 찌여가꼬 까부르고 그라믄 페~야 완:저니는 안 찌여지거등이라. {그런 때는 절긱공이로 찹어갓고 또 까부르고 또 찹어갓고 까부르고 그러면 결국('팽야'는 '결긱, 내나'와 같은 뜻의 말이다.) 완전히는 안 찹어지거든요.}

10321. # 그러치 양커쑈? {그렇잖쑈?}

10321. # 도:구뽕로 찌니까. {절긱공이로 찹으니까.}

10321. @ 예, 아까 아까 쌀 싸를 그 뉘쌀 가통거슨 아까 고네기라고 하는 향아리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러서찌요? {예 아까 아까 그 쌀 쌀 뉘쌀 같은 것은 아까 고네기라는 하는 향아리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10321. @ 그러머는 그때는 가마니라는 게 업:써썩니까? {그러머는 그 때는 가마니라는 것이 없었썩니까?}

10321. # 그런 때는 우덜 어려서는 가마니라능거 업:써썩. {그런 때는 우리들 어려서는 가마니라는 것 없었어.}

10321. @ 가마니는 머 어디 일제 시테뽕 나완나요? {가마니는 뉘 어디 일제 시대 뽕 나왔나요?}

10321. # 가마니라는 거 업:꼬, 주로 메꼬리 메꼬리 지비로. {가마니라는 거 없고 주로 먹
등구미 먹등구미 짚으로.}

10321. # 공예품 안 만드요? {공예품 만들잖소?}

10321. 고려케 국:께 만드려 다머노코 인자 향아리에다 다머노코 지상에다 다머노코. {그렇
게 굵게 만들어 담아 놓고 이제 향아리에다 담아 놓고 '지상'에다 담아 놓고.}

10321. @ 지상은 멈:니까? {지상은 뭘니까?}

10321. # 지상은 향아리가치 생겨써도 향아리는 수:리 이케 오구:단테 지상은 꼬:꼬테라.
지상이랑 거슨. {지상은 향아리 같이 생겼어도 향아리는 주둥이 가장자리가('술:'은 향아리
주둥이의 가장자리 둘레를 가리킨다.) 이렇게 안으로 약간 들어갔는데('오긔하다'는 안으로
약간 들어간 모양을 나타낸다.) 지상은 곳곳해요. 지상이라는 것은.}

10321. # 그란데 마:라자면 향아리는 그 요세 그 켜:무리락 하나 머:시냐 그거슬 해:봐서
뽕뽕뽕뽕한데 지상은 그케 뽕뽕뽕뽕허도 안 해라, 마:라자면. {그런데 말하자면 향아리는 그
요세 그 갇물이라고 하나 뭐냐 그것을 해놓아서 반짝반짝한데 지상은 그렇게 반짝반짝하지
도 않아요, 말하자면.}

10321. # 그러슨 그르신데 그란데 예:저네는 볼 때 먼 가마이~ 가통 거슨 업:꼬. {그릇은
그릇인데 그런데 예전에는 볼 때 무슨 가마니 같은 것은 없고.}

10321. # 그 머다든 그 지비로 섬 여꺼서 인자 아주 예:저네는 그케 해:면 거싹떠다. {그
뭇하면 짚으로 섬 엮어서 이제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0321. # 그레가꼬 인자 그 뒤:로 가마이~ 가통거 찰:데 데고 인자 이케 발말험시로 차차
그케 데찌. {그레갓고 이제 그 뒤로 가마니 같은 것 찰 때 되고 이제 발달하면서 차차 그
렇게 됐지.}

10321. @ 그치요이~. {그렇지요.}

10321. @ 그 다으메 그 썬나라크 가통거슨 종자혈라고 따로 어떠케 보:관해듭니까? {그 다
음에 그 법씨 같은 것은 종자로 하려고 따로 어떻게 보관해듭니까, 따로?}

10321. # 영, 물론이지요. {영 물론이지요.}

10321. # 어, 네너네 요노를 해:야 데거따 그라든, 지금도 마찬가지로지요. {예, 내년에 이것
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10321. @ 지금도 그러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10321. @ 어디 무슨 땀 그르세다가. {어디 무슨 땀 그릇에다가.}

10321. # 아이, 시방은 거 가마이~에따, 차두에다 다머노코. {아이, 지금은 그 가마니에다
자루에다('차두'는 '자루'의 방언형) 담아 놓고.}

10321. @ 썬나라글 {법씨를}

10321. # 그르세다가양 다물 피로 업:씨. {그릇에다까지 담을 필요 없이.}

10321. @ 예, 예, 따 따로 무슨 저긴 업:꾸요이~? {예예 따 따로 무슨 저기 없고요?}

10322. @ 그 다으메 (7초) 인제 타:작 끝나고 그러머는 인제 집 집 아까 지브로 뭇 만드신
다고 그러셔써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작 끝나고 그러머는 이제 짚 짚 아까 짚으로 뭇 만드
신다고 그러셨어요?}

10322. # 집, 지베:여코 세네끼 꼬고. {짚 짚 해 놓고 새끼('세네기'는 '새끼'의 방언형) 꼬
고 }

10322. # 인자 마:라자면 소미기고. {이제 말하자면 소 먹이고}

10322. @ 예, 소메기고. {예 소 먹이고}

10322. # 에, 그노를 써:러서 소미게야조. {에 그것을 썰어서 소 먹여야지요.}

10322. #1 마람 여꺼서 지베:여코 여그 지붕이. {이영('마람'은 '이영'의 방언형) 엮어서 짚 해 넣고 여그 지붕이}

10322. # 가시라믄 밤:세 잠 모:짜라. {가을하면 밤새 잠 못 자요.}

10322. # 추와지기 저네 지베:열라고 밤:세 마라를 여꼬이꺼든. {추워지기 전에 짚 해 넣으려고 밤새 이영을 엮고 있거든.}

우덜도 제금 나가꼬 잠 모:짜, 가시라믄. {우리들도 분가해가지고('제금나다'는 '분가하다'의 뜻) 잠 못 자. 가을하면}

10322. # 마람 여꺼서{이영 엮어서}

10322. @ 메, 메:년 지블 {매 매년 짚을}

10322. # 메:년 여치요. {매년 넣지요.}

10322. # 영, 넘모나 지베:열라고. {남 먼저 짚 해 넣으려고}

10322. @ 그러치요이~. {그렇지요.}

10322. # 참 세상 조아저짜라. {참 세상 좋아졌지요.}

10322. @ 그 다으메 덕씩 까툇거슨 자주는 안 짜게, 안 짜게찌요. {그 다음에 덕씩 같은 것은 자주 안 짜게, 안 짜겠지요.}

10322. # 에, 덕씩 헤:노믄 상:당이 오래 쓰지요. {에 멍석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쓰지요.}

10322. @ 오래 쓰자나요이~. {오래 쓰잖아요.}

10322. # 에, 덕써근 {멍석은}

10322. @ 그거 지브로 합니까? {그거 짚으로 합니까?}

10322. # 지비로 하지요. {짚으로 하지요.}

10322. # 지비로 하는데 보::지라이~ 하믄 이녁찌비서 지여게도 하고 이케 하면 막 보름이면 끝내요. {짚으로 하는데 부지런히 하면 자기집에서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보름이면 끝내요.}

10322. @ 보름 보지라니 헤:서. {보름 부지런히 해서.}

10322. # 에:저네는 주로 깔꺼이 이따요 순:전 덕씩 방서기제. {예전에는 주로 깔 것이 있대요? 순전히 멍석 둥근멍석이지.('방석'은 둥글게 생긴 멍석을 라킨다.) }

10322. @ 방서근 멈:니까? {'방석'은 뭘니까?}

10322. # 방서근 덕씩가치로 멍기라써도 도리도리하양 항거뽕고 방서기라 하고. {방석은 멍석같이 만들었어도 둥글둥글한('도리도리하다'는 '둥그렇다'의 뜻) 것보고 방석이라 하고.}

10322. # 덕써근 요로케 요러케 항거시 덕써기고 그레써. {멍석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멍석이고 그랬어.}

10322. @ 네:모, 네:모지게 땡거시. {네모 네모지게 된 것이.}

10322. @ 집 아니고 혹시 무슨 데나무나 요령거 가지고도 멀: 만드셔써요, 이 지역, 이쪼게서 그렇게 이췌니까? {짚 아니고 혹시 무슨 대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도 뭇 만드셨어요, 이 지역 이쪽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10322. # 여기는 데나무가 귀:하니까 그랑가 어쨌가 멍기는 {여기는 대나무가 귀하니까 그런가 어쨌가 만드는데}

10322. @ 업찌요이~? {없지요?}

10322. # 업:찌요, 마:라자면. {없지요, 말하자면}

10322. @ 다른 무슨 나:무 가툇걸로 멀: 마드싱겔? {다른 무슨 나무 같은 걸로 뭇 만드신

것?}

10322. @ 업:짜요이~. {없지요.}

10323. @ 겨우레 땀 나무는 어:디서 {겨울에 땀 나무는 어디서}

10323. # 아, 이거. {아 이거.}

10323. @ 장만한다고 그레씀니까? {장만한다고 그랬습니까?}

10323. # 겨으레 땀:라무는 참:: 여그는 사니 귀:하고, 저:꼬. {겨울에 땀 나무는 참 여기는 산이 귀하고 적고.}

10323. # 사:람 마이~ 살고. {사람 많이 살고.}

10323. # 또 밤:며네 이 압찌네 하다시피 화:렴할 때 순 나무 때서 소그를 앙굽:씀니까? {또 반면에 이 앞전에 하다시피 화염할('화염'은 천일염의 하나이나, 햇볕 대신 불을 때어 소금을 만드는 점이 다르다.) 때 순 나무 때서 소금을 굽잖습니까?}

10323. # 그라니까 나무를 이넉 찌베서 땀로든 데:락 음녀기로 백쫓 치릴 시보일 너무먼 철:람하로 간다고 나마로 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기집에서 땀 것은 대략 음력으로 백중 칠월 십오일 넘으면 '철나무하러간다'고 나무하러 가요.}

10323. # 다른 부라근 그라넌데 우리 서포뿌라근 데:락찌기로 바서 점:부 나루 건네, 바닥: 건네 먼: 데 거등요. {다른 부락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서포 부락은 대략적으로 봐서 전부 나루 건너 바다 건너 먼 데거등요. }

10323. # 그라이까 일리리 텅길 쭈라 할 쭈가 업찌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닐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10323. # 보리쌀, 쌀, 집 요케 인자 질머지고 가요. {보리 쌀 쌀 짚 이렇게 이제 짹어지고 가요.}

10323. # 메시 자궐 짹 짜:가꼬 혼자 가능거시 아이~라. {몇이 조를('자국'은 함께 일하는 조를 가리킨다.) 짹 짜가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0323. @ 며칠씩 할라구요? {며칠씩 하려고요?}

10323. # 그레가지고 보:통 서:니면 서:니 너:니면 너:니 다서시든 다서시 자구글 짜가꼬 사늘 마라자면 철라무만 하기로 그에 철라무만 하기로 도:늘 주고 거그를 가요. {그레가지고 보통 셋이면 셋 넷이면 넷 다섯이면 다섯이 조를 짜가지고 산을 말하자면 철나무만 하기로 그 해 철나무만 하기로 돈을 주고 거기를 가요.}

10323. # 그레가꼬 인자 무린는데다가 나무를 찌서 이케 시여가꼬 마글 친다고. {그레갖고 이제 물 있는 데다가 나무를 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을 친다고.}

10323. # 마:라자면 도리도리 마라물 이고 비가 오드라도 비가 안 들치게 고러케 해:노코 인자 거그서 잠시로 바베머금시로 나무를 해:요. {말하자면 둥글둥글 이엉을 이고 비가 오더라도 비가 들이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자면서 밥 해먹으면서 나무를 해요.}

10323. # 나무를 하든 보:통 추석까장 한달간 거이 합니다, 나무를. {나무를 하면 보통 추석까지 한 달간 거의 합니다, 나무를.}

10323. # 그, 그런 때 싸른 업:꼬 순 보리밥 머꼬 반차니 이끼를 하까 처:메 갈 때는 물론 이넉찌비서 다:먼 반찬 쪼께라도 가꼬가게찌요. {그 그런 때 쌀은 없고 순 보리밥 먹고 반찬이 있기를 할까 처음에 갈 때는 물론 자기집에서 적지만 반찬 조금이라도('다:먼 ...이라도'의 형식으로 쓰여 양이 적음을 나타낸다.) 갖고 가겠지요.}

10323. # 여러 날 데먼 먼 반차니쑈?. {여러 날 되면 무슨 반찬 있소?}

10323. # 텐:장죽 끼레다가 끼레서 인자 순:저니 보리바베다 그케 머꼬하면 학:씨리 사:라미 기양 기양 쪽 빠져버려요. {된장국 끓여다가 끓여서 이제 순전히 보리밥에다 그렇게 먹고 하면 확실히 사람이 그냥 그냥 쪽 빠져버려요. }

10322. # 고려케 헤:노코 추석 시:고는 가서 인자 무껴서 저네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추석 쇠고는 가서 이제 묶어서 저 내립니다.}

10323. # 저서 인자 바닥까에로 네레 네레가꼬는 인자 베로 시로오지요, 그노믄. {저서 이제 바닷가로 내려 내려가지고는 이제 베로 실어오지요, 그것을.}

10323. # 시러다 인자 그 우리드리 마으른 그 사:방이 점부 갱:베니라나서 인자 마:라자면 물메기를 그거뽕고 워:니라 하는데 워:늘 땅 마가전는데 원뚜게다 푸지요, 베로 실:코와서. {실어다가 이제 그 우리들이 마을은 그 사방이 전부 갯가이기('갯변'은 '갯가'의 뜻)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물막이를 그걸 보고 원이라 하는데 원은 딱 막아졌는데 원둑에다 푸지요, 베로 싣고와서.}

10323. # 퍼가꼬는 인자 그노믄 저다가 마당에다 놀:러요, 베느를 크:게. {퍼가지고 이제 그것을 저다가 마당에다 놀:러요, 가리를 크:게.}

10323. # 이 시안네 그 놈 쪽:쪽 빼:서 불려코 살:지요, 마라자면. {이 겨우내 그것 쪽쪽 빼어서 불 넣고 살:지요, 말하자면. }

10323. # 그라제 방에 찌:체. {그러지, 방아 찧지.}

10323. # 순:저니 소 그 놈 집 써:러서 세죽 썬:서 미기제. {순전히 소 그놈 짚 썰어서 쇠죽 썬:서 먹이지.}

10323. # 거름닐 하제. {거름 일 하지.}

10323. # 그라고 인자 그 지발라 지, 지고 가서 그 철나무 함시로 바메는 세네끼 꼬:치요, 바메는. {그리고 이제 그 짚까지('알라'는 '조차, 까지'의 뜻으로 쓰이는 조사) 지고 가서 그 철나무 하면서 밤에는 새끼 꼬:치요. 밤에는.}

10323. # 또 그거뽕니요? 그런 때 먼 시를 꺼시 이쑈? {또 그것 뿐이요? 그런 때 무슨 신을 것이 있소?}

10323. # 지비로 신사머야조, 집세기. {짚으로 신 삼아야지요, 짚세기.}

10323. # 그레사 사네 도라뎡기제 발 버꼬는 도라뎡일 쭈 업:찌요. {그레야 산에 돌아다니지 발 벗고는 돌아다닐 수 없지요. }

10323. # 집가꼬와서 인자 바메는 시늘 사머야 바를 암버서 그랑께 신 사무:꼬. {짚 가지고 와서 이제 밤에는 신을 삼아야 발을 안 벗어 그러니까 신 삼았고}

10323. # 인자 아쳐게 일찌가니 세보게 바베무꼬가서 점:두룩 나무하고, 그런 세상을 사라쑈.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밥 해먹고 가서 저물도록 나무하고 그런 세상을 살았소.}

10323. # 참:: 장:한 세상 사라쑈, 차말로. {참 장그러운 세상 살았소, 참말로.}

10323. @ 그때는 어:떤 나무들을 마:니 헤:쑈니까? {그때는 어떤 나무들을 많이 했습니까?}

10323. # 테:락 달:째라고 그: 억팔 검:불 마:라자면 잠목 가통거. {대략 '달새'라고 그 억새('억팔'은 '억새'의 방언형) 검불 말하자면 잠목 같은 것.}

10323. # 소른 허가 이씨야 항께 소른 잘 모:담니다, 솔라무는. {소나무는 허가 있어야 하니까 소나무는 잘 못합니다, 소나무는.}

10323. # 예, 살림게서 팔리를 하거덩이라. {예, 살림계에서 팔리를 하거든요.}

10323. # 그라니까 소른 사네 소를 칠라든 당여니 살림게서 허가를 네야꼬 그 산 일쥔이면

일쥔, 이:정이면 이:정 허가를 내야꼬 그 소를 치제. {그러니까 소나무는 산에 소나무를 치려면 당연히 산림계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 산 일정이면 일정, 이정이면 일정 허가를 내가지고 그 소나무를 치지.}

10323. # 맘:데로 술 치면 걸립니다, 그거시, 베편. {마음대로 소나무를 치면 걸립니다, 그것이, 베편.}

10323. @ 여기는 다른 지여거고 달리 베편고 나가서 나무를 한다능거 좀 독트가네요이~.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배 타고 나가서 나무를 한다는 것 좀 독특하네요.}

10323. # 예, 주로 배로 신 {예 주로 배로 신}

10323. @ 배를 타고 다른 서:므로 감니까, 아니면 여그 진도 다른 지여그로?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감니까, 아니면 여기 진도 다른 지역으로?}

10323. # 여, 이 건네 마라자면 그, 저 방:조제 마거전은 데 이찌라? {여, 이 건네 말하자면 그 저 방조제 막아져 있는 데 있지요?}

10323. # 그저네는 {그전에는}

10323. @ 저는 쭈쭈 양가바썰요. {저는 쭈 안 가 봤어요}

10323. # 썰:: 썰::까장 강이요, 바다요. {저 저기까지 강이요,바다요.}

10323. # 바당께 저 건네 저: 너메 이: 너메 주로 배로 오지요. {바다니까 저 건너 저 너메 이 너메 주로 배로 오지요.}

10323. @ 거가 궁께 섬 그쪼게가 여기 진도가 진도 이지요, 다른 섬:. {거기가 그러니까 섬 그쪽이 여기 진도이지요, 다른 섬?}

10323. # 예, 진도 오고 마:라자면 흑:씨 가다가 썰 먼: 서:메서도 시러오고 그레썰요, 해: 오지요. {예 진도 오고 말하자면 흑시 가다가 저 먼 섬에서도 실어오고 그랬지요, 해오지요.}

10324. @ 그 다으메 이 겨우레 그 이 지금 가트른 여기 무 무시 이짚썰니까, 무시. {그 다으메 이 겨울에 이 지금 같으면 여기 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가.}

10324. @ 요걸 멈니까, 저:장을 해:뒤야 되자나요? {이거 뭍니까, 저장을 해 뒤야 되잖아요?}

10324. @ 다 몸:머금 거슨. {다 못 먹은 것은.}

10324. @ 그러면 언, 어떤 시그로 그러케 저:장을 해두능거또 썰 이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저장을 해두는 것도 썰 있지요.}

10324. # 여그:는 무시를 케:다가 우기로 집뻘늘로 우기로 더퍼노키도하고 그레썰. {여기는 무를 캐다가 위로 쥘가리로 위로 덮어놓기도 하고 그랬어.}

10324. # 그런데 머글꺼시 반찬도 업꼬 머글꺼시 업:꼬그러니까 무시를 그:르:케 무지하게 케:다나:도 한시안 머꼬나면 거자 떠러저뵈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반찬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무를 그렇게 무지하게 캐어다 놓아도 한 겨울 먹고나면 거의 떨어져버립니다.}

10324. # 하여간 주로 무시로 국끼레 먹제, 웨: 해먹제, 노무레 먹제, 하여간. {하여간 주로 무로 국 끓여 먹지, 회 해먹지, 나물 해먹지, 하여간.}

10324. # 그나제나 그라고 지금 세:상 가짜네 예:저네는 데:락썰기로 바서 가조기 마:네요. {그나저나 그리고 지금 세상 같지 않고 예전에는 대략적으로 봐서 가족이 많아요.}

10324. # 보:통 항가조기 심:명이상씩, 시보명, 요로케 데야요. {보통 한 가족이 십 명 이상씩 십오 명 이렇게 돼요.}

10324. # 그라이까 무시무시하니 달치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닳치요.}

10324. @ 그러지요. {그러지요.}

10324. # 그라고 임:서근 학:씨리 윤:달면 더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확실히 여럿이 되면('운달다'는 '여럿이 함께 행동을 하다'의 뜻) 더 먹습니다.}

10324. # 우:니 달면 여럿이 데면 더 머거. {여럿이 함께 먹으면 여럿이 되면 더 먹어.}

10324. # 이녀 혼자 머글라든 안 메케요. {자기 혼자 먹으려면 안 먹혀요.}

10324. @ 그러지요. {그렇지요.}

10324. # 그랑게 식땅빠비 더 마시씨. {그러니까 식당 밥이 더 맛있어.}

10324. @ 인제 무시 무시도 그러코 그러케 겨우레 이러케 좀 저:장해두는 거뜰 머:가 이썸니까? {이제 무, 무도 그렇고 그렇게 겨우레 이렇게 좀 저장해 두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10324. @ 베:추도 저:장해놓니까? {배추도 저장해놓습니까?}

10324. # 베:추는 그러케 우덜 보기는 저:장 아나고. {배추는 그렇게 우리들 보기는 저장 안 하고.}

10324. # 베:추는 마:라자면 김장 베추하든 김장 당:꼬. {배추는 말하자면 김장배추 하면 김장 담그고.}

10324. # 그 먼:베추라 하나 동베추라 하나 어짜냐 동베추. {그 무슨 배추라고 하나, 동배추라고 하나 어찌냐, 동배추}

10324. # 그거슨 가르레사 잘자란 놈 케:다가 심똥마이~라. {그것은 가을에야 잘잘한 것 캐다가 심더구먼요.}

10324. # 그레가꼬 거 노른 보메 짐치 다르고 그랍떠다. {그레가지고 그것은 봄에 김치 담그고 그럽디다.}

10324. # 이:저네 봉께. {이전에 보니까.}

10324. @ 그러면 인제 감자가통거슨 어떠케 임시로 보:관합니까? {그러면 이제 고구마 같은 것은 어떻게 임시로 보관합니까?}

10324. # 감자는 방아네다 보:가네야조. {고구마는 방안에다 보관해야지요.}

10324. # 예, 감자는 예:저네는 인자 머글꺼시 저궁께 감자는 마:니씩 논는데. {예 고구마는 예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적으니까 고구마는 많이씩 논는데.}

10324. # 감자 케:다가 사:라든 움모게서 자더라도 따순디다 간서베야 뎡니다 안씨쿨랑께. {감자 캐다가 사람은 윗목에서 자더라도 따듯한 데에다 간섭해야 됩니다. 안 씨힐러니까.}

10324. # 두데통을 크:게 해서 방아네다 저:장하지요. {통을(고구마 따위를 저장하기 위해 방안에 설치한 통) 크게 해서 방안에다 저장하지요.}

10324. # 사:라든 움무게서 자더라도 감자는 따순디다 간서베야 데요. {사람은 윗목에서 자더라도 고구마는 따듯한 곳에다 간섭해야 돼요.}

10324. @ 방이 야:튼 감짜 이꼬 심난해꺼썸니다 {방이 하여튼 고구마 있고 방이 복잡했썸니다.('심난하다'는 '복잡하다'의 뜻) }

10324. # 예, 그라이까 그라고 일런 예:저네는 방이 이케 굴:거뜨람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일년, 예전에는 방이 이렇게 굵었더람니까?}

10324. # 잘자레요, 하여간, 방에. {잘잘해요, 하여간 방이.}

10325. @ 그 다투메 지그른 부리 화:나지 안썸니까이~? {그 다음에 지금은 불이 환하지 않습니까?}

10325. @ 엔:나레는 방에 불 어터케 멀? {옛날에는 방에 불 어떻게 뵈}

10325. # 초꼬지제, 초꼬지 서규로 초꼬지뿔 {호롱이지('초꼬지'는 '호롱'을 가리킨다), 호롱. 석유로 호롱불}

10325. @ 네? {예?}

10325. @ 초꼬지 뿌리요? {'초꽃이불'이요?}

10325. @ 서규로 어떠케 초꼬지라능게 머예요? {석유로 어떻게 '초꽃이'라는 게 뭐예요?}

10325. # 초꼬지 모르거쨌요? {'초꽃이' 모르겠지요?}

10325. @ 예, 예, 이르미. {예 예 이름이.}

10325. # 호롱뿔: {호롱불}

10325. @ 예, 호롱뿔. {예, 호롱불}

10325. # 초꼬지 요마:네가꼬 사그로 데야가꼬 켜:까네 {호롱불 요만해가지고 사기로 되어 가지고 조금만해}

10325. @ 아, 그거 그거 초꼬지라고 합니까? {아 그것 그것 '초꽃이'라고 합니까?}

10325. # 그거 그건 세:다, 인자 심지 이썬가꼬 미테다 인자 서규 부서노면 심지로 빠라올 래서 부리 켜:지지요, 마라자면. {그거 그것 사이에다 이제 심지 있어가지고 밑에다 이제 석 유 부어놓으면 심지로 빨아올려서 불이 켜지지요, 말하자면.}

10325. # 고곤 씨제, 머 다룽거 이따요? {그것 쓰지, 뭐 다른 거 있대요?}

10325. @ 그러다가 정:기로 바로 이러케 가썬니까, 중가네 다룽건 업썬니까? {그러다가 전 기로 바로 이렇게 갔습니까? 중간에 다른 건 없습니까?}

10325. # 정:기로 처:메 드룽게 엄:마나 조은지 모르거썬따. {전기로 처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습디다.}

10325. # 그랑게 엄:마나 세:상이 조아저썬?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소?}

10325. # 저:나 드와썬. {전화 들어왔지.}

10325. # 정:기 드와썬. {전기 들어왔지.}

10325. # 참:: 우리 나라 참말로 조아저썬. {참 우리 나라 참말로 좋아졌지요.}

10325. @ 그때는 그 초꼬지에 부리라도 어터케 반 바늘귀를 꺾어썬요? {그 때는 그 호롱 불 불이라도 어떻게 바늘귀를 꿰었어요?}

10325. #1 누:니 절몽게 불궁게 꺾어썬. {눈이 젊으니까 밝으니까 꿰었지요.}

10325. # 그라지, 그란데 사:라문 질드리기 인능거썬따. {그렇지, 그런데 사람은 길들이 기 있는 것입디다.}

10325. # 어두면 어둔 데로 사라라, 하여간. {어두우면 어두운 데로 살아요, 하여간.}

10325. @ 그래도 머 하여튼 마음데로 머:슬 모데짜나요, 잘 안 보여서. {그래도 뭐 하여튼 마음대로 무엇을 못했잖아요, 잘 안 보여서.}

10325. @ 꺾꺾허고 어두우니. {깜깜하고 어두우니.}

10325. @ 하여튼 지그른 훨씬 밝게 살:지요. {하여튼 지금 훨씬 밝게 살지요. }

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6. @ 그다으메 인제 소키우는 이를 쫘 소가 중:요하지 안나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 키우는 일 쫘, 소가 중요하잖습니까?}

10326. #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10326. # 유:드기도 예:저네는 소 아이~면 농사 모:찌서썅니다. {유독 예전에는 소 아니면 농사 못 지었습니다.}

10326. @ 그럼 어디에다가 이러케 나두어썅니까, 소? {그럼 어디에다가 이렇게 놓아두었습니까, 소?}

10326. @ 소 키운 데는 머:라 그럼니까, 거기를. {소 키운 데는 뭐라 그럼니까, 거기를?}

10326. # 소: 웨양까니라고 그러지요, 웨양간. {소 외양간이라고 그러지요, 외양간.}

10326. # 영, 그라이까 데:락찌기로 바서 소 키는 데는 행낭, 행낭에가 부어기가 딸려가고 소 키는 데가 딸려 이썅니다. {영,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소 키우는 데는 행낭. 행낭에 부엌에 딸려 가지고 소 키우는 데가 딸려 있습니다.}

10326. # 마:라자면 부엌녀폐가 소 키는 데가 이썅. {말하자면 부엌 옆에 소 키우는 데가 있어.}

10326. # 그라몬 부어게서 세죽 쭈어가꼬 고노를 막 거그서 구수에다가 소: 그 바끄르세다가 퍼 넣기게 그라이까 거그서 인자 불려:코 그라몬 그거, 따따다기도 하고.{그러면 부엌에서 쇠죽 쭈어가지고 그것을 막 거기서 구유에다가('구수'는 '구유'의 방언형) 소 그 밥그릇에다가 퍼 넘기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 넣고 그러면 그것 따뜻하기도 하고.}

10326. # 마라자면 그 소:가 그러케서 살리지. {말하자면 그 소가 그렇게 해서 살리지.}

10326. @ 그 소 그 바끄르슬 머:라고 그레요? {소 그 밥그릇을 뭐라고 그레요?}

10326. # 웨양까니라고 하조. {외양간이라 하지요.}

10326. @ 아니, 소 바끄르. {아니 소 밥그릇.}

10326. # 바끄르 구수락 하조. {밥그릇 구유라 하지요.}

10326. @ 아, 구수라 합니까? {아, 구수라 합니까?}

10327. @ 그게 엔:나레 이렇거:또 이썅썅니까? {그게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10327. @ 자기가 소가 엄:는데 나무집썅을 가따가 길러가지고 거그서 아세끼 나:면 자기가 가지고, 그런 식또 이썅썅요? {자기가 소가 없는데 남의 집 소를 갖다가 길러가지고 새끼 낳으면 자기가 가지고, 그런 식도 있었어요?}

10327. # 그라이까 마:라자면 인는 사람 소를 쉬야지를 인자 가따가 인자 키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는 사람 소를 송아지를('쉬야지'는 '송아지'의 방언형) 이제 갖다가 이제 키워요.}

10327. # 키:몬 인자 그 쉬야지가 커가꼬 인자 쉬야지를 안 나썅? 그라몬 그 쉬야지 취심 하고 어시소는 쥘:네 주지요. {키우면 이제 그 송아지가 커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낳썅소? 그러면 그 송아지 취심하고 어미소는('어시'는 '어미'의 방언형) 주인네 주지요.}

10327. @ 어시, 어시소는 주인네 주고 이,그 원,원 그 소는 어시소, 어시소라고 그럼니까? {어시 '어시소'는 주인네 주고 이 그 원 원 그 소는 '어시소' '어시소'라고 그럼니까?}

10327. @ 그 얼마나 길러줘야 됩니까, 키워줘야 됩니까? {그 얼마나 길러줘야 됩니까, 키워야 됩니까?}

10327. # 약 한 삼년 킬꺼요, 삼년. {약 한 삼년 키울거요, 삼년.}

10327. @ 그레썅요이~? {그랬어요?}

10328 @ 소 키우고 인제 쇠야지가 이썅면 고 노를 키워가지고 웬만큼 되고 쟁기지를 할 때 좀 갈쳐야 되지요? {소 키우고 이제 송아지가 있으면 그것을 키워가지고 웬만큼 되고 쟁기질을 할 때 좀 가르쳐야 되지요?}

10328.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28. @ 어떠케 그를 {어떻게 그를}

10328. # 그 갈치능거 징하요. {그 가르치는 것 힘들어요.}

10328. # 이게 아날라거든. {이게 안 하려거든.}

10328. # 그라나게쏘? {그렇지 않겠소?}

10328. # 마:라자면 {말하자면}

10328. @ 멘 메쌀 때쯤 되면 그러케 그거 시킵니까? {몇 몇 살 때쯤 되면 그렇게 그것을 시킵니까?}

10328. # 메쌀 귀정보담도 텔쭈 이씨른 어려서부터 시기능거이 조:커썸따다. {몇 살 귀정보담도 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10328. # 예, 아주 커:불면 더: 질:드리기기가 성가셔. {예, 아주 커버리면 길들이기가 힘들어.}

10328. # 그란데 처제 모가지가 아프거등이라, 마:라자면. {그런데 첫째 목이 아프거든요, 말하자면.}

10328. # 모가지가 공이가 안저야 데는데 공이 아낭꼬 그라면 아프거든. {목이 용이가('공이'는 '용이'의 방언형) 생겨야 되는데 용이가 안 생기고 그러면 아프거든.}

10328. # 그랑게 아날라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

10328. # 그라니까 처:메는 인자 코를 꼬찌로 한: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코를 끌지요 하나가.}

10328. @ 어, 코를 뿌러져, 뿌러가지구요. {어, 코를 뚫어져 뚫어가지고요.}

10328. # 예, 뿌러가지고. {예 뚫어가지고.}

10328. # 뿌러가지고 인자 한나가 꼬꼬. {뚫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끌고.}

10328. # 인자 그라니까 처:메는 질 드릴 때 마:라자면 먼 나무 요로케 시:발 탱거슬 데:다가 도:글 인자 쪼까:난 놈 실:꼬는 인자 멩예를 채야가꼬 인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들일 때 말하자면 무슨 나무 이렇게 세 발 된 것을 대다가 이제 조그마한 것 싣고는 이제 멩예를 채워가지고 이제.}

10328. # 사:레미 소를 꼬꼬 뎡이지요. {사람이 소를 끌고 다니지요.}

10328. # 그라문 인자 꼬꼬 뎡이고 어느정 질테문 쪼칸 더 더 무건 놈 실:꼬. {그러면 이제 끌고 다니고 어느 정도 길 들여지면 조금 더 무거운 것 싣고.}

10328. # 그러케 인자 팽야 질드레가꼬 낭:중에는 인자 쟁기 채:서 인자 해:보지요. {그렇게 이제 결국 길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쟁기 채워서 이제 해보지요.}

10328. # 그란데 데:락 게::소케서 하든 다행인데 인자 농사 지:문 농사 꼬시 안 나요? {그런데 대략 계속해서 하면 다행인데 이제 농사 지으면 농사 끝이 나잖소?}

10328. # 시야네 노라 그라문 또 아날라게 인자. {겨울에 놀아 그러면 또 안 하려고 해, 이제.}

10328. #1 모가지가 또 아풍계. {목이 또 아프니까.}

10328. # 그럼 모가지 아프거등. {그럼 목 아프거든.}

10328. # 그란데 아주 인자 그 늘근 소 늘근 소는 겐차네라. {그런데 아주 이제 그 늙은 소 늙은 소는 팬참아요.}

10328. # 인자 절문거시 그라제. {이제 젊은 것이 그렇지.}

10328. @ 제민네요, 그거슨,예. {재미있네요, 그것은, 예.}

10328. @ 그레, 인제 그 소 이러케 하면서 니까 그러케 이쪼그로 가거라 저쪼그로 하면서

인제 고 흘:려늘 시키자나요? {그래 이제 그 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쪽으로 가거라 저 쪽으로 하면서 이제 그 뭐, 혼련을 시키잖아요?}

10328. @ 어터케 {어떻게?}

10328. # 인자 요쪼그로 오라경거슬 께피를 자바텅임서 이라, 이라, 그 께피를 이케 자바텅 이꺼다니요? {이제 이쪽으로 오라 하는 것을 고뻘('껴피'는 '고뻘'의 방언형) 잡아당기면서 이라, 이라 그 고뻘을 이렇게 잡아당기잖겠소?}

10328. # 자바텅임서 이라. {잡아당기면서 이라}

10328. # 저 쪼그로 가능 거슨 께피를 요러케 요러케 함시로 자라, 자라자라자라. {저쪽으로 가는 것은 고뻘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라, 자라자라자라.}

10328. @ 아까 저쪼기란 마른 윈:쪼김니까? {아까 저쪽이란 말은 왼쪽입니까?}

10328. # 예, 윈:쪼뻘고 자라자라. {예 왼쪽뻘고 자라자라.}

10328. # 오른쪼뻘고 자바텅임서 이라. {오른쪼뻘고 잡아당기면서 이라.}

10328. @ 어떤 서, 그, 뭐 가, 가딩걸 그망가라 할 때는. {어떤 서 그 뭐 가딘 걸 그만 가라 할 때는}

10328. # 가능거슬 께피로 탁 치지라, 이러케 이라 함시로. {가는 것을 고뻘로 탁 치지요, 이렇게 이라 하면서.}

10328. @ 아, 가고 딱 스락할 때는 어터케 {아 가고 딱 서라할 때는 어떻게}

10328. # 스라갈 때는 자바텅임시로 와: 그라만 습니다. {서라 할 때는 잡아당기면서 와 러면 습니다.}

10328. # 와: {와.}

10328. @ 영, 와: 하면. {영, 와 하면.}

10328. # 어찌 그러케 다: 그렁 거슬 다 저거가꼬와쪼? {어찌 그렇게 다 그런 것을 다 적어 가지고 왔소?}

10328. @ 아, 요거시 다 지방마다 달르거드뇨. {아, 이것이 다 지방마다 다르거든요.}

10328. @ 그 어찌케 머 이라, 자라니 와:니 이렇거또 {그 어떻게 뭐 이라 자라니 와니 이런 것도.}

10328. # 그, 그러치요. {그 그렇지요.}

10328. @ 다르, 다를 쪼가 이쪼요. {다를 수가 있지요.}

10328. # 다를 쪼가 이쪼요. {다를 수가 있어요.}

10328. @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이제.}

10328. #1 다:, 다릅디다. {다 다릅디다.}

10328. # 잉, 여그는 가라가능거뻘고 이라 그라고 께피를 탁 쳐. {예 여기는 가라고 하는 것뻘고 이라 그러면서 고뻘로 탁 쳐.}

10328. # 그라믄 인자 착 아라머꼬 발파리 데야서 가거등이라. {그러면 이제 착 알아듣고 발달이 되어서 가거든요.}

10328. # 그란데 인자 저:쪼그로 가라갈라믄 윈:쪼그로 가라갈라믄 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 {그런데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하려면 왼쪽으로 가라고 하려면 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

10328. # 이 께피를 아나드라도 마:이~ 해:본 소는 '자라' 그라믄 화:나이 알고 가라. {이 고뻘을 안 하더라도 많이 해본 소는 '자라' 그러면 환하게 알고 가요.}

10328. # 인자 또 오른쪼그로 오라갈라믄 '이라' 그라고 자부텅이믄 데고. {이제 또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려면 '이라' 그렇게 잡아당기면 되고.}

10328. # 그라고 인자 스라갈라든 '와:' 하믄서. {그리고 이제 서라고 하려면 '와' 하믄서}

10328. @ '와' 하먼 되겐네요. {'와' 하먼 되겠네요.}

10328. @ 인제 껌피가 중요하 {이제 고뻬가 중요하}

10328. # 예, 껌피가 중:요하지요. {예 고뻬가 중요하지요.}

10328. @ 코 이러케 코도 코는 언:제나 뽀뽀를 쑤 이씀니까? {코 이렇게 코도 코는 언제나 뽀을 수 있습니까?}

10328. # 보:통 코가 한 일런 나며 일런 쪼간 더 키:면 뽀를꺼시요. {보통 코가 한 일년 남짓 일년 조금 더 키우면 뽀을 것이요.}

10328. @ 그 어떠케 뽀씀니까, 함번만 {그 어떻게 뽀십니까? 한번만}

10328. # 뽀른 데 보먼 나무 솔라무를 날라:마이~ 깡까라, 마:라자면 꺾터리 이씨. {뽀는 것을 보먼 나무 솔나무를 날카롭게('날람하다'는 '날카롭다'의 뜻) 깡아요 말하자면 꺾트머리가('꺾터리'는 '끝, 꺾트머리'의 방언형) 있제.}

10328. # 그레가꼬는 잡꼬는 요케케 멘지면 멘지면 코가 야:룬 데 이씨, 소 코. {그레가지고는 잡고는 이렇게 만지면 만지면 코가 얇은('야롭다'는 '얇다'의 방언형) 데 있어, 소 코.}

10328. # 그라든 잡꼬는 네:뽀러불지라. {그러면 잡고는 내뽀어 버리지요.}

10328. # 그라든 처:메 뽀러노면 피 쪼간 나. {그러면 처음에 뽀어놓으면 피 조금 나.}

10328. # 그레가꼬는 인자 코뽀리를 끼여서. {그레가지고는 이제 코뽀레를 끼어서.}

10328. @ 무어슬 끼여요? {무엇을 끼워요?}

10328. # 코뽀리라고. {코뽀레라고.}

10328. @ 코뽀리? {코뽀레?}

10328. # 앵. {예.}

10328. #1 나무 {나무}

10328. # 나무를 이케 요리:케 텅거 아니십뻔자? 소: 아페 보먼 고거슬 끼여서 껌피는 안 다라, 처:메는.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된 것 있잖습니까?('-딘자'는 '-니까'의 진도 방언형) 소 앞에 보먼 그것을 끼워서 고뻬는 안 달아, 처음에는.}

10328. # 인자 처:메 다라노면 아프꺼 아님짜? {이제 처음에 달아놓으면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님짜'는 '-니까'의 진도 방언형)}

10328. # 그랑게 인자 여그다 막 썸:메 봐, 봐:두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막 잡아매('썸메다'는 '잡아매다'의 방언형) 놓아 놓아두지.}

10328. # 그레가꼬 어느 정 달려니 데몬 인자 쌀:쌀 껌피 달기 시작하지라. {그레갓고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이제 살살 고뻬 달기 시작하지요.}

10328 @ 예, 아까 보고 나무를 쏴 쏴 {예 아까 보고 나무를 코 코}

10328. # 코뽀리. {코뽀레.}

10328. @ 아, 코뽀리를. {아, 코뽀레를}

10328. # 예, 그거시 코뽀립니다. {예 그것이 코뽀레입니다.}

10328. @ 이 표준 바르든 코뽀레거든요. {이 표준 발음은 코뽀레거든요.}

10328. # 아, 그라꺼요? {아, 그러니까?}

10328. @ 근데 여기 코뽀리라고 하니까 다르, 다르자나요? {그런데 여기 코뽀리라고 하니까 다르잖아요?}

10328. # 그랑게. {그러니까.}

10328. # 사:투리란 선생니미 사:투리를 알라 안 오세쑈? {사투리는 선생님이 사투리를 알

려고 오셨잖소?}

10328. @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 지역마다.}

10329. @ 그 다투메 소도요, 이르미 여러가지 이썬요, 암놈도 이꼬 순놈도 이꼬. {그 다음에 소도요, 이름이 여러가지 있어요,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10329. # 황:소 예, 쑹, 쑹놈보고는 황:소라 아납뎌자? {황소 예 수컷보고는 황소라 하잖습디까?}

10329. @ 황소? {황소?}

10329. @ 또 큰: 노른 큰 황소는 머:라고 따로 이르미 이썬니까? {또 큰 것은 큰 황소는 뭇라고 따로 이름이 있습니까?}

10329. # 그라고 뿌가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부사리라고도('뿌가리'는 '부사리'의 방언형)하고.}

10329. @ 뿌가리요? {'뿌가리'요?}

10329. # 암:소 뿌가리 그라제. {암소 '뿌가리' 그러지.}

10329. @ 암소 뿌가리요? {암소 '뿌가리'요?}

10329. # 영, 암노른 암소. {영, 암컷은 암소.}

10329. # 쑹노른 뿌가리. {수컷은 '뿌가리'.}

10329. @ 쑹노미 뿌가리요? {수놈이 '뿌가리'요?}

10329. @ 영, 뿌가리는 왜 뿌가린가? {영, '뿌가리'는 왜 '뿌가린'가?}

10329. # 글쎄요? {글쎄요?}

10329. @ 뿌리 달런나요? {뿔이 달렸나요?}

10329. # 다: 뿌른 이썬요. {다 뿔은 있지요.}

10329. # 그런데 암:소는 실쥬거른 뿌리 빠져부요, 암:소는. {그런데 암소는 살짝만 해도 뿔이 빠져버려요, 암소는.}

10329. # 쏙소는 망치로 떼레도 암빠저라 그 이:상해라. {숫소는 망치로 때려도 안 빠져요, 그 이상해요.}

10329. #1 그렇가? {그런가?}

10329. # 쏙소는 망치로 두드려도 암빠썬니다. {숫소는 망치로 두드려도 안 빠집니다.}

10329. @ 더 크지요, 그리고. {더 크지요, 그리고.}

10329. # 크지요, 통통하지요. {크지요, 통통하지요.}

10329. # 그런데 암:소는 슬쥬가른 빠져부러라. {그런데 암소는 살짝만 해도 빠져버려요.}

10329. @ 그래요이~. {그래요.}

10329. @ 또 뿌리 모양이 여러가지가 이썬니까? {또 뿔이 모양이 여러가지가 있습니까?}

10329. # 예, 여러가지가 이썬요. {예, 여러가지가 있지요.}

10329. @ 어떤 시그로 구부늘. {어떤 식으로 구분을}

10329. # 여러가지요, 그 마랄쭈가 업썬. {여러가지요, 그 말할 수가 없어.}

10329. @ 이르미, 이르미 이썬니까, 흑썬? {이름이 이름이 있습니까, 흑시?}

10329. # 그 이르미 이썬띠다마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다마는.}

10329. @ 아, 이 모르시고요이~. {아, 이 모르시고요.}

10329. @ 또 소도 나이가 한살머근놈 두:살머근놈 그 이르미 이썬니까? {또 소도 나이가 한 살 먹은 소 두 살 먹은 소 그 이름이 있습니까?}

10329. # 이르미 이짜네, 이빨보고 안:다갑따다. {이름이 있지 않고 이빨보고 안다고 합디다.}

10329. @ 아, 나이는, 나이는 아:는데 거, 머. {아 나이는 나이는 아는데 그 뭐.}

10329. @ 한 살 머근 소라든가 두:살 머근, 따로 이름, 그런 이름. {한 살 먹은 소라든가 두 살 먹은, 따로 이름, 그런 이름}

10329. # 그건 모:르거썅니다. {그건 모르썅니다.}

10329. # 그란디 이빨 보든 메:쌀 머근주 안:다가더마이~요. {그런데 이빨 보면 몇 살 먹은 줄 안다고 하더구먼요.}

10330. @ 조, 조:은 소는 어터케 고릅니까, 어떠, 머, 머가 멀:보고 이빠를 보고 거 소 고를라든. {좋은 소는 어떻게 고릅니까, 어떠 뭐 뭐가 무엇을 보고 이빨을 보고, 그 소 고르려면}

10330. # 이빨 보든 점:꼬 늘궁거슬 마:라는 거시어썅꼬. {이빨 보면 젊고 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었썅고.}

10330. # 소 아비시레야 썅다가디야 어짜디야 그 그건 자사이 네가 소를 안머테바서 잘 모르거썅니다. {소 앞이 실패야 된다더냐 어떻더냐 그 그건 자세히 내가 소를 뭐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썅니다.}

10330. @ 예, 예, 아라썅니다. {예 예 예 알썅니다.}

10331. @ 그 다으메 엔나레 인제 머스미 이썅짜나요, 머스미.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머슴이 있었썅아요, 머슴이.}

10331. # 아:따, 착썅리는 점:부 무러보 {아따 착실히는 전부 물어보}

10331. @ 머스메는 어떤 머슴드리 이썅니까? {머슴에는 어떤 머슴들이 있썅니까?}

10331. # 머시든 시, 상:머심, 그 썅: 일: 자라고 머:단 머심보고 상:머심. {머슴은 상머슴, 그 제일 일 잘하는 어떤 머슴보고 상머슴.}

10331. # 그 다:메는 마라자면 종::머심 인자 썅깐 중간텐다 그말보고 종:머시미라 항거썅따다.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중머슴 이제 조금 중간 된다 그말 보고 중머심이라고 한 것입디다.}

10331. # 그라고 인자 아:주 야:그드리 머심사리 하능꺼뽓고 담: 여자보고는 담:사리, 그라드만. {그리고 이제 아주 아이들이 머슴살이 하는 것을 보고 여자보고는 담살이 그러더구먼.}

10331. @ 담:사리라고 {담살이라고.}

10331. @ 담:사리 헤명건 머 주로 무슨 이를 하지요? {담사리 했던 건 뭐 주로 무슨 일을 하지요?}

10331. # 주로 여자들 일:아니요? {주로 여자들 일 아니요?}

10331. @ 여자드리 이:를 하지요.{여자들이 일을 하지요.}

10331. # 예기도 봐:주고 인자 실리를 모:다니까. {아기도 봐주고 이제 큰일은('실일'은 '큰 일'의 뜻) 못하니까.}

10331. @ 머스든 어떤 시그로 두게 데나요? {머슴은 어떤 식으로 두게 되나요?}

10331. # 썅기질도 자라고 이, 일:자라는 사라든 상:머시밍게 인자 그 일런치 인자 품싸글 정하는거이지라, 마:라자면 그땐 당시에. {썅기질도 잘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상머슴이니까 이제 그 일년치 품삯을 정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땐 당시에. }

10331. # 인자 {이제.}

10331. @ 그 주인하고 서로 이러케 계약글 메씀니까? {그 주인하고 서로 이러케 계약을 맺습니까?}

10331. @ 데게 이저네 얼마 어느, 어느 정도나 주나요? {대개 이전에 얼마 어느 어느 정도나 주나요?}

10331. # 그걸 알거씀니까? {그거 알았겠습니까?}

10331. # 지금 세상과 이:전 세상아고도 틀리고. {지금 이 세상과 이전 세상과 또 다르고.}

10331. @ 엔날 기주느로 하먼 뭘, 나라글 멘 메써물 준다등가. {옛날 기준으로 하먼 뭘 버를 몇 섬을 준다등가?}

10331. # 예, 그케 하능거십따. {예 그렇게 하는 것임디다.}

10331. # 그란데 우리드리 머시물 안 사라보고 그레나서. {그런데 우리들이 머슴을 안 살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10331. @ 아니, 그 머스물 두거나 그레도 인제. {아니 그 머슴을 두거나 그레도 이제.}

10331. # 그런데 아주 예:전예가 머심사는 사라미 이써제. {그런데 아주 예전에 머슴을 사는 사람이 있었지.}

10331. # 지금 감시로는 머심 살 싸라몬 업:씀니다. {지금 와서는 머슴 살 사람은 없습디다.}

10331. # 솔찌간말로 도시에 가서 공장에 텅이먼 텅게제. {솔직한 말로 도시에 가서 공장에 다니면 다녔지.}

10331. # 초:네서 머심살 싸람도 업:꼬 초:네서 또 머심 디릴 싸람도 업:꼬. {촌에서 머슴살이 할 사람도 없고 촌에서 또 머슴 들일 사람도 없고.}

10331. @ 요새가 그러지요, 예, 그치요이~. {요새가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10331. @ 저네 어떤 지방은 세로 머스물 이러케 계약글 하머는 상을 항상 결:게 채려준다 그레요? {전에 어떤 지방은 새로 머슴을 이러케 계약을 하면은 상을 항상 성대하게 채려준다 그레요?}

10331. # 아 그레요? {아, 그레요?}

10331. @ 예, 그런 버븐 여기는? {예 그런 법은 여기는?}

10331. # 예, 거기장은 나는 잘 모르거씀니다. {예 거기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10332. @ 그 다투메 엔나레 노니 업:꺼나 땅이 업:는 사라몬 나무집 땅, 논 비러다가 빌려, 지여짜나요, 논 {그 다음에 옛날에 논이 없거나 땅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집 땅 논을 빌어서 빌려 해, 지었잖아요, 논?}

10332. @ 소:자기 이짜나요, 그 방시기 며까지가 이찌요? {소작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몇가지가 있지요?}

10332. # 그거 잘 몰라. {그것 잘 몰라}

10332. @ 그 나무집 꺼슬 해:가지고 오레 농사 수하강거슬 어터케 나눔니까, 주인하고? {그 남의 집 것을 해가지고 올해 농사 수확한 것을 어떻게 나눅니까, 주인하고?}

10332. # 영, 그건 네가 자사이 모르거씀니다마는 논 서:마지기면 서:마지기. {영,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논 세 마지기면 세 마지기.}

10332. # 진:는데 메까마니 주마, 이라고 진:는 거십따, 인자. {짓는 데 몇 가마니 주마, 이렇게 짓는 것 같습디다, 이제.}

10332. # 지금:도 자사이는 몰라도 논 노무가 염마지기 지:몬 사:십키로 한 열 서너 너더게 주능가 모르거쑈. {지금도 자세히는 몰라도 논 남이 엇 마지기 지으면 사십 킬로 한 열 서

너 개 주는가 모르겠소.}

10332. # 학씨리 안 줘바서. {확실히 줘 보지 않아서.}

10332. @ 그 인제 그 나락 홀튼 나라그로 주는데도 이꼬. {그 이제 그 벼 훑은, 벼로 주는 데도 있고.}

10332. @ 아놀튼, 아놀튼 무꺼논 무스로 주는 나락, 나락 나나 나나뭇는데도 이꼬 그러, 그러데요? {안 훑은, 안 훑은 묶어놓은 그 못으로 주는 벼, 벼 나눠먹는 데도 있고 그러더 군요?}

10332. # 예, 그런다능거 가뜰따다마는 네가 여그:는 아놀튼 나라기로 기양 주는데는 난 생각 모:뻥능건 간. {예 그런다는 것 같습디다마는 내가 여기는 훑지 않은 벼로 그냥 주는 데는 난 생각 못 본 것 같.}

10332. @ 다 홀통 걸로 주지요이~? {다 훑은 걸로 주지요?}

10332. # 예. {예.}

10333. @ 예, 그다으메 엔:나레는 동:네싸람들 이랄 때: 사람 소니 귀하니까 그래서 머 모를 송군다등가 그러며는 우리집 논 다른 지베가서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 일을 할 때 사람 손이 귀하니까 그래서 뭐 모를 심는다든가 그러면은 우리집 논 다른 집에 가서 해주고.}

10333. # 푸마시 꺼시로. {품앗이 것으로}

10333. @ 푸마시 하지요이~? {품앗이 하지요?}

10333. @ 푸마시는 어터케 그러면 저기합니까? {품앗이는 어떻게 그러면 저기 합니까?}

10333. @ 그냥 치난 사람들끼리 그러케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10333. # 아무사람도. {아무사람도.}

10333. @ 동:네 뭐 그런 머가 조지기 이릅니까? {동네 뭐 그런 뭐가 조직이 있습니까?}

10333. # 아, 조지근 업:쪼요. {아 조직은 없지요.}

10333. # 조지근 업:꼬 이랄마난 사람보고 우리지브로 푸마시로 올랑가 오시오 그레가꼬 온다가문 데꼬 하고 또 가푸른 풍 가퍼주고 그라지요. {조직은 없고 일하는 사람보고 '우리 집으로 품앗이하러 오려나?' '오시오', 그레가지고 온다고 하면 데리고 하고 또 갇으면 품 갇아주고 그러지요.}

10333. @ 주로 푸마시는 어떤 이를 할 때 푸마시를 마:니합니까? {주로 품앗이는 어떤 일을 할 때 품앗이를 많이 합니까?}

10333. # 주로 이:종할 때 주로 하고. {주로 이종할 때 주로 하고.}

10333. # 여자들 밤메고. {여자들 밭 매고.}

10333. # 인자 마:난닐 할 때 췌야 소니 부조가문 하능거 아니요? {이제 많은 일 할 때 결국 손이 부족하면 하는 것 아니요?}

10333. # 인자 혼자 하기 팍파가고 그라문 푸마사서 췌야 하문 덜: 심:심마고 그러지요. {이제 혼자 하기 힘들고('팍팍하다'는 '일이 힘들다'의 뜻) 그러면 품앗아서 결국 하면 덜 심심하고 그러지요.}

10333. @ 푸마시하며는 뭐 도:는 안주지요? {품앗이 하면은 뭐 돈은 안 주지요?}

10333. # 어, 그러치요. {어 그렇지요.}

10333. @ 서로 그니까 *** {서로 그러니까 ****}

10333. # 몸뚜~이로 가푸능 거시니까. {몸으로 갇는 것이니까.}

10334. @ 근데 인제 푸마시 아니고 사:라를 사서 이러케 하능 경우도 이짜나요? {그런데 이제 품앗이가 아니고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334. # 예, 사서 마이~. {예, 사서 많이}

10334. @ 그거 머:라고 그럼니까 그거슨? {그거 뭐라고 그럼니까? 그것은.}

10334. # 사서 오라고 그라지요. {사서 오라고 그러지요.}

10334. @ 아니, 그때 그런 사:라를 머:라 그레요? {아니 그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레요?}

10334. # 품들러 간다고 그러. {품 들러간다고 그러.}

10334. @ 품들러 간다고요? {품들러 간다고요?}

10334. # 예. {예.}

10334. @ 혹 이럼마를 써 보셔썸 노비란 마를 뇨? {혹시 이런 말을 써 보셨습니까? 뇨이란 말을 뇨?}

10334. # 그럼 마른 나 모:뜨리썸. {그런 말을 나 못 들었어.}

10334. @ 노블 어든다는 마른. { 뇨을 얻는다는 말은}

10334. # 아, 노를 어더? {아, 뇨을 얻어?}

10334. @ 뇨, 뇨 노블 어든다 { 뇨 뇨을 얻는다.}

10334. # 뇨? { 뇨?}

10334. @ 예, 아, 그거, 그럼 마를 안 쓰십니까? {예, 아 그거 그런 말을 안 쓰십니까?}

10334. # 예, 안 쓰요. {예, 안 쓰요.}

10334. @ 아, 품들러 간다고? {품들러 간다고?}

10334. # 예. {예.}

10334. @ 너무지베 품들러 간다. {남의 집에 품들러 간다 }

10334. # 돈: 벌러 간단 소리여. {돈 벌러 간다는 소리야.}

10334. @ 그러면 그, 이, 이러케 하는 사:라믄 그니까 나므, 자기 지베 이리 망:커나 그러면 푸마시라도 이러케 안되믄는 사:라를 하여튼 사서 헤:야 될 께 아납니까? {그러면 그 이 이러케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의 자기 집에 일이 많거나 그러면 품앗이라도 이렇게 안 되면은 사람을 하여튼 사서 해야될 것 아납니까?}

1033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334. @ 그럼 주로 어:디서 어떤 사라드를 씹니까? {그럼 주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씹니까?}

10334. # 아, 주로 동:네서 하제 먼 다르요? {아 주로 동네서 하지 뭐 다르요?}

10334. # 동네서 예:저네는 그렌는데 시방은 여그 싸람드리 헤:나미로 베:출하러 텡이고 그 략따다. {동네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여기 사람들이 해남으로 배추를 하러 다니고 그 략따다.}

10334. @ 예:저네 동:네서 하는데 그러면 그 싸근 머:스로 줍니까? {예전에 동네서 하는데 그러면 그 샅은 무엇으로 줍니까?}

10334. # 예:저네 {예전에}

10334. @ 아까, 아까는 집 열함무시면 된는데. {아까 아까는 짚 열한 못이면 됐는데.}

10334. # 인자 이너기 그건 마:라자면 지블 피료하는 사라믄 네가 이:레줄꺼시 지비로 품 싸글 주시요 하믄 인자 여러무슬 주고 {이제 자기가 그건 말하자면 짚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해줄 것이니 짚으로 품샅을 주시요' 하면 이제 여러 못을 주고.}

10334. # 그러치 아나고 인자 이:란 사람 마으미지라. {그렇지 앓고 이제 일하는 사람 마으

이지요.}

10334. # 지비로 주라갈라든 주라 하고. {짚으로 달라고 하려면 달라 하고.}

10334. # 도:이~로 주라갈라든 주라 하고. {돈으로 달라고 하려면 달라 하고.}

10334. # 곡씨기로 주라갈라든 주라 하고. {곡식으로 달라고 하려면 달라 하고.}

10334. # 인자 이:라는 사람 마음미제라, 그거슨. {이제 일하는 사람 마음이지요, 그것은.}

10334. # 규정이 데야가꼬인능거시 아이~라. {규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

10334. @ 그니까 자기 피료에 따라서 머:스로 지브로도 줄 쭈가 이따, 이마리지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무엇으로, 짚으로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10334. @ 그러며는 그때는 이제 밥세:끼는 다: 머겨주고 또 중간중가네 또 멀 머겨줘야 되지 안씀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밥 세 끼는 다 먹여주고 또 중간 중간에 또 뭘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10334. # 어, 그러지요. {아, 그렇지요.}

10334. # 아치물 이녁지베서 머꼬양께 아적 실:차든 쥐:야데고. {아침밥은 자기 집에서 먹고 하니까 아침 결두리는 쥐야 되고.}

10334. @ 실:참이라고 그러지요. {결두리라고요('쉴:참'은 '결두리'의 방언형) 그러지요?}

10334. # 예, 정:심 쥐아야 데고. {예 점심 쥐야 되고.}

10334. # 지역실참 쥐아야 데고. {저녁 결두리 쥐야 되고.}

10334. # 지역:까양 미게줘야 땀니다. {저녁까지 먹여줘야 땀니다.}

10334. @ 지역까지 메겨줘요? {저녁까지 먹여줘요?}

10334. @ 주로 그면 말:로 말: 줍니까, 실:참때는? {주로 그러면 뭇로 뭇 줍니까, 결두리 때는?}

10334. # 쉴:참때는 인자 이녁 성:이지라. {결두리 때는 이제 자기 성의지요.}

10334. # 마:라자면 술 모명은 사라든 밥또 가따줄 쭈도 이꼬. {말하자면 술 못 먹는 사람은 밥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10334. # 술 명는 사라든 술도 머꼬. {술 먹는 사람은 술도 먹고.}

10334. # 인자 성:이테로 이녁 장만해서 줄라든 주고. {이제 성의껏 자기가 장만해서 주려면 주고.}

10334. # 그거 귀정이 딱 데야가꼬 인능거슨 아니니까. {그거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10334. # 그라이~까 델쭈이쓰든 자레줄라고 마음먹찌라, 마:라자면, 누구나 업:씨.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잘 해주려고 마음 먹지요. 말하자면 누구나 없이.}

10334. @ 그레요이~. {그레요.}

10334. @ 자 여기서 일판 저기는 농사 진는 이야기는 마치게씀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저기는 농사 짓는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10334. # 예. {예.}

10334. @ 아이, 수고하셔씀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1.4 의생활

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 예, 지금, 그러며뇨, 이버넨 제가 여쭙보능 거슨 예, 미영에 대한 거드뇨. {예, 지금, 그러면요, 이번에 제가 여쭙보는 것은 어, 목화에 대한 것이거든요.}

10401 @ 미영은 언:제 심:씀니까? {목화는 언제 심습니까?}

10401 #1 미영은 오:월딸 시므요? {목화는 오월달 심으요?}

10401 # 한 사:월따른 그, 저 보리 고랑에다 안 심능가? {한 사월은 그, 저 보리 고랑에다 심잖나?}

10401 #1 아니 그랑께 오:월 따레도 시머. {아니, 그러니까 오월에도 심어.}

10401 # 오:월따리먼 너무 느쎸. {오월이면 너무 늦지.}

10401 #1 어, 사:월따레 싱겨쎸. {어, 사월에 심겠소.}

10401 @ 아 아 사월 따리구요, 예. {아 아 사월이고요, 예.}

10401 @ 그 어 어떠케 심:씀니까? {그 어떻게 심습니까?}

10401 @ 그 아까 마란 먼: 무슨 뎡: 농사 뎡 바테다가 다룽 거 힌 뒤:에 심는다고요? {그 아까 말한, 뎡 무슨 뎡 농사 뎡 밭에다가 다른 것 한 뒤에 심는다고요?}

10401 # 보리 꼬랑에다 {보리 고랑에다가.}

10401 #1 보리 꼬랑에다가 이케 삼도추로 이 고랑을 타가꼬요, 씨를 이러케 뿌려요. {보리 고랑에다가 이렇게 삼도추로('삼도추'는 밭고랑을 타는 농기구) 이 고랑을 타가지고요, 씨를 이렇게 뿌려요.}

10401 # 뿌리고 인자 밭로 함밭씩 감시로 이러케 더퍼가지요. {뿌리고 이제 밭로 한 밭씩 가면서 이렇게 덮어 가지요.}

10401 #1 더퍼. {덮어.}

10401 @ 응, **가지고, 예. {응, **가지고, 예.}

10401 @ 그 다으메 그러먼 그 머 인자 그 미영은 인제 시머가꼬 인제 크며는 어떠씀니까? {그 다음에 그러먼 그 뎡 이제 그 목화는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크면은 어떻습니까?}

10401 @ 제가 어릴때 기여근 고거 저 달작찌근해가지고 따무거뎡 기여기...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그것이 저 달작찌근해가지고 따먹었던 기억이...}

10401 #1 다 다레라고 다레요. {다래라고, 다래요.}

10401 # 다레가 열:지요. {다래가 열지요.}

10401 #1 다레가 열:지요. {다래가 열지요.}

10401 # 인자 고노미 여:물뜨러야 미영이 뎡니다. {이제 그것이 여물어야('여물들다'는 '여물다'의 뜻) 목화가 뎡니다.}

10401 # 여무리 드러야. {여물어야.}

10401 # 그라이~까 여물 드러분 노른 몸:무거요. {그러니까 여물어 버린 것은 못 먹어요.}

10401 # 여무리 안든노미데사 먹찌. {여물지 않는 것이어야 먹지.}

10401 @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10401 # 그레, 교:수님도 고거 따: 잡썩봐쎸? {그레, 교수님도 그거 따서 잡썩 봤소?}

10401 @ 예, 어려썩 뎡 달작찌근해썩요. {예, 어렸을 뎡 달작찌근했어요.}

10401 #1 그거 마시썩요. {그것 맛있어요.}

10401 @ 예,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요?}

10401 #1 그래가지고 여물들면 인자 한 오 파월 따레나 피요? {그래가지고 여물면 이제 한 오, 팔월 달에나 피오?}

10401 #1 이저부런네. {잊어 버렸네.}

10401 # 여무리 완:저니 드리까꼬 인자 하:: 머다면 저 혼자 버러지지라 하::안 하::야니 버러져 마라자면. {완전히 여물어가지고 이제 뭐하면 저 혼자 벌어져요, 하얀, 하얗게, 벌어져, 말하자면.}

10401 # 그라면 인자. {그러면 이제.}

10401 @ 고려면 인제 어떠 어떠케 따:니까, 그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따니까? 그것?}

10401 #1 소이~로 이케 따지요. {손으로 이렇게 따지요.}

10401 #1 소이~로 이케 두 소이~로 폭:폭 자부댕이문 잘 따져요.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쪽쪽 잡아당기면 잘 따져요.}

10401 # 쪽:쪽 빠져요. {쪽쪽 빠져요.}

10401 @ 고려면 딸: 떼는 머 여페다가 머 참니까 바구리를 하나 차 바구리 차? {그러면 딸 떼는 뭐 옆에다 참니까? 바구리를 하나 차? 바구니 차?}

10401 #1 바구리에다 따지요. {바구니에다 따지요.}

10401 # 바구리다 따고 여자드른 압초메 이러케 해:가꼬 초메에다 마이~. {바구니에다 따고 여자들은 앞치마('초메'는 '치마'의 방언형) 이러케 해가지고 치마에다 많이.}

10401 #1 예, 압초메 요케 해:가꼬 여그다 이케 당:꼬 여그다. {예, 앞치마 이러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러케 담고 여기다.}

10401 @ 인제 그 일리리 소니 소느로 따니까 그리 쉽: 쉽:찌 양쥬네요. {이제 그 일일이 손으로 따니까 그리 쉽지 않쥬네요.}

10401 #1 그레도 쉬워요 그거 따. {그레도 쉬워요, 그것 따.}

10401 @ 고 거슬 따:능거슨? {그것을 따는 것은?}

10401 #1 예. {예.}

10401 @ 그래가지구요, 고 미영 따: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어떠케 합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목화 따가지고 그것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401 @ 미영 따:서는 인제 어떠케? {목화를 따서는 이제 어떻게?}

10401 #1 따:가지고 인자 그 미영을 몰레가지고는 인자 또 아서요, 그 노물. {따가지고 이제 그 목화를 말려가지고는 이제 또 앓아요 그것을.}

10401 # 그라이~까 예:저네는 기계가 엽:썰때는 씨아시라고 이너기 이씨 멍긴 씨아시라고 고노미로 미영 엽:시룽 아서요. {그러니까 예전엔 기계가 없을 때는 씨아라고 자기가 있어 만든 씨아라고, 그것으로 목화 넣으면서 앓아요. }

10401 # 그랑게 한메디로 마레서 미영씨를 게리는 거여, 불가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목화씨를 가리는 거야. 발라내.('불그다'는 '바르다'의 방언형)}

10401 # 그레가꼬는 그놈 {그래가지고는 그것.}

10401 #1 인자 또 소이~로 활로 이케 타요, 고 미영을. {이제 또 손으로 활로 이렇게 타요, 그 목화를.}

10401 @ 활로 타요? {활로 타요?}

10401 #1 예, 인자 베를 할랑게 타요. {예, 이제 베를 하려니까 타요.}

10401 #1 타가꼬 또 꼬추를 모라가꼬는 인자 미영을 자:찌요. {타가지고 또 고치를 말아가 지고는 이제 무명을 찾지요.}

10401 # 활: 알거씀니까, 활:? {활 알겠습니까, 활?}

10401 @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10401 #1 모르지, 화를. {모르지, 활을.}

10401 # 하리라고. {활이라고.}

10401 @ 예, 아니 그리미 나중예 이거시 비여이쥬까? {예, 아니 그림이 나중예 이것이 비 어 있을까?}

10401 @ 잠까뇨. {잠깐요.}

10401 # 이:전 베 짜는데고. {이전 베 짜는 데고.}

10401 #1 베짜는 디구만. {베 짜는 테구먼.}

10401 #1 아::따. {아따}

10401 # 베짜기 저네가 이쥬꺼인데? {베 짜기 전에 있을 것인데?}

10401 @ 물레가 이쥬 거신데요이~? {물레가 있을 것인데요?}

10401 @ 요 나중예 제 다 여쭙볼 께니다, 요 그림보면서. {나중예 제가 다 여쭙 볼 것입 니다, 이 그림 보면서.}

10401 # 다 저기도 마:닌네. {아, 저기도 많이 있네.}

10401 # 하리 어찌게 생겐능가니 네가 갈차줍시다. {활이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내가 가르 쳐 주겠습니다.}

10401 # 데를 이케 꼬부장::아이~ 요케 멩기라썬. {대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만들었 어.}

10401 # 요러케 꼬부장아이~ 인자 그 딱 여그를 뜨겁게 해가꼬 좀 휘여썬라 요로케. {이 령게 구부정하게 이제 그 딱 여기를 뜨겁게 해가지고 좀 휘었어요 이렇게.}

10401 # 휘어서 주를 딱: 요러케 메:서 인자 물레. {휘어서 줄을 딱 이렇게 매서 이제 말 려.}

10401 # 파:쌍 몰라지면 노꾸늘 여그다 썸:메가꼬 요케 자바덴임서 인자 딱 썸:미요. {바썸 말려지면 노꾼을 여기에 잡아매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제 딱 잡아매요.}

10401 # 그라먼 {그러면}

10401 @ 이게 쏘:는 활처럼 생겐네요? {이것이 쏘는 활처럼 생겼네요?}

10401 # 예 활처럼 이케 생게썬. {예, 활처럼 이렇게 생겼어.}

10401 @ 아 그래서 화리구나. {아, 그래서 활이구나.}

10401 # 고노를 요러케 덴인 노를 잡꼬는 그거뽕고 {그것을 이렇게 당기는 것을 잡고는, 그것보고}

10401 #1 꼭뚜마리 {꼭두마리.}

10401 # 꼭뚜마리라 하제. {꼭두마리라고 하지.}

10401 # 미영을 요러케 데:고는 톡톡톡 그라먼 그 꼬니 탁 탁 티며 타지거드이랑. {목화를 이렇게 대고는 톡 톡 톡 그러면 그 끈이 탁탁탁 튀면서 타지거든요.}

10401 # 알:게쏘? {알겠소?}

10401 # 그랑게 한메디로 마레서 활: 쏘:는데 요러케 자부텨가꼬 노는 그 탁 썸기는 먼: 기우니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활 쏘는데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놓는 그 탁 썸기는('썸기다'는 '썸기다'의 방언형) 무슨 기운으로 나가썸소?}

10401 # 그라데끼 마라자면 꼭두마리가꼬 미영을 아슨 노물 두고 탁 탁 탁 치면 텍텍 튀어서 이노미 {그렇듯이 말하자면 꼭두마리 가지고 목화를 앓은 것을 두고 탁 탁 탁, 치면 툭툭 튀어서 이것이야.}

10401 #1 곱::께 타저요. {곱게 타저요.}

10401 # 곱::께 타지요, 마라자면. {곱게 타지요, 말하자면.}

10401 # 이:저네는 그러케 타썬요. {이전에는 그렇게 탔어요.}

10401 # 그레가꼬 인자 고노물 인자 물:치요, 고추라고 이러케 질쭈:가니. {그레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말지요, 고치라고 이렇게 길쭉하게.}

10401 # 그레가꼬는 미영을 이러케 안능거야, 그레썬라. {그레가지고는 목화를 이렇게 앓는 것이야, 그랬어요.}

10401 # 그랑께 그 타능 걸 할 안 바썬요? {그러니까 그 타는 것 할 안 봤지요?}

10401 @ 예, 모 빠. {예, 못 봐}

10401 # 모 빠썬 거요. {못 봤을 거요.}

10401 #1 모:빠썬요, 그랄 떼는. {못 봤지요, 그럴 떼는.}

10401 # 그랑께 그 쏘:는 활가치로 생게썬는데 쏘:는 화른 요 손잡는데가 요케 오구데 안 드러가썬? {그러니까 쏘는 활같이 생겼었는데 그 쏘는 활은 이 손 잡는 곳이 이렇게 오목하게('오구데'는 '오목하게'의 뜻) 들어갔썬소?}

10401 # 여그서는 그케 멩길쭈도업:꼬 그랑께 이케 뽕:: 돌려데야고 이썬라, 그랑께 잡꼬 탁탁 타능거. {여기서는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빙 돌려 되어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잡고 탁탁 타는 것.}

10401 @ 꼭두마리는? {꼭두마리는?}

10401 #1 꼭두마리 요 잠능거 썬:까너니 {꼭두마리 이 잡는 것 조그망게.}

10401 # 데마까집니다 {대나무 막대기입니다.}

10401 #1 데마까지요. {대나무 막대기요.}

10401 @ 응, 예, 그러케. {응, 예, 그렇게.}

10401 @ 응, 글썬요이~. {응, 글썬요.}

10401 @ 활로 타고 그 다으메 인제 고거슬. {활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10401 #1 고추를 모라가지고 인자 고추 가꼬 인자 물레에서 인자 이 자:썬라. {고치를 말아가지고 이제 고치 가지고 이제 물레에서 이제 잣지요.}

10401 #1 시:를 빼:요. {실을 빼요.}

10401 @ 시:를 빼:요 잉. {실을 빼요?}

10401 @ 물레를 돌리면서 {물레를 돌리면서}

10401 # 돌리면서. {돌리면서.}

10401 @ 아, 시:를 빼:요이~. {아, 실을 빼요.}

10401 @ 예, 그레가지구요? {예, 그레가지고요?}

10401 @ 시:를 만들면 나중에 인제 고놈 가지고는 실:로도 썬고. {실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그것 가지고는 실로도 썬고.}

10401 #1 실:로 인자 세로 또 자사야 데제. {실로 이제 새로 또 자아야 되지.}

10401 #1 그거슨 처징게 실:로는 모:썬요. {그것은 처지니까 실로는 못 썬요.}

10401 @ 아, 그레요? {아, 그레요?}

10401 @ 자슨 실 가지고는 그 다음땅게는 뭍:니까, 실 자사가지고는? {자은 실 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실 자아가지고는?

10401 #1 그 다:메는 아이고 그 요러케 뿔능거시 머:시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 이렇게 뿔는 것이 무엇이오?}

10401 #1 점부 여:가꼬 잔뜩 오래테야서 이저부런네. {전부 넣어가지고 너무('잔뜩'은 정도가 심한 모양을 나타냄.) 오래 되어서 잊어 버렸네.}

10401 #2 가마니씨, 아이고 그 그 머:시드라? {가만히 있어, 아이고 그 그 뭐더라?}

10401 # 그 미영쭈를 요만씨:가니 미영쭈를 하거드뇨. {그 무명 줄을 이만씩 하게 무명 줄을 하거든요.}

10401 # 그라이~까 질: 처:메 미영 자실람시로 집: 지벌 요케 껌떠글 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명 자으려면서 질, 질을 이렇게 껌질을 빼요.}

10401 # 껌떠글 빼:가꼬 그 가라기라고 쇠로 텅거세다 이러케 찢러. {껌질을 빼서 그 가락이라고 쇠로 된 것에다가 이렇게 찢러.}

10401 # 그레가꼬 인자 거:그다 자사서 마라자면 올레. {그레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아서 말하자면 올러.}

10401 #1 아이고 그거슬. {아이고 그것을.}

10401 # 시:를 {실을}

10401 #1 이베서 뱅뱅돈:디 모르건네. {입에서 뱅뱅 도는데, 모르겠네.}

10401 # 요마나 요마나이~ 자 자사요. {이만한, 이만하게 자아요.}

10401 # 그레가꼬는 그거뽕고 머:시라 가냐? {그레가지고는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하냐?}

10401 #1 그거슨 다 이저부러서 모:르거쑈, 저. {그것은 다 잊어 버려서 모르겠소, 저.}

10401 # 인자 그 데마까지를 가락 뽕: 구녀게다 쪽:쪽 질러. {이제 그 대나무 막대기를 가락 뽕 구멍에다 쪽쪽 질러.}

10401 # 그레가꼬 열계를 조르르라이~ 찢러꺼드뇨. {그레가지고 열 개를 조르르 찢렸거든요.}

10401 # 그레가꼬 인자 함:반디로 모테서 인자. {그레가지고 이제 한 군데로('반디'는 '군데'의 방언형) 모아서 이제.}

10401 #1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 고무래.}

10401 # 응 고무래 그거시. {응, 고무래, 그것이.}

10401 @ 고무래가 머:에요? {고무래가 뭐예요?}

10401 #1 고무래가 그 저저 미영뚜 찢리능 거시예요. {고무래가 그 저 토리('미영뚜'는 물레에서 자은 실을 감아 놓은 것으로서 '토리'의 방언형) 찢르는 것이예요.}

10401 #1 열계를 찢리 찢리능 거시여. {열 개를 찢르는 것이야.}

10401 @ 열:계를 찢러. {열 개를 찢러.}

10401 #1 열계를 찢레가꼬 이케 뽕바요, 이케. {열 개를 찢러가지고 이렇게 뽕아요, 이렇게.}

10401 @ 아 열:계를 하폐서 하나로? {아, 열 개를 합쳐서 하나로?}

10401 #1 예 하나로 이케 뽕바요, {예, 하나로 이렇게 뽕아요.}

10401 # 하나. {하나.}

10401 @ 합쳐지는군요, 열:개가. {합쳐지는군요, 열 개가.}

10401 #1 이케 열계를 합쳐지지요. {이렇게 열 개를 합쳐지지요.}

10401 # 요러케 이꼬, 요러케 이꼬, 요러케 이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10401 # 그러면 인자 여가 구녀기 뚜러져썬, 여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려졌어, 여기에.}

10401 # 요러케 찌르고 요러케 찌르고 요러케 찌르고 요러케 찌르고 요러케 찌러.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러.}

10401 # 열개를 조르라이~ 찌러. {열 개를 조르르 찌러.}

10401 # 그레가꼬 인자 요노미 꼬니 요케 모테저서 함반디로 이케 뽀부먼 열개가 합쳐저서 안 나오거썬? 그러케 합니다 마라자면. {그레가지고 이제 이것이 끈이 이렇게 모아져서 한 군데로 이렇게 뽀으면 열 개가 합쳐져서 나오잖겠소?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10401 @ 그러지요,잉. {그렇지요.}

10401 @ 예 그래요. {예, 그래요.}

@ 뭐 이러케 이러케 해서 나오면 그게 시:리되나요, 머 이게 합쳐징거시 미영시:리 되능거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게 실이 되나요, 뭐 이게 합쳐진 것이 무명실이 되는 거죠?}

10401 # 예, 그거 미영시:리라고. {예, 그것이 무명실이라고.}

10401 # 그레가꼬 인자 고노를 날제. {그레가지고 이제 그것을 날지.}

10401 #1 예 그노를 인자 날지라. {예, 그것을 이제 날지요.}

10401 # 마당에다 인자 {마당에다가 이제.}

10401 #1 마당에다가 {마당에다가.}

10401 # 말뚜글 질러노코 나라. {말뚝을 질러 놓고 날아.}

10401 @ 난:단마른 무슨 마립니까?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401 #1 요러케 질::게 인자 {이렇게 길게 이제.}

10401 # **. {**.}

10401 @ 와따가따 그러케 {왔다갔다 그렇게.}

10401 #1 예~ {예.}

10401 # 와따가따 함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10401 @ 가마 가머 가머요? {감아, 감아, 감아요?}

10401 #1 예 가머. {예, 감아.}

10401 # 그 시:를 베계를 할라면 그노미 열뽀 땡게야 안씨거썬? {그 실을 백 개를 하려면 그것이 열 번 다녀야 되잖겠소?}

10401 # 알:거찌라, 그거뽀고 난다능 거시여 마:라자면. {알겠지요? 그것보고 난다는 것이야 말하자면.}

10401 # 그 베계를 멩길라면 그란데 데:락 한 베기십게 되능가? {그 백 개를 만들려면 그런데 대략 한 백이십 개 되는가?}

10401 #1 그라꺼요. {그럴 것이오.}

10401 # 베기십게 더 해야. {백이십 개 더 해야.}

10401 #1 베한지가 잔:뚝 오레땡게. {베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니까.}

10401 # 오레땡게, 그러케 나라요. {오래 되니까, 그렇게 날아요.}

10401 # 나라가꼬는 그노를 싸. {날아가지고는 그것을 싸.}

10401 #1 인자 고노를 살마가 가지고 또 물 몰레가꼬, {이제 그것을 삶아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10401 # 짜 짜가꼬, {짜가지고}

10401 #1 짜가꼬 인자 몰레지라. {짜가지고 이제 말리지요.}

10401 # 응 소테다 살마가꼬 무레다, {응, 술에다 삶아가지고 물에다,}

10401 # 그레가꼬는 방마~이로 돌려서 짜:. 짜가꼬 몰레. {그레가지고는 방망이로 돌려서 짜. 짜가지고 말려.}

10401 # 그레가꼬는 인자 베를 멘:다고 미테다가 인자 수뿌를 이케 이러노코 {그레가지고는 이제 베를 맨다고 밀에다가 이제 숯불을 이렇게 일워 넣고}

10401 # 여그다 말뚝 두:를 질러노코. {여기에 말뚝 둘을 질러 넣고.}

10401 # 인자 요케 수뿌를 찌오면 풀치레서 이케 몰레, 풀치레서. {이제 이렇게 숯불을 지펴 오면 풀칠해서 이렇게 말려, 풀칠해서.}

10401 # 그레가꼬 여그서 늘장 강:꼬. {그리고 여기서 계속('늘장'은 '계속'의 뜻) 감고,}

10401 #1 이 도투마리 요케 뒤:에서 이케 늘 강:꼬 여그서는 요 아짐마드리 모도 맨:시로 {이 도투마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늘 감고 여기서는 이 아주머니들이 모두 매면서}

10401 # 풀치라고. {풀 칠하고.}

10401 # 그람 푸리몰라지면 늘장 가머야지요, 마:라자면. {그러면 풀이 말라지면 계속 감아야지요, 말하자면.}

10401 # 그레가꼬 인자 베트레 올라가능거여. {그레가지고 이제 베틀에 올라가는 것 이야.}

10401 @ 베트레올라가서 하능 거뜨른, {베틀에 올라가서 하는 것들은,}

10401 # 인자 거그는 인자, {이제 거기는 이제,}

10401 @ 미영베나 삼베나 비스탐니까? {무명베나 삼베나 비슷합니까?}

10401 #1 예 그라꺼, {예, 그럴거}

10401 # 아 그러지요. {이, 그러지요.}

10401 #1 예 짜능 거슨 비스데요. {예, 짜는 것은 비슷해요.}

10401 # 비스데. {비슷해.}

10401 #1 그레도 삼베는 안 떠러징께 더 짜기 조:커썽따다. {그레도 삼베는 안 떨어지니까 짜기 더 좋겠습디다.}

10401 @ 아 미영베는 자꾸 떠러저요? {아, 무명베는 자꾸 떨어저요?}

10401 #1 잘 떠러저요. {잘 떨어저요.}

10401 # 인자 어서 말씀 나누씨요 인자 거까장 헤:씨니까. {이제 어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10401 @ 미영베는 자꾸 줌 야카구뇨이~? {무명베는 자꾸 줌 약하군요?}

10401 #1 예 야캉께 잘: 떠러저요. {예, 약하니까 잘 떨어저요.}

10401 @ 그럼 떠러지면 어떠케 다시 또?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또?}

10401 #1 떠러지면 인자 인:능 거시 이찌요. {떨어지면 이제 잇는 것이 있지요.}

10401 #1 인:능 거시 이쓰면 인자 그거슬 이케 늘 이서서 짜지요. {잇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늘 이어서 짜지요.}

10401 @ 그레요이~. {그레요.}

10402 @ 그레요, 그러면 요 미영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는 미영도 헤 짜:보시고 삼베도 헤 썬요? {그레요, 그러면 이 무명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는 무명도 짜 보시고 삼베도 했어요?}

10401 #1 삼베는 우더른 안 짜바썬요. {삼베는 우리들은 안 짜 봤어요.}

10402 #1 삼베는 이런데서 아네요. {삼베는 이런 데서 안 해요.}

10402 @ 아 여기 이 동네서 안 {아, 여기 이 동네에서 안}

10402 #1 예 아네요. {예, 안 해요.}

10403 @ 그럼 모시 가통거또 아나시고 {그럼 모시 같은 것도 안 하시고}

10403 #1 예 {예.}

10401 @ 그럼 주로 하능 거시 미영베겐네요? {그럼 주로 하는 것이 무명베겠네요?}

10401 #1 미영베를 해:쨌요. {무명베를 했지요.}

10402 @ 삼베는 그러면 쩌 마포가통거 쓸니리 이찌 안씀니까, 그거 점부 사다해? {삼베는 그러면 저 마포 같은 것 쓸 일이 있잖습니까? 그것 전부 사서 해요?}

10402 #1 예 사다쓰지요 이런 데는. {예, 사서 쓰지요 이런 곳은.}

10402 #1 결:때 이런디는 삼:베 그렇 거슨 안, 아네요. {절대 이런 곳은 삼베 그런 것은 안 해요.}

10402 #1 이 미영베베끼 아네쨌요. {이 무명베밖에 안 했어요.}

10402 @ 웨 그레쨌까요, 판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10402 #1 클쨌요. {글쨌요.}

10402 @ 그 이 이 땅이 ** 그 사미 안 나능가? {그 이 땅이 ** 그 삼이 안 나능가?}

10402 #1 그랑가 요런 데는 삼베는 일:쨌 아네쨌요. {그런지 이런 데는 삼베는 전혀 안 했어요.}

10402 @ 아 그레쨌요이~? {아, 그랬어요?}

10401 @ 그러면 이 미영베는 그러면 쨍:장이 마:니 해:씀니까? {그러면 이 무명베는 그러면 쨍:장이 많이 했습니까?}

10401 #1 예 마:니 해쨌요, 마::니 하고. {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10401 #1 미영도 그러케 마:니 아주 자:꼬 미영을 자슴스려. {무명도 그렇게 많이 아주 갖고 무명을 자으면서.}

10401 #1 인자 우리 어머니 우리 성님네들 우리 우게가 성님들 두:부니, 나: 우리 어머님 인자 게, 게:시는데 점:부 바메 바메도 그케 물레를 로코 함::방 놔:두고 미영을 자스면 어머니미 가 자거라 그레야 자지.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 우리 위에 형님들 두 분이, 나 우리 어머님 이제 계시는데 전부 밤에, 밤에도 그렇게 물레를 놓고 한 방 놓아 두고 무명을 자으면 어머님이 가서 자거라 그레야 자지.}

10401 #1 자람말 아나면 모:짜요. {자라는 말 안 하면 못 자요.}

10401 #1 그거시 씨집싸립떠다. {그것이 시집살이입디다.}

10401 #1 그레요. {그레요.}

10401 #1 그러면 인자 우리 큰성 형니미 도라가셔찌마는 초지역~짜미 마: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큰형, 형님이 돌아가셨지마는 초저녁 잠이 많으니까.}

10401 #1 물레 아페만 안지면 막 크:떡크떡 자무로면. {물레 앞에만 앉으면 막 꾸벅꾸벅 졸면.('자무롭다'는 '졸다'의 방언형)}

10401 #1 우리 어머니미 나를 이케 조아해 저거 짬 바라 느그 성이~문 저러케 자미 온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저것 좀 바라 너희 형님이 저렇게 잠이 온다.}

10401 #1 그거:시 씨집싸립떠다. {그것이 시집살이입디다.}

10401 #1 어머니미 가 자거라 그러면 자고 자람말 아나면 결:때 모:짜요. {어머님이 가서 자거라 그러면 자고, 자라는 말 안 하면 절대 못 자요.}

10401 @ 그레 이제 한 일량 이쓰니까 아 그거 항꺼버네 이라면 쫘 더 나 나:쨌네요? {그레 이제 한 일 양이 있으니까 아 그거 한꺼번에 일하면 쫘 더 낫겠네요?}

10401 #1 예 {예.}

10401 @ 덜 피고나고? {덜 피곤하고?}

10401 #1 그러지요. {그렇지요.}

10401 @ 이 저네 어떤데는 보니까 삼베도 그러케 푸마 푸마시는 아니지만 이러케 향꺼 모여서 모여서 하더라구요. {이전에 어떤 데는 보니까 삼베도 그렇게 품앗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더라구요.}

10401 #1 이: 미영베도 우덜또 점:부 푸마사서 미영도 자사썩요. {이 무명베도 우리들도 전부 품앗이해서 무명도 자았어요.}

10401 #1 점:부 인자. {전부 이제.}

10401 @ 아 그러서썩요? {아, 그러셨어요?}

10401 @ 그러면 그 미영 자스며는 물레를 가꼬텡김니까? {그러면 그 무명 자으면은 물레를 가지고 다닙니까?}

10401 #1 가꼬텡기지요. {가지고 다니지요.}

10401 #1 그 지비로 가꼬와서 자:꼬 또 물레 가꼬와서 그지비 또 노무집까 또 자:꼬. {그 집으로 가져와서 갖고 또 물레 가져와서 그 집이 또 남의 집에서 갖고.}

10401 #1 그러면 얼른 데야요. {그러면 얼른 되어요.}

10401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401 @ 그러면 그 때 머: 그렇 거슬 머:라고 불러썩니까, 이러케 이양 며 싸라미 푸마시에서 짱거슬 보고 무슨, 그런? {그러면 그때 뭐 그런 것을 뭐라고 불렀썩니까, 그렇게 그냥 몇 사람이 품앗이해서 짬 것을 보고 무슨, 그런?}

10401 #1 푸마시라고 인자 그라고 {품앗이라고 이제 그러고.}

10401 @ 푸마시라고 {품앗이라고.}

10401 #1 예 푸마:서서 미영 잔:는다고 그레썩요. {예 품 앓아서 무명 잣는다고 그랬지요.}

10401 @ 다른 마:른 업:썩꾸요이~? {다른 말은 없었고요?}

10401 @ 그 다:메 그럼 베트레는, 머 삼베나 모시는 업:쓰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베틀에는, 뭐 삼베나 모시는 없으니까 놔두고요.}

10401 @ 베트레도 그 여러가지 이르미 이썩요이~. {베틀에도 그 여러가지 이름이 있어요.}

10401 #1 예 {예.}

10401 @ 머 머시 기영나세요, 베틀? {뭐, 뭐가 기억나세요, 베틀?}

10401 @ 아까 베틀 이썩썩요. {아까 베틀 있었지요.}

10401 @ 베트리, 우:게가 지금 베트리잔썩니까? {베틀이, 위가 지금 베틀이잖습니까?}

10401 #1 네. {예.}

10401 @ 예 머: 머:머가. {예, 뭐 무엇 무엇이?}

10401 #1 이렇 거 베트레가 잉예가 여그 요거시 잉앵가 잉예고. {이런 것 베틀에 잉아가 여기 이것이 잉안가? 잉아고.}

10401 #1 이 손 자봉 거슨 보두집. {이 손 잡는 것은 바디집.}

10401 #1 또 이케 찌르는 거슨 북:. {또 이렇게 찌르는 것은 북.}

10401 #1 이거슨 설파리라 하나 설파리. {이것은 설다리라고 하나? 설다리.}

10401 #1 요 발 끼:능거슨 발치기라고 인자 그레요. {이 발 끼우는 것은 발치기라고 이제 그레요.}

10401 @ 발치기요? {발치기요?}

10401 #1 예. {예.}

10401 @ 요 발 이러케는 요 발 {이거 발, 이러케는 이 발.}

10401 #1 끈 끄서따 요케 머:테따 하능거~이 발치기고. {끈 끝었다 이렇게 뭐 했다 하는 것이 발치기고}

10401 #1 여러가지요, 이거시 아주. {여러가지요, 이것이 아주.}

10401 #1 부기 이꼬 보두집 잉에 여러가지가 이썬요. {북이 있고 바디집, 잉아, 여러가지가 있어요.}

10401 @ 그러면 고로케 인제 미 저 미영베 베짖: 때는 건: 베를 짖 때는 그 항꺼버네 모여서 할 쏘 업짜나요, 베틀 하나 {그러면 그렇게 무명베를 짖 때는 그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베틀 하나.}

10401 #1 그러지요 인자 이역~찌비서 한:자 이거슨 베는 짜지요. {그렇지요 이제 자기 집에서 혼자 이것은 베를 짜지요.}

10401 @ 혼자 하지요이~. {혼자 하지요.}

10401 #1 여자드른 베짜기가 켈:: 땀니다, 아주. {여자들은 베짜기가 제일 힘듭니다('되다'는 '힘들다'의 방언형). 아주.}

10401 @ 주로 언:제 그뎀 바메 째니까? {주로 언제, 그러면 밤에 째니까?}

10401 #1 아:니요, 나제 {아니요, 낮에.}

10401 @ 나제 짜지요? {낮에 짜지요?}

10401 #1 바쁜 사람드른 바메도 짜 짜요, 이 불 썬노코. {바쁜 사람들은 밤에도 짜요, 불 켜 놓고.}

10401 @ 그럼 농사이른 언:제 아 그뎀 아나겐네요, 베짖 때? {그럼 농사 일은 언제, 아 그때는 안 하겠네요, 베 짤 때?}

10401 #1 아이~, 베짖때는 시야네 하지요. {아니, 베 짤 때는 겨울에('시야'는 '겨울'의 방언형) 하지요.}

10401 @ 아 겨우레 합니까? {아, 겨울에 합니까?}

10401 #1 예 겨우레 이일 다해:노코 농사일 다해:노코. {예, 겨울에 이 일 다 해 놓고, 농사일 다 해 놓고.}

10401 @ 시야네요? {응, 겨울에요?}

10401 #1 예 {예.}

10401 @ 근데 그거 하다가 또 밥때 되머는 또 밥 쥘비하고. {그런데 그것 하다가 또 밥때 되면 또 밥 쥘비하고.}

10401 #1 예 그라:니까 여러이 그런때는 모여서 인자 성님드라고 살:면 베짜는 사라믄 하:나고 짜고 또 바바는 사라믄 바바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럿이 그런 때는 모여서 형님들하고 살면 베짜는 사람은 계속('한하고'는 '끝없이, 계속'의 뜻) 짜고 또 밥 하는 사람은 밥 하고 그래요.}

10401 #1 지금마~이로 이케 두늘그이~ 살:자네 그런때는 여러:이 안 사라썬닌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늙은이 살지 않고 그런 때는 여럿이 살잖았습니까?}

10401 @ 그러겐네요이~. {그러겠네요.}

10401 @ 그리고 인제 누가 베를 짖:꺼싱가 그뎀 아무레도 쏘 베 솜씨가 다르자나요? {그리고 이제 누가 베를 짖 것인가 그러면 아무레도 쏘 베 솜씨가 다르잖아요?}

10401 #1 우더리 솜씨가 조:아쎄요. {우리들이 솜씨가 좋았어요.}

10401 @ 그니까 잘 짜:는 사람 한 **** 그리고. {그러니까 잘 짜는 사람 한 **** 그리고.}

10401 #1 그랑께 우리 어머니미 어찌 신난 당시~이라나서 네가 고야리서 인자 요:리 인자 계가지고 완는데 괴:기라야 니:가 베짜라 인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미 어찌 솜씨가 좋은('신하다'는 '솜씨가 좋다'의 뜻)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고야리에서 이제 이리 이제 그래가지고 왔는데 괴길아야('괴길아'는 고야리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 네가 베짜라 그래요.}

10401 #1 베짜기가 그러:케 심드러요. {베짜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10401 #1 우더른 모미 이케 야가니까 베는 이케 잘 짜는데. {우리들은 몸이 이렇게 약하니까 베는 이렇게 잘 짜는데.}

10401 #1 인자 점:두룩 베짜고 나오면 기양 히칠히칠 자빠져 잔:뜩 심등께. {이제 저물도록 베짜고 나오면 그냥 비틀비틀('히칠히칠'은 비틀거리는 모양을 가리킴) 넘어져 아주 힘들니까.}

10401 #1 그란:데 베를 하루 향:가래씩 끄너요 그러케 잘 짜쎄. {그런데 베를 하루 한 가래씩 끊어요. 그렇게 잘 짰어.}

10401 @ 하루 하루 얼마씩요? {하루 하루 얼마씩요?}

10401 #1 함피를 짜요. {한 필을 짜요.}

10401 @ 어,야 데다나네. {어, 야 대단하네.}

10401 #1 그라이~까 인자 그 베도 짜도 인자 드물게 짜고 텍테가이 짜고 조:케짜면 인자 우리 어머니미 어::찌 시난 당시나라 이 이거시 이러트면. {그러니까 이제 그 베도 짜도 이제 성기게 짜고 특특하게 짜고 좋게 짜면 이제 우리 어머니미 어찌 솜씨가 좋은 당신이라 이것이 이틀테면.}

10401 #1 베다 그러면 이 이케 이케 보아요, 잘짠능가 모:짠능가 그거슬 그거슬 불라고. {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봐요, 잘 짰는지 못 짰는지 그것을 그것을 보려고.}

10401 #1 그러면 인자 우리 성니미 짜: 탄 부라게서 오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이 저 다른 부락에서 오셨는데}

10401 #1 인자 아이고 우리 고야리네가 베를 정 정:말 잘 짠다 그라고 어::째 칭찬하면 우리 성니미 미야납따다. {이제 아이고 우리 고야리네가 베를 정말 잘 짠다 그렇게 어찌나 칭찬을 하면 우리 형님이 미안함디다.}

10401 #1 우리 성니몬 베를 드물게 짱:께. {우리 형님은 베를 성기게 짜니까.}

10401 #1 그랑께 나보고 향:상 베를 짜라가요. {그러니까 나보고 항상 베를 짜라고 해요.}

10401 #1 아이고 어::찌 허리 아프고 막 심들고 그러면 그래도 인자 할 쑤 업씨 이케 시기는데 어찌게 하거쑈? {아이고 어찌 허리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소?}

10401 #1 짜고 그라는디. {짜고 그러는데.}

10401 #1 인자 우리 성니몬 우리 부아테서 온 우리 간: 베가 드물게 짱께 모 씨거따 그람 시로. {이제 우리 형님은 우리 부알에서('부알'은 지명) 온 우리 개는 베가 성기게 짜니까 못 쓰겠다 그러면서.}

10401 #1 아:이 나보고만 늘 짜라고면 인자, 나는 아:이고 저녁게 잠스러 힘드러서 죽거따고 막 하요. {아, 나보고만 늘 짜라고 하면 이제, 나는 아이고 저녁에 자면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해요.}

10401 @ 베 짤: 때 그러케 힘들면 노래도 부르고 그러 그러잔습니까? {베 짤 때 그렇게 힘들면 노래도 부르고 그러잔습니까?}

10401 #1 노래 부를 쟈:가 업:썩요. {노래 부를 틈이 없어요.}

10401 #1 아::, 짜면 기양 그란데 인자 세 세각실 때 인자 무늘 여러노코 그런 때는 보미 보미라나서 신나느로 짱개는 기양 거 부기 쩌: 거 마당에까양 튀어가드람마리요. {아, 짜면 그냥 그런데 이제 새색시일 때 이제 문을 열어 놓고 그럴 때는 봄이, 봄이기 때문에 신나게 짜니까 그냥 거 북이 거 마당에까지 그냥 튀어가더란 말이요.}

10401 #1 아::따 기양 나뽀다기 뽀:게집따 이부기 기양 쩌: 마당에까양 튀어가썩라. {아 따 그냥 낮바닥이 뽀개집따. 이 북이 그냥 저 마당에까지 튀어갔어요.}

10401 #1 이거슬 오메 오메 어째사 쓰꼬 그러고는 {이것을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는.}

10401 #1 신나게 짜:다보니까. {신나게 짜다 보니까.}

10401 #1 참, 엔:나리요. {참 옛날이요.}

10401 @ 엔:나리지요. {옛날이지요.}

2. 누에치기와 비단차기

10407 @ 여기서 누에 가통 거또 치셔썩요? {여기서 누에 같은 것도 치셨어요?}

10407 #1 뉘에요? {누에요?}

10407 #1 뉘에는 양키워썩요, 우더른. {누에는 안 키웠어요, 우리들은.}

10407 #1 이런 데 뉘에 키는 사람 더러 이썩요, 이끼는. {이런 데 누에 키우는 사람 더러 있어요, 있기는.}

10407 #1 그란디 우리는 양키워썩. {그런데 우리는 안 키웠어.}

10407 @ 그러니까 구체저그로 어떻게 그러케해서 명주 베를 짜:는지를 잘 모:르시겐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명주베를 짜는지를 잘 모르시겠네요?}

10407 #1 예:: 몰:라요. {예, 몰라요.}

10407 #1 이런 데는 명주베 안 짜요. {이런 데는 명주베 안 짜요.}

10407 #1 뉘에만 키워썩. {누에만 키웠지.}

10407 #1 명주베는 안 업:썩요. {명주베는 없어요.}

10407 #1 이 하능 거시 미영베베끼 이런 데는 아네썩. {이 하는 것이 무명베밖에, 이런 데는 안 했어.}

10407 @ 예, 그래요이~. {예, 그래요.}

3. 옷 만들기

10412 @ 그러며는 그러며는 엔:나레는 지금 지금 겨론하셔가지고 그건 그 시저레 인제 온 데:게 지배서 진 지:짜나요이~.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결혼하셔가지고 그건 그 시절에 옷 대개 집에서 짓잖아요?}

10412 @ 어디 가서 사입꺼나 그런 치는 아나썩요? {어디 가서 사 입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10412 #1 밤:나 이 미영베 옷만 이버쥬요. {밤:나 이 무명베 옷만 입었지요.}

10412 #1 그런 때는 미영베 온. {그럴 때는 무명베 옷.}

10412 @ 겨우레 겨우른 어때요, 겨우른? {겨울에, 겨울은 어때요, 겨울은?}

10412 #1 겨우레도 미영베 온 입꼬 인자 소케 노아서 그 인자 저 소:미로 소케 노아가꼬
모도 바지 돗방에해서 해:입꼬 그레쥬요. {겨울에도 무명옷 입고 이제 숨('소케'는 '숨'의 방언형) 놓아서 그 저 숨으로 숨 놓아가지고 모두 바지 남자저고리('돗방에'는 남자의 저고리를 뜻함) 해서 입고 그랬지요.}

10412 @ 여르메느뇨? {여름에는요?}

10412 #1 여르멘도 해겹때기로 그 저 미영베로 해:입꼬. {여름에는 훌쩍질로 저 무명베로 해 입고.}

10412 @ 미영베로만? {무명베로만?}

10412 #1 예 {예.}

10412 @ 지그미이~까 오시 조:코 그라지 그런 때는 멘:: 미영베 오시요. {지금이니까 그 옷이 좋고 그렇지 그런 때는 맨 무명베 옷이오.}

10412 #1 게론 해:가꼬 읊시로도 팜:나 미영베만 모도 한:농 해:가꼬 그레쥬요. {결혼해가지고 오면서도 밤:나 무명베만 모두 한 농 해가지고 그랬지요.}

10412 @ 그레요? {그레요?}

10413 @ 그러면 그 때 입는 오프른 어떤 오프리 이썬썬니까? {그러면 그 때 입는 옷들은 어떤 옷들이 있었습니까?}

10413 #1 그때요? {그때요?}

10413 @ 예 요새 예:를 드러서 남자 오시다 그러면 어떤 오프리. {예, 요새 예:를 들어서 남자옷이다 그러면 어떤 옷들이?}

10413 #1 남자 오슨 바지돗방아. {남자옷은 바지 저고리.}

10413 @ 바지 돗방아? {바지 저고리?}

10413 #1 바지 돗방아 이우게. {바지 저고리 이 위에.}

10413 @ 위 우게 오시예요? {위, 윗옷이예요?}

10413 #1 돗방에 인자 우게 입는 거뽏고 돗방에라가요. {저고리 이제 위에 입는 걸 보고 돗방에라 하요.}

10413 @ 그레요 나 처음 드러보는 {그레요? 나는 처음 들어 보는}

10413 #1 아래는 바지, 고케 {아래는 바지, 그렇게.}

10413 #1 후루마기도 베로 그런 멘 해:쥬요. {두루마기도('후루마기'는 '두루마기'의 방언형) 베로 그럴 때는 했지요.}

10413 @ 후루마기요이~? {두루마기요?}

10413 #1 그런데 베를 아::주 가늘게 조:케 하던 그리:케 조아요. {그런데 베를 아주 가늘게 좋게 하던 그렇게 좋아요.}

10413 #1 보기가 조아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아주.}

10413 @ 여자들 온 입는 오슨 어떻 거뜨리 이썬썬니까? {여자들 옷 입는 옷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13 #1 여자들 온 입는 거슨 다 엔:날 오슨 고장이 고장이 아래 고장이도 이꼬 속:꼐 적쌔 초마 그케 이쥬요. {여자들 옷 입는 것은 다 옛날 옷은 고쟁이 고쟁이 아래 고쟁이도 있고 속곳, 적쌔, 치마 그렇게 있지요.}

10413 @ 초마 {치마.}

10413 @ 그 다메 우:에 임능 거슨? {그 다음에 위에 입는 것은?}

10413 #1 위에 입는 노른 적삼. {위에 입는 것은 적삼.}

10413 @ 아 적싸미라고 그럼니까? {아, 적삼이라고 그럼니까?}

10413 @ 적싸믄 그거시 여르메. {적삼은 그것이 여름에.}

10413 #1 예, 여르메 임는 거시오. {예, 여름에 입는 것이오.}

10413 @ 겨우레는 적싸미라고 아남니까? {겨울에는 적삼이라고 안 합니까?}

10413 @ 겨 겨우레는 머:라 그럼니까? {겨울에는 뭐라고 그럼니까?}

10413 #1 겨우레는 저고리 인자 또 우게 또 해: 입지요. {겨울에는 저고리 이제 또 위에 또 해 입지요.}

10413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413 #1 베로. {베로.}

10413 @ 적싸믄 여름 여르메 {적삼은 여름, 여름에.}

10413 #1 여르메 임능거시 적싸미고요. {여름에 입는 것이 적삼이고요.}

10413 @ 적싸마고 저고리는 그러면 어터케 다릅니까? {적삼하고 저고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10413 #1 예? {예?}

10413 @ 적싸마고 저고리는 어터케 다랴요 달라요? {적삼하고 저고리는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10413 #1 인자 적싸믄 해겹떡. {이제 적삼은 훌쩍질.}

10413 @ 적싸믄 예 해겹떡. {적삼은 훌쩍질.}

10413 #1 이 저고리는 두:겹떡 해:가꼬 소:믈 거그다 봐:요. {이 저고리는 두 겹질 해가지고 솜을 거기에 놓아요.}

10413 @ 아::그러썬니까? {아, 그렇습니까?}

10413 @ 그러케 잘 다르구뇨이~. {그렇게 잘 다르군요.}

10413 @ 그 다:메 글썬 요령 거뜨리 아이들 아이드리 설랄 가튼 때 임 임는 오토 이찌요? {그 다음에 글썬 이런 것들이 아이들, 아이들이 설날 같은 때 입, 입는 옷도 있지요?}

10413 #1 예. {예.}

10413 @ 여러가지 색깔로뎡거 그렇거 머:라고 그때 불러썬요 그렇거? {여러가지 색깔로 뎡 것 그런 것 뭐라고 그 때 불렀어요, 그런 걸?}

10413 #1 그렇거슨 아이드리 임능거슨 그런때는 모도 거명물드려서요 이 거명물드려서 모도 아래는 거명바지 이피고 우게는 또 먼: 미영베다먼 고운 물 드려가꼬 이페요, 돛방에. {그런 것은 아이들이 입는 것은 그런 때는 모두 검은 물 들였어요. 이 검은 물 들여서 모두 아래는 검은 바지 입히고 위에는 또 무슨 무명베다 고운 물 들여가지고 입혀요, 저고리.}

10413 @ 아 돛방에를요? {아, 저고리를요?}

10414 @ 그다:메 오슨 그림 만들면 무슨 뽀니 이썬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옷은 그림 만들면 무슨 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10414 #1 기양 소이~로 하지요. {그냥 손으로 하지요.}

10414 @ 소니로요? {손으로요?}

10414 @ 테:충 어터케 아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10414 #1 소이~로 기양 우리 시어머니미 어:찌게 시난지 그렇거 잘 비여요. {손으로 그냥

우리 시어머님이 어떻게 솜씨가 좋으신지 그런 것 잘 배요.}

10414 #1 잘 비어서 이케 주면 우더른 만들기만 해요. {잘 베서 이렇게 주면 우리들은 만들기만 해요.}

10414 @ 인자 그 가위질 하는 고걸 자레야 될텐데요? {이제 그 가위질 하는 그것을 잘 해야 될텐데요?}

10414 #1 가위지를 그러케 자레썬요. {가위질을 그렇게 잘했어요.}

10414 @ 응 시어머니미, 예. {응 시어머님이, 예.}

10414 #1 우더른 시지볼 때 암::무 그러거또 몰:란는데 시집 와서 이러거 점:부 우리 어머니한테 배:썬. {우리들은 시집올 때 아무 그런 것도 몰랐는데 시집와서 이런 거 전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10414 @ 그다:메 인제 그러면 인제 바느지를 마:니 하셔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느질은 많이 하셨겠네요?}

10414 #1 고라지요. {그렇지요.}

10414 #1 바느지를 밤::세 하고 이 설:들면 날세도록 막 바느지를 해:썬요. {바느질을 밤새도록 하고 설 되면 날이 새도록 바느질을 했어요.}

10414 @ 아 오 그때 세운 {아 오 그 때 새 옷.}

10414 #1 오슬 그러케 만들라고. {옷을 그렇게 만들려고.}

10414 #1 이 보신도 점::부 소이~로 주어서 시능께 점:부 보신도 줍:꼬 소이~로. {이 버전도 전부 손으로 기워서 신으니까 전부 버전도 깎고 손으로.}

10415 @ 그 바느지를 할 때는 여러가지가 피료하자나요? {그 바느질을 할 때는 여러가지가 필요하잖아요?}

10415 @ 바늘도 피료하고 실:도 피료하고 {바늘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10415 #1 예 실:도 피료하고 아주 피료항 거시 마:나요. {예~ 실도 필요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 많아요.}

10415 @ 머:가 머:가 또 또 이썬니까? {뭐가, 뭐가 또 있습니까?}

10415 #1 예? {예?}

10415 @ 바느지랄 때 피료항거 소네다가 끼:능거또 이꼬. {바느질할 때 필요한 것 손에다가 끼우는 것도 있고.}

10415 #1 골:무도 이꼬 골:무 이썬야지요. {골무도 있고, 골무 있어야지요.}

10415 @ 거 찢르능 거또 이꼬. {거 자르는 것도 있고.}

10415 @ 머:예요? {뭐예요?}

10415 @ 베 오, 오감 잘라야 되 찢르기도 하자나요? {베 옷감 잘라야 돼, 자르기도 하잖아요?}

10415 #1 예, 가위로 찢르지요. {예, 가위로 자르지요.}

10415 @가위로 찢르고. {가위로 자르고.}

10415 @ 그 다:메 재봉트른 언:제 기계로 하능거슨 언:제나 나온 {그 다음에 재봉틀은 언제 기계로 하는 것은 언제나 나온}

10415 #1 재봉::트른 이 그래도 미영베 하자 떠러지자마자 재봉트른 나와썬요. {재봉틀은 이 그래도 무명베 하자 떨어지자마자 재봉틀은 나왔어요.}

10415 #1 그래도 미영베도 재봉틀도 해:썬꺼시오. {그래도 무명베도 재봉틀도 했을 것이오.}

10415 @ 아 그래썬요? {아 그랬어요?}

10415 @ 그러면 그 바늘 가통거 실: 가통거 바 저 골무가통거슨 한군데다 딱 그르세다 너 어듭니까? {그러면 그 바늘 같은 것, 실 같은 것, 저 골무 같은 것은 한 군데에다가 딱 그릇에다 넣어 둥니까?}

10415 #1 바늘쌍지라고 썬:가 저그저 바늘쌍지 그:제까장 이썬 우리는. {반질그릇이라고 저기 저기 저 반질그릇 지금까지 있소 우리는.}

10415 @ 여그 바늘쌍지요? {여기 반질그릇이요?}

10415 #1 예, 바늘쌍지요, 저거시. {예, 반질그릇이오 저것이.}

10415 @ 거기다 썬:부 모아가꼬 해야지. {거기에 썬:부 모아가지고 해야지.}

10415 #1 아::, 그걸 바늘쌍지라고 그러니까? {아, 그걸 반질그릇이라고 그러니까?}

10415 @ 아::따 오레뎡거 인네. {아따 오래된 것 있네.}

10415 #1 오레 뎡 거시아요. {오래된 것이예요.}

10416 @ 바느질 하는 방버비 여러가지가 이썬요. {바느질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10416 @ 그러니까 이러케 머 띠엄띠엄 이러케 꼬메는거또 이꼬. {그러니까 이렇게 뽀 띠엄띠엄 이렇게 꿰매는 것도 있고.}

10416 #1 예 드물게 하는 놈도 이꼬. {예, 성기게 하는 것도 있고.}

10416 #1 바구 바기 바구먼 방는다 하능 거슨 아주 베:게 하능 거시오. {박는다 하는 것은 아주 배게 하는 것이오.}

10416 #1 그라고 드문드문 하능 거슨 막 두문두문 줍:꼬. {그리고 성기게 하는 것은 드문 드문 집고.}

10416 @ 그거슨 머라고 {그것은 뭐라고.}

10416 @ 그건 머:라 합니까 방는다 아나고 머:라 합니까? {그건 뭐라고 합니까? 박는다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10416 #1 드물드물앙게 한다고 그라지, {드문드문하게 한다고 그러쥬.}

10416 @ 한다고 그러지요. {한다고 그러지요.}

10416 @ 그리고 또 바느지라는 방버비 또 방능거 말고 또 어떻 거뜨리 이썬니까? {그리고 또 바느질하는 방법이 또 박는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16 @ 이러케 돌리능거 {이렇게 돌리는 거.}

10416 #1 돌리능거슨 엽:썬요. {돌리는 것은 없지요.}

10416 @ 끝끝 마무리를 이러케 {끝끝 마무리를 이렇게.}

10416 #1 마무리를 요케 인자 홀:메쳐서 인자 띠:지요.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홀쳐매서('홀메치다'는 '홀쳐매다'의 방언형) 이제 떼지요.}

10416 @ 홀메치는 거스로 예. {홀쳐매는 것으로 예.}

10416 @ 그 다오메 소:게다 먼 느:코 이러케 여러번 와따가따 하능 거또 이짜나요? {그 다음에 속에 뭘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10416 @ 그거슨 머라고 어떠케 말? {그것은 뭐라고 어떻게 말?}

10416 #1 소:게다 여코 이 자썬그로 이러케 요케 머:다지요. {속에 넣고 이 자로 이렇게 이렇게 뽀 하지요.}

10416 @ 그래요이~? {그래요?}

10417 @ 그 다:메 인제 빨레:하는 방법 빨레 지금하고 다르지 안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래하는 방법, 빨래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0417 @ 그때는 어:디 가서 빨래하셔썬요? {그 때는 어디 가서 빨래하셨어요?}

10417 #1 빨래 네:까애가 하지요. {빨래 냇가에서 하지요.}

10417 #1 이런 우리 소포는 네:까가 업썬께 저 세:메 가서 하지요. {이런 우리 소포는 냇가가 없으니까 저 샘에 가서 하지요.}

10417 @ 세:메가서요? {샘에 가서요?}

10417 #1 우리 동:네는 무리 지그미 이케 무리 호나제 우들 게로네서마네도 어::찌 무리 귀에썬. {우리 동네는 물이 지금이 이렇게 물이 혼하지 우리들 결혼할 때만 해도 어찌나 물이 귀했썬.}

10417 #1 그렌는데 때:라서 이케 빨래를 하니 아주 기양 징::하게 힘드러썬. {그랬는데 물이 고이는 족족 훑어서('때:루다'는 물이 부족한 샘에 물이 고이는 족족 훑어 퍼 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빨래를 하면 아주 그냥 징그럽게 힘들었썬.}

10417 @ 예, (5초) 그러면 거기가 머 무슨 저기가 이썬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뭐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10417 @ 돌 가통 그 저 방맹이질 할 썬 인는, 다 만드러와 {돌 같은 그 저 방망이질 할 수 있는, 다 만들어와.}

10417 #1 예 돌 돌 이썬요. {예, 돌 돌 있썬요.}

10417 #1 그런 때는 방메~이로 막 두드러서 빨래를 안 하요? {그런 때는 방망이를 막 두드려서 빨래를 하잖아요?}

10417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417 #1 인자 이 베오싱게 막 두드러도 그러케 안 떠러지고. {이제 이 베웃이니까 막 두드려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10417 @ 고 비누는 그때는 어떠케 때를 빠:지게 헐라면 머:스로 헤썬니까? {그 비누는 그 때는 어떻게 때를 빠:지게 하려면 무엇으로 했습니까?}

10417 #1 비누도 그런 때는 업:썬요. {비누도 그런 때는 없썬요.}

10417 #1 그랑께 인자 썬:무리라고 인자 썬:물 막 이 지비서 망 네레서 미깁미끼나게 채로 이케 소테서 내려서 막 해:썬요. {그러니까 이제 잣물이라고 이제 잣물 막 이 쥘에서 막 내려서 미끌미끌하게 채로 이렇게 솔에서 내려서 막 했썬요.}

10417 #1 썬:무리라고 그러면 미깁미끼나이~ 그 노미 때가 잘 저요. {잣물이라고 그러면 미끌미끌하게 그것이 때가 잘 저요.}

10417 @ 그래요. {그래요.}

10417 #1 예. {예.}

10417 @ 썬:무른 어:떠케 만든답니까? {잣물은 어떻게 만든답니까?}

10417 #1 인자 시리에다가 그 제를 당:꼬 소테다 이케 부를 여:요. {이제 시루에다가 그 재를 담고 솔에다 이렇게 불을 넣어요.}

10417 #1 그러면 그 미트로 무리네리문 그 무리 이케 미깁미끼네. {그러면 그 밑으로 물이 내리면 그 물이 이렇게 미끌미끌해.}

10417 @ 그 제는 그러면 불 타고 멀: 테워가지고 나른 제예요? {그 재는 그러면 불 타고 뭘 테워가지고 남은 재예요?}

10417 #1 예. {예.}

10417 @ 집 집 까통거 테웅거? {쥘, 쥘 같은 것 태운 것?}

10417 #1 그거 태웅거슬 이케 바터요. {그거 태운 것을 이렇게 받아요.}

10417 @ 그거시 엔:나레 비누가 비누네요이~. {그것이 옛날 비누네요.}

10417 @ 빨:레 말리면 근데 어:떠케 손지람니까? {빨래 말리면 그런데 어떻게 손질합니까?}

10417 #1 빨레만 물리든 인자 푸를하든 이케 손질 잘::해가지고 볼바가꼬 또 이 어디서 두들지요, 막. {빨래만 말리면 이제 풀을 하면 이렇게 손질 잘 해가지고 뽀아가지고 또 이 어디서 두들기지요, 막.}

10417 10417 #1 그 머시냐 그거시 방마~이로 빨레또게서 막 두들지요. {그 뭐냐 그것이 방망이로 빨랫돌에서 막 두들기지요.}

10417 #1 메끼라게. {매끈하게.}

10417 @ 그다:메 그 지금 가트면 세탁소에서 다룬다고 데룬다고나 그러는데 엔:나레는 지베서 {그 다음에 그 지금 같으면 세탁소에서 다룬다거나 그러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10417 #1 그런 때는 인자 그케 두드러가꼬 잘: 만드러가꼬 온 만드러가꼬 이 손 데루가 이쨌요. {그런 때는 이제 그렇게 두들겨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옷 만들어가지고 이 손다리미가('데루'는 '다리미'의 방언형) 있지요.}

10417 #1 손:데루로 이케 거그다 부를 다머가꼬 요케 데리요, 오슬. {손다리미로 이렇게 거기에 불을 담아서 이렇게 다려요, 옷을.}

10417 @ 그거는 혼자 하기가 힘들지 안습니까? {그것은 혼자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10417 #1 두:리 하지요. {둘이 하지요.}

10417 #1 한자는 모:데요. {혼자는 못해요.}

10417 #1 자버주는 사라미꼬 데리는 사라미꼬. {잡아 주는 사람이 있고, 다리는 사람이 있고.}

10417 @ 예 그레 그레야 되자나요이~? {예, 그레 그레야 되잖아요?}

10417 @ 손데루로. {손다리미로.}

10417 #1 그랑께 그렇거또 인자 잘:하는 사라미꼬 모:다는 사라미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417 #1 인자 오슬 입꼬 나가든 저 지븐 메느리가 시난 사람네 오시다 이케 모도 해:요. {이제 옷을 입고 나가면 저 집은 며느리가 솜씨가 좋은 사람네 옷이다 이렇게 모두 해요.}

10417 #1 그라고 또 몬:넙꼬 나가는 사라든 또 모:단다고 승보고 모도 그레요. {그리고 또 못 입고 나가는 사람은 또 못 한다고 흥보고 모두 그레요.}

10417 @ 그러니까 그 집 그 그 지바네 여자드리 솜씨가 인냐. {그러니까 그 집 그 집안의 여자들이 솜씨가 있느냐.}

10417 #1 예:: 솜씨가 인는 지바니다 그라고 모도 입꼬 나가면 이 후루마기도 입꼬 나가면 아: 이러케 시나게 조:케 해입꼬 나와따고 그라고 그레요 {예, 솜씨가 있는 집안이다 그러고 모두 입고 나가면 이 두루마기도 입고 나가면 아 이렇게 솜씨가 좋게 좋게 해입고 나왔다고 그레요.}

10417 #1 우덜또 늘거쑹께 그라제 절머서는 시네쑹마는. {우리들도 늙었으니까 그렇지 젊어서는 솜씨가 좋았소마는.}

10417 @ 시 시네판 마른 무슨 마릅니까? {'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417 #1 자레판 소리지요. {잘했다는 소리지요.}

10417 @ 손 인제 데 손데루로 데루기도 하지마는 요 동전가통 거슨 데루질 아나 데루질

아나자나요? {손 이제 손다리미로 다리기도 하지만 이 동정 같은 것은 다리질 안 하잖아요?}

10417 #1 동전도 테루지요. {동정도 다리지요.}

10417 @ 그건 따로 따로 머 멀:로 하지요, 동정. {그건 따로 따로 뭐 뭘로 하지요, 동정?}

10417 #1 동정 그런때 달 때는 인:두라고 또 이썬요. {동정 그런 테 달 때는 인두라고 또 있어요.}

10417 #1 또 따로 쫘짱인 인:두가 이썬께. {또 따로 좇다란('쫘짱하다'는 '좇다랴다'의 뜻) 인두가 있으니까.}

10417 #1 그 인두를 이케 미러서 데레. {그 인두를 이렇게 밀어서 다려.}

10417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417 @ 응 그거저거 인두로 헤:썬요이~, {응 그거 저거 인두로 했어요.}

10418 @ 그 다:으메 인제 미영베는 점부 하얀데 색 무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명베는 전부 하얀데 물을 들이기도 하지요.}

10418 #1 예 거명물 디레요. {예 검정물 들어요.}

10418 @ 거명무리요? {검정물이요?}

10418 @ 거명물 어:디서 어썬니까? {검정물 어디서 얻습니까?}

10418 #1 거명물 장시가 인자 오지요. {검정물 장수가 이제 오지요.}

10418 #1 인자 {이제}

10418 @ 아 물장 물감 장수가 온다? {아 물감, 물감 장수가 온다?}

10418 #1 예 와요,그라면 인자 이 아부진네드른 점:부 인자 거명 바지를 물디리서 저 노인 드른 흐:가게 이 하시고. {예,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네들은 전부 검정 바지를 물들여서 저 노인들은 하얗게 하시고.}

10418 #1 이 절른 분들 모도 꺼:만 바지를 물디레서 헤:요. {이 젊은 분들 모두 검은 바지를 물들여서 해요.}

10418 #1 그라고 또 갈:무리라고 이썬요, 노:라이~. {그리고 또 갈물이라고 있어요, 노랑 게.}

10418 #1 갈:물디리서 또 헤:입꼬. {갈물 들어서 또 해입고.}

10418 @ 갈:무리요? {갈물이요?}

10418 @ 그거 뭐요? {그게 뭐예요?}

10418 #1 갈:무리라고 이썬요. {갈물이라고 있어요.}

10418 #1 그 무리 따로 이썬요. {그 물이 따로 있어요.}

10418 #1 갈:물. {갈물.}

10418 @ 그거또 파랴요, 그 물까물? {그것도 팔아요, 그 물감을?}

10418 #1 아:니요, 갈:무른 저 사네서 케:먼 그거시 이썬요. {아니요, 갈물은 저 산에서 캐면 그것이 있어요.}

10418 @ 아, 사네서 머머 푸링가보구마뇨, 풀 푸레서 만드려요? {아, 산에서 뭐 풀인가 보구먼요, 풀에서 만들어요?}

10418 #1 아이~ 풀 아이~고. {아니, 풀 아니고.}

10418 #1 이 저 칭:마이~로 케:문 그 뿌루가 인는데 그거슬 데리면 그케 노:라이~ 우러나요. {이 저 첩처럼 캐면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리면 노랑게 우러나요.}

10418 @ 갈:물 갈:무리요. {갈물, 갈물이요.}

10418 @ 고론 시그로 흑씨 고론 푸리나 머: 가지고 물감 드리능거 또 다름거 이썸니까?
{그런 식으로 흑씨 그런 풀이나 뭐 가지고 물감 들이는 것 또 다른 것 있습니까?}

10418 #1 다름거슨 {다른 것은}

10418 @ 빨간색 무를 드린다거나 무슨. {빨간색 물을 들인다거나 무슨.}

10418 #1 아이 인자 베:에는 그렇거슨 업:썸요. {아니 이제 베: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10418 #1 베:에는 빨간물 그렇거 안다레요. {베:에는 빨간물 그런 것 안 들어요.}

10418 @ 그래요? {그래요?}

10418 @ 꺼멍물 아니면 그 갈:물정도? {검정물 아니면 그 갈물 정도?}

10418 #1 예 {예.}

10418 @ 꺼멍무른 때가 안타니까 조케꾸마뇨. {검정물은 때가 안 타니까 좋겠구먼요.}

10418 @ 흰세기야 머 쪼꾸마네도 떼타니까. {흰색이야 뭐 조금만 해도 떼 타니까.}

10419 @ 그러면 그 미영베는 하야면 조차나요 하야면? {그러면 그 무명베는 회면 좋잖아
요, 회면?}

10419 #1 하야면 조:치요. {회면 좋지요.}

10419 @ 그 어떠케 하:야케 만듭니까, 무슨 표백제가 인나요, 머가? {그 어떻게 하얗게 만
듭니까, 무슨 표백제가 있나요, 뭐가?}

10419 #1 하:얀 인자 베짜면 놀짜찌근하지요. {하얀, 이제 베 짜면 누르스름하지요.}

10419 #1 그란디 인자 그런때는 점::부 베를 소테서 살마가지고 점::부 짜: 이러트면 베:똥
모도 그런데다 막 질::게 이케 열:면 하:야이~ 바라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는 전부 베를
술에서 삶아가지고 전부 저 묘 모두 그런 데다가 막 길게 이렇게 널면 하얗게 바라저요.}

10419 #1 베찌면 이 보메 보메 인자 이케 하:야이~ 요케 열:면 하:야이~ 바라저요. {베 짜
면 이 봄에, 봄에 이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널면 하얗게 바라저요.}

10419 #1 그라:제. {그러지.}

10419 @ 헤벼출 쪼 따로 물까를 하거나 그러지는 양쿠요? {햇볕을 쪼 따로 물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양고요?}

10419 #1 그라제. {그러지.}

10419 #1 기양 헤부른 노:레라 이 베가. {그냥 해 버리면 노래요, 이 베가.}

10419 #1 기양 그랑께는 베발 인자 베짜:가꼬 바리능거시 이:리고 푸다베서 그 놈 다 뚜드
능거시 이:리고 아::주 엔:날 산:닐 생가가면 누니 감마감막하요. {그냥 그러니까 베 발 이제
베 짜가지고 바래는 것이 일이고, 푸새해서('푸답'은 '푸새'의 방언형) 그것 다 두들기는 것
이 일이고, 아주 옛날 살았던 일 생각하면 눈이 깜빡깜빡해요.}

10419 @ 니까 지금 가트면 다 가:게에서 사서 할꺼슬 지베서 다 하니까 힘들지요? {그러
니까 지금 같으면 다 가게에서 사서 할 것을 집에서 다 하니까 힘들지요?}

10419 #1 예. {예.}

10419 @ 요세는 밥또 지베서 안 헤멍는 그런 세상인데. {요세는 밥도 집에서 안 해먹는
그런 세상인데.}

10419 #1 그라지라. {그렇지요.}

10419 @ 다림지른 세:탁쏘 오슨 {다림질은 세탁소 옷은}

10419 #1 예 {예.}

10419 @ 응 이러케 다 {응 이렇게 다.}

10419 #1 그라지. {그렇지.}

10419 @ 그거슬 한 지베서 다: 헤:쓰니. {그것을 한 집에서 했으니.}

10419 #1 지금 타 태어난 사람드른 다 떠난 세상을 사는데 우드른 인자 다: 늘거가꼬 인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다 편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들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1.5 식생활

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 그 다오메 요거또 머 할머니가 하실 쑈 인는 일잉거 간네요. 바테서 채:소드리 만차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네요. 밭에서 채소들이 많잖아요?}

10501 #1 예. {예.}

10501 @ 먼: 채소드리 이썸니까? {무슨 채소들이 있습니까?}

10501 #1 채:소요? {채소요?}

10501 #1 주로 베:추지요. {주로 배추지요.}

10501 @ 베:추이꼬 또 {배추 있고 또?}

10501 #1 시금추도 심:꼬. {시금치도 심고.}

10501 #1 그 다오메. {그 다음에.}

10501 @ 그거슨 그 계절별로 보까요? {그것은 그 계절별로 볼까요?}

10501 @ 보메 계절별로 보면 더 나겐네요. {봄에 계절별로 보면 더 낫겠네요.}

10501 @ 보메는 어떤 거 심:썸니까 송굽니까? {봄에는 어떤 걸 심습니까?}

10501 #1 보메:는 시금추. {봄에는 시금치.}

10501 #1 또 마늘::도 인자 마느른 시야네 노치요. {또 마늘도 이제 마늘은 겨울에 놓지요.}

10501 #1 베:추는 벨: 주로 베:추 시금:초 간 그렇거시 이썸요. {배추는 주로 배추, 시금치, 갓 그런 것이 있어요.}

10501 @ 간 채소들 어떠케 길러서 먹썸니까, **** {갓 채소들 어떻게 길러서 먹썸니까, *****?}

10501 @ 시금추가툇 거슨 그러면 어떠케 저기는 그냥 시고 송거노머는 그테로 지가 자라 자람니까, 그냥? {시금치 같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저기는 그냥 심어 놓으면은 그대로 제가 자람니까, 그냥?}

10501 #1 시금추를 인자 썸 장에 가서 시금추를 사머는 그 장시가 그랍따다. {시금치를 이제 저 장에 가서 시금치를 사면은 그 장수가 그럽디다.}

10501 #1 아짐마 시금추 씨를 무레다 살짝 당가따가 건져서 허치면 기양 나요 그라고 예 그란다우 그라고 인자. {아주머니 시금치 씨를 물에다 살짝 담궜다가 건져서 흘뜨리면('허치다'는 '흘뜨리다'의 방언형) 그냥 나요 그리고 예 그런대요? 그리고 이제.}

10501 #1 당가따가 이케 험 허버서 이케 하든 기양 납:따다. {담궜다가 이렇게 허버서 이렇게 하면 그냥 납디다.}

10502 @ 시금추는 그냥 보통 저기를 헤:떡썸요? {시금치는 그냥 보통 저기를 해먹지요?}

10502 #1 예. {예.}

10502 @ 머레 머레 멀: 해먹습니까? {뭘 해먹습니까?}

10502 @ 좀 시금추 어떠케 해서 먹지요? {시금치 어떻게 해서 먹지요?}

10502 #1 시금초 노무를 주로 마이~ 해:머꼬요. {시금치 나물을 주로 많이 해먹고요.}

105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502 @ 노물 노물 마니 해:먹찌요이~. {나물, 나물 많이 해먹지요.}

10502 #1 국또 끼리고 시금추는 마신능거싹따다. {국도 끓이고 시금치는 맛있는 것입디다.}

10502 @ 예 그러치요이~ 예. {예, 그렇지요.}

10501 @ 이 요 진도::나 여그 소포에서만 특빠라게 다른 지방에서는 엄:는 채:소가 이릅니까? {이 여기 진도나 여기 소포에서만 특별하게 다른 지방에서는 없는 채소가 있습니까?}

10501 #1 여그요? {여기요?}

10501 #1 다른:: 채:소 업:찌요. {다른 채소 없지요.}

10501 @ 비스타지요? {비슷하지요?}

10501 #1 예: 다 양: 파가 이 우리 동네 질: 마이~ 시머요. {예, 다 파가 이 우리 동네 제일 많이 심어요.}

10501 @ 파가요? {파가요?}

10501 #1 그런데 오레 그러:케 비쌌따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비쌌디다.}

10501 @ 그니까요 고 데파가 찌그 여기 데파를 마니 심찌요? {그러니까요. 그 대파가 저기 여기 대파를 많이 심지요?}

10501 #1 예 데파요. {예, 대파요.}

10501 @ 저 광주가서 보니까 쪽파가 비싸더라구요. {저 광주 가서 보니까 쪽파가 비싸더라구요.}

10501 #1 데파가 그러:케 한 마지기에 백 삼십만원까장 해:따. {대파가 그렇게 한 마지기에 백삼십 만원까지 했대요.}

10501 #1 그러케 올 처으미로 그케 비싼는데 우드른 힘등께 기양 안싱겨부러써. {그렇게 올 처음으로 비쌌는데 우리들은 힘들어서 그냥 안 심어 버렸어.}

10501 @ 여기 집찼마다 {여기 집찼마다.}

10501 #1 아틀레드리 결:때 인자 농사도 지:찌마라가고 그란테 저 어르니 저케 시미 인자 쪼깐 나면능가 저케한다게도 나는 결:때 농사 안지꺼싱께 당신 한자 지:씨요 나는 그라요. {아들네들이 절대 이제 농사도 짓지 마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 어른이 저렇게 힘이 조금 남았는지 저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 농사 안 지을 것이니까 당신 혼자 지으시오 나는 그래요.}

10501 @ 이 거:이 이 동네는 집찼마다 팔 팔 {이 거의 이 동네는 집찼마다 파를}

10501 #1 예 다:: 시머요. {예, 다 심어요.}

10501 #1 이 우들가치 이케 늘근 사람드리나 안시르까 절문 사람드른 집:찼마당 다: 시머써. {이 우리들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나 안 심을까 젊은 사람들은 집찼마다 다 심었어.}

10501 @ 쌀:보다 훨:씬 난:네요, 나락쁘다. {쌀보다 훨씬 낫네요, 벼보다.}

10501 #1 예 위:너이~ 나:찌요. {예, 훨씬('위너니'는 '훨씬'의 방언형) 낫지요.}

10501 #1 오레 파 마이~ 시른 사라른 아주 도:늘 검::나게 해따고 모도 그레싸. {오레 파

많이 심은 사람은 아주 돈을 엄청나게 했다고 모두 그래 대.}

10501 @ 열:마지기만 해:쓰면 돈 천마뉘니상 {열 마지기만 했으면 돈 천만원 이상.}

10501 #1 예. {예.}

10501 @ 근데 그거시 항상 그래야 되는데 또 어쩌케.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래야 하는데 또 어떻게.}

10501 #1 그거시 장:너네는 아주 죽써부런디 장:너네 히:가꼬 우리도 그양 폴도 모다고 썸:그 조아베서 기양 싸디싸게 가져가뜨라. {그것이 작년에는 아주 죽 썸 버렸는데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팔지도 못하고 저기 조합에서 그냥 싸디싸게 가져갔더래요.}

10502 @ 베:추가 이짜나요이~ 엔:나레는 여 고 저네는 그 미테 이러케 뿌리 인는 데가요 또 머거평거 가테요. {배추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전에는 그 밑에 이렇게 뿌리 있는 데를 먹었던 것 같아요.}

10502 #1 머:시요? {무엇이요?}

10502 @ 베:추요 미테 그 뿌리 달링 거 그 머:라갑니까, 여기서는? {배추요, 밑에 그 뿌리 달린 것은 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10502 #1 베:추 똥겉. {배추 등겉.}

10502 #1 베:추 똥:겉. {배추 등겉.}

10502 @ 아 똥커리라고 그래요? {아, 등겉이라고 그래요?}

10502 #1 그 깡까서 다: 썸머꼬 그래쥬요. {그 깡아서 다 썸서 먹고 그랬지요.}

10502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502 #1 생이로도 머꼬. {날로도('생이로'는 '날로'의 뜻) 먹고.}

10502 #1 엔:나레는 {옛날에는.}

10502 @ 엔:나레는 그래쥬요. {옛날에는 그랬지요.}

10502 #1 예. {예.}

10502 @ 요새는? {요새는?}

10502 #1 요새는 먼: 그렇거 업:썸요. {요새는 무슨 그런 것 없어요.}

10502 @ 예, 베:추똥커리라고 그러구뇨? {배추 등겉이라고 그러군요?}

10502 @ 그리고 예, 베:추 그 아:네 아:네 인능거 노:랑거 그렇거 머:라 그럼니까? {그리고 예, 배추 그 안에 있는 것 노란 것 그런 것 뭐라고 합니까?}

10502 #1 속: 소:기라고 하지요. {속이라고 하지요.}

10502 @ 베:추소:기라 {배추 속이라.}

10502 #1 예. {예.}

10502 #1 베:추 소:기 마이~ 드러따고 그라지요, 속:뜨러썸면. {배추 속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지요, 속 들었으면.}

10503 @ 그 다옴에 무수 가지고는 여러가지꼴 만들지요? {그 다음에 무 가지고는 여러가지 것을 만들지요?}

10502 #1 여::러가지 만들지요. {여러가지 만들지요.}

10503 @ 먼: 먼: 합니까 반차는? {무엇 무엇 합니까, 반찬은?}

10503 @ 어떤 거뜨를 만듭니까? {어떤 것들을 만듭니까?}

10503 #1 싱건지 만들고 웨: 만들고. {물김치('싱건치'는 '물김치'의 방언형) 만들고, 회 만들고.}

10503 #1 또 썸: 지:쥬 만들고. {또 저 깡두기('지쥬'은 '깡두기'의 방언형) 만들고.}

10503 #1 아주 여러:가지 만드랴요. {아주 여러가지 만들어요.}

10503 @ 휘:라능 거슨 머예요, 휘:가? {회라는 것은 뭐예요, 회가?}

10503 #1 휘:는 그 무침 그 초 치고 그거시 휘:예요. {회는 그 무침 그 초 치고 그것이 회예요.}

10503 @ 무수를 써러가지고? {무를 썰어가지고?}

10503 #1 예 써:러 잘자라니 써:러가지고. {예 썰어. 잘잘하게 썰어가지고.}

10503 @ 초를 처요? {초를 처요?}

10503 #1 초칭 그거시. {초 친 그것이야.}

10503 @ 아 거기다 머 다름거 안너도? {아 거기에 다른 것 안 넣어도?}

10503 #1 예 그렁 인자 양니를 잘:혜사 마시쪼요, 그거또. {예 그런 이제 양념을 잘 해야 맛있지요, 그것도.}

10503 @ 아 그건 휘:라 그러구뇨? {아, 그건 회라고 그러군요?}

10503 @ 지 지:쪼근 지:쪼근? {지, 지쪼은, 지쪼은?}

10503 #1 지:쪼근 깍떼기가 지:쪼. {지쪼은 깍두기가 지쪼.}

10503 @ 깍떼기가 ***** {깍두기 *****.}

10503 @ 그럼 휘:는 아마 채: 무우채:정도 되게꾸만, 잘게, 잘게 썬 사람 *****잘게. {그럼 회는 아마 채, 무채 정도 되겠꾸만, 잘게, 잘게 썬 사람 ***** 잘게.}

10503 #1 예 잘자라니 썰쪼. {예, 잘잘하게 썰쪼.}

10503 @ 아아아 그 휘:라 그러구뇨? {아아아 그 회라 그러군요?}

10503 @ 근데 무 무시도 또 말리기도 하지요? {근데 무도 또 말리기도 하지요?}

10503 #1 말레:가지고 이 깍떼기 다르면 더 마시쪼요. {말려가지고 깍두기 담그면 더 맛있지요.}

10503 #1 그라고 물 몰레가지고 또 땅근 이 저세다도 혜:도 그케 마시쪼 그레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또 다른 것 이 젓에다가도 해도 그렇게 맛있고 그레요.}

10503 @ 무시도 저 씨바들란 무시도 무수도 이짜나요? {무도 저 씨 받으려는 무도 있잖아요?}

10503 #1 예. {예.}

10503 @ 그거 머:라 한: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503 #1 여그다가 인자 시머노른 씨를 바쪼요. {여기다가 이제 심어 놓으면 씨를 받지요.}

10503 @ 그 무수는 무슨 무슨 머라:합니까 이르미? {그 무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10503 #1 씨를? {씨를?}

10503 @ 아니 그 씨바들란 무수 {아니 그 씨 받으려는 무.}

10503 #1 씨 바들란 무수. {씨 받으려는 무.}

10503 #1 종자: 받는다고 그러지요. {종자 받는다고 그러지요.}

10503 @ 아 따로 이르미 엽:꼬? {아 따로 이름이 없고?}

10503 #1 예 {예.}

10503 @ 어, 장다리 무수라등가요? {어, 장다리무라든가요?}

10503 #1 예. {예.}

10503 #1 그건 말고 씨: 받는 무수라고 여런 데 시므면 {그것 말고 씨 받는 무라고 이런 데 심으면.}

10503 @ 예, 그래요이~. {예, 그래요.}

10503 @ 그 님메 (6초) 그렇 거뜨리구요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고요.}

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 요: 지방에서 막 요 사나나 드:레 나가가지고 노물도 캐고 그러시죠? {이 지방에서 막 이 산이나 들에 나가서 나물도 캐고 그러시죠?}

10504 @ 저 엔:나레 그러서쪄? {저 옛날에 그러셨쪄?}

10504 #1 예. {예.}

10504 #1 엔:날 {옛날.}

10504 @ 어떤 노물드리 이썬니까 켜 저기 이썬? {어떤 나물들이 있었습니까? 켜 적이 있었습?}

10504 #1 그런 때는 폰나무리라고 폰노물 이꼬. {그런 때는 쫓나물이라고 쫓나물 있고.}

10504 #1 또 보리 시르면 또 노무 보리 벤:데서 이케 캐:고 그래요. {또 보리 심으면 또 남의 보리 벤 데서 이렇게 캐고 그래요.}

10504 @ 그 그런 노물 이름드른 어떤 노물드리 이썬니까 폰노물 말고. {그 그런 나물 이름들은 어떤 나물들이 있습니까, 쫓나물 말고.}

10504 #1 폰노드라고 냉:이, 나세라고 그거시 이런데는 냉:이보고 나세라게요. {쫓나물하고 냉이, 나세라고 그것이 이런 데서는 냉이보고 나세라고 해요.}

10504 @ 예 나세. {예, 냉이.}

10504 #1 나세 이꼬. {냉이 있고.}

10504 #1 폰노무리 이꼬 보리 고케. {쫓나물이 있고 보리 그렇게.}

10504 @ 그지요이~.응 {그렇지요.}

10505 @ 그러면 나세가통 거슨 보메 캐게쪄요? {그러면 냉이 같은 것은 봄에 캐쪄지요?}

10505 #1 예, 보메 캐:지요. {봄에 캐지요.}

10505 @ 또 폰노무르뇨? {또 쫓나물은요?}

10505 #1 폰노물 요세 요세도 캐:요. {쫓나물 요세도 캐요.}

10505 @ 아 그러썬니까? {아, 그렇습니까?}

10505 @ 폰노무리라는 게 어떠케 생견나요, 폰노무이랑 게? {쫓나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요, 쫓나물이란 것?}

10505 #1 폰노무리란 이 바테 지스미 폰노무리 이썬요. {쫓나물이라고 이 밭에 김이('지슴'은 '김'의 방언형) 쫓나물이 있어요.}

10505 @ 바테 지스미요? ** 가운데? {밭에 김이 ** 가운데?}

10505 #1 예. {예.}

10505 @ 그렇거또 다 그러면 반찬늘 해멍는다 그 말쓰미지요? {그런 것도 다 그러면 반찬을 해먹는다 그 말썬이지요?}

10505 #1 예: 다: 해:먹쪄요. {예, 다 해먹지요.}

10506 @ 그럼 그런 나물드를 켈때는 머:스로 캡니까? {그럼 그런 나물들을 켈 때는 무엇으로 캡니까?}

10506 #1 이 칼로 캐:지요. {이 칼로 캐지요.}

10506 #1 칼로 인자 바구림 가꼬가서. {칼로 이제 바구니 가져가서.}

10507 @ 엔:나레는 그 노물 켈때 혼자 안다니고 여:러사람 가치다니고 그레지요? {옛날에는 그 나물 켈 때 혼자 안 다니고 여러 사람 같이 다니고 그랬지요?}

10507 #1 예 여:러 사람 다녀지요. {예, 여러 사람 다녔지요.}

10507 @ 어디 머 먼:테까지 가보신 적또 이쓰세요? {어디 뭐 먼 테까지 가 보신 적도 있으세요?}

10507 #1 예? {예?}

10507 @ 먼:테까지 가보신 {먼 테까지 가 보신}

10507 #1 예 먼:테 주로 바테 먼:테까양 가서 막 케:고 {예 먼 테 주로 밭에 먼 테까지 가서 막 캐고.}

10507 #1 또 쥐인네가 인자 보리켄다고 막 쫓아와요. {또 주인네가 이제 보리 켄다고 막 쫓아 와요.}

10507 #1 보리 시몬 사라미 인자 노물 {보리 심은 사람이 이제 나물}

10507 @ 너물 캐리 완는데 {나물 캐리 왔는데}

10507 #1 예 그레가지고 인자 바구리도 막 빼:서서 부사불고 그레요. {예, 그래서 이제 바구리도 막 빼앗아서('뺏다'는 '빼앗다'의 방언형) 부어 버리고 그레요.}

10507 #1 보리 보리 켄:다고. {보리, 보리 켄다고.}

10507 @ 보리 보리도 그 겨우레는 보리꼭또 끄러머그먼 켄찬하기는 한테요? {보리, 보리도 그 겨울에는 보리국도 끓여 먹으면 켄찬기는 한테요?}

10507 #1 예 마시썬요, 보리. {예, 맛있어요, 보리.}

10506 @ 그런데 {그런데.}

10506 #1 지금은 이런 데는 보리도 양가랴요, 결:때. {지금은 이런 데는 보리도 안 갈아요, 절대.}

10506 @ 글썬 그러신다더마뇨이~. {글썬, 그러신다더구만요.}

3. 밀반찬의 조리

10508 @ 그다으메 (8초) 까 엔:나레는 머 특빠리 반찬해:머글 만냥거뜰 만:치아느니까 그런 너물드를 마:니 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특별히 반찬해 먹을 만한 것들 많지 않으니깐 나물들을 많이 해.}

10508 #1 예 반찬도 돈:도 업:꼬도 인자 그런 때는 먼: 반찬 이썬썬? 업:썰. {예, 반찬도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무슨 반찬 있었소? 없지.}

10508 @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해:명은 음식뜨른 어떻 거시여썬니까?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해먹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0508 @ 주로 바비 북쪽 사람드른 국쭈도 마:니 해:머꼬 그러지마는 여기는 주로 바블 마:니 {주로 밥이 북쪽 사람들은 국쭈도 많이 해먹고 그렇지만 여기는 주로 밥을 많이.}

10508 #1 여그는 바블 마:이~ 주로 마:이~ 해:요. {여기는 밥을 많이, 주로 많이 해요.}

10508 @ 국쭈가튼거 해먹? {국수 같은 것 해먹}

10508 #1 예 국쭈 간:간: 해:먹썰 마:이~는 아네머거요. {예, 국수 간간이 해먹지 많이는 안 해먹어요.}

10510 @ 예 그리고 인제 미뻘차느로 오래 두고 명는 반찬 이썬 안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밀반찬으로 오래 두고 먹는 반찬 있지 않습니까?}

10510 @ 고령거슨 어떤 거뜨를 주로 해:잡쑈써쑈요, 미뻥차니라 그러먼?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해서 잡쑈쑈어요, 밀반찬이라 그러먼?}

10510 #1 주로 김치가 미뻥차니지요. {주로 김치가 밀반찬이지요.}

10510 @ 김치하구요. {김치하고요.}

10510 #1 김치하고. {김치하고.}

10510 #1 깍뎡기 다무먼 또 깍뎡기도 오래두고 먹꼬 그거이 미뻥차니지요. {깍두기 담그면 또 깍두기도 오래 두고 먹고 그것이 밀반찬이지요.}

10510 @ 그바께 무슨 예 저 저슬 담:는다등가. {그밖에 다른 예 짓을 담근다등가.}

10510 #1 예 이런데는 저슬 잘 안다무요. 기양 장사오면 사가지고 기양 이 짐장만 하제. {예, 이런 데는 짓을 잘 안 담그요. 그냥 장수 오면 사가지고 그냥 이 짐장만 하지.}

10510 #1 다머노키는 아네요. {담가 놓지는 않아요.}

10510 @ 저슬 안 당가요? {짓을 안 담가요?}

10510 #1 예. {예.}

10510 @ 어, 머 바단 가까운텐데 웨: 저슬 안당글까요? {어, 뭐 바다 가까운데 왜 짓을 안 당글까요?}

10510 #1 바닥 가짜도 그런 저시 업:쑈요, 이런데는. {바다 가까워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데는.}

10510 #1 썸:그서 드로제. {저기서 들어오지.}

10510 @ 글썸요이~. {글썸요.}

10510 @ 그 다으메 그러먼 생선가통 거또 지난버네 다 사잡쑈신다고 그레쑈이~? {그 다으메 그러먼 생선 같은 것도 지난 번에 다 사서 잡쑈다고 그러쑈쑈요?}

10510 #1 예 다: 장에 가서 사오지요. {예, 다 장에 가서 사오지요.}

10510 @ 엔:날 엔:날부터 그레쑈니까? {옛날, 옛날부터 그랬쑈니까?}

10510 @ 엔:나레는 장에가 아니면 사람드리 이룩케 도라다님니까? 장 고 생선가통 거 사러 사라고 도라다니고 그레쑈쑈요? {옛날에는 장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장, 그 생선 같은 것 사라고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10510 #1 도라다니는 사람도 더러 이쑈요, 여그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여기도.}

10510 #1 여그도 와요. {여기도 와요.}

10510 #1 그레도 장에가사 이영 마음데로 조은눔 사고 그레요. {그레도 장에 가야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 사고 그레요.}

10510 @ 김장: 가통거 할 때는 여러가지 김치를 당구는데 그냥 배:추김치말고 또 다른 김치 당구싱거 이쑈쑈요? {김장 같은 것 할 때는 여러가지 김치를 담그는데 그냥 배추김치 말고 또 다른 김치 담그시는 것 있쑈쑈요?}

10510 #1 이런 데는 배:추김치를 주로 마:이~ 다머요. {이런 데는 배추김치를 주로 많이 담가요.}

10510 #1 탄 감또 담:끼는 담:는데 이 배:추김치를 마이~ 다머요. {탄 갓도 담그기는 담그는데 이 배추김치를 많이 담가요.}

10510 #1 그라고 깍뎡기 이케 국:께 썰라서 그케하는 노미 그노미 마시쑈뎡다. {그리고 깍두기 이렇게 굵게 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맛있쑈다.}

10510 #1 고런눔 당:꼬. {그런 것 담그고.}

10510 #1 시꾸 마난 사람드른 마이~씩 헤:요, 그래도 우드른 시꾸가 이케 두:리 사:니까 기양 까끔 헤머꼬. {식구 많은 사람들은 많이씩 헤요, 그래도 우리들은 식구가 이렇게 둘이 사니까 그냥 까끔 헤머꼬.}

10514 @ 그 다:메 장:당그는 거슨 쫘 자세하게 말쓰를 해주셔 장: {그 다음에 장 담그는 것을 좀 자세하게 말쓰를 해주셔, 장.}

10514 #1 장:이요? {장이요?}

10514 @ 장:하고 뎡:장 그걸 어떻게? {장하고 된장, 그걸 어떻게?}

10514 #1 처빠네 인자 장: 당길 때는 인자 인자 정월따레 인자 한 보름께나 인자 다물꺼요. {처음에 이제 장 담글 때 이제 정월달에 한 보름께나 담글 거예요.}

10514 #1 보름 너무먼 이런데는 정월따레 마:이~ 다머요. {보름 넘으면 이런 데는 정월달에 많이 담가요.}

10514 #1 그란디 인자 무를 처빠네 지러다 향아리다 부서가꼬는 소그를 데야 부서요 거그다가. {그런데 이제 물을 처음에 길어다 향아리에다 부어가지고는 소금을 되어 부어요. 거기에다가.}

10514 #1 한동우 헤:다가 소그를 두:데 이케 싹 쟁:까서 여:요. {한 동이에다가 소금을 두 되 이렇게 싹 깎아서 넣어요.}

10514 #1 인자 그러면 다서 다서 똥우 다무면 메주를 잘자:라면 시:데에서 늘치고 굴:구먼 두:데에서 늘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다섯 동이 담그면 메주를 잘잘하면 세 되에서 늘리고('늘치다'는 '늘리다'의 방언형) 굵으면 두 되에서 늘리고 그래요.}

10514 #1 그래가지고 인자 노아두면 노::라이 거그서 우러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놓아 두면 노랑게 우러나요.}

10514 #1 우리나라면 한 정월 정위레 다무면 이:월 한 이:월 한 그믐께나 그 뎡:장을 건져요. {우리나라면 한 정월, 정월에 담그면 이월 한 이월 한 그믐께나 그 된장을 건져요.}

10514 #1 건져가지고는 인자 그 장:을 소테다 바타가꼬 막 데리 데리요 나무여:서. {건져가지고는 이제 그 장을 솥에다 발아가지고 막 달여요, 나무를 넣어서.}

10514 #1 나무 인자 장: 데릴라면 나무를 또 헤:야 데레요. {나무, 이제 장 달이려면 나무를 또 해야 달여요.}

10514 #1 그란데 인자 우리도 장: 데리꺼인데 나무가 켜:까 인는데 인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장 달일 것인데 나무가 조금 있는데 이제.}

10514 #1 그래가지고 인자 장:이 우리는 마:~이 인는데 장:을 오래는 켜:깐 썬:서 데:게 다물라고 인자 그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 우리는 많이 있는데 장을 올해는 조금 썬서 되게('되다'는 '진하다'의 뜻) 담그려고 이제 그랬는데.}

10514 #1 장:이 되:게 다무면 마시꼬 누께 다무면 안마시꼬 그래요. {장이 진하게 담그면 맛있고, 묽게('눅다'는 '묽다'의 뜻) 담그면 안 맛있고 그래요.}

10514 @ 아 그래서 부를 좀 마:니 때:가지고 저기 좀 헤:야 되젠네요? {아, 그래서 불을 좀 많이 때가지고 저기 좀 해야 되겠네요?}

10514 #1 예 인자 마:이~때:먼 간장이 막 시:커메저요. {예, 이제 많이 때면 간장이 막 시کم해저요.}

10514 #1 그러면 인자 두:리 삼:시로 엄:마나 머꺼쪼마는 우리 아그드리 점:부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살면서 얼마나 먹겠소마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가져가니까.}

10514 @ 그러젠네요. {그렇겠네요.}

10514 #1 예. {예.}

10514 @ 웬:장으뇨? {된장은요?}

10514 #1 된:장은 인자 건저서 인자 따둑따둑 다머노면 그러케 마시썩요. {된장은 이제 건저서 이제 다둑다둑 담아 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10514 #1 인자 이그면 {이제 익으면.}

10514 @ 웬:장은 아까 그 저 장: 당구기 위에서 너어둔 메주 {된장은 아까 그 저 장 담그기 위해서 넣어 둔 메주}

10514 #1 예 메주 {예 메주.}

10514 @ 고 노를 건저네:가지고. {그것을 건저 내가지고.}

10514 #1 예 건저네:가지고 인자 저 이 향아리다 또 따둑따둑 다머놔요. {예, 건저 내가지고 이제 이 향아리에다 또 다둑다둑 담아 놓아요.}

10514 #1 다머노머는 그러케 마시꼬. {담아 놓으면은 그렇게 맛있고.}

10514 #1 또 된:장이 자:그면 그 미똥장하고 메주 쭈어가꼬는 가라가지고는 거그다 서끄문 또 그케 마시꼬 그레. {또 된장이 적으면 그 밀된장하고 메주 쭈어가가지고는 갈아가지고는 거기에다 섞으면 그렇게 맛있고 그레.}

10514 @ 세로 다시 또 {새로 다시 또.}

10514 #1 예. {예.}

10514 #1 쿵을 쿵을 썩:가지고 가라가꼬 미똥장하고 그케 서꺼요 막. {쿵을 썩가지고 갈아가지고 밀된장하고 그렇게 섞어요, 막.}

10514 @ 그러세요이~? {그러세요?}

10514 @ 청국짬은 어떠케 담금니까? {청국장은 어떻게 담금니까?}

10514 #1 이런 데는 청국짬 아네요. {이런 데는 청국장 안 해요.}

10514 @ 청국짬 아네요? {청국장 안 해요?}

10514 #1 예. {예.}

10514 #1 저런 우게는 청국짬을 그러케 마:니 합디다만 이런 데는 {저 위는 청국장을 그렇게 많이 합디다마는 이런 데는}

10514 @ 예 아 아예 아예 암먹습니까? {예, 아 아예 안 먹습니까?}

10514 #1 예 이런 데는 청국짬 아네요. {예, 이런 데는 청국장 안 해요.}

10514 @ 그건 상당히 다르네요 청국짬도 아나고. {그것은 상당히 다르네요. 청국장도 안 하고.}

10515 @ 저깅도 아까 저또 안 다무신다고 그레썩요이~? {젓갈도 아까 젓도 안 담그신다고 그랬어요?}

10515 #1 전 장사가 오면 더러 담:는 사라문 담:는데 주로 사서 마:이~ 머겨요. {젓갈 장수가 오면 더러 담그는 사람은 담그는데 주로 사서 많이 먹어요.}

10515 @ 예, 담 담:찌는 양쿠요이~? {예, 담그지는 않고요?}

10515 #1 예. {예.}

10516 @ 술:도 지베서 만드셔본 저기 이쓰세요? {술도 집에서 만드셔 본 적이 있으세요?}

10516 #1 예: 만들지요. {예, 만들지요.}

10516 @ 어,예 엔:나레 만드셔썩요? {어, 옛날에 만드셨어요?}

10516 #1 지금도 우리는 만드요. {지금도 우리는 만드요.}

10516 #1 우리 크나드리 그러:케 마꺠리를 조아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막꺠리를

좋아하니까.}

10516 @ 그래요? {그래요?}

10516 #1 올 서:레도 우리 아드리 인자 즈그 크나부지 도라가셔서 인자 와따가가꼬는. {올 설에도 우리 아들이 이제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왔다 가가지고는.}

10516 #1 너머 바쁘게 어머니 모까거옵니다 그라길래 응 바쁘면 오지 마라 그렌는데. {너무 바쁘니까 어머니 못 가겠습니다 그라길래 응 바쁘면 오지 마라 그랬는데.}

10516 #1 크나들 생가게가꼬 인자 두어:데 당가뜨이~ 그러케 마시쑤떠다. {큰아들 생각해가지고 이제 두어 되 담갔더니 그렇게 맛있습디다.}

10516 #1 막걸리가 아주 동당주라고 머거보는 사라문 다 마시따가요. {막걸리가 아주 동동주라고('동당주'는 '동동주'의 방언형) 먹어 본 사람은 다 맛있다고 해요.}

10516 #1 우리 목포서 선생노나는 아드리 막걸리를 안 조아하는데. {목포에서 선생 노릇하는 아들이 막걸리를 안 좋아하는데.}

10516 #1 어머님 막걸리 이썬요 그레 , 응 이따. {'어머님, 막걸리 있어요?' 그래서 '응 있다.'}

10516 #1 그러면 나 쪼간 싸주시오 그라길래 응 가꼬가거라 인자 그렌는다. {'그러면 나 조금 싸 주세요' 그라길래 '응 가져가거라' 그랬는데.}

10516 #1 막걸리를 안 조아하는데 암:마네도 어따 선:사할랑가 나 그레뜨이~. {막걸리를 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어디에다가 선물하려나 나 그랬더니.}

10516 #1 두: 데를 다머쥬썬요. {두 되를 담아 쥬어요.}

10516 #1 그레뜨이~ 막걸리가 그러케 마시쑤떠다 그란디. {그랬더니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습디다 그렌데.}

10516 #1 향:상 우더른 우리 아들레드리 조:아하니까 밍 멍저리 드로먼 다머요, 막걸리를. {향상 우리들은 우리 아들네들이 좋아하니까 명절이 돌아오면 담가요, 막걸리를.}

10516 @ 그 어떠케 그 담:는 과:정이 어떠케 됩니까, 수를? {그 어떻게 그 담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술을?}

10516 #1 인자 그 막걸리를 다물라면 찹쌀로 헤:야 마시썬요, 찹쌀로. {이제 그 막걸리를 담그려면 찹쌀로 해야 맛있어요, 찹쌀로.}

10516 #1 찹쌀로 당가따 찌가지고 이 누루글 무레다 딱 당가놔:따가 인자 그노를 잘:: 몽글게 걸러요, 치로. {찹쌀로 담갔다가 찌가지고 이 누룩을 물에다 딱 담가 놓았다가 이제 그것을 잘 곱게('몽글다'는 '가루가 곱다'의 뜻) 걸러요, 체로.}

10516 #1 잘:: 몽글게 걸러가지고는 인자 술밥 찌가지고 다:: 쥬 술빠비 시그머는 술라기라고 또 찌그 저 가:게서 사가가지고 썩 사까루 쪼간 치고 그러면 사그먼 그러케 마시썬요, 아주. {잘 곱게 걸러가지고는 이제 술밥 찌가지고 다 술밥이 식으면은 술약이라고 또 저기 저 가게에서 사가지고 사카린 조금 치고 그러면 삭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아주.}

10516 #1 그랑게 어머니문 어:찌게 해서 이러케 막걸리를 잘 다무시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잘 담그시냐고.}

10516 #1 우리 메느리드리 오면 쥬차주께 다물레 그러면 어머니 잔 쥬차주라고만 헤:도 어머니멩킬로 모:땅꺼따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들이 오면 '가르쳐 줄게 담글래?' 그러면 '어머니 좀 가르쳐 달라'고만 해도 어머니처럼('멩킬로'는 '처럼'의 뜻) 못 담그겠다고 그래요.}

10516 #1 그러케 마시 이썬요. {그렇게 맛이 있어요.}

10516 @ 니께 술빠바고 술빠블 찌가지고 누루가고 서끄지요? {그러니까 술밥하고 술밥을 찌가지고 누룩하고 섞지요?}

10516 #1 누루가고 석짜네 그 누룩 거름 무라고 서꺼요. {누룩하고 섞지 않고 그 누룩 거름 물하고 섞어요.}

10516 @ 아 누루 거름 무라고. {아, 누룩 거름 물하고.}

10516 #1 예 동당주는 이케 걸러가꼬 해야 하지라. {예, 동당주는 이렇게 걸러가지고 해야 하지요.}

10516 #1 이 찌꺼기는 다 억찌로 불고. {찌꺼기는 다 옆질러 버리고.}

10516 @ 그레가지고 저기 따드단테다 이러케 놔두 놔두. {그레가지고 저기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놔 두.}

10516 #1 예 여그다 놔두면 기양 한 사날 되면 괴야부러요. {예, 여그다 놓아 두면 그냥 한 사나흘 되면 괴어 버려요.}

10516 @ 그런 후에 저기 말 말궁건만 떠넘니까? {그런 후에 맑은 것만 떠 넘니까?}

10516 #1 인자 조상님네 인자 여그 상 차릴라면 말근 노물 인자 뜨지요, 상에 놀:로물. {이케 조상님네 이제 상 차리려면 맑은 것을 뜨지요, 상에 놓을 것을.}

10516 #1 그랑게 말근 놈도 그러케 마시썬요, 아주. {그러니까 맑은 것도 그렇게 맛있어요, 아주.}

10516 @ 그리고 그 말근 놈 떠내고 나머지는 다 서꺼서 그냥 마꺠리틀. {그리고 그 맑은 것 떠 내고 나머지는 다 섞어서 그냥 막꺠리틀.}

10516 #1 거르자네 기양 물 타요. {거르지 않고 그냥 물 타요.}

10516 @ 아 그냥 물 타요? {아, 그냥 물 타요?}

10516 #1 예, 양:거러요. {예, 안 꺠러요.}

10516 #1 이 누루꺠 걸러서 인자 찌게~이를 디네불고는. {이 누룩을 걸러서 이제 찌꺼기를 버려('디네다'는 '버리다'의 방언형) 버리고는.}

10516 @ *** 머:시 업:썬요, 그냥 찌꺼기가 안 나와요. {*** 무엇이 없어요, 그냥 찌꺼기가 안 나와요.}

10516 #1 예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10516 #1 이 그라고 동당주는 꼭:: 찹쌀로 해야 마시썬 이런 쌀로하면 덜: 마시썬. {그리고 동당주는 꼭 찹쌀로 해야 맛있지, 이런 쌀로 하면 덜 맛있어.}

10516 @ 엔:나레도 그러케 수를 담그서썬요 과:거에도? {옛날에도 그렇게 술을 담그썬어요 과거에도?}

10516 #1 엔:나레는 {옛날에는}

10516 @ 모땅그고 모땅그게 헤짜나요, 엔:날. {못 담그고 못 담그게 했잖아요, 옛날.}

10516 #1 엔:나레는 모도 뒤지러 텅기고 무성게 모따머머거썬. {옛날에는 모두 뒤지러 다니고 무서우니까 못 담가 먹었지요.}

10516 @ 그러치요이~. {그렇지요.}

10516 #1 엔:나른 그런 동당주 업:꼬 막 비베서 이 누루가고 막: 서꺼서 다마가꼬는 치로 막 걸러서 암머거썬? {옛날은 그런 동당주 없고 막 비베서 이 누룩하고 막 섞어서 담가가지고는 체로 막 걸러서 먹었잖소?}

10516 #1 그란디 지그믄 그라나고 동당주로 기양 하니까 양거르고 물타서 기양 머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동당주로 그냥 하니까 안 거르고 물 타서 그냥 먹어요.}

10516 @ 만든 방버비 다르네요. {만드는 방법이 다르네요.}

10516 @ 예 주로 이제 식 식썰활까지 하셔꼬. {예, 주로 이제 식생활까지 하썬고.}

1.6 거주생활

1. 집짓기

10601 @ 나머지 중에서 *** 어디 어디 인능가 집편능거슨. {나머지 중에서 ***, 어디어디 있는가, 집 짓는 것은.}

10601 @ 그 다:메는 인자 집찌꼬 이런 이야긴데 그거는 하라버니미오셔야 되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 짓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할아버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10601 #1 네가 오시락 하라? {내가 오시라고 할까요?('-으라'는 '-을까요'처럼 화자의 제안을 나타내는 어미)}

10601 @ 아:니 인제 쪼:끔 세:시니까 쪼끔 쉼:참 주시고. {아니, 이제 조금 3시니까 조금 결두리 주시고.}

10601 #1 예: 인자 술:참 드리거쑤. {예, 이제 결두리 드리겠소.}

10601 @ 예 쪼끔 쉬어따가. {예, 조금 쉬었다가.}

10601 #1 예. {예.}

10601 @ 예 이어서 일쩜 늑 거:주:생활 집편는 거세데한 말쓰를 여쭙보게씀니다. {예, 이어서 1.6 거주생활 집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쭙 보겠습니다.}

10601 @ 지블 지여보써쑤요? {집을 지어 보셨어요?}

10601 # 지블 우리 볼레 우리 장:영이 목쑤예요. {집을 우리 본래 우리 장형이 목쑤예요.}

10601 # 목쑤니까 나는 목쑤질 할찌는 몰르는데. {목쑤니까 나는 목쑤질 할 줄은 모르는 데.}

10601 # 쥬: 처제 우리 뽕쑤 우게 형님네 집 지서서 분가시키고. {제일 첫째 우리 바쑤('뽕쑤'는 매우 가까이 달라 붙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쑤'의 방언형) 위에 형님네 집 지어서 분가시키고.}

10601 # 그데미 요집또 우리 형님네 지여쑤라 우더리. {그 다음에 이 집도 우리 형님이 지었어요, 우리들이.}

10601 # 그라이~까 지그믐 백똥로 공그리 백똥로 이러케 싸는데 그런 때는 웨를 여꺼요 웨. {그러니까 지금은 벽돌로 콘크리트 벽돌로 이렇게 쌓는데 그런 때는 외를 얹어요 외.}

10601 # 웨가 흐기로 보르고 이러케 헛는데. {외가 흙으로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10601 # 그 다으메는 우리 큰집 몸체 행낭 다 지여쑤요. {그 다음에는 우리 큰집 몸체 행랑 다 지었지요.}

10601 @ 그러면 인제 구:체저그로 제가 인자 쪼:만 여쭙 보보게씀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여쭙 보겠습니다.}

10601 @ 우선 터를 어:따가 지을꺼싱가 터를 골라야 되지 안쑤니까, 어터케 골라뎡가요? {우선 터를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가, 터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랐던가요?}

10601 # 다룽거시아이~라 우리 뽕:쑤 우게 형님네지븐 다른 현:집 사서 뜨터불고 거그다 지: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바쑤 위에 형님네 집은 다른 현 집 사서 뜯어 버리고 거기 에다 짓고.}

10601 # 우리 큰집또 그저 인는 현:지블 터가 너롭꼬 자리가 중:께 거그를 사서 지:쑤. {우리 큰집도 그저 있는 현 집을 터가 넓고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를 사서 짓고.}

10601 # 요 지븐 볼레 노니여쭙니다. {이 집은 본래 논이었습시다.}

10601 # 노니연는데 그런때 장비 업:꼬 그라이~까 순:저니 바:자기로 저다가 이 지반질때를 도다썩요. {논이었는데 그런 때 장비 없고 그러니까 순전히 밭채로('바작'은 '밭채'의 방언형) 저다가 이 집 앓을 데를 돈웠어요.}

10601 # 그 지게 바:작 해썬니까? {그 지게 밭채 있잖습니까?}

10601 # 고노미로 순:저니 일러그로 저다가 지반질때만 보도:시 도다가꼬 지블 지여쭙니다. {그것으로 순전히 인력으로 저다가 집 앓을 데만 겨우('보도시'는 '겨우'의 방언형) 돈워가지고 집을 지었습시다.}

10601 # 그레가꼬 지블 지여서 뒤 단:장이 이끼를하까 짐만 지여노코 네가 구니네 가썩썩썩요, 마라자면. {그레가지고 집을 지어서 뒤 담장이('단:장'은 '담장'의 방언형) 있기를 할까? 집만 지어 놓고 내가 군인에 갓었지요.}

10601 @ 그러면 요 바다글 도다꾸뇨, 땅을 너:가지고. {그러면 이 바닥을 돈웠군요. 땅을 넣어가지고.}

10601 # 예 노니이~까. {예, 논이니까.}

10601 @ 흘글 너:가지고. {흙을 넣어가지고.}

10601 # 흘글 너:가꼬 지서썩요. {흙을 넣어가지고 지었지요.}

10601 @ 그러면 그거슬 무겨웅겔로 요러케 좀 다져야 텔텐데. {그러면 그것을 무거운 겔로 이렇게 좀 다져야 될 텐데.}

10601 # 그런데 그런때는 다지능거또 업:꼬 흙 저다가 도다가꼬, 지추똥. {그런데 그런 때는 다지는 것도 없고 흙 저다가 돈워가지고, 주춧돌.}

10601 # 마라자면 지둥 설때에 지둥 설때는 잔 다구지요. {말하자면 기둥 세울 때에, 기둥 세울 때는 조금 다지지요.('다구다'는 '다지다'의 방언형)}

10601 # 그레가꼬 인자 도:기로 노코는 도:구게다 지둥을 안 심:니까 그러케 합띠다. {그레가지고 이제 돌로 놓고는 돌 위에다 기둥을 세우잖습니까? 그렇게 합띠다.}

10602 @ 그러면 인제 하나하나 지블 인제 터를 딱: 하시고 그 다으메 기둥이 기둥 설 때는 더 다짐****{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집을 이제 터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기둥이 설 때는 더 다짐****.}

10602 # 예 그레가꼬 도:글 노치요 지추또리라고. {예, 그레가지고 돌을 놓지요, 주춧돌이라고.}

10602 @ 아 지추돌 도:를 노신다구요? {아, 주춧돌 돌을 놓으신다고요?}

10602 # 예 그 지추똥 논능 거슨 흘게가 서면 나무가 안썩거불거썩니까? {예, 그 주춧돌 놓는 것은 흙에 세우면 나무가 썩어 버리잖겠습니까?}

10602 # 함메드로 마레서 도:구게 서야 안 썩썩요. {한 마디로 말해서 돌 위에 서야 안 썩지요.}

10602 @ 응 그러케 만든다고요이~? {응 그렇게 만든다고요?}

10602 @ 그럼 그런 도:근 어:디서 어떤 도를 쓰나요? {그럼 그런 돌은 어디서 어떤 돌을 쓰나요?}

10602 # 주로 인자 그런 할만 한놈 주서오지요. {주로 그런 할 만한 것 주워 오지요.}

10602 # 저런 데가 사네가 도:기꼬 그라니까 마라자면. {저런 데에 산에 돌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602 @ 자여니 인는 돌. {자연히 있는 돌.}

10602 # 예 자연서기제. {예, 자연석이지.}

10602 @ 예 그거 조금 어떠케 저 손소를 봄니까? {예 그거 조금 어떻게 손을 봄니까?}

10602 @ 더 쯤 {더 쯤.}

10602 # 그도:글 가따가? {그 돌을 가져다가?}

10602 @ 아니 그테로 {아니 그대로.}

10602 # 그테로 테:락 마:이~ 하고 그랍따다. {그대로 대략 많이 하고 그랍디다.}

10602 @ 나무는 어터케 구해요? {나무는 어떻게 구해요?}

10602 # 나무는 사네서 비여서 깡까서 지:찌요. {나무는 산에서 베어서 깡아서 짓지요.}

10602 # 마라자면 목쭈가 큰자구라고 먹쭈 딱 티여가꼬 큰자구로 이러케 까:까서 인자 데:과질 헤:서 그러케 지:찌요. {말하자면 목수가 큰 자귀라고 먹쭈 딱 텅겨가지고 큰 자귀로 이렇게 깡아서 대패질 해서 그렇게 짓지요.}

10602 @ 그럼 나무부터 일리리 다 지금가치 목제제소 목제소에서 사용거시 아니라 나무를 베:가지고. {그럼 나무부터 일일이 다 지금같이 목제소 목제소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가지고.}

10602 # 그런데는 사네서 나무를 사서 비여가꼬 지게로 저네려서 가따가 순저니 까까서 이케 지블 지여쭈. {그런 데는 산에서 나무를 사서 베어가지고 지게로 저네려서 가져다가 순전히 깡아서 이렇게 집을 지었쭈.}

10602 # 그라이~까 요세는 지블 지:떠라도 스라브 지블 지:편지 조립씨글 지:편지 잠:판 지블 진:는데 그런데는 순:저니 일러기로 까까서 지둥 시여서 웨여꼬꼬 이케 지승께 참:말로 히미 마이~ 들지요. {그러니까 요세는 집을 짓더라도 슬라브집을 짓든지 조립식을 짓든지 잠깐 집을 짓는데 그런 때는 순전히 인력으로 깡아서 기둥 세워서 외 엮고 이렇게 지으니까 참말로 힘이 많이 들지요.}

10602 @ 예 오래걸리구요이~. {예, 오래 걸리고요.}

10602 @ 그러면 인제 그거슨 일리리 기둥이나 이렇거뜨를 다 만들 다 만들지 안썸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일일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10602 @ 만드러 노코 그걸 마춤니까? {만들어 놓고 그걸 맞춤니까?}

10602 # 예 그러치요. {예, 그렇지요.}

10602 @ 응 어터케? {응 어떻게?}

10602 # 인자 목쭈. {이제 목쭈.}

10602 @ 어떤 순:서테로 마춤니까? {어떤 순서대로 맞춤니까?}

10602 # 목쭈고 인자 그 네가 목쭈 도편수는 아~잉께 그건 자사이 모르는데. {목쭈고 이제 그 내가 목쭈 도편수는 아니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는데.}

10602 # 마:라자면 자로 제:가꼬 인자 딱 팔로면 파고 구녀글 뜨를러면 뜰꼬 이레서 이케 마춤따다. {말하자면 자로 재어서 이제 딱 팔 것은 파고, 구멍을 뚫을 것은 뚫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춥디다.}

10602 # 그레가꼬는 인자 켜길 결:고 인자 질: 처제 지둥 시:고 켜길 결:고 마라자면 울:력한다고. {그레가지고는 이제 서까래('켜길'은 '서까래'의 방언형) 결고 제일 첫째 기둥 세우고 서까래 결고 말하자면 울력한다고.}

10602 # 울:력한다고 인자 데:락저기로 바서 이런 동:네서는 아무게네 집 울:력한다고 인자 이라면 전부 도와줄라고 오지요. {울력한다고 이제 대략적으로 봐서 이런 동네에서는 아무개네 집 울력한다고 이라면 전부 도와 주려고 오지요.}

10602 @ 아 그 지등세우고 이럴 때요? {아 그 기등 세우고 이럴 때요?}

10602 # 썰길깅 썰길깅 까라노코. {서까랫깅 서까랫깅 깔아 놓고.}

10602 # 그러면 올라가서 인자 세끼루게 서:시씨라고.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서까래 위에 산자('서실'은 '산자'의 방언형) 쓰라고.}

10602 @ 예? {예?}

10602 # 서실 {산자.}

10602 @ 서실? {산자?}

10602 # 예 서시리라고. {예, 산자라고.}

10602 # 인자 여겨요. {이제 엮어요.}

10602 # 마:라자면 흐글 암빠게 지붕우게 여껴가꼬는 인자. {말하자면 흙이 안 빠지게 지붕 위에 엮어가지고는 이제.}

10602 @ 머:스로 역썸니까? {무엇으로 엮습니까?}

10602 # 세네끼로 역썸요, 주로, 세네끼로. {새끼로 엮지요, 주로 새끼로.}

10602 # 세네끼로 여껴서 인자 썸: 까라노코는 인자 흐글 올리지요. {새끼로 엮어서 이제 썸 깔아 놓고는 이제 흙을 올리지요.}

10602 @ 그건 동네 싸람드리 다 도와줍니까?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 줍니까?}

10602 # 예 텔썸이쓰면 동:네 싸람드리 나서 해:주지요. {예 될 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해 주지요.}

10602 # 그러면 인자 흐글 요마썸:가이~ 몽구라거니 해:가꼬 인자 멍게주면 우게서 바다가 꼬는 인자 주면 썸:우게 인는 사라미 노코는 썸 보르고 보르고. {그러면 이제 흙을 요만큼 썸하게 곱게 해가지고는 이제 던져 주면 위에서 받아가지고는 이제 주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놓고는 썸 바르고 바르고.}

10602 # 그러케 해:가꼬는 인자 마라를 지비로 마람 녀꼬 그레가꼬는 인자 바로 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엇을 짚으로 이엇 엮고 그레가지고는 이제 바로 이:지요.}

10602 # 비 안세게, **. {비 안 새게, **.}

10602 # 이여노코는 그데미는 인자 목썸가 중지를 낀:다고 나무를 인자 이케 이케 끼여서 노면 인자 웨를 역썸요. {이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목수가 중지를('중지'는 흙벽을 바를 때 중간에 대는 나무를 가리킨다.) 끼운다고 나무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놓으면 이제 외를 엮지요.}

10602 @ 벼게 벼게다가 나무를 중간 중간. {벽에, 벽에다가 나무를 중간 중간.}

10602 # 예 중간 중간 데:. {예, 중간 중간 데.}

10602 @ 가로로 데:요? {가로로 대요?}

10602 # 예 그러면 인자 웨를 역썸요. {예, 그러면 이제 외를 엮지요.}

10602 @ 웨는 데나무로. {외는 대나무로.}

10602 # 데나무로 여끄면 조:치요. {대나무로 엮으면 좋지요.}

10602 # 그란테 데나무가 인자 귀:하고 그러면 사네서도 간장지로만나 썸다가도 여꼬. {그런데 대나무가 이제 귀하고 그러면 산에서도 가늘고 곧은 것('간장지름하다'는 '가늘고 곧다'의 뜻) 막 썸다가도 엮고.}

10602 # 인자 이런 나무 빼게서도 간장지로마니 해:서 여끼도 하고. {이제 이런 나무 빼게서도 가늘고 곧게 해서 엮기도 하고.}

10602 # 데나무가 조:치요. {대나무가 좋지요.}

10602 # 그랑께 주로 데나무도 마:이~ 드러가고 예:저네 인자 헤이빨 하다가 인자 모:씨게 텐놈 헐가비로 사다가 빼게서 인자 여끼도 하고 그레가꼬는 인자 베글 보르지요, 베글. {그러니까 주로 데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 이제 김발(김 양식장에서 김이 붙도록 데나무로 만든 발.) 하다가 이제 못 쓰게 된 것 헐 값으로 사다가 뽀개서 이제 엮기도 하고 그레가지고는 이제 벽을 바르지요, 벽을.}

10602 # 흥니게가꼬 흐글 멘흐글 이기면 기양 버:러저 부러요. {흠 이겨가지고 흠을 맨 흠을 이기면 그냥 벌어져 버려요.}

10602 # 그라니까 인자 거그다가 지비나 그렁 거슬 써:러서 서꺼가꼬 인자 이게서 인자 보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짚이나 그런 것을 썰어서 섞어가지고 이제 이겨서 이제 바르지요.}

10602 # 그레가꼬 인자 처으메 보른 놈 함빼작 불라노믄 그노미 어 정 어느정 몰라사 그너메로 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바른 것을 한쪽('한빼작'은 '한쪽'의 방언형) 발라 놓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말라야 그 너메로 바르게 됩니다.}

10602 # 하루에는 양:짜 모:뿔라요. {하루에는 양쪽 못 발라요.}

10602 # 그러나거쑈이~? {그렇잖겠소?}

10602 # 이쪽 불라노믄 저쑈게서 ** 떠러저불지요. {이쪽 발라 놓으면 저쪽에서 ** 떨어져 버리지요.}

10602 # 그랑께 어느정 몰라사 보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라야 바르지요.}

10602 # 그레가꼬는 불라가꼬는 다시 인자 제:치리라고 노느글 파다가 인자 얼메이~로 쳐서 몽글게. {그레가지고는 발라가지고는 다시 이제 재칠이라고 논 흠을 파다가 이제 어레미로('얼메이'는 '어레미'의 방언형) 쳐서 곱게.}

10602 # 처서 인자 수사 몽:근 겐 여:코는 이겨서는 인자 제:치리라고 고오께 딱 보르지요, 마라자면. {쳐서 이제 수사('수사'는 흠벽을 바를 때 벽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마대를 찢거나 썩은새를 썰어서 절구통에다 넣고 찢어 부드럽게 만든 것으로서 벽을 바를 흠에 함께 섞어 사용한다.) 고운 것 넣고는 이겨서는 이제 재칠이라고 곱게 딱 바르지요, 말하자면.}

10602 # 그레가꼬 거그다 인자 종우 보릅니다. {그레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종이 바릅니다.}

10602 @ 그레요이~. {그레요.}

10602 @ 그러면 바다게다 요 저기 방빠다근 어떠케 노땀. {그러면 바닥에다 저기 방바닥은 어떻게 놓답.}

10602 # 예 방빠다근 그런 때는 뭐 보일라가 이씨꺼요 머:시 이씨꺼시요? {예, 방바닥은 그런 때는 뭐 보일러가 있을거요 뭐가 있을거요?}

10602 # 그렁거슨 저:너업꼬 부어글 할라이~까 방또글 봐야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부엌을 하려니까 구들장('방독'은 '구들장'의 방언형)을 놓아야지요.}

10602 # 방또기 납짜:간 야룬 도:기 어디가 이런데가 이쑈니까? {구들장이 납작한 얇은('야롭다'는 '얇다'의 방언형) 돌이 어디에 이런 데에 있습니까?}

10602 # 데:락찌기로바서 우리동네서는 찌: 락찌미라고 그거슨 서:메서 나니까 사오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봐서 우리 동네에서는 저 닭섬이라고 그것은 섬에서 나니까 사 오기도 하고.}

10602 # 야 먼:데서 그 도:글 사오는데. {야 먼 데서 그 돌을 사 오는데.}

10602 # 마:라자면 향간치 향간치에 엄:마 이케 주고 사웁니다. {말하자면 한 간치(돌의 크

기를 나타내는 단위), 한 간치에 얼마, 이렇게 주고 사 옵니다.}

10602 # 사다가 인자 고노를 가따노코는 그 이:라는 사라미 이썬요, 기술짜가. {사다가 이제 그것을 가져다 놓고는 그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자가.}

10602 # 그 사람 데려다 인자 노치요, 마라자면.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놓지요, 말하자면.}

10602 # 딱: 반바나이~ 미테다 인자 독: 궤:고 인자 땅: 노코는 우게는 인자 흐기로 딱 바르지요. {딱 반반하게 밑에다 이제 돌 괴고 이제 딱 놓고는 위에는 이제 흙으로 딱 바르지요.}

10602 # 그라고 인자 부어게다 인자 부사글 불뿔뿔을 손 걸고 땅 멩기라요. {그리고는 이제 부엌에다 이제 아궁이를('부삭'은 아궁이'의 방언형) 불 뿔 곳을 손 걸고 딱 만들어요.}

10602 # 그레가꼬는 인자 거그다 부를여:면 소테걸 끝:코 여그 방 따습꼬 그러치요. {그레가지고는 이제 거기에다 불을 넣으면 숯젓 끓고 여기 방 따뜻하고 그러치요.}

10602 @ 근데 그 방 이 돌 이르미 머라고 그레썬니까 논 돌? {그런데 그 방, 이 돌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놓는 돌?}

10602 # 아 도 도:기요? {아, 돌이요?}

10602 @ 예 그거뽕고 머:라그릅니까? {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10602 # 그거뽕고 방:도기라고 그러치요. {그걸 보고 '방독'이라고 그러치요.}

10602 # 방 방 논는 도:기라고 방:뚝. {방, 방 놓는 돌이라고, '방독'.}

10602 @ 아 방또기라고 그러. {아, 방독이라고 그러.}

10602 @ 그거 논능 거시 잘놔야 되자나요이~? {그걸 놓는 것이 잘 놓아야 되잖아요?}

10602 # 그러치요, 그랑께 기술짜가 노썬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놓지요.}

10602 # 구녀겍:씨 잘:놔사 흑또 암빠꼬 그러치 양커썬요? {구멍 없이 잘 놓아야 흙도 안 빠지고 그렇잖겠어요?}

10602 # 그라고 인자 미테 괴능거또 제데로 괴아야. {그리고 이제 밑에 괴는 것도 제대로 괴어야.}

10602 @ 그 괴:능걸 머라고 고거또 이르미 이썬니까? {그 괴는 것을 뭐라고 그것도 이름이 있습니까?}

10602 # 그거뽕고 괴:또기라 하나 어짜냐. {그걸 보고 '핏돌'이라고 하나 어짜냐?}

10602 @ 게또기라고요? {'핏돌'이라고요?}

10602 # 예 관:다고. {예, 관다고.}

10602 # 그런데 그걸 잘놔야 여그서 부렐러면 부리 썩: 드러가고 방도 따습꼬 델쑤이썬면 예:저네는 불러면 방이 따쑤와야 안쓰거썬니까? {그런데 그걸 잘 놓아야 여기서 불을 넣으면 불이 썩 들어가고 방도 따뜻하고 될 수 있으면 예전에는 불 넣으면 방이 따뜻해야 되잖겠습니까?}

10602 # 불려:도 방이 안 따쑤면 큰 이:리지라 시얀 살:라면. {불을 넣어도 방이 따뜻하지 않으면 큰일이지요, 겨울 살려면.}

106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2 # 순저니 그라이~까 시방은 보일러를 딱 조절해:노문 저혼자 십칠또면 십칠또로 해:노으면 방이 따수아저가꼬 십팔또가 데면 저 혼자 꺼저따가 인자 바메 썬 한 시가니나 데면 인자 도:쑤가 네레가면 저 혼자 또 사라나고 그라나요? {순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보일러를 딱 조절해 놓으면 저 혼자 17도면 17도로 해 놓으면 방이 따뜻해져가지고 18도가 되면 저

혼자 꺼졌다가 이제 밤에 좀 한 시간이나 되면 이제 도수가 내려가면 저 혼자 또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10602 # 예:저네는 지여게 불 한번 녀면 아침까장 어짤 쭈 업씨 그테로 사라야 땀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불 한 번 넣으면 아침까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야 땀니다.}

10602 # 바메 가서 불련는 사라믄 업:꼬 {밤에 가서 불 넣는 사람은 없고.}

10602 @ 그러치. {그렇지.}

10602 # 그러치 양커씨요? {그렇지 않겠어요?}

10602 @ 그러네요. {그러네요.}

10602 @ 여그 인제 요 마루는 어터케 깔지요, 마루 까능겨. {여기 이제 이 마루는 어떻게 깔지요, 마루 까는 것?}

10602 # 예, 반:치미라 하지요. {예, 반침이라 하지요.}

10602 @ 아 여기는 반:치미라 그러지요. {아, 여기는 반침이라 그러지요.}

10602 # 예 반:침은 그 사투링가 어짤가 모르거씀니다마는 그거시 마루라고도 하고 반:치미라고도아고 그러씀니다. {예, 반침은 그 사투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마루라고도 하고 반침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10602 # 응 저 목쭈가 노치요, 저건. {응 저 목수가 놓지요, 저것은.}

10602 # 마:라자면 딱: 나무 판자 써다가 데:파로 까까서 저 노치요. {말하자면 딱 나무 판자 썰어다가 대패로 깎아서 놓지요.}

10602 @ 여기에 요고는 천장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은 천장 아닙니까?}

10602 # 예, 천장이요. {예, 천장이요.}

10602 @ 천장은 어터케 그냥 멀: 판자로 이러케 만들 막. {천장은 어떻게, 그냥 뭘 판자로 이렇게 만들 막?}

10602 # 아 지그 현:제로 바서는. {아,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602 @ 엔:나레, 엔:날가트면. {옛날에, 옛날 같으면.}

10602 # 엔:나레는 가꾸먹 이러케 반자라고, 반자라고 가꾸먹 이케 졸:졸 헤:가꼬는 종우로 막 바로 헤:씨요. {옛날에는 각목('가꾸목'은 각목의 일본식 발음) 이렇게 반자, 반자라고 각목 이렇게 졸졸 해서는 종이로 막 바로 했어요.}

10602 # 마:라자면 데:락 종우로 풀치레노면 쪼간 느러난 페니 이씨. {말하자면 대략 종이로 풀칠해 놓으면 조금 늘어나는 편이 있어.}

10602 # 인자 척척한노믄 그래서 인자 이놈 결:꼬 저놈 결:꼬 인자 보루면 몰라지면 팽팽 해저라. {이제 축축한('척척하다'는 '축축하다'의 방언형)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 걸고 저것 걸고 이제 바르면 말라지면 팽팽해져요.}

10602 # 그라나땀자 그레가꼬 종우로만 이케 불란는데 지금 현:제 이런 천장은 시테가 시대인만큼 그 가꾸먹 결:꼬 베니다로 점:부하고 종우 불라쪼. {그렇잖습디까? 그레가지고 종이로만 이렇게 발랐는데 지금 현재 이런 천장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각목 걸고 베니야판으로 전부 하고 종이 발랐지요.}

10602 @ 엔:나레 그냥 강목이 예. {옛날에 그냥 각목이 예.}

10602 @ 인자도이~. {이제도.}

10602 @ 그 다옴에 지금 이러케 유리창으로 되이찌 안씀니까? 저네는 창이?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유리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창이?}

10602 # 시:살창이라고 하지요. {세살창이라고 하지요.}

10602 @ 시:살창이라 해쥬요? {세살창이라고 했지요?}

10602 # 예 그거뽕고 시:살창이라예. {예 그것보고 세살창이라고 해.}

10602 # 목쭈가 째니다. {목수가 째니다.}

10602 # 그거 짜 문짜는데 이:상 도:니 상당이 마:니 메케요. {문 짜는 데 제법('이상'은 '제법'의 방언형)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돈이 먹히다'는 '돈이 들다'의 뜻)}

10602 # 나무도 존:놈 가따 써야테고 또 밤:며네 문 널:고 다꼬하는 요거 요거뽕고는 시방 혀:네 장서기라 하지라 그란데 그 이전 그 시:살창무는 지도리라게써 지도리. {나무도 좋은 것 가져다 써야 되고 또 반면에 문 열고 닫고 하는 이거보고는 현재 경첩이라('장식'은 '경첩'의 방언형) 하지요? 그런데 그 이전 그 세살창문은 돌쩌귀('지도리'는 '돌쩌귀'의 방언형)라고 했어, 돌쩌귀.}

10602 @ 지도리? {돌쩌귀?}

10602 # 예, 지도리도 성:냥까네서 치여야데는데 그 상당이 비싸라 치오는데. {예, 돌쩌귀도 대장간에서('성냥간'은 '대장간'의 방언형) 쳐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비싸요, 쳐 오는 데.}

10602 # 인자 순:저니 일러그로 멍기는거다니요 기계로도 멍기능거아이~고 그랑께 이상 비싸게 메키지요. {이제 순전히 인력으로 만드는 것 아니요? 기계로도 만드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제법 비싸게 들지요.}

10602 # 고노를 질러가꼬 인자 널:고다꼬 하지요. {그것을 질러가지고 이제 열고닫고 하지요.}

10603 @ 집 엔:나레는 데게 지붕은 기와::보다는 그냥 저기여쥬요, 마람 {집, 옛날에는 대개 지붕은 기와보다는 그냥 저거였지요, 이영.}

1060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3 @ 마람. {이영.}

10603 # 돈:인는 사라문 혹씨 가다가 돈 마이~인는 사라문 기와이고. {돈 있는 사람은 혹시 가다가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기와 이고.}

10603 # 그라나면 점:부 마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영.}

10603 @ 그런 지붕 머:라고 부릅니까? {그런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10603 # 초지비라 하지요. {초집이라 하지요.}

10603 @ 초지비라 부르지요. {초집이라 부르지요.}

10603 @ 데:부부니 초지비연네요? {대부분이 초집이었네요?}

10603 # 예 데:부부니 초지비지요. {예, 대부분이 초집이지요.}

10603 @ 근데 인제 돈:죤 인는 사라문. {그런데 이제 돈 좀 있는 사람은.}

10603 # 기아. {기와.}

10603 @ 기아 기아가 이꼬. {기와, 기와가 있고.}

10603 # 단 지붕에 이능거슨 그거빠께 엽:써써 예:저네는. {단, 지붕에 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 예전에는.}

10603 @ 기와 기와는 그거슨 요세는 다 기와로 이등가요 아니면 그 스투트 머 명:가요 요세는? {기와, 기와는 그것은 요세는 다 기와로 이던가요, 아니면 그 슬레이트 뭘, 뭘가요 요세는?}

10603 # 아 요세:는 스투또로 쪼그로 주로 함부를 싹: 헨는데. {아, 요세는 슬레이트 쪽으로 주로 한 벌을 싹 했는데.}

10603 # 요새는 데:락 우리 동네서 집지스먼 스라부집 지:쎄. {요새는 대략 우리 동네서 집 지으면 슬라브집 짓지.}

10603 # 그라고 인자 그전 스투또로 한 놈 게:시 할라면 그 지아양출 우리집가치 기아 양철 이:고 그랍따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슬레이트를 한 것 개조하려면 그 기와 양철 우리집 같이 기와 양철 이고 그럽디다.}

10603 @ 양처린데 기와 모양으로 되이쎄요? {양철인데 기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10603 # 예 그러치요, 무누가. {예, 그렇지요, 무너가.}

10603 # 딱 찌게나서, 딱딱 찌게나서 그란디 그거시 아여~에라 아여~. {딱 찍어 놓아서, 딱딱 찍어 놓아서 그런데 그것이 아연이어요 아연.}

10603 # 녹또 안 나고. {녹도 안 슬고.}

10603 # 그레인자 나도 거:장녀네 사:벙 녹씨빙가 주고 행:낭까장 헨:는데. {그래 이제 나도 그작년에 사백육십인가 주고 행랑까지 했는데.}

10603 # 여그 기아가치 생긴 노미 더 세미 수맹이 쪼:깐 자롭따갑따다. {여기 기와같이 생긴 것이 더 수명이 조금 짧다 함디다.}

10603 # 찌그저 골:도단보다. {저기 저 골도단보다.('골도단'은 지붕에 이는 신 소재.)}

10603 # 행랑에는 골:도다니로 안 지여쑤? {행랑에는 골도단으로 지었잖소?}

10603 @ 골:도다니요? {골도단이요?}

10603 # 고랑고랑 인능거. {고랑고랑 있는 것.}

10603 # 그라고 여그는 기아 시기로 진는 이거하는데 요노미 더 쪼간 생맹이 쪼간 자롭다 게라 그러나 한 칠썸년 전딘다갑따다. {그리고 여기는 기와식으로 짓는 이것 하는데 이것이 더 조금 생명이 조금 짧다고 해요. 그러나 한 70 년 견딘다고 함디다.}

10603 @ 칠썸년 대단허네요. {70 년, 대단하네요.}

10603 @ 함편생 지붕 일: 이른. {한 평생 지붕 일 일은.}

10603 # 그러지요. {그렇지요.}

10603 @ 업겐네요. {없겠네요.}

10603 # 근데 요고 헤:농께 조:킨 함따다, 절:떼 그전 스투또로 헤썰때는 테레쓰에도 더러 비가 세고 그랜는데 비셀 이:치는 업:썰라. {그런데 이것 해 놓으니까 좋긴 함디다. 절대 그 전 슬레이트로 했을 때는 테라스에도 더러 비가 세고 그랬는데, 비 셀 이치는 없어요.}

10603 # 하는데봉께 하여간 비는 절:떼 안세고 또 뽀마 아이~라 이실만 와도 무리네리요, 이실만 와도 무리 네레. {하는 것 보니까 하여간 비는 절대 안 세고 또 뽀만 아니라 이슬만 와도 물이 내려요, 이슬만 와도 물이 내려.}

10603 @ **** 말라이겐네요. {**** 말라 있겠네요.}

10603 # 예, 미끼럽꼬 어디가 머글때가 업:꼬 스투또는 상:당하니 먹습니다. {예, 미끄럽고 어디에 먹을 데가 없고 슬레이트는 상당히 먹습니다.}

10603 # 처:떼 비와서는. {처음에 비 와서는.}

10603 # 얼릉 안 네레요, 머그니까. {얼른 안 내려요, 먹으니까.}

10603 # 인자 다: 머꼬 나문 노미 인자 네리지라 그때부터. {이제 다 먹고 남은 것이 이제 내리지요, 그 때부터.}

10603 @ 그러지요이~. {그렇쥬.}

10604 @ 집또 이게 모양하고 크기에 따라서 이르미 다르다고 그러거드뇨. {집도 이것이 모양하고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10604 @ 인제 보통 메카니냐 카네서 그 집 이름이 정해지잔습니까? {이제 보통 몇 칸이나 칸에서 그 집 이름이 정해지잔습니까?}

10604 # 머: 칸쭈로 먼 사:카니먼 사:칸, 오:카니먼 오:칸. {뭐 칸수로 뭐 4칸이면 4칸, 5칸이면 5칸.}

10604 # 또 밤:며네 거가 요케 기억쑈느로 데야쓰면 꼭두마리집. {또 반면에 거기가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으면 꼭두마리집.}

10604 @ 꼭두마리집 아, 기억짜로. {꼭두마리집? 아, 기억자로?}

10604 # 예, 기억짜로 데야쓰면. {예, 기억자로 되어 있으면.}

10604 @ 아까 꼭두마리는 몰레: 쓰던 그거. {아까 꼭두마리는 몰레 쓰던 그거?}

10604 # 예 마쑈니다. {예, 맞쑈니다.}

10604 @ 활 네:다 쓰면 거 모양이 기억짜로 된 모양이지요? {활 내다 쓰면 모양이 기억자로 된 모양이지요?}

10604 # 거까장은 고노먼 기억짜로까장 안데안는데. {거기까지는 그것은 기억자로까지는 안 되었는데.}

10604 # 요 집 요러케 그 기억짜로 텐노른 꼭두마리찌비라고 데:략 하지요. {이 집, 이렇게 그 기억자로 된 것은 꼭두마리집이라고 대략 하지요.}

10604 @ 아 그러쑈니까? {아, 그러쑈니까?}

10604 @ 데:게 이쪽 지방은 꼭두마리찌비 만:쑈니까, 아니면 일짜로 된 지비 만:쑈니까? {대개 이쪽 지방은 꼭두마리집이 많쑈니까, 아니면 일자로 된 집이 많쑈니까?}

10604 # 데:략 일짜로 진는지비 만:치요. {대략 일자로 지은 집이 많지요.}

10604 @ 그러지요 그러면 일짜로 된 집은 그건 머:라고 부릅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일자로 된 집은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10604 # 거까장은 나 모르거쑈. {거기까지는 나 모르쑈소.}

10604 @ 하하 그레요이~ 예. {하하 그레요.}

10604 @ 그러면 아주 그 가나나단 사람드리 사:는 집 이쑈습니까? {그러면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있쑈습니까?}

10604 @ 허수라게된 집 그렇 거슨 머:라고 부르. {허술하게 된 집 그런 것은 뭐라고 부르?}

10604 # 가나난 지비요? {가난한 집이요?}

10604 @ 예. {예.}

10604 @ 제데로 머 마루도 업:꼬 그냥 방도 항카니고. {제대로 뭐 마루도 없고 그냥 방도 한 칸이고.}

10604 # 아::주 예:저네는 (4초) 우덜알기는 가나난 사라른 베짜게다 종우도 모:쁘르고 시야네도 이불 가통거또 업:씨 그케 사라쑈요. {아주 예전에는 우리들 알기는 가난한 사람은 벽에('베짜'은 '벽'의 방언형) 종이도 못 바르고 겨울에도 이불 같은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10604 # 그레요. {그레요.}

10604 @ 이불도 업:씨요? {이불도 없이요?}

10604 # 예, 이불도 우덜또 암:니다. {예 이불도, 우리들도 암니다.}

10604 # 멘 찌비 그케 사라따능 거슨. {몇 집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10604 @ 그럼 먼: 더플 꺼또 업:씨요? {그러면 뭐 덮을 것도 없이요?}

10604 # 더플 꺼 업씨 살:지요. {뒤편을 것 없이 살지요.}

10604 # 할 쑈 업썅게 그케 살:지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요.}

10604 # 안주궁게 살:고. {안 죽으니까 살고.}

10604 # 그런데 그케 달런데면 또 켜찬항거십따. {그런데 그렇게 단련되면 또 켜찬은 것 입디다.}

@ 인자 바다근 그런 장판도 물론 업:꼬 뭐. {이제 바닥은 그런 장판도 물론 없고 뭐.}

10604 # 데:라근 예:저네는 저 지비로 짜서 바다게다 깔고 . {대략은 예전에는 저 짚으로 짜서 바닥에다 깔고.}

10604 # 그러치 아나면 저 자리 자리 깔고. {그렇지 않으면 저 자리, 자리 깔고.}

10604 # 집짜리가 또 따썅따따다 머 집짜리 깔면. {짚자리가 또 따뜻하다고 합디다. 뭐 짚 자리 깔면.}

10604 @ 겨울 참 나기 힘드러썅텐데. {겨울 참 나기 힘들었썅 텐데.}

1060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4 # 메:찌비 그러케 사라썅요. {몇 집이 그렇게 살았어.}

10604 # 먼 도:리가 업:씨 그케 살:지요. {무슨 도리가 없이 그렇게 살:지요.}

10605 @ 집또 인제 그 인제 흐그로 지은 집또 이꼬 {집도 이제 그 이제 흙으로 지은 집도 있고.}

10605 # 예 {예.}

10605 @ 뭐 돌:로 지은 집또 이꼬 이러케 저 재료에 따라서 이르미 다르지 안썅니까? {돌로 지은 집도 있고 이렇게 저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 안썅니까?}

10605 # 그 저네는 주로 흐기로 지:꼬 돌:로 진는 지븐 벨로 업:썅는데. {그 전에는 주로 흙으로 짓고 돌로 짓는 집은 별로 없었는데.}

10605 # 이 이 중너네 따라서 인자 돌: 게:다가 경치똥로 이케 지:꼬 그랍따. {이 근년에 이제 돌 깨다가 **돌로 짓고 그랍디다.}

10605 @ 엔:나레는 데:게는 다. {옛날에는 대개 다.}

10605 # 그러치요, 그런때는 먼 기수리이썅 히미이썅, 가썅 히미도 업:썅요. {그렇지요, 그런 때는 무슨 기술이 있소 힘이 있소? 가져올 힘도 없지요.}

10605 @ 그러치요이~. {그렇지요.}

10606 @ 집 지썅때 연장 아까 그 벽 빠를때 흑까똥거 이러케 해서 게:꼬다게 바를라면 연장이 피료하지 안썅니까? {집 지을 때 연장 아까 그 벽 바를 때 여기 흙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바르려면 연장이 필요하지 안썅니까?}

10606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606 @ 그 어:떤 연장드리 피료해요? {그 어떤 연장들이 필요해요?}

10606 # 그거뽕고 세소니라 하지요, 세손. {그것보고 흙손이라('세손'은 '흙손'의 방언형) 하지요.}

10606 @ 세손 세소는 이러케. {흙손, 흙손은 이렇게.}

10606 # 흑빠르는 세손. {흙 바르는 흙손.}

10606 # 그놈가꼬 또 흑또 바르고 공굴:도 바르고 그거뽕고 세소니라 합니다. {그것 가지고 또 흙도 바르고 콘크리트도 바르고 그것보고 흙손이라고 합니다.}

10606 @ 세소니라 하고요이~. {흙손이라 하고요.}

10606 # 예, 그라고 인자 이케 흑 반응거슨 흑빠지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흙 받

는 것은 흙받기라('흑빠지'는 '흙받기'의 방언형) 하고.}

10606 @ 흑빠지라 하고요이~? {흙받기라 하고요?}

10606 @ 그런 아까 인제 나:무가통 거 인자 데:서 이러케 까끌 때는 머: 가지고 까끈다고?
{그런 아까 이제 나무 같은 것 이제 대어서 이렇게 깎을 때는 뭘 가지고 깎는다고?}

10606 # 에 나무 비능 거슨 짜르능 거슨 톱, 깡:는 거슨 큰짜구라고. {예, 나무 베는 것은
자르는 것은 톱, 깎는 것은 큰 자귀라고.}

10606 # 마:라자면 큰 짜구로 그 짜구가 이케 요마나 너루까 고런 노미로 찌게서 깡까요.
{말하자면 큰 자귀로 그 자귀가 이렇게 이만큼 넓을까 그런 것으로 찍어서 깎아요.}

10606 # 그라고 인자 고노를 깡:끈노를 메끼레이 할라면 데:파로 인자 미기지요, 데:파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깎은 것을 매끈하게 하려면 대패로 이제 먹이지요, 대패로.}

10606 # 그라고 인자 구녀글 팔라면 끌로 파고. {그리고 이제 구멍을 파려면 끌로 파고.}

10606 @ 그리고 인제 데:파가통거슨 나리 다라지면 어:터케. {그리고 이제 대패 같은 것은
날이 닳아지면 어떻게?}

10606 # 어 늘짱 다라지면 가라야지요. {어, 늘 닳아지면 갈아야지요.}

10606 @ 어:따 감니까? {어디에 감니까?}

10606 # 시뚜레다 가라야지요. {숫돌에다('시똥'은 '숫돌'의 방언형) 갈아야지요.}

10606 @ 그래요? {그래요?}

10606 # 예. {예.}

10606 # 시뚜레서 거친놈 몽근노미 인는데 몽근노메서 그노를 다 갈:라면 한:정 업:씨니까.
{숫돌에서 거친 것 고운 것 있는데 고운 것에서 그것을 다 갈려면 끝이 없으니까.}

10606 # 거친노메서 어느정 가라가꼬 몽근노메서 날리를 바거야지요, 날리를 몽근노메서.
{거친 것에서 어느 정도 갈아가지고 고운 것에서 날을('날리'는 '날'의 방언형) 박아야지요,
날을 고운 것에서.}

10607 @ 지베도 여러가지 명칭 부분 명칭이 이씨요. {집에도 여러가지 명칭, 부분 명칭이
있어요.}

10607 @ 아까 그 기둥 미테 돌: 세운 거슬 무슨 도리라고? {아까 그 기둥 밑에 돌 세운
것을 무슨 돌이라고?}

10607 # 주추뚝. {주춧돌.}

10607 @ 예, 그렇 거또 이꼬. {예, 그런 것도 있고.}

10607 @ 그리고 인자 기둥도 이꼬. {그리고 이제 기둥도 있고.}

10607 @ 또 기둥에 이러케 그 그거 머라고 그럼니까? {또 기둥에 이렇게 그 그거 뭐라고
그럼니까?}

10607 # 이건 보: 예 보:라고. {이건 보, 예 보라고.}

10607 @ 보가 이꼬. {보가 있고.}

10607 # 이거 모루. {이건 마룻대.('모루'는 '마룻대'의 방언형)}

10607 @ 모루요? {모루요?}

10607 # 에 이러케 질:게 걸:칭 거슨 모루 {예, 이렇게 길게 걸친 것은 마룻대.}

10607 @ 아 모루라고, {아 마룻대라고?}

10607 @ 그 다으메 이 이러케 사라르로치면 뭐 갈비뼈처럼 이러케 인능거슨 머:라고 그럼
니까?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뭐 갈빗뼈처럼 이렇게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럼니
까 ?}

10607 # 어, 세깁. {어, 서까래.}

10607 @ 예? {예?}

10607 # 세깁. {서까래.}

10607 @ 세끼리라고 그래요? {세깁이라고 그래요?}

10607 # 응 둥글둥구:라니 해서 하능 걸 세깁. {응, 둥글둥글하게 해서 하는 것을 서까래.}

10607 @ 그 인제 세깁가튼 거시 바까트로도 쫓: 나오 나올 쭈가 이쨌요, 이러케. {그 이제 서까래 같은 것이 바깥으로도 쭈 나올 수가 있지요, 이렇게?}

10607 # 나가지요. {나가지요.}

10607 @ 예, 가끔 나오지요. {예, 가끔 나오지요.}

10607 @ 꼬테 꼬테 인능 거슨 머:락 합니까 꼬테 바꼬로 나가가지고. {끝에, 끝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끝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10607 # 세깁 바깥 인능 거시요? {서까래 밖에 있는 것이요?}

10607 @ 아니 인자 지붕 이어가지고 인자 이러케 바까트로 하여튼 그 지베 여러가지 명칭 부분 명칭드른 어떻거뜨리 인는지 잘 모 쟁가게 보세요. {아니 이제 지붕 이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하여튼 그 집에 여러가지 명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10607 # 그그 세깁 바깥은 지시라가지요, 지시락. {그 서까래 밖에는 기스락이지요, 기스락.}

10607 @ 지시라갑니까? {기스락갑니까?}

10607 # 세깁 바깥은 지시락. {서까래 밖에는 기스락.}

10607 # 그랑께 인자 비 오면 지시랑물 떠러진다고 지시랑물 떠러진다고 그라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 오면 기스락물 떨어진다고 기스락물 떨어진다고 그러잖소?}

10607 # 마:라자면 그라고 인자 지붕 지베 열:때는 미트로 연:능거슨 마람.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지붕 쪼 해 넣을 때는 밑으로 넣는 것은 이영.}

10607 # 쥔: 가운데 이:능 거슨 용마람. {제일 가운데 이는 것은 용마람.}

10607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607 # 그라고 인자 마라자면 뽕:돌레 안 버시지게 데로 노코 이 썬세서 쩌:미능거슨 지시락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빙 둘러서 안 벗겨지게 대로 놓고 썬서서 잡아매는 것은 기스락대.}

10607 @ 아 지시락때라. {아 기스락대라.}

10607 @ 그 다으메 (7초) 이런 정도 하면 되게썬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 하면 되겠썬니다.}

10608 @ 지블 세로 지을 때 터를 다진다거나 또는 머 들뽕을 올린다거나 이러머는 또 으시근 으시기 이짜나요? {집을 새로 지을 때 터를 다진다거나 또는 뽕 들보를 올린다거나 이러면 또 의식, 의식이 있잖아요?}

10608 # 으시기 머:요? {의식이 뭐요?}

10608 @ 그니깐 사:람드리 모여가지고 머 행사를 허지 안썬니까? {그러니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뽕 행사를 하지 않썬니까?}

10608 # 아: 행사? {아 행사?}

10608 @ 예. {예.}

10608 # 데:락찌기로 바서 우리는 집 네가 아는 머:시로 바서는 서너 너테체. {대략적으로 봐서 우리는 집 내가 아는 무엇으로 봐서는 서너 너댓 채.}

10608 # 우더리 목쭈이른 할 쫄 모룽께 인자 웨를 형님 시기는데로 웨를 여꼬 인자 흙 빠르는 흙또 이기고 인자 이러케 헨:는데. {우리들이 목수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외를 형님 시키는 대로 외를 엮고 이제 흙 바르는 흙도 이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10608 # 그 시기라 하능거슨 그 상:냥할 때 마라자면 지블 다 지서가꼬 인자 젤: 모루 세 쥘 결:기 저네 모루 연질때 모루에다 그 멘넌또라고 쓰 쓰고 그라네씀니까? 고건 연질 때 마라자면 시글 하드마이~라. {그 식이라 하는 것은 그 상량할 때, 말하자면 집을 다 지어가치고 이제 제일 마룻대 서까래 걸기 전에 마룻대 엮을 때 마룻대에다 그 몇 년도라고 쓰고 그러잖았습니까? 그것 엮을 때 말하자면 식을 하더구먼요.}

10608 # 상 차리고 ****. {상 차리고 ****.}

10608 @ 상:냥할 때요이~. {상량할 때요.}

10608 @ 그 다ومه 에 집찌끼는 이정도로 하게씀니다. {그 다음에 예, 집 짓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까.}

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0610 @ 그 다ومه 엔:날 사람드른 집 고꼬세가 고 시니 이따고 생가해편 모양이지요, 시니?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집 곳곳에 그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신이?}

10610 # 어:디가 시니 이썸요? {어디에 신이 있어요?}

10610 @ 그니깐 부어가네도 시니이꼬 다 그러케 미더따 이 마리에요. {그러니까 부엌 안에도 신이 있고 다 그렇게 믿었다 이 말예요.}

10610 # 예예예 그래 예. {예예예, 그래 예.}

10610 @ 어:디 어:디 머 그 그런그런. {어디 어디 뭐 그 그런.}

10610 # 그거 이름 다 이저부런는데 가마니썸. {그것 이름 다 잊어 버렸는데, 가만 있어.}

10610 # 마레도 시니이꼬 방에도 시니이꼬 정제에도 시니이따고 그라는데. {곡식 등을 넣어 두는 방에도('마리'는 곡식 등을 넣어 두는 방을 뜻함) 신이 있고 방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정제'는 '부엌'의 방언형)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10610 # 그 멍칭을 이저부러서 생가기 얼릉 안나요. {그 멍칭을 잊어 버려서 생각이 얼른 안 나요.}

10610 @ 예:: 그러면 그 시니이따 그러면 그 그 시난테다가는 어터케 먼? {그러면 그 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신한테다가는 어떻게 무슨?}

10610 # 명절때::나 그런 때는 상 차려노치요. {명절 때나 그런 때는 상 차려 놓지요.}

10610 @ 아, 그러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10610 # 예. {예.}

10610 # 가마니꺼라 그 그거슨 다 이저부런네. {가만 있자, 그 그것은 다 잊어 버렸네.}

10610 # 우더른 간심 안등께 그런 데에. {우리들은 관심 안 두니까, 그런 것에.}

10610 # 반:치메다 상차려노코 부어게다 상차리고 그러지요. {마루에다 상 차려 놓고 부엌에다 상 차리고 그러지요.}

10610 @ 그 다ومه 머 소 외양간 가튼데도 상 차려요? {그 다음에 뭐 소 외양간 같은 데도 상 차려요?}

10610 # 웨양까는 자사이 모르거썅니다. {외양간은 자세히 모르썅니다.}
 10610 @ 그먼 썸:까에느노 세:메. {그러면 썸 가에는요, 썸에?}
 10610 # 에 세:메는 더러 차립따다. {예, 썸에는 더러 차립따다.}
 10610 @ 세:메는 차려요? {썸에는 차려요?}
 10610 # 예. {예.}
 10610 @ 이:들 주로 명절 때. {이들, 주로 명절 때.}
 10610 # 예, 그러치요 멍젤 때 그람니다. {예, 그렇지요, 명절 때 그릅니다.}
 10610 @ 바블 바블 줌 헤논는다등가이~. {밥을, 밥을 줌 해 놓는다등가.}

3. 금기 생활

10615 @ 예 그 다으메. {예, 그 다음에.}
 10615 @ 머 머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풍소기 이썅어요. {뭐,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풍속이 있어요.}
 10615 @ 예:를드러서 머 정초부터 여자가 동:네 바까트로 나가탱이면 안 된다 그럼 말도 이꼬 그러지 안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초부터 여자가 동네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지 안썅니까?}
 10615 # 그렇 거또 이끼는 이끼썅마는 기여기 안나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썅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요.}
 10615 @ 기여기 안 나. {기억이 안 나.}
 10615 # 기여기 안 나. {기억이 안 나.}
 10615 # 머 그런데다 관시를 두거나 어썅 해:판마리제 선생니미 똥:업썅 무러봉께 얼릉 여꾸리 칼뿌리를 빨리 디요 어디? {뭐 그런 데에 관심을 두거나 어떻게 했단 말이지 선생님이 갑자기('똥:없이'는 '갑자기'의 뜻) 물어 보니까 얼른 옆구리 **** 빨리 ** 어디?}
 10615 # 물론 이께썅요. {물론 있썅지요.}
 10615 @ 그러면 예:를 드러서 혼사 거론시키고 이럴때 여그 인자 쉽:께 썅가할 썅 인능건데 머 멀 해:선 안된다. 어떻게지 이썅니까, 혼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사, 결혼 시키고 이럴 때 여기 이제 썅게 썅각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뭘 해서는 안된다, 어떤 것이 있썅니까, 혼사?}
 10615 @ 예:를드러 이렇거 이썅요, 어디 그 머 상을당한 사라미 나무 혼사썅베 가면 안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지요, 어디 그 뭐 상을 당한 사람이 남의 혼삿집에 가면 안된다.}
 10615 # 글썅 우더른 그렁거 안 시여반는데. {글썅, 우리들은 그런 것을 안 해 봤는데.}
 10615 @ 아 그레요? {아, 그레요?}
 10615 # 예, 양 게레바썅, {예, 안 가려 봤어.}
 10615 @ 상 당한 사라미 나무지베 가면 머 흥한 이리 썅길썅 이썅니까. {상 당한 사람은 남의 집에 가면 뭐 흥한 일이 썅길 수 있썅니까.}
 10615 # 어:짜면 먼: 기양 이:초가 업:썅진다 어짜다 그렁 거 이썅마는 썅가기 나요? {어썅면 뭐 그냥 이치가 없어진다 어떻다 그런 것은 있지마는 썅각이 나요?}
 10615 @ 썅가기 안 나시지요이~, 예. {썅각이 안 나시지요.}

1.7 질병과 민간요법

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 조:씀니다, 그 다: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701 @ 그 다:메느요 병:에 과난 이야기요 병: 요거는 그냥 뭐 생가기 나시게쪄요, 병?
{그 다음에는 병에 관한 이야기에요, 병 이것은 그냥 뭐 생각이 나시겠지요, 병?}

10701 @ 엔:나레 좀 마:니 아라뎌 예를 드러서 피부 피부 그럼 어떻 거뜨리 이쑤니까 그
냥 마:니 사:람드리 아라? {옛날에 좀 많이 앓았던, 예를 들어서 피부 그럼 어떤 것들이 있
습니까, 그냥 많이 사람들이 앓아?}

10701 # 피부요? {피부요?}

10701 @ 예. {예.}

10701 # 무슨 피부요? {무슨 피부요?}

10701 @ 피부뽕. {피부병.}

10701 # 피부뽕뎌. {피부병 무슨.}

10701 @ 엔:나레는 얼 얼구레 에드리 머이 생기고 아이드리 머리에 뽕. {옛날에는 얼, 얼
굴에 아이들이 무엇이 생기고 아이들이 머리에 뽕가.}

10701 # 부시럼도 생기고 그레쪄요. {부스럼도 생기고 그랬지요.}

10701 # 그란디 그거슬 뎌: 멍칭이라고 머: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무슨 멍칭이라고 뽕라
고.}

10701 @ 아니 멍칭 아니고 부시러미 생기구요. {아니, 멍칭 아니고 부스럼이 생기구요.}

10701 # 예 부시럼. {예, 부스럼.}

10701 @ 부시러뎌 뎌:보고 부시러미라 그레요, 어떻게? {부스럼은 뽕 보고 부스럼이라 그
래요, 어떤 것?}

10701 # 부시러미나 이리 이런 머리 이런데가 이케 막 부시럼 딱쪄 딱쪄가 이케 뎌:고 그
랑거뽕고 부시러미라 해요. {부스럼이란 이런 머리 이런 데에 이렇게 막 부스럼 딱지, 딱지
가 이렇게 열고 그런 것보고 부스럼이라 해요.}

10701 @ 예:드란테 마:니 생기지요? {애들한테 많이 생기지요?}

10701 # 그러치요, 예:기드란테 주로. {그렇지요, 아이들한테('예기'는 '아이'와 '야기'를 모
두 포함한다) 주로.}

10701 # 그라고 지금가칠로 야기 발뽕해따요? {그리고 지금같이 약이 발뽕했대요?}

10701 # 시방가트뎌 그러뎌 기양 가서 주:사만 뽕뽕 마즈뎌 나서뽕고 그라는데. {지금 같
으면 그러뎌 그냥 가서 주사나 뽕 번 맞으면 나아 버리고 그러는데.}

10701 # 예:저네는 어디가 그런 머시 이쑤쑤? {예전엔 어디에 그런 무엇이 있었어?}

10701 # 어쪄쑤가 업:쪄. {어쪄 수가 없지.}

10701 # 그라고 예:전 어른드리 사능거시 차말로 세:상 뎌 세:상이여뜨라. {그리고 예전 어
른들이 사는 것이 정말로 세상 무슨 세상이었대요?}

10701 # 참:말로 허:마게 사라쪄. {정말로 험하게 살았지.}

10701 @ 그니까 예 위생 깨끄다지 아느니까. {그러니까 예 위생 깨끗하지 않으니까.}

10701 # 예 허:마게 사라쪄라. {예, 험하게 살았지요.}

10701 # 예:전 어른드리 머 모요글 하요 머:슬 하요 이빠를 다끄요? {예전 어른들이 뭐 목
욕을 하요, 뭘 하요? 이를 닦으요?}

10701 # 술찌간말로 지금가칠로 치소리 머 이따요. {술직한 말로 지금같이 칫솔이 뭐 있대
요?}

10701 # 머단다요? {뭐 한대요?}

10701 # 참:말로 허:마게 사라찌라. {정말로 험하게 살았지요.}

10701 # 예:저네는 사는데 보면 이 방이 켜:까네가꼬 무니 켜:까나고 그라니까 여르메는
더와서 방아네서 잘쑤가 업:쑤요. {예전에는 사는 데 보면 이 방이 조그마해가지고 문이 조
그마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방안에서 잘 수가 없어요.}

10701 # 그라니까 마당에다 밀:때로 꺼정너꺼서 마당에서 자는데 여페다 모구뿔 헤:노코
자면 오지가거쏘? {그러니까 마당에다 밀대로 거적 엮어서 마당에서 자는데 옆에다 모깃불
해 놓고 자면 오죽하겠소?}

10701 # 모구는 모구데로 재미보지라. {모기는 모기대로 재미보지요.}

10701 # 모구는 모구데로 재미바. 헤:썰게. {모기는 모기대로 재미봐. 했으니까.}

10701 # 이:전 어른드리 그케 사라쑤니다, 하여간 마:랄꺼업쑤.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살
았습니다. 하여간 말할 것 없이.}

10701 # 세:상이 세:상이 아니지라. {세상이 세상이 아니지요.}

10701 @ 그러니. {그러니.}

10701 @ 오래 살:기가 어렵쑤. {오래 살기가 어렵쑤.}

10701 # 예, 그라고 이:른 일:테로 선생님 생가게보쑤오 아까치메도 점:부 농사 진능거 마:
레찌마는 어:썰하든지. {예, 그리고 일은 일대로,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전부 농사
짓는 것 말했지마는 어떻게 하든지.}

10701 # 시간만 이쑤면 사네가 나무하제. {시간만 있으면 산에서 나무하지.}

10701 # 잔데기 파서 거름 할라고 하제. {마른 잡초('잔데기'는 들에 난 잡초가 마른 것을
가리킨다.) 파서 거름 하려고 하지.}

10701 # 거름닐 하제. {거름 일 하지.}

10701 # 하여간 그놈 점:부 저서 드:레다 놔바테다 네:제. {하여간 그것 전부 저서 들에다,
논밭에다 내지.}

10701 # 썰:썰가 업쑤라 썰:썰가. {썰 틈이 없어요, 썰 틈이.}

10701 # 이거 이전가트면 요세 올:가튼날 어디가 지베가 이쑤라. {이건 이전 같으면 요세
오늘 같은 날 어디 집에 있어요?}

10701 # 하다모테 가 잔데기를 파든지 나무를 하든지 하제. {하다못해 가서 마른 잡초를
파든지, 나무를 하든지 하지.}

10701 # 그러케 사:라물 세:상을 사라쓰니 이:전 어른드리 단명하지요. {그렇게 사람을, 세
상을 살았으니 예전 어른들이 단명하지요.}

10701 # 병:은 지금보다 더:레따합따다 야기 업:쑤게 그렌능가 몰라도. {병은 지금보다 덜
했다고 합디다. 약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10701 @ 그래도 하여튼 병 걸리면 꿈짜겍쑤 죽짜나요? {그래도 하여튼 병 걸리면 꿈짜없
이 죽잖아요?}

10702 @ 근테 인제 부시럼 가통 거또 이꼬 또 에 몸:머거서 그런지 그런때 머 하:야케 생
긴 열구리 하:야케 되자나요이~? {그런데 이제 부스럼 같은 것도 있고 또 못 먹어서 그런

지 그런 때 뭐 하얗게 생긴, 얼굴이 하얗게 되잖아요?}

10702 # 그거뽕고 검:보지미라 하나 어짜냐 그케 그케도 하고, 또. {그것보고 건버짐이라('검:보짐'은 '건버짐'의 방언형) 하나? 어짜냐? 그렇게 그렇게도 하고, 또.}

10703 @ 또 이 주로 어려쓸때 이러케 예들 아이들 보면 이:발소 이:발소에서 옮겨논 병인가 머리가 이러케 그거시 머리 머리가 요 병:이 생게요 이:발소에서 기계에서 이러케. {또 주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발소에서 옮겨진 병인가? 머리가 이렇게 그것이 머리가 이 병이 생겨요, 이발소에서, 기계에서 이렇게.}

10703 # 기계뚝 그거뽕고 기계또기라 하요. {기계충('기계독'은 '기계충'의 방언형), 그거보고 기계충이라고 하요.}

10703 @ 그러지요이~, {그렇지요.}

10703 # 그거뽕고 기계또기라 하고. {그것보고 기계충이라 하고.}

10703 # 아그들 키워보면 주로 베길 지침. {아이들 키워 보면 주로 백일기침.}

10703 # 베길 지치미 아::주 고야갑따다. {백일기침이 아주 고약합니다.}

10703 # 베길지침 걸려노면 지:그믐 나실랑가 몰라도 야기중께 베길지침 걸리는 사람 아그들또 업:떠만. {백일기침 걸려 놓으면 지금은 나올지 몰라도 약이 좋으니까 백일기침 걸리는 사람 아이들도 없더구먼.}

10703 # 베길지침 걸려노면 베기리 너머야 머:다는데 자식뜨른 죽꼬 그라나면 예기가 바:썩 몰라져 잔뜩 모:썩서 지치물 하이~까. {백일기침 걸리면 백일이 넘어야 뭐 하는데 자식들은 죽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바싹 말라서 아주 못 자면서 기침을 하니까.}

10703 @ 응 베길지침. {응 백일기침.}

10703 # 그라고 인자 또 밤:머네 호녁 호녁또 아주 고야강거시.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홍역, 홍역도 아주 고약한 것이.}

10703 # 호녀글 야:튼 어느 예:기든지 호녀글 하고야망께. {홍역을 여하튼 어느 아이든지 홍역을 하고야 마니까.}

10703 # 시방은 예:방 주사 놔 분담합따다. {지금은 예방주사 놓아 버린다고 합디다.}

10703 @ 예 미리 미리 인제. {예, 미리미리 이제.}

10703 # 미리. {미리.}

10703 @ 예, 하지요. {예, 하지요.}

10703 # 그라니까 예:저네는 아그들 조:케 크다도 호녀기 드와따 그라면 아그들 마:니 나감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아이들 좋게 크다가도 홍역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들 많이 나감니다.}

10703 # 야근 업:쎄. {약은 없지.}

10703 # 호녁 해:가꼬는 마:라자면 그 머:시냐 지침 이냐 머:시냐 페:렘 페:렘 걸려노면 영:낙업쎄 죽썩니다. {홍역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기침이냐 뭐냐, 페렘 걸리면 영락없이 죽습니다.}

10703 @ 그 엔:나레는 문:둥이들또 마:니 이썩썩요이~. {그 옛날에는 문둥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10703 # 문 나:병? {나병?}

10703 @ 예. {예.}

10703 # 그래썩요. {그랬지요.}

10703 # 그레도 우리 모락 부락 가튼데서는 한:사라밍가 이:저네 이썩만 그런 마리 이썩

썸. {그래도 우리 부락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인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말이 있었어.}

10703 @ 니까 아니 마으레 보:통 인능게 아니라 도라다니는 사라드리 마:니 이썸썸요. {그러니까 아니, 마을에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0703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703 @ 어더머그로? {얻어먹으러.}

10703 # 예, 어:더머그로. {예, 얻어먹으러.}

10703 # 이:저네는 모:싸니까 우선 모꾸넉 살릴랑게 어:더머그로 텅이고. {예전엔 못사니까 우선 목구멍 살리려니까 얻어먹으러 다니고.}

10703 # 동:네서도 양:꺼또 엄:는사라든 학씨리 살:랑게 어:더머그로 텅겨썸. {동네에서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확실히 살려니까 얻어먹으러 다녔어.}

10703 # 세:상 조아저썸라. {세상 좋아졌지요.}

10703 # 지그든 엄:는사라든 정부에서 한다레 엄:마썸 정:기저그로 안나오요? {지금은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10703 # 그랑께. {그러니까.}

10703 @ 머꼬는 살:지요. {먹고는 살지요.}

10703 # 그런 사람드리 태평업썸 삼: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평하게 삼니다.}

10703 # 그란테 예:전 가트면 어썰썸 업:썸라. {그런테 예전 같으면 어썰 수 없어요.}

10703 # 어:더머거야제. {얻어먹어야지.}

10703 # 어찌께 하꺼시요, 베는 고프제. {어떻게 할것이요? 베는 고프지.}

10703 # 할 썸 업썸. {할 수 없어.}

10703 @ 그 다으메 인자 호넉또 말썸 하셔꼬. {그 다음에 이제 홍역도 말썸 하셔꼬.}

10704 @ 혹씨 진도 가튼 데는 데:게 이케 마능거가테요 섬 썸방이라서. {혹시 진도 같은 데는 대개 이케 많은 것 같아요. 섬 지방이라서.}

10704 @ 엔:나레는 병:원이 업:꼬 그러니까 아프면 마:니 아프면 그케 무:당에 구슬 불러다 구다고 그런.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면 많이 아프면 그케 무당에 굿을 불러다가 굿하고 그런?}

10704 # 그라치요, 구들, 군 마:이~ 하지요. {그렇지요, 굿 많이 하지요.}

10704 @ 지금 이 진도에서 마:니 헤썸요? {지금 이 진도에서 많이 했지요?}

10704 # 마:니 헤썸요. {많이 했지요.}

10704 # 마:이~ 헨는데 시방은 그케 아나능거십띠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디다.}

10704 # 마:라자면 그 집 지스면 성주 올린다고 무:당 데리다가 무:당이 하루썸넉 노라요, 마:라자면. {말하자면 그 집 지으면 성주 올린다고 무당 데려다가 무당이 하루 저녁 놀아요, 말하자면.}

10704 @ 그니까 요 진도에 그런 그 무:당드리 노래 자라고 오래된 무:당드리 만:차나요? {그러니까 이 진도에 그런 무당들이 노래 잘하고 오래된 무당들이 많잖아요?}

10704 # 근데 요세도 사:람 주그면 시킨다고 그 진도 시킨꾼 마:니 나오지요. {그런데 요세도 사람 죽으면 씻긴다고 그 진도 씻김굿 많이 나오지요?}

10704 # 시킨다고 무:당들 데레다가 시끼는데 우더른 마:메 안마집띠다. {씻긴다고 무당들을 데려다가 씻기는데 우리들은 마음에 안 맞습디다.}

10704 @ 그레요? {그레요?}

10704 # 그거시 순:저니 무:당들 그거 장나이~제. {그것이 순전히 무당들 장난이지.}

10704 # 먼: 주근 사لامي 머 머 시끼고 먼 머:다고 하꺼시요? {뭐 죽은 사람이 뭐 씻기고 무슨 뭐하고 할 것이지?}

10704 @ 근데 하여튼 시니 안 들려서 마:랍디까? {그런데 하여튼 신이 들려서 말하잖습디까?}

10704 # 시니 어디가 이따요? {신이 어디에 있대요?}

10704 # 주그먼 끝나능거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10704 # 나는 그케 생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704 # 주그먼 아::무 별 사람도 네:나 그 방:머시 늘창 나오덤마. {죽으면 아무 별 사람도 내나 박 아무개 늘 나오더구먼.}

10704 # 그 화:가 미국씨 주근 사람. {그 화가, 미국서 죽은 사람.}

10704 @ 뽕남준. {백남준.}

10704 # 응 방남준. {응 박남준.}

10704 @ 뽕 뽕 뽕씨예요. {백씨예요.}

10704 # 뽕씨. {백씨.}

10704 # 다:: 그런 사람도 주그먼 끝나고 마:라자면 박정희 가튼사람도 주그먼 끝납니다. {다 그런 사람도 죽으면 끝나고 말하자면 박정희 같은 사람도 죽으면 끝납니다.}

10704 # 다름거덱씨, 하여간. {다른 것 없어, 하여간.}

10704 # 머: 그럼 말 하싱께 그라제. {뭐 그런 말 하시니까 그렇지.}

10704 @ 그럼 아 굳 여기 해:본 경허튼 업쓰세요? {그럼 아 곳, 여기 해 본 경험은 없으세요?}

10704 @ 불러다가 무:당. {불러다가 무당.}

10704 # 불러다가? {불러다가?}

10704 @ 예. {예.}

10704 # 나는 불러다가 해:봉거슨 벨로 업:씹니다. {나는 불러다가 해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10704 # 아그들 킬:때 더러 당골레가 와서 소는 비벼뎡가 어제뎡가 몰:라도 잔:뜩 오레데 야서 기여게도 안남꼬. {이제 아기들 키울 때 더러 무당이('당골레'는 '무당'을 가리킴) 와서 손을 비볐던가 어뎡던가 몰라도 아주 오래 되어서 기억에도 안 남고.}

10704 # 그라는데 요세는 당골레 그리 안 불릅디다, 이런데서도. {그런데 요세는 무당을 그리 안 부릅디다, 이런 데서도.}

10704 # 발따리 데야가꼬 쪼깐 머:다른 병:워니로 다니제 당골레 안불러라. {발달이 되어가지고 조금 뭐하면 병원으로 다니지 무당 안 불러요.}

10704 @ 예 인제 아파서 그렇 거슨 으:사 소:과니고. {예, 이제 아파서 그런 것은 의사 소관이고.}

10704 @ 아까 마란 인제 (3초) 좀 어구라게 주거따등가 인제 고령 경우는 인제 아까 마란 데로 무:당 불러다 구데가지고 시 시키. {아까 말한 이제 좀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무당 불러다 굿하고 씻기고.}

10704 # 씨깅굳. {씻깅굳.}

10704 @ 막 고런 거뜨른 어떠케 어 으:사가 할 쑈 인는 이리 아니니까 그거 인제 그러케 라도 해:보면 하:니 풀릴랑가 시퍼서 하능 거 거지. {막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해 보면 한이 풀릴까 싶어서 하는 거죠.}

10704 @ 근데 도:니 마:니 들자나요, 그런 큰 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큰?}

10704 # 마:니 들지요. {많이 들지요.}

10704 # 돈: 술차이~ 주고 또 당골레 춤 출 때마디 또 돈: 노코. {돈 꽤 주고 또 무당 춤 출 때마다 또 돈 넣고.}

10704 @ 요 요 동:네는 이 근처에는 당골레는 업:씀니까? {이 동네는 이 근처에는 무당이 없습니까?}

10704 # 예, 여그는 업:씨요, 당골레. {예, 여기는 없어요, 무당.}

10704 # 씨: 그 요 너메 거:제란 부라게서 당골 한 사라미 사란는데. {저기 이 너메 거제라는 부락에서 무당('당골'은 원래 박수를 가리킨 말이나 지금은 박수와 무당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았는데.}

10704 # 우덜 나이나 데야쓰까 그란데 여잔데 도라가셔부러씨. {우리들 나이나 되었을까, 그런데 여자인데 돌아가서 버렸어.}

10704 # 그랑께 업:씨. {그러니까 없어.}

10704 @ 그 당골드른 데:게보먼 이러케 아버지가 당고리면 이러케 데:데로 당고리자나요? {그 무당들은 대개 보먼 이렇게 아버지가 박수면 이렇게 대대로 무당이잖아요?}

10704 # 그러치요 그건 마:라자면 한메드로 마레서 상:노브 지바니여. {그렇지요, 그건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상놈 집안이야.}

10704 @ 상놈. {상놈.}

10704 # 상놈들. {상놈들.}

10704 # 마:라자면 즈검메가 구담시로 춤추면 조:타 그라거든 그거이 상놈아이~요? 마:라자면.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굿하면서 춤추면 좋다 그러거든 그것이 상놈 아니요? 말하자면.}

10704 # 그런데 당골레 지바니라하까 네리이라하까 그레찌라. {그런데 무당 집안이라 할까 내림이라 할까 그랬지요.}

10704 # 아:무 사람도 당고리 데는 거디 아이~요, 마:라자면. {아무나 무당(또는 박수)이 되는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10704 # 그랑께 항상 텔레비에 나오는 박병찬이라고 그부니. {그러니까 항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병찬이라고 그 분이.}

10704 @ 그 그 당골지바니지요? {그 박수 집안이지요?}

10704 # 당골지바닌데 여그 면:소제지 인지리서 사라씨 인지리 싸라미요. {박수 집안인데 여기 면소제지 인지리에서 살았어, 인지리 사람이요.}

10704 @ 그러이까 데:그를 잘 부러따등가? {그러니까 대금을 잘 불었다던가?}

10704 # 예, 그란데 당고리여, 한메드로 마레서. {예, 그런데 박수요, 한마디로 말해서.}

10704 # 그 데:락 당고리면 당골 머:시제 먼 다룽 거 업씨라. {그 대략 박수면 박수 무엇이지 뭐 다른 것 없어요.}

10704 # 그라이~까 향:상 모구세끼마이~로 소락찌나 지르고 머 머:시로 장다:이~나 치고 그랑께 자여:니 그걸 자랄쑤베께 업:찌라. {그러니까 항상 모기 새끼처럼('마이~로'는 '처럼'의 뜻) 큰 소리나('소락찌'는 '큰 소리'의 뜻) 지르고 장단이나 치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걸 잘할 수밖에 없지요.}

10704 @ 근데 그 사람드른 그냥 인제 그 사람들도 먹꼬 사라야 되니까 자기드리 이러케 과날하는 지여기 이따고 그레요, 이 마을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냥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관할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레요, 이 마을에.}

10704 # 예 예, 이썸요. {예, 있어요.}

10704 @ 엔:날 엔:나레. {옛날 옛날에.}

10704 # 그라이~까 마:라자면 우리 서포가튼 부락또 한 한 두:사라미나 테야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서포 같은 부락도 한 두사람이나 되었어.}

10704 # 그라이~까 즈그 즈그 까 갈리하는 지비 이썸가꼬 메:겍썸 즈그가 사고 풀고에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괜히('메겍썸'는 '괜히'의 방언형) 저희가 사고팔고 해요.}

10704 # 노를 가꼬. {남을 가지고.}

10704 @ 자기들끼리요? {자기들끼리요?}

10704 # 예. {예.}

10704 # 그레가꼬 일런 농사지면 가르레는 동:냥하로 땡게요. {그레가지고 일년 농사 지으면 가을에는 동냥하러 다녀요.}

10704 # 그랑께 마:이~주는 사라른 나락 함 마리나 주고, 메떼썸 주고 이러케 합띠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사람은 벼 한 말이나 주고, 몇 되썸 주고 이렇게 합디다.}

10704 # 이 중녀네까장 그레썸. {이 근년까지 그랬어.}

10704 # 하여간 동:냥땡게. {하여간 동냥 다녀.}

10704 @ 그먼 그거는 그냥 동:냥이 아니고 피료할 때 그 사람 불러다가 막 손도 비비고 그 값썸 하능거 아릅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냥 동냥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 사람 불러다가 막 손도 비비고 그 값을 하는 것 아릅니까?}

10704 # 피료할 때 불러다 하먼 그테로 그때는 그테로 자기 품썸 바꼬. {필요할 때 부르면 그대로 그 때는 자기 품샀 받고.}

10704 @ 아 바꼬요? {아 받고요?}

10704 # 예. {예.}

10704 # 그 동:냥 주어따고 기양할 쟁도는 아이~요. {그 동냥 줬다고 그냥 할 정도는 아니오.}

10704 @ 아 그니깐 고 곤마네:서는 머꼬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가요? {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가요?}

10704 # 그랑가 저랑가. {그런지 저런지.}

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0705 @ 그니까, 예 이런 데서도 약초를 켜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데서도 약초를 켜니까?}

10705 @ 사니 업썸서 약초는. {산이 없어서 약초는}

10705 # 사니 업썸 약초 양케요. {산이 없어서 약초 안 캐요.}

10705 @ 그레겐네요이~. {그랬겠네요.}

1.8 세시풍속과 놀이

1, 세시풍속

10801 @ 자 그 다으메는 그거 인제 그 각 계절에 따라서 노리가 마:나요. {자 그 다음에는 그거 이제 그 각 계절에 따라서 놀이가 많아요.}

10801 # 노리? {놀이?}

10801 @ 노:능거. {노는 거.}

10801 # 아 노:능거? {아 노는 거?}

10801 @ 정위리면 머 놀:고 그러케 놀:자나씀니까? {정월이면 뭐 놀고 그렇게 놀았습니까?}

10801 # 예. {예.}

10801 @ 엔:나레는 요 요자 요세 지금 정위리 정위리잔습니까, 오늘. {옛날에는 이 요세 지금 정월이잔습니까, 오늘?}

10801 @ 정월 가트먼 엔:나레 머:다고 노서썩요? {정월 같으면 옛날에 뭐 하고 노셨어요?}

10801 # 정월 데:보름나른 우덜 알기에는 청년드리 인자 핑빠이~, 핑다구 북, 장구가꼬 침시로 지블 거드로 텅게요. {정월 대보름날은 우리들 알기로는 청년들이 이제 팽과리, 북, 장구 가지고 치면서 짚을 걷으러 다녀요.}

10801 # 인자 농 집짚마디 집빠누리 이꺼든. {이제 집짚마디 짚가리가 있거든.}

10801 # 그라이~ 지블 거드로텅게가꼬 지블 거더다가 주를 디레요, 주를. {그러니까 짚을 걷으러 다녀가지고 짚을 걷어다가 줄을 만들어요,('디리다'는 '줄다리기용 줄을 만들다'의 뜻) 줄을.}

10801 @ 주를 데려, 아 예. {줄을 만들어, 아 예.}

10801 # 그레가꼬 주를 데 데리지라. {그레가지고 줄다리를 하지요.('데리다'는 '줄다리를 하다'의 뜻)}

10801 # 우덜 알기에도 소포가 소포 부라글 딱 갈라가꼬 동:쪽 서쪽 갈라가꼬 줄데리고 그레썩요. {우리들 알기에도 소포가 소포 부락을 딱 갈라가지고 동쪽 서쪽 갈라가지고 줄다리를 하고 그랬지요.}

10801 @ 아 그레썩요? {아 그랬어요?}

10801 @ 응, 그 상당히 온: 온: 부락 싸람들 다 차며합니까? {응, 상당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까?}

10801 # 아 그러치요. {아 그렇지요.}

10801 # 쩌:아레 똥네 신장노가 인자 뻥:빠감니다, 그런 때는 사:람도 마:이~ 살고 그랑께. {저 아래 동네 신작로가 이제 뻥뻥합니다, 그런 때는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10801 # 지그른 인자 사:라미 업:썩께 그케 별로 아나고.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별로 안 하고.}

10801 @ 정월 보르미면 저 제일 큰 저기. {정월 보름이면 저 제일 큰 저기.}

10801 # 예, 그라고 머:단 사라른 큰 데에다 귀:리 달고 유:두 유:주지리라고 지비로 멍기라서 그 기떼에다가 딱 다라메노코 그레가꼬는 인자 마라자면 정월 금:날 하루 달락 고노미

로 콩콩보까 명는다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대에다 귀리 달고 유두 유두질이라고
짚으로 만들어서 기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이제 말하자면 정월 그믐날 하루달 그것으로 콩,
콩 볶아 먹는다고.}

10801 # 마:른 그랍따다마는 우더른 그레보지도 아네바쑈. {말은 그랍디다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 보지도 않았소.}

10801 @ 정월 그믐날. {정월 그믐날.}

10801 # 금:나리면 하룬 아이~요 일이월 초 하루면 하루달. {그믐날이면 하룻 아니오? 일
이월 초하루면 하루달.}

10801 @ 하루달? {하루달?}

10801 # 예 {예.}

10801 @ 아 하루달 하루가 한다리라고. {아 하루달, 하루가 한 달이라고.}

10801 # 한:달 가따고. {한 달 갔다고.}

10801 # 하루달. {하루달.}

10801 @ 예, 그러면 정월 데:보름 나레는 아까마란 줄데리기 하고 또 머 보통 다른 데는
막 불: 불: 망노코 그러잔씀니까? {예, 그러면 정월 대보름날에는 아까 말한 줄다리기 하고
또 뭐 보통 다른 데는 막 불 막 놓고 그렇잖습니까?}

10801 # 그러지요, 불도 마이~ 노지요, 불도. {그러지요, 불도 많이 놓지요, 불도.}

10801 @ 어터케 노릅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10801 # 드:레다 기양 들:려게다 불 논뚜럭 바뚜럭 불도노코 그랍니다. {들:에다 그냥 들넉
에다 불 논뚜럭 발뚜럭 불도 놓고 그랍니다.}

10801 @ 구체저그로 머 다른 머 멀 만드러가지고 태운다등가 그러지는 앙쿠요? {구체적으
로 뭐 다른 뭘 만들어서 태운다든지 그러지는 앙고요?}

10801 # 그러는데까장은 안 바쑈요, 우리덜 부라게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봤어요, 우리들
부락에서는.}

10801 @ 그다으메 윤:노리나 이렇 거또 하셔릅니까 정월에? {그 다음에 윗놀이나 이런 것
도 하섯습니까, 정월에?}

10801 # 윤:노리도 하지요. {윗놀이도 하지요.}

10801 @ 설라레요? {설날에요?}

10801 # 사방:도 더러합따다 엔나레. {지금도 더러 합디다, 옛날에.}

10801 @ 그러면 인제 정월 다으메 이:위레도 노:능게 이릅니까? {그러면 이제 정월 다음
에 2월에도 노는 것이 있습니까?}

10801 # 이:위레는 안놉따다. {2월에는 안 놉디다.}

10801 @ 예 그 인제 농사처리 시작되지 안릅니까이~? {예, 그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지
안습니까?}

10801 @ 그러면 언:제 주로 또 놉:니까 이:월 삼월. {그러면 언제 주로 또 놉니까? 2월? 3
월?}

10801 # 젤: 큰 명저리 추석아이~요, 추석, 추석, 설:, 보름. {제일 큰 명절이 추석 아니
오?, 추석, 설, 보름.}

10801 # 응 그 추서게가. {응, 그 추석이.}

10801 @ 추석 때는 머:다고 또. {추석 때는 뭐 하고 또?}

10801 # 추서게는 이 예:저네 절문사람들 마:이~이꼬 그랄때는 주로 강:강:술레. {추석에는

이 예전에 젊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주로 강강술래.}

10801 @ 아 추석때 강강수얼레를 합니까? {아 추석 때 강강술래를 합니까?}

10801 # 예 강:강술래를 밤:세 날새기해요. {예, 강강술래를 밤새 날새기 해요.}

10801 # 하여간. {하여간.}

10801 @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10801 # 인자 동네 너른 마당을. {이제 동네 넓은 마당을.}

10801 # 예 마당에 가서 짐:부 밤:세 하지라. {예, 마당에 가서 전부 밤새 하지요.}

10801 # 하여간 밤:세 뛰능거여 여자드리. {하여간 밤새 뛰는 것ियो, 여자들이.}

10801 @ 여자드리요? {여자들이요?}

10801 # 예, 주로. {예, 주로.}

10801 @ 남자드른? {남자들은?}

10801 # 남자드른 강:강술래 아나고 여자드리, 주로. {남자들은 강강술래 안 하고 여자들 이, 주로.}

10801 @ 보:통때 모:다던 노:능걸 그냥 그날 하루 다 노:능 거 아니예요? {보통 때 못하던 노는 걸 그냥 그날 하루에 다 노는 거 아니예요?}

10801 @ 아 그게 다른 지방에 엄:는 거자나요, 요 요 해:남 진도 요조게 강:강술래. {아 그게 다른 지방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해남, 진도 이쪽에 강강술래.}

10801 # 이 그러치요, 예. {예, 그렇지요.}

10801 # 듣는 말로 해:서는 우더른 차말로 모:빠서 모르제마는 예:저네 이:순신 장구니 바 메 자만잘라고 저 쉬영 떠서 강:강:술래를 일본놈드리 올라오니까 강:강술래를 항상 해:뜨라 아납먼자? {듣는 말로 해서는 우리들은 정말로 못 배워서 모르지마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밤에 잠 안 자려고 저 우수영에서 강강술래를 일본인들이 올라오니까 강강술래를 항상 했더라고 안 합디까?}

10801 @ 예, 그런 마리 이찌요이~. {예, 그런 말이 있지요.}

10801 @ 이:순신 장군 ** 광계가 이따고이~. {이순신 장군 ** 관계가 있다고.}

10801 @ 그레 그거시 추석날 그러구요. {그래, 그것이 추석날 그렇고요.}

10801 @ 그럼 배도 무지하게 고프건네요, 밤:세 뛰여놀면. {그러면 배도 무지하게 고프겠 네요, 밤새 뛰어놀면?}

10801 # 글썸. {글썸.}

10801 @ 머글 꺼시 머글 꺼시라도 싸:가지고. {먹을 것이, 먹을 것이라도 싸가지고.}

10801 @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2. 전통 놀이

10802 @ 자 그 다:메 어려쓸때 남자들 어떤 어떻 걸 하고 주로 노노 노라씀니까? {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남자들 어떤 걸 하고 주로 놀았습니까?}

10802 # 우덜 어려서는 우더리 꼭: 일제 때 생게가가꼬 일본놈더리 학교도 빙비이~ 업:꼬 일본끄리나 쪼간 머:다고 그레쑌. {우리들 어려서는 꼭 일제 때 생겨가지고 일본놈들이 학교도 변변히 없고 일본 글이나 조금 무엇 하고 그랬소.}

10802 # 그라이~까 순 순:저니 우더른 어려서부터 이:리나 하고 그레썸요.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일이나 하고 그랬지요.}

10802 # 술찌간말로 그래도 쪼간 커서 인자 먼: 니:를 해:찌마는 아주 어려서는 소나 띠기로 텅이고. {술직한 말로 그래도 조금 커서 이제 무슨 일을 했지마는 아주 어려서는 소나 뜯기러 다니고.}

10802 # 인자 까리나 비고 풀 풀 비여서 소줄라고. {이제 풀이나 베고 풀 베어서 소 주려고.}

10802 # 그라고 인자 지비서 노라씨도 머 우더른 화투를 치기를 해쓰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놀았어도 뭐 우리들은 화투를 치기를 했을까.}

10802 # 먼 특빠란 머:단 노리는 업:씨꼬. {무슨 특별한 어떤 놀이는 없었고.}

10802 # 그레썸니다. {그랬습니다.}

10802 @ 아 노:는 노리드리 업:씨씨요이~? {아 노는 놀이들이 없었어요?}

10802 @ 근데 이렇거뜨리 이씨썰꺼 아님니까, 뭐 자치기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님니까? 뭐 자치기를 한다든지.}

10802 # 에 자치기도 더러 해:요. {예, 자치기도 더러 해요.}

10802 # 하기는. {하기는.}

10802 @ 또는 뭐. {또는 뭐.}

10802 @ 썩이를 돌린다든가. {썩이를 돌린다든지.}

10802 # 에 썩이도 더러 치고. {예, 썩이도 더러 치고.}

10802 @ 그러니까 고런 고런 연:도 날리고. {그러니까 그런 연도 날리고.}

10802 # 연:도 날리고. {연도 날리고.}

10802 # 그러치요, 시야네. {그렇지요, 겨울에.}

10802 @ 그다으메 지금가치 뭐 특빠랑거슨 아니지만 그렁거뜨른 다 해:께찌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했겠지요?}

10802 # 예. {예.}

10802 @ 그 다:메 나이 쪼금 커가지고는 인제 윤:노리도 하고 또 이렇게 이찌요, 뭐. {그 다음에 나이 쪼금 커가지고는 이제 윗놀이도 하고 또 이런 것이 있지요, 뭐.}

10802 @ 땅에 머 그려가지고 이러케 머 두능 거 이찌요. {땅에 뭘 그려서 이렇게 뭐 두는 것 있지요?}

10802 # 그레가지고 머시요? {그려가지고 무엇이요?}

10802 @ 아니 그. {아니 그.}

10802 @ 땅에다가 그려가지고 이러케 똥:그라미 해가지고 이러케 해가지고 이러케 양:쪼게 말:처럼 해가지고 그렁거 윤:노리는 아니지마는. {땅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말처럼 해가지고 그런 거, 윗놀이는 아니지마는.}

10802 # 예, 땅빠끼? {예, 땅뽏기?}

10802 @ 땅빠끼가 아니고, {땅뽏기가 아니고,}

10802 # 이러케 투던 건? {이렇게 두던 것?}

10802 @ 꺾:, 꺾: 두능거, 꺾: 가통 거. {고누, 고누 두는 거, 고누 같은 것.}

10802 # 꼬:루? 꼬:루. {꼬루? 꼬루.}

10802 @ 꼭 그걸 꼬:루라 그럼니까? {그것을 꼬루라 그럼니까?}

10802 # 예, 동글동그라이~ 멩기라가꼬 요러케 흐게다 이케 무더가꼬 하능거뽏고 꼬:루라 하요. {예,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흙에 묻어가지고 하는 걸 보고 꼬루라고 하오.}

10802 @ 아 그레요? 꼬:루? {아 그레요? 꼬루?}

10802 @ 아니고 제가 말:씀드링거슨 쏜: 둔다고 하능 거인데, 쏜:.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고누 둔다고 하는 것인데, 고누.}

10802 # 쏜? {고누?}

10802 @ 네, 쏜 쏜둔다고. {네, 고누, 고누 둔다고.}

10802 # 쏜:가통 거슨 잘 모르거쑈. {고누 같은 것은 잘 모르쑈소.}

10802 # 그케 아네. {그렇게 안 해.}

10802 @ 응 이깁 이쑤쑤쑤, 꼬니라는 거슨? {응 있긴 있었쑤쑤, 고누라는 것은?}

10802 # 이 이저네 우더른 아네쑤마는 저: 돈:치기라고 도:글 요마:나 이케 동굴동구라게 쑤까가꼬 땡기라가꼬 돈: 쑤:꼬다 땡게가꼬 고노미로 이케 맞추기, 돈:치기는 더러하더마. {예전에 우리들은 안 했지마는 저 돈치기라고 돈을 요만하게 동글동글하게 깎아가지고 만들 어가지고 돈 저기에다 던져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맞추기, 돈치기는 더러 하더구먼.}

10802 @ 돈: 치기. {돈치기.}

10802 @ 그니 그건 그야말로 서로 돈 돈 돈 가져가기네요? {그건 그야말로 서로 돈 가져 가기네요?}

10806 @ 거 남자드리 이런 노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쓰꺼 아님니까, 뭇 자치기라등 가 쑤이치기라등가 연:날리기 여자드른 그러면 무슨 노리를? {남자들이 이런 놀이, 아까 제 가 말씀 드린 했을 것 아님니까? 뭇 자치기라든지 쑤이치기라든지 연날리기 여자들은 그러 면 무슨 놀이를?}

10806 # 글:쑤쑤. {글쑤쑤.}

10806 # 여자드른 먼 우더리 여자가 아닝께 모르 모르능가 몰라도 특빠란 머 하능건 업쑤 쑤꺼인데. {여자들은 뭇 우리들이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는지 몰라도 특별히 하는 건 없었을 것인데.}

10806 @ 그래요이~. {그래요.}

10806 @ 조:쑤니다. {쑤습니다.}

3. 전설과 설화

10813 @ 그 다으메 그러면 (11초) 이 지방에서 저:네오는 엔:날 이야기 가통거 저기 생각 나능 거 이쑤면 항가지만 말쑤메주실래요, 혹쑤 이쑤면. {그 다으메 그러면 이 지방에서 전 해 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 생각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혹쑤 있으면?}

10813 @ 전:설 가통 거 그렇거. {전설 같은 그런 거.}

10813 # 잘 몰. {잘 몰.}

10813 @ 이 지방에서는 잘 안? {이 지방에서는 잘 안?}

10813 # 잘 모르거쑈. {잘 모르쑈소.}

10813 @ 잘 모르시네. {잘 모르시네.}

10813 @ 예 조:쑤니다. {예, 쑤습니다.}

10813 @ 그러머는 데:강 데:강 요 그바께 제가 여쑤보는 건 쑤도는 데:강 한 세:미거드쇼. {그러면 대강 그 밖에 제가 여쑤는 것은 대강 한 쑤이거드쇼.}

10813 @ 데:강 한 세:미고 머가 다른 지방에 인능거 마:니업:꼬 그러니까는 비교적 빨리 쑤난네요. {대강 한 쑤이고, 뭇가 다른 지방에 있는 것 많이 없고 그러니까 비교적 빨리 쑤

났네요.}

10813 # 예, 다른 지방에 업:쪼요. {예 다른 지방에 없지요.}

10813 # 다른 지방에 먼 멩지베 삼:베 이렇거 여기는 절때 아낭께. {다른 지방에 뭐 명주 베 삼베 이런 것 여기는 절대 안 하니까.}

10813 # 그래요, 수고해썬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10813 @ 아니요, 제가 수고항게 아니라 어르신들 수고하셔쪼요. {아니요, 제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10813 # 아여 어짜다가 차말로 교:수님 이 교:수님 가튼 사라마고 으너니 데야썬께 그거도 영광이로 생각합니다. {아 어찌다가 정말로 교수님 이교수님 같은 사람하고 인연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813 @ 별말쓰믄요. {별 말씀어요.}

10813 @ 인제. {이제.}

10813 # 아피로 어찌테야꺼나 머다먼 췁야 열라기나 끈치 말고 삽췈다. {앞으로 어찌 되었거나 뭐 하면 연락이나 끊지 말고 삽시다.}

10813 @ 아니요, 근데 지금 요건 쪼끔 인제 조사항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조금 조사한 것이예요.}

10813 @ 또 마:니 이췈요. {또 많이 있어요.}

10813 @ 예, 아니 그러시지요, 예 지금? {예, 아니 그러시죠, 예 지금?}

10813 # 오느르노. {오늘은요.}

10813 @ 오느른 요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요.}

10813 @ 제가 지금 ** 마:니 인는데 오느른 이 정도만 할랍니다. {제가 지금 **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립니다.}

10813 @ 피곤하시지요이~? {피곤하시죠?}

10813 # 글췈요. {글췈요.}

10813 # 그 꺼불지 그라요? {그거 꺼 버리지 그래요?}

10813 @ 예. {예.}

10813 @ 되췈, 되췈니다. {됐어, 됐습니다.}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나라기조
20102	이삭	20102	이가지
		20102	이게
20103	볍씨	20103	썬나락(+ 다)
		20103	종자(+ 소)
20104	못자리	20104	모짜리
20105	모판	20105	*
20106	쟁기	20106	쟁기
20107	보습	20107	보십
20108	벧	20108	벧
20108-0-1	-이	20108-0-1	베시라고
20109	극쟁이	20109	따:부
20110	씨레	20110	씨:레
20111	번지	20111	*
20112	모내기	20112	모안다(+ 구)
		20112	이:종한다(+ 신)
20113	흙덩어리	20113	덩구
20114	고무래	20114	미레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미레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당글게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미레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미레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당글게
20115	쇠스랑	20115	소시랑
20116	곡괭이	20116	한:세괭이
		20116	한세공이
20117	괭이	20117	공이
		20117	괭이라고
20118	삽	20118	사비요

20119	호미	20119	호무
20120	농기구	20120	농기구
		20120	연장
20121	김	20121	지심
20122	김매다	20122	반멘다 논멘다
20123	애벌 매다	20123	초불
20123-1	두벌 매다	20123-1	두:불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맘:물
20124	논두둑	20124	논 두록
20125	밭둑	20125	밭뚜록
20126	밭두둑	20126	밭두덕
20127	밭고랑	20127	꼬랑
20128	밭이랑	20128	*
20128-1	(밭이랑을)타다/갈다/째다/파다	20128-1	바꼬랑을 멩긴다고
20128-2	이랑밟기	20128-2	보리받 봄:는다고
20129	보리	20129	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1	*
20129-2	봄보리	20129-2	*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싸리라고
20131	가을갈이	20131	가:다리
		20131	논가다리 받까다리
20132	깜부기	20132	깜북
20133	두엄	20133	뒤염넌다
		20133	소뒤염넌다
20134	거름	20134	거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가실한다
20202	벇단	20202	나랑문, 짐문, 서:송문
		20202	무시라
20202-1	벇단(한 줌정도)	20202-1	다니라
20202-2	벇단(타작할 정도)	20202-2	무시란
20202-3	벇단(한 아름정도)	20202-3	무시라
		20202-3	동(세 못)
20203	가리(積)	20203	한 짐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리친다고
20205	벇가리	20205	베누리락 하지라

20206 날가리
 20207 타작

 20208 벼훑이
 20208-1 그네

 20209 개상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20210-2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20211 벧짚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 껍기
 20213 쪽정이
 20214 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흥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06 나락빼눌
 20207 타:작한다고
 20207 홀튼다고도
 20208 손홀테
 20208-1 발홀테
 20208-1 나락홀른홀테(납작한 판에 쇠
 빗이 성기게 되어 있음)
 20208-1 보리홀른홀테(등근 판에 쇠 빗
 이 배게 되어 있음)

 20209 가상치는 거시구만
 20209-1 *
 20209-2 가상친다고
 20210 도리께
 20210-1 도리께어시
 20210-2 도리께아들
 20210-3 도리께꼭찌
 20211 지비 남찌요
 20211-0-1 지비로
 20211-0-2 지베가
 20212 집휘영지
 20213 주근나라기라
 20214 티가
 20214 티껌부리
 20215 까시락
 20216 풍노
 20217 마기라고
 20217 외:마기라고
 20218 허세비
 20219 승:년
 20220 머심
 20221 사:람 어더서
 20221 일꾼
 20221-0-1
 20221-1 데꼬한다
 20221-1 어:더따
 20222 품가푸러가따
 20222 품아스러가따
 20223 품싸기라고
 20223-0-1 품싸글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떡뽕에 뽕는다고
		20301	방에 찧는다
20302	디딜방아	20302	드들뽕아
20303	방앗공이	20303	도:구떼
20304	방아확	20304	도:구통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레방아라&
20306	연자방아	20306	*
20307	절구	20307	도:구통인데
20308	절구통	20308	도:구통
20309	절굿공이	20309	도:구떼
20310	절구질	20310	도:구떼지를
20311	겨	20311	제락 허먼
20312	보릿겨	20312	보리째
20313	왕겨	20313	나락째
20314	등겨	20314	누까(+ 신)
		20314	느무께(+ 구)
20315	검불	20315	검불
20316	겹질	20316	겹떡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씩
20402	참쌀	20402	참싸리라
20403	멥쌀	20403	몹: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5	서:숙
20406	차조	20406	찰서숙
20407	메조	20407	모:서숙
20408	좁쌀	20408	좁쌀(+ 신)
		20408	서:숙싸리라고(+ 구)
20409	작다	20409	잘잘하다
20410	조이삭	20410	서:송니가지
		20410	서:숙이가지가
20411	수수	20411	쭈시
		20411	쭈시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짱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11-1 *
20411-2 *
20411-3 찰쭈시
20411-4 모:쭈시
20412 쭈시떼
20413 강네~이(+ 다)
20413 짱녕이
20413 짱네~이(+ 소)
20413-1 찰강네~이라
20413-2 모:짱네~이라
20414 귀:루
20415 메물
20416 콩이로
20417 깍찌라
20418 메주
20419 다라메요
20420 떼:다
20421 곰:팡이라
20422 *
20423 콩지름
20424 꿰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꼬시름하니
20425 꼬습째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1 채:소라고도
20502 노물
20502-1 반노물
20502-2 반노물
20502-3 들:노물
20502-4 *
20502-5 산노물
20502-6 *
20503 푸정가리
20504 다듬는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깡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1 우영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05 반차니
 20506 무수
 20507 씨:러야
 20508 무수입싸기라
 20509 실가리
 20510 고조리라고
 20511 종자반는 무수
 20512 베:차라고도(+ 소)
 20512 베:추라고(+ 다)
 20513 베:추소:기라고
 20514 무레
 20515 찡아칭가
 20516 *
 20517 까:지
 20518 호:박
 20519 고:구마구만(+ 신)
 20519 감자라(+ 구)
 20520 부깸자라
 20520-1 잘자란
 20521 *
 20522 파라고
 20523 고추
 20524 시금치요
 20525 미나리
 20526 술: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이구마
 20530 나세
 20531 데룽게
 20532 도라시라고
 20532 도란 케로가자
 20533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바비라
20602	찬밥	20602	시근밥
20602-1	더운밥	20602-1	따순밥
20603	조밥	20603	서:숙뽕
20604	누룽지	20604	눈바비라
20605	눌은밥	20605	눈밥끼린바비라
20606	승냥	20606	승녕
20607	뜨물	20607	뜨물
20608	김(蒸氣)	20608	짐:
20609	갱죽(羹粥)	20609	실가리죽
20610	싱겁다	20610	싱겁따고
20611	국수	20611	국쭈라고도
20612	칼국수	20612	밀:가루떡국(+ 구)
		20612	칼국쭈라고도(+ 신)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
20613	건더기	20613	건데기(+ 소)
		20613	건더구라고(+ 다)
20613-1	국물	20613-1	물국
20614	고명	20614	*
20615	꾸미	20615	쌈:녀따
20616	미역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7	김:(+ 신)
		20617	해우 메러 가자(+ 구)
		20617	해이(+ 구)
20618	수제비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19	끄니를
20620	미음	20620	밈: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0-1	쭈다
20621	엿기름	20621	여찌럽
20622	식혜(食醢)	20622	시케
20623	식혜(食醢)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다다
		20624	다지요
		20624	다고

20625	가루	20624	다
20625-0-1	-에	20625	가루라
20625-0-2	-을	20625-0-1	밀:까루에다
20625-0-3	-도	20625-0-2	밀:까루를
20626	밀가루	20625-0-3	*
20627	밀기울	20626	밀:가루
20628	미숫가루	20627	밀:쭈리라
		20628	미수까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이조
		20701	장:이라고도
20702	된장	20702	텐: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고추장
20705	소금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6	김치(+ 신)
		20706	김치(+ 구)
20707	김장	20707	김장(+ 신)
		20707	김장(+ 구)
20708	깍두기	20708	지:쪽
20709	나박김치	20709	쪼각찌
20710	담그다	20710	담:는다
20710-0-1	-고	20710-0-1	담:꼬
20710-0-2	-어라	20710-0-2	다브라고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비빈다고
20713	버섯	20713	버서시요(+ 신)
		20713	메:타리(+ 구)
20713-0-1	-이	20713-0-1	메:타리가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노물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노무리라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뚜노물
20715	두부	20715	뚜부라고도
20716	비지	20716	비주
20716-1	비지떡	20716-1	비주떠기라
20717	달걀	20717	달걀(+ 신)

20718	가래떡	20717	게라니라고(+ 구)
20719	시루떡	20718	데떠기라고
20720	송편	20719	시리떡
20721	빻다	20720	술핀
20722	흰떡	20721	만드라고
20723	고물	20722	흔떡
20724	팔죽	20723	고무리라고
20725	새알심	20724	포쪽
20726	백설기	20725	세:아리라
20727	튀밥	20726	흔머리
20728	술	20727	튀바비라
20729	막걸리	20728	수리요
20730	소주	20729	막걸리
20731	부침개	20730	소주
		20731	떡전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승
20802	가마솥	20802	철손
		20802	철소시라
		20802	가메소시라
20802-0-1	-을	20802-0-1	가메소슬
20802-0-2	-에	20802-0-2	가메소테
20803	아궁이	20803	부삭
20803-0-1	-이	20803-0-1	부사기
20804	그을음	20804	검드랑이라
		20804	검드랑
20805	불쏘시개	20805	불쏘시기
20806	연기	20806	영기가
		20806	냉갈
20806-1	내(煙氣)	20806-1	냉가리라고도
20807	그을리다	20807	끄실려서
20808	부지깻이	20808	비:땅
20809	부삽	20809	불까레
20810	넙다	20810	네웁따
20811	넙비	20811	넙비
20812	그릇	20812	그러기라

20812-0-1	-을	20812	박끄럭
20813	뚜껍	20812-0-1	그러글
20814	주발 뚜껍	20813	뚜껍
20815	사발 뚜껍	20814	보께
20816	술뚜껍	20815	보께
20817	밥주걱	20816	소두랑
20818	숟가락	20817	박쪽
20819	젓가락	20818	수꾸락
20820	종지	20819	제범
20821	보시기	20820	종지개
20822	뚝배기	20821	중발
20823	접시	20822	툇쭈마리
20824	조리	20823	접씨는
20825	이남박	20824	조:리
20826	바가지	20825	함바근(박으로 만듦)
		20826	쪼빡(+ 구)
		20826	바가지(+ 신)
		20826	함바기라(큰 것)
		20826	장:가리라(작은 것)
20827	행주	20827	행지뿌
20828	행구다	20828	행긴다
20829	설거지	20829	기영시치라
20830	개숫물	20830	기영물
20831	찌꺼기	20831	찌깽이
20832	화로	20832	화:리아니요
20833	화롯불	20833	화:리뿌리라
20834	부젓가락	20834	*
20834-0-1	-이		
20834-1	불숟가락	20834-1	*
20835	다리쇠	20835	*
20836	석쇠	20836	적쭈
20837	도시락	20837	모삼지(대로 엮음)
20838	바구니	20838	데바구리
20839	뒤주	20839	두지
20840	찬합	20840	*
20841	강판	20841	*
20842	개다리소반	20842	손쌍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큰방
		20901	암빵
20902	벽	20902	백짜게다
20903	다락	20903	다라기라고
20904	벽장	20904	백짱안
		20904	장:아니라고
20905	감추다	20905	꿈차논다고
		20905	감춘다게
20906	흙	20906	기스가
20907	돌쩌귀	20907	지도리
20907-1	암짜	20907-1	암노미
20907-2	수짜	20907-2	*
20908	미단이	20908	밀창무니라
20909	여단이	20909	시:살창이라
20910	덧문	20910	*
20911	열다	20911	녕:께
		20911	넌:다
20912	문고리	20912	몽고루라고
20913	자물쇠	20913	쇠를
20914	간히다	20914	가쳐따고
20915	열쇠	20915	열:썰
		20915	쇠떼라고
20916	잠그다	20916	장구락 헤
20917	구멍	20917	창꾸녀글
20917-1	취구멍	20917-1	취구녁
20918	찢다	20918	찌진다
20919	구들	20919	방뚝
20920	흙받기	20920	흑빠지
20921	흙손	20921	흑박쭈
20922	흙칼	20922	쇠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쇠손
20923	바르다	20923	보른다고
20924	장판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9 깨끗하다
 20930 문지방
 20930-0-1 -에
 20931 틈
 20932 가장자리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롱

20925 참중우로
 20926 되벽한다고
 20927 방꾸석
 20928 도:런지
 20929 깨끗하다고
 20930 문턱
 20930-0-1 문터게
 20931 문 세:다구
 20932 귀틀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사랑
 20936 선반
 20937 빼다지라
 20938 화장트리라
 20939 거울
 20940 거러논다
 20941 초꼬지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0-1 -에서

21001 지붕이라
 21001-0-1 지붕에
 21002 기와(+ 신)
 21002 조선짜아라고(+ 구)
 21002 지아짱
 21003 기와지비라
 21003 지와지비라(+ 구)
 21004 쑹노미고
 21005 암노미고
 21006 모루
 21007 세길
 21008 춘세
 21009 처메
 21010 오두막짜비라
 21011 초집
 21012 마람
 21012-0-1 마람우게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댛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뿔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13 용마람
 21014 지시락
 21015 지시랑물
 21015-1 지시랑무리라
 21016 사드레
 21017 용:모루
 21018 반:침민
 21018 반:침미시라
 21019 뜰또기라
 21020 반:치미라
 21020-0-1 반:치메
 21021 차근반침
 21022 지둥
 21023 지치뚝
 21023-0-1 지치또글
 21024 기:뚝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01 되안
 21102 마당
 21103 너롭따
 21103-0-1 너루와서
 21104 널폐야
 21105 고칸
 21106 에양칸
 21107 마구까니라
 21108 마레는(곡식 향아리를 넣어 두는 곳)
 21109 허칸
 21110 쓰레기
 21111 장:짱
 21112 장:뚜껑
 21113 부칠
 21113 부칠까니라고
 21113 통:세
 21113-1 장군
 21113-1 소:메짱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14 울타리
 21115 단:장
 21116 *
 21117 *
 21117-0-1 *
 21118 집빠께
 21118-0-1 바까테
 21119 모퉁아리
 21120 모소리라고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01 동:네
 21202 우똥네
 21203 유:쩍
 21203-0-1 유:시
 21203-0-2 유:제
 21204 모시레 땡긴다
 21204 모실만 돈다
 21205 세:메 물 질로 간다
 21205 샘:
 21206 두롬박
 21207 웅달세미라고
 21207 들:썰미라고
 21208 간:
 21208-0-1 바까슬(발 가를)
 21208-0-2 바까세다(발 가에)
 21209 무지게
 21210 점:뽕
 21211 싸다하까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계인
 21215 잔도니로
 21216 더:라자
 21216 깡까주락 해야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21 맡기다
 21222 나머지

 21223 덤
 21224 몫
 21224-0-1 -을
 21225 빛
 21225-0-1 -을
 21225-0-2 -에
 21226 이자(利子)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1 축

 21228-2 쾌
 21228-3 접
 21228-4 씹
 21228-5 두름
 21228-6 단/몫(작은 묶음)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21228-8 톳
 21228-9 모숨
 21229 결레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1 꾸러미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5 자루(包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17 네:줄돈
 21217 잔돈
 21228 *
 21219 꺾:주락혜

 21220 꼬끔쟁이
 21221 메계따
 21222 나쁜놈
 21222 나머지는
 21223 우:수
 21224 목씨가
 21224-0-1 목씨를
 21225 비슬
 21225-0-1 비슬
 21225-0-2 비세
 21226 이:자를
 21227 심:바람
 21228 두름
 21228-1 치기라
 21228-1 축
 21228-2 때라
 21228-3 접
 21228-4 싸미구마
 21228-5 *
 21228-6 다니라고
 21228-7 다니라
 21228-8 토시라
 21228-9 *
 21229 커리
 21230 멀마지기
 21230-1 이백평이요
 21231 줄
 21232 주
 21233 폭
 21234 저울
 21235 차두에다
 21235-0-1 차두를
 21235-0-2 차두에
 21236 하나
 21236-1 향:계
 21236-2 한:데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36-3 함: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데
 21237-3 두:말
 21238 시:시
 21238-1 시:개
 21238-2 서:데
 21238-3 서:말
 21239 니:시
 21239-1 니:개
 21239-2 너:데
 21239-3 너:말
 21240 다서시
 21240-1 다서께
 21240-2 단떼
 21240-2 다서떼
 21240-3 단말
 21241 여서시
 21241-1 여서께
 21241-2 여서떼
 21241-2 연떼
 21241-3 연말
 21242 일고비
 21242-1 일고께
 21242-2 일곱떼
 21242-3 일곱말
 21243 야다리
 21243-1 야달께
 21243-2 야달떼
 21243-3 야달말
 21244 아오비
 21244-1 아옹께
 21244-2 아옹떼
 21244-3 아옹말
 21245 여리
 21245-1 열께
 21245-2 열:떼
 21245-3 열말
 21246 시무리
 21246-1 시무게

21246-2 스무-되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1 일흔-개
 21251-2 일흔-되
 21251-3 일흔-말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3 한두-말
 21257 두셋

21246-2 시무데
 21246-3 시무말
 21247 서루니
 21247-1 서룽게
 21247-2 서룬데
 21247-3 서룬말
 21248 마우니
 21248-1 마웅게
 21248-2 마운데
 21248-3 마운말
 21249 시우니
 21249-1 시웅게
 21249-2 시운데
 21249-3 시운말
 21250 예수니
 21250-1 예송게
 21250-2 예순데
 21250-3 예순말
 21251 이르니
 21251-1 이룽게
 21251-2 이룬데
 21251-3 이룬말
 21252 야드니
 21252-1 야등게
 21252-2 야든데
 21252-3 야든말
 1253 아으니
 21253-1 아웅게
 21253-2 아운데
 21253-3 아운말
 21254 베기
 21254-1 백계
 21254-2 백떼
 21254-3 벙말
 21255 이베기지라
 21256 하나둘
 21256 한둘
 21256-1 한두게
 21256-2 한두데
 21256-3 한두말
 21257 두시

21257-1	두세-개	21257	두센
21257-2	두세-되	21257-1	두시게
21257-3	두세-말	21257-2	두서너데
21258	두서넛	21257-3	두서너말
21258-1	두서너-개	21258	두서넛
21258-2	두서너-되	21258-1	두서너게
21258-3	두서너-말	21258-2	두서너데
21259	서넛	21258-3	*
21259-1	서너-개	21259	서너너넛
21259-2	서너-되	21259-1	서너게
21259-3	서너-말	21259-2	서너너넛때
21260	네댓	21259-3	서너너넛말
21260-1	네댓-개	21260	니텐
		21260-1	니데께
21260-2	네댓-되	21260-1	너넛께
21260-3	네댓-말	21260-2	니데때
21261	대여섯	21260-3	니텐말
21261-1	대여섯-개	21261	테여섯
21261-2	대여섯-되	21261-1	테여서께
21261-3	대여섯-말	21261-2	테여섯때
21262	예닐곱	21261-3	테여섯말
21262-1	예닐곱-개	21262	여선예일곱
21262-2	예닐곱-되	21262-1	예일고께
21262-3	예닐곱-말	21262-2	여서예일곱때
21263	일여덟	21262-3	여서예일곱말
21263-1	일여덟-개	21263	일고야달
21263-2	일여덟-되	21263-1	일고야달께
21263-3	일여덟-말	21263-2	일고야달때
21264	여덟아홉	21263-3	일고야담말
21264-1	여덟아홉-개	21264	일고야달
21264-2	여덟아홉-되	21264-1	야달아홉께
21264-3	여덟아홉-말	21264-2	야달아홉때
21265	여남은	21264-3	야달아홉말
21265-1	여남은-개	21265	여나문
21265-2	여남은-되	21265-1	여나무게
21265-3	여남은-말	21265-2	여나무데
		21265-3	여나무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초메
21302	길이	21302	지러구
21303	저고리	21303	저구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깐:치오시라고
		21304	깐:치저구리(+ 구)
		21304	색똥저고리라(+ 신)
21305	두렁이	21305	*
21306	무늬	21306	무누라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마기(+ 신)
		21309	후루메기(+ 구)
21310	의복	21310	온
21311	구겨지다	21311	꼬구라진다
21312	옷고름	21312	오꾸람
21313	단추	21313	단초
21314	동정	21314	동전
21315	겉	21315	겹떡
21315-0-1	-에	21315-0-1	겹떡게가
21315-0-2	-을	21315-0-2	겹떡글
21316	홀옷	21316	해겹떡기라고
		21316	해겹떡오시라고
21317	겹옷	21317	저보시라
21318	잠방이	21318	*
21319	누더기	21319	두덕찌
21320	거지	21320	동:낭치라
21321	구겹	21321	동:낭 잔 주시요
21322	조끼	21322	조끼라
21323	내의	21323	난닝구 이꼬
21324	껴입다	21324	포게이버따
21325	소매	21325	소메라
21326	주머니	21326	주마이~
21327	호주머니	21327	게아쭈마이~

21328	허리띠	21328	허리띠
21329	댕기	21329	댕기
21330	도포	21330	*
21331	삿갓	21331	사까시라
21331	삿갓	21331	사까시라냐
21331-0-1	-에	21331-0-1	사까세
21332	고깔	21332	꼬깔
21333	사모	21333	사무관데
21334	유건	21334	*
21335	대님	21335	덴님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짐셰기라
21338	미투리	21338	삼신
21338-1	(짚신을)삼다/만들다/트다/결다	21338-1	삼:는다
21339	나막신	21339	나막썬
21340	설피	21340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멩지베
21401-1	명주실	21401-1	멩지시리라
21402	목화	21402	미영
21402-1	목화다래	21402-1	다래
21403	무명	21403	미영베
21403-1	무명실	21403-1	미영실
21404	씨아	21404	씨아시
21405	자새	21405	자세
21406	물레	21406	물레
21407	베	21407	베
21408	길쌈	21408	질싸미라
21409	골무	21409	골무
21410	반짢고리	21410	발쌍지
21411	가위	21411	가세
21411-0-1	-을	21411-0-1	가세를
21411-0-2	-에	21411-0-2	가세에서
21412	마르다(裁)	21412	뿐지 뜯다
21412-0-1	-고	21412-0-1	*
21412-0-2	-어라	21412-0-2	*

21413	형끓	21413	형:겹
21413-0-1	-을	21413-0-1	형:거블
21413-0-2	-에	21413-0-2	형:거베가
21414	바늘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	낀:다
21415-0-1	-고	21415-0-1	끼:고이따
21415-0-2	-어라	21415-0-2	끼여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질한다
21417	재봉틀	21417	자방침
21418	끈	21418	끈타불
21419	노끈	21419	노끄는
21420	참바	21420	바:는
21421	매듭	21421	고넨다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21421-1	넨다
21422	보자기	21422	보
21423	이불	21423	이불
21424	숨	21424	숨:
21425	포근하다	21425	폭싸근하다
21426	홀이불	21426	헨니불
		21426	해쩍땡니불
21427	겹이불	21427	점니불
21427-1	숨이불	21427-1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니비이불
21429	베개	21429	비:게
21430	베갯잇	21430	비게혼니불
21430-0-1	-에	21430-0-1	혼니부레가
21431	목침	21431	뒹:침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2	*
21433	방석	21433	자부동을
21434	담요	21434	담:뇨
21435	빨래하다	21435	빨레한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6	빨레빵망이
21437	빨래터	21437	빨레하는세:미라
21438	빨랫줄	21438	빨레쭈레다
21439	다리미	21439	데루
21439-1	다림질	21439-1	데루질
21440	인두	21440	인두로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다두미방마~이
21442	다듬잇돌	21442	빨레똑
21443	다듬이질	21443	다두무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1	설:
		21501	정월초하루
21502	설	21502	설:
21503	선달 그믐날	21503	서:딸금:날
21504	묵은세배	21504	*
21505	올해	21505	오레
21505-0-1	-는	21505-0-1	오레는
21505-1	작년	21505-1	장녀니지요
21505-2	재작년	21505-2	그럭쎄
21505-3	내년	21505-3	네년
21505-4	후년	21505-4	그네년
21505-5	내후년	21505-5	또그네녀니라
21506	작은설	21506	*
21507	웃	21507	윤:
21507-0-1	-을	21507-0-1	유:슬 논는다
21507-0-2	-에	21507-0-2	유:세
21507-1	웃놀이	21507-1	윤:논:는다
21508	웃가락	21508	쪽
21508-1	도	21508-1	토
21508-2	개	21508-2	게:
21508-3	걸	21508-3	걸
21508-4	웃	21508-4	수시다
21508-5	모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	말끄물 쓴다
21509	단동	21509	한 그미라 하지라
21509-1	외동무니	21509-1	외말
21509-2	두동무니	21509-2	두동세~이
21509-3	석동무니	21509-3	석똥생이라
21509-4	넉동무니	21509-4	막똥세~이
21509-5	막동	21509-5	마기다
21509-6	단동무니	21509-6	나따고
21510	보름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0-1	*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3	쥐불놀이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2	긴막대
21515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21517	팽과리
21518	장구
21519	결두리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11	추석
21512	달마지
21513	*
21514	자치기
21514-1	*
21514-2	*
21515	수투세끼는
21516	*
21517	쉐
21517	팽메기
21517	팽메
21518	장구
21519	설:참(+ 단모음)
21520	당골레라
21520-1	당골
21521	네:전준다
21521-1	*
21522	점:제~이안테
21522	점쟁이라
21523	생이
21524	굴간
21525	제:사
21526	목끼
21527	귀:신
21528	도체비
21528	또: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2	굴레
21603	명예
21604	길마
21605	부리땅
21606	구유
21607	작두
21608	꼴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01	깨피
21602	목제피
21603	명예
21604	질메
21605	명
21606	구수
21607	작두
21608	꼴
21609	여물
21610	세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여물쭈뻥
21612	수레	21612	소구루마
		21612	말꾸루마
		21612	구루마라
21613	끌다	21613	끈는다
		21613	끄서서
21613-0-1	-고	21613-0-1	끄꼬간다
21614	바퀴	21614	발통이라
		21614	바꾸
		21614	다이야(자동차 바퀴, tire.)
21615	새끼(繩)	21615	세네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세끼
21616	망태기	21616	망이여
21617	떡등구미	21617	메꼬리
21618	거적	21618	꺼적
21619	가마니	21619	가마이~가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이~틀
21620	돛자리	21620	자리라
21621	자리틀	21621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21621-1	가마이~친다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21621-1	자리를 치까
21622	왕골	21622	왕골로
21623	삼태기	21623	거렁지
		21623	거렁이
21623-1	짚 삼태기	21623-1	*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
21624	명석	21624	덕썩(네모난 명석)
		21624	방서기라고(둥근 명석)
21625	어레미	21625	얼멩이
21625-1	고운채	21625-1	치라고
		21625-1	벤:치
21625-2	굵은채	21625-2	드문치
21626	대장장이	21626	성:냥쟁이
21627	대장간	21627	성:냥간
21628	폴무	21628	불:무
21629	모루	21629	모리뚝
21630	모루채	21630	망치
21631	갈퀴	21631	갈쿠
21632	집게	21632	찍께라
21633	장도리	21633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3-1	*

21634 툇
 21634-0-1 -에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0-1 -을
 21636-0-2 -에
 21637 갈고리
 21638 썰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뿔죽하다
 21641 솥돌
 21641-0-1 -에
 21642 맷돌
 21642-1 수쇠
 21642-1 암쇠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34 툇
 21634-0-1 토베서
 21635 도추
 21636 자루라
 21636 도추짜루
 21636-0-1 자루를
 21636-0-2 자루에
 21637 갈쿠제~이
 21638 썰아기라(+ 이중모음)
 21639 송:곧
 21639-0-1 송:고세
 21640 날라마다
 21641 시똥
 21641-0-1 시똥레다
 21642 메또게다
 21642-1 *
 21642-1 *
 21643 지게
 21644 바:작
 21645 짝떼기
 21646 몽나무는
 21647 몽:탱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항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둥이
 21711 빠리

21701 비찌락
 21702 *
 21703 소코리
 21704 나밤지라
 21705 풀빼라고
 21705-1 풀빼라고
 21706 고네기라
 21706-0-1 고네기에다
 21707 물꼬네기
 21708 고네기를
 21709 단지는
 21710 물똥우요
 21711 또가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변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5 담배설대
 21726 담배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12 옹:구가
 21713 장:가리
 21714 치:
 21714 까부느치
 21715 떡싸리구마
 21716 *
 21717 시리
 21717-0-1 시리를
 21717-0-2 시리에
 21718 시리밑
 21718-0-1 시리미세
 21719 시리핀
 21719 시리뻔
 21720 부수뚝
 21720-0-1 부수또글
 21721 부수
 21722 부수 진
 21722 부수찌시라
 21723 담:배
 21724 담:부땀
 21725 담뭇 데여
 21726 데통
 21727 빨:뿌리
 21728 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까락찌
 21733 비네
 21734 챔빈
 21734-0-1 챔비슬
 21734-0-2 챔비세
 21735 어리비시고
 21736 쉼땡끼라고
 21736 데우라고
 21737 세:수뻔누
 21738 도투마리
 21739 꼬실코
 21740 잉에땀여
 21741 분:투
 21742 우: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2	이마빳
21803	눈자위	21803	눈까시라고도
		21803	눈수리라 하까
21804	검은자위	21804	거명창
21805	흰자위	21805	흔창
21806	눈꺼풀	21806	눈뚜경
21807	거적눈	21807	꺼정눈
21808	눈썹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8-0-1	눈썹비
21809	속눈썹	21809	아렌눈썹
		21809	운눈썹
21809-0-1	-이	21809-0-1	운눈썹비
21810	눈두덩	21810	눈통이
21811	안경	21811	앙:경이라(+ 신)
		21811	눈딱깨라(+ 구)
21812	안경집	21812	앙경집
21813	돋보기	21813	도뻘기
21814	주름살	21814	주루미
21814-0-1	-이	21814-0-1	주루미
21815	엷되다	21815	어려보인다
		21815	에리어보인다
21816	수염	21816	쉬흠(+ 단모음)
21817	구레나룻	21817	굴레쉬흠(+ 단모음)
21817-0-1	-을	21817-0-1	굴레쉬호믈(+ 단모음)
21818	코	21818	코:
21818-0-1	-이	21818-0-1	코가
21819	콧수염	21819	우썩염(+ 단모음)
21820	코딱지	21820	코딱찌
21821	콧구멍	21821	코꾸녁
21821-0-1	-을	21821-0-1	코꾸녀글
21821-0-2	-에	21821-0-2	코꾸녀게서
21822	콧물	21822	콧무리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뱉다
 21832 혀
 21833 헛바늘
 21834 컷볼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6 귀지
 21837 귀이개
 21838 소리
 21839 엇듣다
 21840 귀청
 21841 귀밑
 21841-0-1 -을
 21842 관자놀이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6 턱수염
 21847 뺨
 21847-1 볼
 21848 가름하다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2 기계총
 21853 정수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23 입쏘리라
 21823-0-1 입쏘레
 21824 앙물고
 21824 다물고
 21825 아금니
 21826 댜니
 21827 휘빠람(+ 단모음)
 21828 치믈
 21829 생킨다
 21830 가레침
 21831 바터야
 21832 세빠닥
 21833 세빠늘 이러따
 21834 귀뺨(+ 단모음)
 21835 귀고리(+ 단모음)
 21835-1 귀싸미라(+ 단모음)
 21836 귀전
 21837 귀오구지
 21838 소리가
 21839 여:뜯는다
 21840 귀창
 21841 *
 21841-0-1 *
 21842 *
 21843 지모
 21844 주경떼를
 21845 테기라
 21846 텍썬여미제(+ 단모음)
 21847 뿔떼기
 21847-1 뿔떼기
 21848 찢쭈가다
 21849 썸:파저따
 21850 머리카락
 21850 멀크라기라
 21851 지게미
 21852 기계뚝
 21853 지구녀기라
 21854 데머리라
 21855 꼬시룽머리
 21856 가람메
 21856-1 타따고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2 가마(轎)
 21857-3 가마(질그릇)
 21857-4 가마(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먹살

21857 가메꼭찌
 21857-1 가메손
 21857-2 가:메
 21857-3 웅:구가메라고
 21857-4 메까마이~
 21858 뒷꼭찌(+ 단모음)
 21858 뒷통세(+ 단모음)
 21859 뒷까시미(+ 단모음)
 21860 모기
 21860 모가지
 21861 맥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10 콩팔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툇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01 어깨파시미
 21902 미틀고이따
 21903 저드랑미시라
 21904 등어리
 21905 압까심
 21906 절린다고도
 21907 갈베
 21907 갈베빼
 21908 폐:로
 21909 쓸게서
 21910 콩포시라
 21910-0-1 콩포세
 21910-0-2 콩포슬
 21911 팔
 21912 폴옹둥이제
 21913 폴짱찐다고
 21914 손툇
 21915 오른손
 21916 웬:손
 21917 똑:앙가따
 21917 틀린다고도
 21917-0-1 틀레서
 21917-1 *
 21918 웬:동제비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8 뺨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1 옆구리
 21932 간지럽다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19 엄지송꾸락
 21920 찌꺼송꾸락
 21921 가운데송꾸락
 21922 이름엄는 송꾸락
 21923 세끼송꾸락
 21924 에린소니라
 21924 송꾸라기 에레따 하까
 21925 사:막
 21926 장심
 21927 폴목
 21928 뺨
 21929 허리가
 21930 절:헝이(+ 단모음)
 21931 역꿀치
 21932 겐지랍따
 21933 겐지라물 미긴다
 21934 *
 21935 알통이라
 21936 배꼬락찌
 21937 등: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12-0-1 -을
 22012-0-2 -에

22001 복썰씨
 22002 발꾸라기라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5 냄:사
 22006 꼬랑네
 22007 굳이 안저따
 22007 헝이
 22008 성무니라
 22009 장:딴지
 22010 장:딴지
 22011 회:차리
 22012 물팍
 22012-0-1 물파글
 22012-0-2 물파게

22013	오금	22013	오금미시 저린다고
22014	영덩이	22014	넙턱찌라
22015	궁둥이	22015	궁:둥이를
22016	불기	22016	*
22017	멍	22017	푸렁둥
22018	멍울	22018	몽오리라
22019	가랑이	22019	가레췌다구
		22019	가레췌
22020	사이	22020	세:다구라
22021	살	22021	사타구라고
		22021	사시란(+ 여자에 게만 해당)
22021-0-1	-이	22021-0-1	사시
22021-0-2	-을	22021-0-2	사슬
22022	사타구니	22022	사타구라고
22023	가래툫	22023	가레떼
22023-0-1	-을	22023-0-1	가레떼를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22025	허벅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헝게치고
22026-1	가부좌(跏趺坐)	22026-1	안저따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감:기라
22102	기침	22102	지침
22103	재채기	22103	제침
22104	사레 사례	22104	사리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22104-1	들레따
22105	딸꾹질	22105	포깅질
22106	트림	22106	트림하라고
22107	곰보	22107	곰:보라
22108	천연두	22108	쳐년도(+ 신)
		22108	손님하몬(+ 구)
22109	여드름	22109	이드르미여
22110	학질	22110	삼:
22110-1	하루거리	22110-1	메누리삼
22110-2	이틀거리	22110-2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
22111	홍역	22111	호낙
22112	불거리	22112	*
22113	땀띠	22113	땀뜨레기
22114	두드러기	22114	뚜드러기지라
22115	버짐	22115	버짐
22115-1	마른버짐	22115-1	모른버지문
22115-2	진버짐	22115-2	짐버지미라
22115-3	도장 버짐	22115-3	돔:뻘짐
22116	문둥이	22116	문:두~이
22116-1	문둥병	22116-1	문:두~이뻥이라고
22117	부스럼	22117	부시럼
		22117	부시럼딱지
22117-1	종기	22117-1	종:기라
22118	고름	22118	고르미
22119	곰기다	22119	*
22120	난쟁이	22120	난:제~이
22121	사팔뜨기	22121	*
22122	언청이	22122	췌보
22123	소경	22123	봉:사
22123-1	당달봉사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4	에꼬
22125	눈곱	22125	눈꼽짜구
		22125	꼽짜구
22126	다래끼	22126	다라시나따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1	다란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6-2	다란나따고
22127	절름발이	22127	절름바리
22128	곱사등이	22128	곱:짜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먹짜가리
22130	말더듬이	22130	밤버버리
22131	병어리	22131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22132	잠투~이
22133	줄리다	22133	자몬다
22134	하품	22134	함:
22135	줄음	22135	자미 쏘다진다
22135-0-1	-을	22135-0-1	*
22135-0-2	-에	22135-0-2	*
22136	잠꼬대	22136	허쏘리한다

2.7. 육아

22201	입덧	22201	입떠시
22201-0-1	-을	22201-0-1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22202	떠게기라
		22202	깐나니라
22203	어린아이	22203	에기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쟁:끼
22205	눅히다	22205	넌:다(+ 단모음)
22206	계집아이	22206	가이나
22207	예쁘다	22207	이: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8	머이마
22209	아우	22209	동생
22209-1	아우보다	22209-1	동생보거따
22209-2	아우 타다	22209-2	아세탄다
22210	야위다	22210	몰라저따
22211	쌍둥이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2	오주믈
22213	똥	22213	똥:도
22214	기저귀	22214	삭꺄레
22215	뉘다(排便)	22215	넌:다(+ 단모음)
22216	방귀	22216	방:구
22216-1	뀌다	22216-1	뀐:다
22217	구린내	22217	구렁네
22218	구리다	22218	구렁네난다
22219	포대기	22219	보단
22220	기지개	22220	지지기쓴다
22220-1	기지개 (를 쳐다/하다/쓰다/펴다)	22220-1	썸다고
22221	거짓말	22221	거:짐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넌부끄럽따
22223	겹쟁이	22223	겹췌~이
22224	불쌍하다	22224	불쌍하다
22224	불쌍하다	22224	짜:나다
22225	죄암죄암	22225	취암취암(+ 단모음)
22226	곤지곤지	22226	지게지게
22227	따로따로	22227	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레도레
22229	짹짹	22229	작짹작짹

22230	부라부라	22230	들:강달:강
22231	걸음마	22231	거름발
22232	아장아장	22232	짜박짜박
22233	넘어지다	22233	너머저따
22234	곤두박질	22234	꺼끌로너머저따
22235	안기다	22235	앙킨다
22236	바람개비	22236	팽도리
		22236	종우팽도리
22237	호드기	22237	빼:쭈
22238	숨바꼭질	22238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22239	삼바꼭질
22240	사금파리	22240	세금팔
22241	연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1	참너니여
22241-2	가오리연	22241-2	홍에딱찌
22242	걸리다	22242	걸러따
22243	고누	22243	*
22244	땅뺏기	22244	땅빼끼
22245	팽이	22245	팽도리라
22246	딱지치기	22246	빠:찌
22247	구슬	22247	다마
22248	그네	22248	그:네(+ 신)
		22248	군두라고(+ 구)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8-1	군두똥다고
22249	밀신개	22249	*
22250	굴렁쇠	22250	도롱테
22251	굴리다	22251	굴:ړ린다
22251-0-1	-고	22251-0-1	굴:리고이따
22251-0-2	-어야	22251-0-2	굴러야
22252	자전거	22252	자전차라
22253	목말	22253	호:감하다
22254	말타기	22254	*
22255	달음박질	22255	담박찌를
22256	썰매	22256	*
22256-1	얼음썰(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1	*
22256-2	송곳	22256-2	*
22257	엄살	22257	엄살한다
22257-1	(엄살)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7-1	엄살한다
22258	부아	22258	비에가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	아베
22301-1	아버지(호칭)	22301	아부지
		22301-1	아부지(장성해서)
22302	어머니	22301-1	아베(어렸을 때)
22302-1	어머니(호칭)	22302	엄메
22303	할아버지	22302-1	엄메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3	하납씨
		22303-1	하나부지
22304	할머니	22303-1	하납씨
22304-1	할머니(호칭)	22304	함세란다
22305	남편	22304-1	아무게네함세
		22305	우리영:감이라
22305-1	남편(호칭)	22305	우리영:감님
22306	아내	22305	서방
22306-1	아내(호칭)	22305-1	덕호네아베
		22306	우리집싸람
22307	형	22306-1	어야
		22306-1	아무게네엄메
22307-1	형(호칭)	22307	형님
22308	아우	22307	우리 성니미라고
22308-1	아우(호칭)	22307-1	성님
22309	누나	22308	동송이지라
22309-1	누나(호칭)	22308-1	동송
22310	누이	22309	누:니미라
22310-1	누이(호칭)	22309-1	누님
22311	자식	22310	동송이라고
22312	말아들	22310-1	동송
		22311	자석
22313	막내	22312	크나들
22314	오라버니	22312	모지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3	막뚜~이
22315	오빠	22314	오라부님
		22314-1	오라부님
22315-1	오빠(호칭)	22315	오빠(+ 신)
		22315	오랍씨(+ 구)
		22315-1	오빠라고(+ 신)
		22315-1	오랍씨(+ 구)

22316 언니
 22316-1 언니(호칭)
 22317 아비
 22317-1 아비(호칭)
 22318 어미
 22318-1 어미(호칭)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1 사위(호칭)

 22322 외손자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다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7 혼인
 22327-1 혼인식
 22328 혼인 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1 시집가다
 22330 혼숫감
 22331 함
 22332 겹사돈
 22333 새색시
 22333-1 새색시(호칭)

 22334 시아버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5 시어머니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6 비위
 22337 아주버니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8 서방님
 22338-1 서방님(호칭)
 22339 도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22316 성
 22316-1 성
 22317 우리 크나드리네
 22317-1 아무게네아베야
 22318 우리 메누리라고
 22318-1 아무게네엄메야
 22319 손지
 22320 딸손지
 22321 사오
 22321-1 주서방
 22321-1 아무게네아베
 22322 웨손지
 22323 웨손지
 22324 꾸짖한다고
 22324-0-1 꾸지름한다고
 22324-1 기:결한다고
 22325 총:각
 22326 크네기
 22327 겨론한다
 22327-1 겨론식
 22328 데:사친다고
 22329 장:계간다
 22329-1 시집간다
 22330 혼수
 22331 하:미제
 22332 접싸둔
 22333 세각씨
 22333-1 동네수네(같은동네에서 시집온 여자)
 22333-1 고알네(친정지명+네)
 22334 씨압씨라고
 22334 우리 시아부지
 22334-1 아버니미라
 22335 씨엄씨
 22335-1 어머니미라
 22336 비우
 22337 시승니미라
 22337-1 우리 시승니미라
 22338 씨아잡씨
 22338-1 아잡씨
 22339 씨아잡씨
 22339-1 아잡씨

22340	형님	22340	동세
22340-1	형님(호칭)		
22341	시누이	22341	우리 씨누라
22341-1	시누이(호칭)	22341	동승
22341-2	아가씨	22341-2	우리 씨누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아가씨라고
22342	올케	22342	우리 동승에지시미다
		22342	동승에지심
22342-1	올케(호칭)	22342-1	동승
22343	매형	22343	아잡씨
		22343	매영이라
22343-1	매형(호칭)	22343-1	매영
22344	매제	22344	동승남편
		22344	동승에남편
22344-1	매제(호칭)	22344-1	아무게(이름)
		22344-1	아잡씨라고
22345	큰아버지	22345	크나바이
		22345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아부지
		22345-1	아버이
		22345-1	크나부지(+ 신)
		22345-1	크나베(+ 구)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아부지지라
		22345-2	아버이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아부지라
		22345-3	아버이
22346	큰어머니	22346	큰엄메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어머이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어머이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어머이
22347	큰집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자근아부지라
		22348	자근아버이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아버이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자근어머이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자근어머이(+ 소)
		22349-1	어머이(+ 다)
		22349-1	자근엄메
22350	삼촌	22350	자근아버이는
		22350	자근아버지
		22350	자근아베

22350-1	삼촌(호칭)	22350-1	자근아베
22351	아저씨	22351	크나베는
		22351	자근아버이
		22351	삼추니제(큰아베, 자근아베보다 좀 멀 때)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자근아베
		22351-1	삼촌
		22351-1	크나베
22352	아주머니	22352	고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고모
22353	조카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4	조카
22355	고모	22355	고모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모
22356	고모부	22356	작쭈기라고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작쭈
22357	고종	22357	웨사춘
22358	이모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모
22359	이모부	22359	이:숙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이:숙
22360	이종	22360	웨사춘
22361	외삼촌	22361	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삼촌
22362	외숙모	22362	아짐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아짐
22363	외종	22363	웨사춘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외하납씨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하납씨
22365	외할머니	22365	외할마이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할마이
22366	장인	22366	장:이니라고
		22366	제~:이니라
		22366	제~:인영감
22366-1	장인(호칭)	22366-1	아부지라고
		22366-1	아버이
		22366-1	장:인
22367	장모	22367	장:모
22367-1	장모(호칭)	22367-1	장:모님
		22367-1	어머니
22368	처남	22368	우리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9 처남댁
 22369-1 처남댁(호칭)

 22370 홀아버
 22371 홀어미
 22372 계모

 22372-1 계부

 22373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22374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5 사나이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8 환갑
 22378-1 환갑 잔치
 22379 사투리

22368-1 처남
 22369 처나무택
 22369-1 처나무택
 22369-1 아짐씨
 22370 호레비
 22371 호럼씨
 22372 세엄메라고
 22372 자근어머이라고
 22372 데:엄메다
 22372-1 세아부지
 22372-1 데:아부지
 22373 아잡씨라고도
 22373-1 아잡씨
 22374 아짐씨
 22374-1 아짐씨
 22375 *
 22376 우리영:감
 22376 아무계네아베
 22376-1 늘그이~
 22376-1 저 늘기:
 22377 나쌀
 22377-0-1 나싸를
 22378 향:갑
 22378-1 향:갑잔치
 22379 사:토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2 민물고기
 22403 피라미
 22404 지느러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1 물꼬기라
 22402 민물꼬기
 22403 *
 22404 날가지라
 22405 구실레미
 22406 창사구

22407	송사리	22407	눈제
22408	혜엄	22408	휘엄한다(+ 단모음)
22409	메기	22409	미:기
22410	자라	22410	자레
22411	거북	22411	거벽
		22411	거버기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꼬락찌
22413	개구리	22413	깨고락찌
22414	올챙이	22414	꾸리방마~이
		22414	꾸루방마~이
22415	두꺼비	22415	뚜께비
22416	거머리	22416	거:마리
22417	다슬기	22417	네:꼬동
22418	우렁이	22418	농:꼬동
		22418	농:꾸동
22419	고등	22419	고등이고(소라보다 작은 것)
22420	달팽이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22421	세비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테와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테와
		22421-3	왕세비라고도
22422	새우젓	22422	세비저시라
22422-0-1	-이	22422-0-1	세비저시
22422-4	새우(바다 소)	22422-0-1	*
22423	가재	22423	가:제
		22423	떼기(갯가재)
22424	갈치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동어
22426	가오리	22426	가오리는
22427	가자미	22427	가잘미
22428	멸치	22428	멜:
		22428	멜치
22429	명태	22429	명테
22429-1	동태	22429-1	동:테
22429-2	황태	22429-2	부거는
22429-3	노가리	22429-3	*
22429-4	복어	22429-4	명테
22429-5	생태	22429-5	생테
22430	조기	22430	조구
22431	도미	22431	돔:

22432 뱀장어
22433 낚시
22434 미끼
22435 낚싯대
22436 얼레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2 밭:장어
22433 낙쭈
22434 이:잡
22435 낙쭈떼
22436 실:자세라
22437 조개라
22438 소:랑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5 가시

22506 진딧물
22506-1 (진딧물 이) 끼다/앉다/생기다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3 땅벌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6 풍뎅이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01 벌가지
22501 버리지
22502 물커시라 하까
22503 포리
22503-1 세:포리
22504 세:실코
22504 세:신는다
22505 벌가지라
22505 누니라하제
22505 눈나따
22506 뜨물
22506-1 뜨물저따
22507 잠:자리
22508 땅깨비
22508-1 땅깨비라
22508-2 뽕떼기
22509 메뚜기
22509 메떡기
22510 연:치
22511 옥찌제~이
22512 벌:
22512-1 *
22513 땅뽕
22514 나:비
22515 하루사리
22516 *
22517 모구
22518 *

22519	매미	22519	와:가리(큰 것)
22520	개똥벌레	22519	메:미(작은 것)
22521	반딧불	22520	개똥벌가지제
22522	거미	22521	개똥불
22523	굼벵이	22522	고무
22524	구더기	22523	굼베~:이
22525	노래기	22524	구더리
22526	그리마	22525	*
22527	지네	22526	*
22528	개미	22527	지네
22529	바구미	22528	게:미
22530	진드기	22529	바:게미
22531	벼룩	22530	진두께
22532	이	22531	벼룩
22532-1	서캐	22532	이:
22532-2	빈대	22532-1	썩까래
22533	송충이	22532-2	빈데
22534	귀뚜라미	22533	송:채~이
22535	누에	22534	귀뚜래미
22536	고치	22535	누에아니요
22537	번데기	22536	누에꼬추
22538	지렁이	22537	쁜데기
22539	회충(蛔蟲)	22538	거세~이
22540	소금쟁이	22538	거생이
22541	방개	22539	거세비
		22539	거세~이
		22540	소금장시
		22541	물짱구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짐성
22602	암소	22602	암습니다
22603	송아지	22603	쉬야지(+ 단모음)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널:미
22605	황소	22605	뿌가리
22606	길들이다	22605	뿌사리
		22606	지를드려야조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와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22606-3	이라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22606-4	자라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물:치
		22606-5	물라물라
22607	쇠고기	22607	소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괴기라
22609	둘치	22609	부람소라 하제(소의 경우)
22610	꼬리	22610	꼴리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세끼
		22611	망아지
22612	당나귀	22612	땅나귀(+ 이중모음)
22613	갈기	22613	*
22614	돼지	22614	뒤야지(+ 단모음)
		22614	두아지
22614-1	멧돼지	22614-1	메똥야지
22615	주둥이	22615	쥐뒤~이
		22615	뒤야지나발
22616	돼지 머리	22616	똥:지머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똥:지울청
22617-1	오래오래	22617-1	도레도레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쑥캐
22618-2	암캐	22618-2	암캐
22619	강아지	22619	쟁아지라고
22620	염소	22620	염소
22621	고양이	22621	괴:데긴데
22621-1	수고양이	22621-1	쑥깨더기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깨데기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3	기우
22624	암탉	22624	암탁
22625	병아리	22625	뺑아리라
22626	모으다	22626	모틴다
22627	수탉	22627	장닥
22627-0-1	-이	22627-0-1	장다기
22628	벼슬(鷄冠)	22628	비실
22629	부리	22629	주똥이
22630	모이	22630	모시라
22630-0-1	-을	22630-0-1	모시를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30-1 모티지요
 22631 닭털
 22632 닭구똥이라
 22633 가레
 22634 닭쩍
 22635 중:테
 22636 날게쭈쭈
 22637 *
 22637-0-1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01 호레~:이
 22702 싸기여
 22703 여시
 22704 원:생이라
 22705 사심
 22706 노리
 22706-0-1 노리가
 22706-0-2 노리를
 22707 *
 22708 뒤지기
 22709 쪽제비
 22710 베:미라
 22710 진:짐성
 22711 동에뱀
 22712 구레~이
 22713 살모세
 22714 쉬양지(+ 이중모음)
 22715 박:찌
 22716 꺼꿀로
 22717 다람지
 22718 날쩍성
 22719 꼴리털
 22720 세:날체~이
 22721 독쭈리
 22722 지:비
 22723 한:세

22724	소쩍새	22723	백뚜루미
22725	꿩	22724	소쩍새
22726	장끼	22725	꿩:
22727	까투리	22726	장닥꿩
22727-1	꺼병이	22727	암닥꿩
22728	중달새	22727-1	꿩:세끼라고만
22729	빼꾸기	22728	중질새
22730	기러기	22729	빼꼭새
22731	뜸부기	22730	보리끼우나
22732	올빼미	22731	뜸북새
22733	까치	22732	올빼미
22734	딱따구리	22733	간:치
22735	덧	22734	딱따기
22735-0-1	-을	22735	도시구만
22736	올가미	22735-0-1	도슬
		22736	홀치기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1	참:꼰
22802	철쭉꽃	22801	참꼬시
22803	민들레	22802	개:꼬시여
22804	맨드라미	22803	머심달래
22805	봉선화	22804	맨드레미
22806	파리	22805	봉:승아
		22806	떼왈
22807	해바라기	22806	파:리
22808	꽃봉오리	22807	해바라기꼰
		22808	꼰망울
22809	시들다	22808	꼬뽕오리
22810	질경이	22809	시드러진다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	베짖니비라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0-1	베짖넙
		22810-2	*

22811 뽕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씀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22811 뻘비
 22812 비린넉
 22813 쇠비린넉
 22814 사랑부리
 22815 *
 22815-1 *
 22815-2 *
 22816 꼬사리
 22817 세:침
 22818 또피비 부터따
 22819 *
 22820 억딸
 22821 깔:떼
 22822 바우오시라
 22823 피마주
 22824 쭈세미
 22824 쭈세나무
 22825 쭈세
 22826 영꾸리라
 22827 덩쿨저부러따
 22827-1 까시덩꾸리라
 22828 띄를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리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0-1 -으로

22901 솔나무
 22902 솔뽕제~이라
 22902 솔뽕지~이
 22903 간:솔
 22904 솔곶
 22905 글거모테가꼬
 22906 뽕나무
 22907 오두
 22908 도토리
 22909 도토리나무라고도
 22910 *
 22911 오돌라라
 22911-0-1 오시 오른다

22912	버드나무	22912	쉬양버들나무(+ 단모음)
22913	느티나무	22913	유타나무
22914	그림자	22914	거름제
22914-1	그늘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	수비
22915-0-1	-을	22915-0-1	수블
22915-0-2	-에	22915-0-2	수베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언합니다
22917	찢레	22917	초동까지라고
		22917	땅까지
22918	칩	22918	치기라
22918-0-1	-에	22918-0-1	치게
22919	가지(枝)	22919	역 가장구
		22919	역까지
22920	끝	22920	꼬터리
22920-0-1	-이	22920-0-1	꼬터리가
22920-0-2	-에	22920-0-2	꼬터리에
22920-0-3	-을	22920-0-3	꼬터리를
22921	삭정이	22921	송치목(소나무의 경우)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1-1	판다
22922	나무	22922	나무가(+ 다)
		22922	낭구라고도(+ 소)
22922-0-1	-을	22922-0-1	나무를
22922-0-1	-을	22922-0-1	낭구를
22922-0-2	-에	22922-0-2	나무에
22922-0-2	-에	22922-0-2	낭구에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만다
22924	그루터기	22924	나무똥겅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나락폭찌
22925	등겅	22925	똥겅
22926	장작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7	펜:다고
22928	부스러기	22928	찌끼레기가
		22928	찌세기가
22929	숫	22929	수시제
22929-0-1	-이	22929-0-1	수시
22929-0-2	-을	22929-0-2	수슬
22929-0-3	-에	22929-0-3	수세다
22930	불잉겅	22930	*
22931	쌉	22931	초기나온다
22932	잎	22932	입쌉

22932 잎
 22932-0-1 -을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32 이비라(침엽)
 22932-0-1 이불
 22932-0-1 입싸글
 22932-1 입싸기라(활엽)
 22933 떡갈나무입싸
 22934 뿌렁구라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꽃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6 보늬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01 능그미라(+ 구)
 23001 사과라(+ 신)
 23002 독:배라
 23003 복썩
 23004 꼬:깎
 23005 홍실
 23006 *
 23007 쌀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
 23010-0-1 *
 23011 성누
 23012 모:게
 23013 과:일
 23014 꼭찌라
 23015 밤:
 23015-1 밤송어리라
 23015-2 *
 23015-3 *
 23015-4 *
 23016 *
 23017 호도라고
 23018 *
 23019 *
 23020 물:구
 23021 *
 23022 멍:감
 23023 으름
 23024 웨

23025	딸기	23024	김마까라(노란 것)
23025-1	"딸기(밭, 재배)"	23024	차메(파란 것)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	딸: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1	따:리라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2	*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3	*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4	들:따리
23026	뱀딸기	23025-5	*
23027	마름(菱)	23025-6	중:따리라고
		23026	중:따리라
		23027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산 봉다리
23102	기슭	23101	산 꼬닥찌
23102-0-1	-에	23102	산 아래추미라
23103	골짜기	23102-0-1	아래추메다
23104	메아리	23103	산 골창
23105	고함	23103	상꼴짝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4	소리가울린다
23106	묘	23105	구암
23107	뿔자리	23105-1	구암 지른다
23107-1	광중	23106	메:시조
23108	구덩이	23107	메:짜리
23109	비탈	23107-1	강:중안
23110	가파르다	23108	구더글
23111	언덕	23109	깎쿰막
23112	낭떠러지	23110	깎:찌다
23113	들	23110	까우락진데
		23111	엉땡
		23112	낭떠러지기
		23113	들:
		23113	들:력

23113-0-1	-에	23113-0-1	드:레
23114	벌	23114	벌파니라고도
23115	갈림길	23115	지리 가지나뜨라
		23115	가지난질
		23115	갈림찌리드라
23116	헤어지다	23116	헤어지다
		23116	갈려가자
23117	바위	23117	영바오라(큰 것)
		23117	바오가(작은 것)
23117-0-1	-을	23117-0-1	바오를
23117-0-2	-에	23117-0-2	바오예가
23118	돌	23118	독:
		23118	도:팍
23118-0-1	-을	23118-0-1	도:글
23118-0-1	-을	23118-0-1	도:파글
23118-0-2	-에	23118-0-2	도:게다
23118-0-2	-에	23118-0-2	도:파게
23119	자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	모세라고(+ 구)
		23120	모레(+ 신)
23120-0-1	-를	23120-0-1	모세를
23121	진흙	23121	지:느근
23121-1	찰흙	23121-1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무를
23202	거품	23202	버큼
23203	개운하다	23203	개안하다
23204	도랑	23204	뜰로
		23204	물꼴창이라
23204-1	붓도랑	23204-1	또리라
23205	독	23205	뚜기
		23205	방처늘 망는다
23206	잠기다	23206	쟁게따고
23207	개울	23207	게고리라고

		23207	계창
		23207	계골창
23208	내(川)	23208	네:까시라고도 하고
		23208	네:시고
23209	미역 감다	23209	메깎는다
23210	발가승이	23210	깨복제~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모요간다
23212	수채	23212	*
23213	개골창	23213	뜯창이라
23214	시궁창	23214	시금창이라
23215	웅덩이	23215	웅덩이는
23216	수렁	23216	고라시락 하제
23217	늪	23217	*
23217-0-1	-에	23217-0-1	*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선창
		23219	노:두라고
		23219	나루건네라고도
23220	돛	23220	도백
		23220	도신테
23220-0-1	-에	23220-0-1	도뿌게
		23220-0-1	도세
23221	돛대	23221	도떼
23222	돛배	23222	풍선
23223	돛 줄	23223	용두쭈리라
23224	돛 줄	23224	다쭈
23225	거루	23225	*
23226	상앗대	23226	산:떼
23227	개(펼)	23227	개빼닥
		23227	개깎
		23227	깁 가세서
		23227	깁번
23228	물	23228	육찌라
23228-0-1	-으로	23228-0-1	육찌로
23229	밀물	23229	들물
23230	썰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1	까란진다
23232	그물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3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1	세부기라
23302	새벽밥	23302	세복밥
23303	아침	23303	아침
		23303	아척
		23303	아적
23304	아침밥	23304	아침밥
		23304	아적밥
23305	점심	23305	정:심
23306	저녁	23306	지역
23307	설핏하다	23307	설푸테저따
23308	노을	23308	북썰한다
23308-0-1	-을	23308-0-1	북썰를
23309	불그레하다	23309	빨구시롬하다도
23310	해거름	23310	저녁끄테 되야따고
		23310	해:름
23311	땅거미	23311	땅금 와따
23312	봄	23312	보미
23313	여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4	더우
23315	추위	23315	추우를
23316	가을	23316	가을
		23316	가시리
23316-0-1	-에	23316-0-1	가시레
23317	겨울	23317	겨으리지오
		23317	시얀
23317-0-1	-에	23317-0-1	시야네
23318	얼음	23318	어르미
23319	오늘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0	네일
23321	모레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2	고페
23323	그글피	23323	그고페
23324	어제	23324	어저께
23325	그저께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7	냥:중에
		23327	후:제

23328 하룻날
 23329 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2 다섯날
 23333 엿새날
 23334 이렛날
 23335 여드렛날
 23336 아흐렛날
 23337 열흘날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흘
 23342 다섯
 23343 엿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5 금방

23328 초하루
 23329 초이틀
 23330 초산:날
 23331 초나은날
 23332 초다쨌날
 23333 초여쨌날
 23334 초이렌날
 23335 초야드렌날
 23336 초아:렌날
 23337 여를랄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얼
 23341 나알
 23341 나을
 23342 다쨌
 23343 여쨌
 23344 이레
 23345 야드레
 23346 아:레
 23347 여를
 23348 한나잘
 23348-1 반:나잘
 23348-1 한실참
 23349 금:날
 23349-1 그믐께
 23350 시방
 23350 지금
 23351 당에
 23353 인자
 23353 이:무
 23354 요세
 23355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 베시
 23401-0-1 베시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3421 발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둥글다
 23428 은하수
 23429 금성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0-1 -어서
 23432 위

 23433 아래

23401-0-2 베슬
 23402 따습따
 23402 따따다다
 23403 아루랑이
 23404 음지라고
 23405 양지까지라
 23406 비가
 23407 가랑비
 23408 이실비
 23409 양:게
 23410 *
 23411 무지개
 23412 쏘네기라
 23413 느다덥씨
 23413 갑짜기
 23414 홍수가
 23414 큼물저따
 23415 병게치제
 23415 뽕게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쨌요
 23419 함방눈
 23419 사부랑눈(숨처럼 내리는 눈. 함
 박눈보다 작음)
 23420 싸레기눈
 23421 발테주기
 23422 진누니라
 23423 우바기여
 23424 고드름
 23425 헨머리 언저따
 23426 달머리
 23427 도리도리하조
 23428 으나수
 23429 세:빌
 23430 가뭄미
 23431 모르조
 23431-0-1 몰라서
 23432 우게
 23432 우게가 념따
 23433 아레

23434	왼쪽	23433	미테라고도
23435	오른쪽	23433	미테가 넘따
23436	결	23434	웬:쪽
23436-0-1	-에	23435	오른쪽
23437	회오리바람	23436	저트로
23438	북풍	23436-0-1	저테
23439	남풍	23437	쭉쏘리바람
23440	동풍	23438	하누바람
23441	서풍	23439	마과람
		23440	세빠람
		23441	눈빠람

조사 항목에 없는 낱말

=2	=2	가시리 드러따(벼가 익었다)
=2	=2	간:제미(가오리보다 작은 것)
=2	=2	간테크나부지 (둘째 큰아버지)
=2	=2	간지때(장대)
=2	=2	거세비베 알른다고(거위배)
=2	=2	건:다리(건 땅에서 옷자라고 낱알도 실하지 않게 자란 곡식)
=2	=2	걸지다(곡식이 건 땅에서 잘 자라다)
=2	=2	계:구녁(개구멍)
=2	=2	계끼(물때의 하나. 닻새-엿새-이렛날-스무-스무 하루-스무 이틀의 바닷물)
=2	=2	고라시논(물과 진흙이 섞여 발이 푹푹 빠지는 논)
=2	=2	고레꾸녁(고래구멍)
=2	=2	고빠(고비)
=2	=2	곰베(곰방메)
=2	=2	괴:삼(동네 안길)
=2	=2	군두타다(그네타다)
=2	=2	귀티~이마디(귀통이마다)
=2	=2	그란 성 부르요(성 싫다)
=2	=2	깎따구(각다뒤)
=2	=2	꼬닥찌(꼭대기)
=2	=2	꼬또리(코뚜레)
=2	=2	꼭지(물동이의 손잡이)
=2	=2	꿈망우리(꽃망울)
=2	=2	짱:짱하다(단단하다)
=2	=2	꿀(굴)
=2	=2	웨 할썬 버서따(홀랑 발가벗다)
=2	=2	낙 저따(웃놀이에서 말이 말판 밖으로 나간 것을 이르는 말.)
=2	=2	낙쭈질(낙시질)
=2	=2	날람하다(날카롭다)
=2	=2	날리(칼의 날)
=2	=2	남포등(램프)
=2	=2	너물(물때의 하나. 열사흔날의 바닷물)
=2	=2	너푸다(높다)
=2	=2	네:깎(내)
=2	=2	네:나(내나, 기껏)
=2	=2	네끼질(낙시질)
=2	=2	노:레이~(노랑계)

=2	=2	놀:(과도)
=2	=2	놉빠람(북동풍)
=2	=2	놉쎄(놉새)
=2	=2	눈꼬페나무
=2	=2	느다누(북서풍)
=2	=2	늘보리(겉보리)
=2	=2	늪마(남서풍)
=2	=2	늪마과람(남서풍)
=2	=2	니가리라고(쓰고 질이 좋지 않은 소금)
=2	=2	다선물(물때의 하나. 열나흘날의 바닷물)
=2	=2	더꾸지 잔다고(잠을 자면서 심하게 뒤척이거나 잠꼬대를 하는 것)
=2	=2	데:룽(조개의 한 종류)
=2	=2	데끼다(굵은 보리로 밥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쪄는 일)
=2	=2	데안등(토시등보다 큰 것)
=2	=2	도:구통(고추 가는 '확'과 구별 없음)
=2	=2	도리도리하이(둥글게)
=2	=2	도추날리(도끼날)
=2	=2	도추뿔(도끼머리 위에 소의 뿔처럼 달려 있는 부분)
=2	=2	돈부(동부)
=2	=2	동(세 못)
=2	=2	동구리(옷 등을 담아 두는 고리짝)
=2	=2	동달(옷놀이의 말판)
=2	=2	되야지 짓(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두엄.)
=2	=2	되안(집 안의 앞이나 뒤 마당에 만들어 놓은 텃밭)
=2	=2	두:물(물때의 하나. 열하룻날의 바닷물)
=2	=2	딱팔비(무섭게 쏟아지는 비)
=2	=2	떼:루다(우물이나 샘의 물이 잘 나지 않아 물이 고이는 족족 우물 바닥을 두레박이나 바가지로 긁어 물을 퍼 내는 일)
=2	=2	떼깍단초(버튼식 단추)
=2	=2	떼꾸리(지게꼬리)
=2	=2	또:깨비불(도깨비불)
=2	=2	똥:계(쟁기의 밑에 달려 있는 쇠조각으로서 나무가 닳지 않도록 한다.)
=2	=2	뽕짱(뽕장. 흙이 붙어 있는 뿌리채 떠낸 잔디의 조각.)
=2	=2	땀(밀이나 짚을 새끼로 엮어 발처럼 만든 것으로서 마루 앞에 쳐서 비가 들치지 않도록 하는 것.)
=2	=2	마작(막대기)
=2	=2	마장까심(김발 하는 데 사용되는 긴 막대)
=2	=2	메뽕기(여러 개의 짚 끝을 단단하게 묶은 것으로서. 벼를 묶는 데 쓰인다)
=2	=2	멕짚(모판을 편평하게 고르는 일)
=2	=2	멘:당(맨날. 언제나)

=2	=2	맹:감영쿨(청미래나무 념쿨)
=2	=2	맹길다(만들다)
=2	=2	모방(작은방)
=2	=2	물구뚝(바닷가에서 매끈하게 닳아진 돌. 조약돌)
=2	=2	싫다(신다. 못자리에 물을 대다)
=2	=2	무수(물때의 하나. 아흐렛날의 바닷물)
=2	=2	무수하추친다(무를 잘게 채로 썰는 일)
=2	=2	미:뺨(밑뺨. 지게에 메어있는, 지게를 지는 끈)
=2	=2	미영뚜(실을 자아서 감아 놓은 실 뭉치. 토리)
=2	=2	바늘때(가마니틀의 부품)
=2	=2	바닥뵈야부러뜨라(홍수가 나서 바다 되었더라)
=2	=2	박쭈(낙숫대 위에 달아둔 표지)
=2	=2	반지락(바지락)
=2	=2	버레쭈(땅 위에서 배를 묶어 놓는 줄)
=2	=2	범:꾸(벽수)
=2	=2	베떼쭈(뱃대끈. 마소의 안장이나 길마를 엮을 때끼 배에 걸쳐서 줄라매는 줄)
=2	=2	베지네(쇠로 길게 되어 있고 끝에 가지처럼 갈라져 있어 못을 뺄 수 있게 되어 있는 연장.)
=2	=2	백길(처음으로 하는 논갈이)
=2	=2	보두(바디. 가마니틀의 부품)
=2	=2	부꾸다(웃놀이에서 두 개의 말이 함께 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
=2	=2	북찌 (날알이 붙은 이삭)
=2	=2	빠게다(뽕개다)
=2	=2	서물(물때의 하나. 열이틀날의 바닷물)
=2	=2	성예(성예. 쟁기의 부속)
=2	=2	세:똥(모판 옆에 물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도랑)
=2	=2	세:똥메타리(쇠똥에서 자라나는 버섯)
=2	=2	세:머리 불분다(씨레가 없었을 때 논을 밭로 밟아서 고르는 일)
=2	=2	세:조게(조게의 하나)
=2	=2	세팍(어떤 집의 대문으로 드나드는 통로)
=2	=2	생가리(두 번째 하는 논갈이)
=2	=2	소주데(뭇줄. 쟁기를 매는 줄)
=2	=2	소:메구덕(오줌이나 똥 등을 모아 두는 구덩이)
=2	=2	소금빨(소금의 굵기)
=2	=2	수사(흙벽을 바를 때 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흙에 섞어 넣은 것. 마 대를 잘게 부수거나 짚을 잘게 썰어서 절구에 찼어서 부드럽게 만 들어 넣는다.)
=2	=2	술:(그릇의 주둥이 둘레)
=2	=2	술립(쟁깃술. 쟁기의 밑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2	=2	숭:어텍(쟁기의 부속. 성에 왼쪽에 붙어 있음)

=2	=2	시킴굿(씻김굿)
=2	=2	시남쟁이(일 솜씨가 좋은 사람.)
=2	=2	신하다(일 솜씨가 좋다.)
=2	=2	싫:다(싫다. 보리를 찢어 말린 뒤에 조금씩 붙어 있는 껍질을 떼어내기 위해 물을 붓지 않고 절구에 찢는 일)
=2	=2	썩시쌀(수수쌀)
=2	=2	아옴물(물때의 하나. 사흘날-여드렛날의 바닷물)
=2	=2	아짐(당숙의 부인. 지칭)
=2	=2	아침복썰는 날 구친다
=2	=2	안진뱅이저울(무거운 것을 얹어 놓고 달기 위한 저울.)
=2	=2	알따구(알맹이)
=2	=2	알쭈시(수수쌀)
=2	=2	암:제 해주시다(아무 때 해 주겠습니까)
=2	=2	야달물(물때의 하나. 초이틀-열이렛날의 바닷물)
=2	=2	어머이(사촌간에는 그 어머니를 아짐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어머니라고 한다.)
=2	=2	어시(짐승이나 사람의 어미)
=2	=2	억떠구(억지)
=2	=2	얼턱얼턱하다(울통불통하다)
=2	=2	여냥분(영양분)
=2	=2	여물쪼세(소나 돼지 등에게 줄 여물을 끓여 담는 도구)
=2	=2	여선물(물때의 하나. 열닷새날의 바닷물)
=2	=2	영:다(넣다)
=2	=2	열물(물때의 하나. 나흘날-아흐렛날의 바닷물)
=2	=2	오곳하다(그릇의 주둥이가 안쪽으로 약간 숙여져 있는 모양)
=2	=2	오나지게(오늘 아침에)
=2	=2	오라부성(손위 올케)
=2	=2	오른동제비(오른손잡이)
=2	=2	옥지다(움켜쥐다)
=2	=2	옹:구동우(옹기로 된 물동이)
=2	=2	옹타리(층이 진 작은 논)
=2	=2	우:장썩:따고(병든 닭을 우장을 쓴 것으로 비유하여 이르는 말)
=2	=2	우덜(우리들)
=2	=2	우럭빼(느닷없이 쏟아지는 비)
=2	=2	윙뉴상자(육묘상자)
=2	=2	이까지(네 번째 때는 논갈이)
=2	=2	일곰물(물때의 하나. 하루-열엿새날의 바닷물)
=2	=2	입치레(말치레)
=2	=2	잉글잉글하다불이 이글거리다)
=2	=2	잡쫓지(잡쫓. 쟁기의 부속)
=2	=2	장:심(발바닥의 한 가운데)

=2	=2	장바(소 매는 줄)
=2	=2	장삼(날알이 들지 않고 껍질만 많은 곡식.)
=2	=2	제계(놀이도구로서 제기)
=2	=2	조금(물때의 하나. 여드렛날-스무사흘날의 바닷물)
=2	=2	종지기빠(무릎 안에 있는 빠)
=2	=2	주주주주(답을 모으는 소리)
=2	=2	중가리(세 번째 하는 논갈이)
=2	=2	중우(여름에 입는 하의)
=2	=2	지계까지(지갯가지)
=2	=2	지계코작(지계세장. 지계의 두 짝이 함께 짜여 있도록 가로질러서 박은 나무)
=2	=2	지계통발(동발. 지갯다리)
=2	=2	지빠눌(짚가리)
=2	=2	짐(열 못)
=2	=2	짐짜리(짚으로 만든 자리)
=2	=2	짜떼기저울(작대기에 추를 단 저울. 갈고리가 달려 있거나 가벼운 것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판이 있음.)
=2	=2	짱: 친다(둥글게 깎은 나무를 치는 전통 놀이)
=2	=2	짱짱하다(팽팽하다. 단단하다)
=2	=2	찌럭찌럭하다(질척질척하다)
=2	=2	참지름(참기름)
=2	=2	청동(산에 나는 풀로서 삼태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
=2	=2	콩똥(콩을 묶은 동. 동은 세 못의 양)
=2	=2	콩팔칠팔(콩팔칠팔)
=2	=2	키:다(키우다)
=2	=2	털멩이(짚신보다 더 거칠게 삼은 신)
=2	=2	토:비(퇴비)
=2	=2	토시등(호롱을 유리 속에 넣어 놓은 것)
=2	=2	통:세(퇴비나 거름 등을 모으기 위한 변소)
=2	=2	퇴역나따(많이 걸어서 종아리가 아프다)
=2	=2	퇴정길(토정비결)
=2	=2	통구(굽기)
=2	=2	품 들다(품앗이하러 남의 집에 가다)
=2	=2	하:세를 바씀니다(하대받다)
=2	=2	한물(물때의 하나. 열흘날의 바닷물)
=2	=2	함말(한마루. 쟁기의 성애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긴 나무)
=2	=2	함박 쪼빱 시집가네 종:가리 나도 가.(진도의 ‘강강술래’ 가사의 일부. 큰 바가지 작은 바가지가 시집가니까 제일 작은 바가지도 시집을 가고 싶다는 내용)
=2	=2	허이를 하다(하게하다. 낚잡아 말하다)
=2	=2	화:렴(바닷물을 끌어들여 불을 때어 소금을 만드는 일)

=2	=2	활딱 버서따(홀렁 벗었다)
=2	=2	흐:가이·(하얏게)
=2	=2	허통세(오줌, 똥을 모아 두는 구덩이가 있는 곳)



제3편 음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31003	떼로
31003-0-2	떼(群)-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가
31004-0-2	때(時)-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	트리라
31005-0-2	틀(機)-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	터리 난다
31006-0-2	털(毛)-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	그를
31007-0-2	글(文)-보다		
31008-0-1	걸(옷)-이/가	31008	걸
31008-0-2	걸(옷)-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	기라고
31009-0-2	기(旗)-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	귀(+ 이중모음)
		31010	귀고(+ 이중모음)
31010-0-2	귀(耳)-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	시:
31011-0-2	시(生時)-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	세:
31012-0-2	쉬(蠅卵)-보다		
31013-0-1	쇠(鐵)-이/가	31013	쉐
31013-0-2	쇠(鐵)-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	외:구기로
		31014	외: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	웨노미라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6 쉬:다(休)

31017 쇠:다(설을~)

31018-0-1 베(布)-이/가

31019-0-2 배(船)-보다

31020-0-2 배(腹)-보다

31021-0-1 (떡)메-이/가

31022-0-2 매(鞭)-보다

31023-0-2 메:다(擔)

31024-0-1 매:다(繫)

31025-0-1 떼:다(分離)

31026-0-1 때:다(炊)

31027-0-1 베:다(切斷)

31028-0-2 배:다(孕胎)

31029-0-1 세:다(算)

31030-0-1 새:다(漏泄)

31031-0-1 뒤(後)-이/가

31032-0-2 되(升)-보다

31033-0-2 게:(蟹)-보다

31034-0-2 개:(犬)-보다

31016 켜:다(+ 단모음)

31017 쉬여쑤(+ 단모음)

31017 켜:닥 하지라(+ 단모음)

31018 베:

31019 베

31020 베:지

31020 베라고

31020 베야지

31021 메

31022 메로

31023 들쳐민:다

31023 멘:다

31024 멘:다고

31025 떼:다

31026 떼:다

31027 비여따

31027 빈:다

31028 에기 베:따

31029 신:다

31030 쉼:다

31031 뒤:시라고도

31031 뒤에

31032 뉘

31033 기:

31034 게: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 여러시 여러이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 노:리 친다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 예이가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	계혜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3	귀치글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휘이리라고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0-1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	효:자 자식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	웬닐로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짹)(櫃)-이/가	31044	궤:짹
31044-0-2	궤:(짹)(櫃)-보다		
31044-0-3	궤:(짹)(櫃)-을/를	31044-0-3	괴:짜글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	웨난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	회떼락 헤써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	원:망하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	곤토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 으:논 한다는 거슨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 무누라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1 왕: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 과자

31052 구넵치기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3 일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4 일: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5 메를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6 메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7 바미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8 밤:

31059-0-1 눈(眼)-이/가

31059 눈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	눈: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	말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	말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	마:를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	손님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	손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	배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	배: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	버를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	벌: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	솔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	솔:로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	줄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	줄: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	도:팍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	담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	담: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	들:
31078-0-2	들:(野)-보다	31078	들:력
31079-0-1	달-(懸)-고	31079	달고
31079-0-1	달-(懸)-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	다고
31080-0-1	달-(甘)-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	달고 이따
31081-0-1	달:-(熱)-더라		
31082-0-1	갈-(換)-고	1082	갈고 이따
31082-0-1	갈-(換)-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	갈:고 이따
31083-0-1	갈-(磨)-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	갈:고 이따
31084-0-1	갈:-(耕)-더라		
31085-0-1	걸-(收)-고	31085	거꼬 이따
31085-0-1	걸-(收)-더라		
31086-0-1	걸:-(步)-고	31086	걸:꼬 이따
31086-0-1	걸:-(步)-더라		

31087-0-1	적-(書)-고	31087	적꼬 이따
31087-0-1	적-(書)-더라		
31088-0-1	적:-(小)-고	31088	적:꼬
31088-0-1	적:-(小)-더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궁께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거따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흐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흐르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흐룽께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러따
32003-0-1	오-(來)[ㅓ]-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ㅓ]-고	32003-0-2	오고
32003-0-3	오-(來)[ㅓ]-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32003-0-4	옹께
32003-0-5	오-(來)[ㅓ]-아/어(왔/었다)	32003-0-5	와따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드찌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드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드뜨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룽께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러따
32005-0-1	많:-(多)[ㄴᄇ]-지	32005-0-1	마:나지
		32005-0-1	만:치
32005-0-2	많:-(多)[ㄴᄇ]-고	32005-0-2	망:코
		32005-0-2	마:나고
32005-0-3	많:-(多)[ㄴᄇ]-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3	마:나드라
32005-0-4	많:-(多)[ㄴᄃ]-으니까	32005-0-4	마:낭께
32005-0-5	많:-(多)[ㄴᄃ]-아/어(왔/었다)	32005-0-5	마:네따
32006-0-1	말:-(任)[ㅌ]-지	32006-0-1	마찌
		32006-0-1	마트지
32006-0-2	말:-(任)[ㅌ]-고	32006-0-2	마트고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3	마트드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4	마통께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32006-0-5	마터따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알:지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알:께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알:터따
32008-0-1	감:-(閉眼)[ㄱ]-지	32008-0-1	감:찌
32008-0-2	감:-(閉眼)[ㄱ]-고	32008-0-2	감:꼬
32008-0-3	감:-(閉眼)[ㄱ]-더라	32008-0-3	감:떠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32008-0-4	감:통께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32008-0-5	감:터따
32009-0-1	벗:-(脫)[ㅍ]-지	32009-0-1	벗:찌
32009-0-2	벗:-(脫)[ㅍ]-고	32009-0-2	벗:꼬
32009-0-3	벗:-(脫)[ㅍ]-더라	32009-0-3	벗:뜨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32009-0-4	벗:승께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32009-0-5	벗:서따
32010-0-1	올:-(可)[ㅇ]-지	32010-0-1	올:치
32010-0-2	올:-(可)[ㅇ]-고	32010-0-2	올:코
32010-0-3	올:-(可)[ㅇ]-더라	32010-0-3	올:터라
32010-0-4	올:-(可)[ㅇ]-으니까	32010-0-4	올:릉께
32010-0-5	올:-(可)[ㅇ]-아/어(왔/었다)	32010-0-5	올:라씨
32011-0-1	입:-(着衣)[ㅍ]-지	32011-0-1	입:찌
32011-0-2	입:-(着衣)[ㅍ]-고	32011-0-2	입:꼬
32011-0-3	입:-(着衣)[ㅍ]-더라	32011-0-3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32011-0-4	입:봉께
32011-0-5	입:-(着衣)[ㅍ]-아/어(왔/었다)	32011-0-5	입:버따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1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바꾸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바꾸께
32012-0-5	바꾸-(換)[ㅌ]-아/어(았/었다)	32012-0-5	바꾸따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더꾸지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더꾸고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더꾸더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꾸께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3-0-5	더꾸따
32014-0-1	묻:- (問)[ㄷ 변]-지	32014-0-1	물:찌
32014-0-2	묻:- (問)[ㄷ 변]-고	32014-0-2	물:꼬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32014-0-3	물:떠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릉께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았/었다)	32014-0-5	무릉따
32015-0-1	낫:- (癒)[ㅅ 변]-지	32015-0-1	나:찌
32015-0-2	낫:- (癒)[ㅅ 변]-고	32015-0-2	나:꼬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32015-0-3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32015-0-4	나승께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았/었다)	32015-0-5	나승따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달찌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다꼬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달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등께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6-0-5	다등따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쫓추지
		32017-0-1	쫓찌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층께
32017-0-5	쫓-(追)[ㅈ]-아/어(았/었다)	32017-0-5	쫓차따
32018-0-1	베:- (枕)[ㅂ]-지	32018-0-1	비:지
32018-0-2	베:- (枕)[ㅂ]-고	32018-0-2	비:고
32018-0-3	베:- (枕)[ㅂ]-더라	32018-0-3	비:드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32018-0-4	빙:께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32018-0-5	비여파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깨:지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고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드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깨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32019-0-5	깨:따
32020-0-1	펴:-(伸)[펴]-지	32020-0-1	펴:지
32020-0-2	펴:-(伸)[펴]-고	32020-0-2	펴:고
32020-0-3	펴:-(伸)[펴]-더라	32020-0-3	펴:더라
32020-0-4	펴:-(伸)[펴]-으니까	32020-0-4	펴:깨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32020-0-5	펴여파
32021-0-1	밝:-(明)[?]-지	32021-0-1	박찌
32021-0-2	밝:-(明)[?]-고	32021-0-2	박꼬
32021-0-3	밝:-(明)[?]-더라	32021-0-3	박떠라
32021-0-4	밝:-(明)[?]-으니까	32021-0-4	발궁께
32021-0-5	밝:-(明)[?]-아/어(왔/었다)	32021-0-5	발가따
32022-0-1	삶:-(烹)[?]-지	32022-0-1	삼찌
32022-0-2	삶:-(烹)[?]-고	32022-0-2	삼꼬
32022-0-3	삶:-(烹)[?]-더라	32022-0-3	삼떠라
32022-0-4	삶:-(烹)[?]-으니까	32022-0-4	살몽께
32022-0-5	삶:-(烹)[?]-아/어(왔/었다)	32022-0-5	살마따
32023-0-1	윙:-(吟)[윙]-지	32023-0-1	윙푸지
32023-0-2	윙:-(吟)[윙]-고	32023-0-2	윙푸고
32023-0-3	윙:-(吟)[윙]-더라	32023-0-3	윙푸더라
32023-0-4	윙:-(吟)[윙]-으니까	32023-0-4	윙풍께
32023-0-5	윙:-(吟)[윙]-아/어(왔/었다)	32023-0-5	윙퍼따
32024-0-1	밟:-(踏)[?]-지	32024-0-1	불부지
32024-0-2	밟:-(踏)[?]-고	32024-0-2	보:꼬
32024-0-2	밟:-(踏)[?]-고	32024-0-2	불부고
32024-0-3	밟:-(踏)[?]-더라	32024-0-3	불부더라
32024-0-4	밟:-(踏)[?]-으니까	32024-0-4	불붕께
32024-0-5	밟:-(踏)[?]-아/어(왔/었다)	32024-0-5	불바따
32025-0-1	하:-(爲)[하 변]-지	32025-0-1	하지
32025-0-2	하:-(爲)[하 변]-고	32025-0-2	하교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함께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32025-0-5	헤:따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메찌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메꼬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멘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메징께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메저따
32027-0-1	없:-(無)[?]-지	32027-0-1	업:찌
32027-0-2	없:-(無)[?]-고	32027-0-2	업:꼬
32027-0-3	없:-(無)[?]-더라	32027-0-3	업:떠라
32027-0-4	없:-(無)[?]-으니까	32027-0-4	업:쫘께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32027-0-5	업:썩따
32028-0-1	앉-(坐)[ㅈ]-지	32028-0-1	안찌
32028-0-2	앉-(坐)[ㅈ]-고	32028-0-2	앙꼬
32028-0-3	앉-(坐)[ㅈ]-더라	32028-0-3	안떠라
32028-0-4	앉-(坐)[ㅈ]-으니까	32028-0-4	안증께
32028-0-5	앉-(坐)[ㅈ]-아/어(왔/었다)	32028-0-5	언저따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빙께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32029-0-5	비베따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끄지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고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꿈께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32030-0-5	꺼따
32031-0-1	꺾-(折)[ㄱ]-지	32031-0-1	꿈끄지
32031-0-2	꺾-(折)[ㄱ]-고	32031-0-2	꿈끄고
32031-0-3	꺾-(折)[ㄱ]-더라	32031-0-3	꿈끄드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32031-0-4	꿈꿈께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32031-0-5	꿈꺼따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상: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능께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시너따
32033-0-1	보-(視)[ㄴ]-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ㄴ]-고	32033-0-2	보고
32033-0-3	보-(視)[ㄴ]-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ㄴ]-으니까	32033-0-4	봉께
32033-0-5	보-(視)[ㄴ]-아/어(왔/었다)	32033-0-5	부아따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추지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충께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처따
32035-0-1	피우-(吸煙)[ㅈ]-지	32035-0-1	피:지
32035-0-2	피우-(吸煙)[ㅈ]-고	32035-0-2	피고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32035-0-3	피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32035-0-4	핑:께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왔/었다)	32035-0-5	피여따
32036-0-1	서-(立)[ㅈ]-지	32036-0-1	스지
32036-0-2	서-(立)[ㅈ]-고	32036-0-2	스고
32036-0-3	서-(立)[ㅈ]-더라	32036-0-3	스드라
32036-0-4	서-(立)[ㅈ]-으니까	32036-0-4	승께
32036-0-5	서-(立)[ㅈ]-아/어(왔/었다)	32036-0-5	서따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드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강:께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7-0-5	기여따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잉께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열따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니드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닝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아:니여따
32040-0-1	되-(升)[니]-지	32040-0-1	되지
32040-0-2	되-(升)[니]-고	32040-0-2	되고
32040-0-3	되-(升)[니]-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니]-으니까	32040-0-4	뉘께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32040-0-5	되야따
32041-0-1	있-(有)[ㅅ]-지	32041-0-1	인찌
32041-0-2	있-(有)[ㅅ]-고	32041-0-2	인꼬
32041-0-3	있-(有)[ㅅ]-더라	32041-0-3	인떠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32041-0-4	이쫘께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32041-0-5	이썸따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논께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노아따
32043-0-1	훔-(擄)[ㅈ]-지	32043-0-1	홀찌
32043-0-2	훔-(擄)[ㅈ]-고	32043-0-2	홀꼬
32043-0-3	훔-(擄)[ㅈ]-더라	32043-0-3	홀떠라
32043-0-4	훔-(擄)[ㅈ]-으니까	32043-0-4	홀통께
32043-0-5	훔-(擄)[ㅈ]-아/어(왔/었다)	32043-0-5	홀터따
32044-0-1	굽:-(麗)[ㅂ 변]-지	32044-0-1	굽:찌
32044-0-2	굽:-(麗)[ㅂ 변]-고	32044-0-2	굽:꼬
32044-0-3	굽:-(麗)[ㅂ 변]-더라	32044-0-3	굽:떠라
32044-0-4	굽:-(麗)[ㅂ 변]-으니까	32044-0-4	고:웅께
32044-0-5	굽:-(麗)[ㅂ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고:와따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쥐:지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고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쥬:께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쥐여따

32046-0-1	가-(去)[ㅏ]-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ㅏ]-고	32046-0-2	가고
32046-0-3	가-(去)[ㅏ]-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32046-0-4	강께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32046-0-5	가따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먹뜨라
32047-0-2	"먹-(食)-왔/었다"	32047-0-2	머거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뜯:떠라
32048-0-2	"뜯-(摘)-왔/었다"	32048-0-2	뜨더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32049-0-1	갈떠라
32049-0-2	"갈-(如)-왔/었다"	32049-0-2	가터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야차옴떠라
32050-0-2	"얕-(淺)-왔/었다"	32050-0-2	야차와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허치드라
32051-0-2	"흩-(散)-왔/었다"	32051-0-2	허쳐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날더라
32052-0-2	"날:-(飛)-왔/었다"	32052-0-2	나라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더라
32053-0-2	"울:-(泣)-왔/었다"	32053-0-2	우리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32054-0-1	이루더라
32054-0-2	"일:-(洵)-왔/었다"	32054-0-2	이뤄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얼:더라
32055-0-2	"얼:-(凍)-왔/었다"	32055-0-2	어러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넘:떠라
32056-0-2	"넘:-(越)-왔/었다"	32056-0-2	너머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떠라
32057-0-2	"숨:-(隱)-왔/었다"	32057-0-2	수머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쉽:떠라(+ 단모음)
32058-0-2	"쉽:-(易)-왔/었다"	32058-0-2	쉬어따(+ 단모음)

32059-0-1	"늑:-(馱)-지, -고, -더라"	32059-0-1	늑:떠라
32059-0-2	"늑:-(馱)-았/었다"	32059-0-2	누어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32060-0-1	줍:떠라
32060-0-2	"깁:-(縫)-았/었다"	32060-0-2	주어따
32061-0-1	"밍:-(憎)-지, -고, -더라"	32061-0-1	밍떠라
32061-0-2	"밍:-(憎)-았/었다"	32061-0-2	미여따
		32061-0-2	미워따
32062-0-1	"늑:-(高)-지, -고, -더라"	32062-0-1	너푸더라
32062-0-2	"늑:-(高)-았/었다"	32062-0-2	너퍼따
32063-0-1	"깃:-(作)-지, -고, -더라"	32063-0-1	질:떠라
32063-0-2	"깃:-(作)-았/었다"	32063-0-2	지서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1	부떠라
32064-0-2	"붓:-(腫)-았/었다"	32064-0-2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1	웁:떠라
32065-0-2	"웃:-(笑)-았/었다"	32065-0-2	우서따
32066-0-1	"깃:-(吠)-지, -고, -더라"	32066-0-1	질:떠라
32066-0-2	"깃:-(吠)-았/었다"	32066-0-2	지서따
32067-0-1	"꼇:-(插)-지, -고, -더라"	32067-0-1	꼇떠라
32067-0-2	"꼇:-(插)-았/었다"	32067-0-2	꼬자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32068-0-1	낱:뜨라
32068-0-2	"낱:-(産)-았/었다"	32068-0-2	낱:따
32069-0-1	"땅:-(?) -지, -고, -더라"	32069-0-1	따:트라
32069-0-2	"땅:-(?) -았/었다"	32069-0-2	따: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32070-0-1	끈:트라
32070-0-2	"끓:-(切)-았/었다"	32070-0-2	끄너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겐찬하더라
32071-0-2	"괜찮:-(無妨)-았/었다"	32071-0-2	겐찬혜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익뜨라

32072-0-2	"읽-(讀)-았/었다"	32072-0-2	일거따
32073-0-1	"땀:-(澀)-지, -고, -더라"	32073-0-1	떠:럽뜨라
32073-0-2	"땀:-(澀)-았/었다"	32073-0-2	떠:러워따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32074-0-1	오르더라
32074-0-2	"옮:-(遷)-았/었다"	32074-0-2	올라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32075-0-1	뜨르드라
32075-0-2	"뚫:-(貫)-았/었다"	32075-0-2	뜰러따
32076-0-1	"끓:-(?) -지, -고, -더라"	32076-0-1	끓:트라
32076-0-2	"끓:-(?) -았/었다"	32076-0-2	꾸러따
32077-0-1	"닿:-(?, 연필 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트라
32077-0-2	"닿:-(?, 연필 심이)-았/었다"	32077-0-2	다라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32078-0-1	데레지더라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았/었다"	32078-0-2	데레저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짜드라
32079-0-2	"짜:-(鹽)-았/었다"	32079-0-2	짤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물:더라
32080-0-2	"말:-(捲)-았/었다"	32080-0-2	모라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쓰드라
32081-0-2	"쓰:-(書)-았/었다"	32081-0-2	썸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오르드라
32082-0-2	"오르:-(登)-았/었다"	32082-0-2	올라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쁘드라
32083-0-2	"바쁘:-(忙)-았/었다"	32083-0-2	바빠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푸드라
32084-0-2	"고프:-(餓)-았/었다"	32084-0-2	고파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쏟:트라
32085-0-2	"쏘:-(射)-았/었다"	32085-0-2	쏘아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여따(+ 단모음)
32086-0-2	"꾸-(夢)-왔/었다"	32086-0-2	꾸:드라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
32087-0-2	"머무르-(留)-왔/었다"	32087-0-2	*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다듬떠라
32088-0-2	"다듬-(整)-왔/었다"	32088-0-2	다드마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전디드라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전데따
32089-0-2	"견디-(忍)-왔/었다"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
32090-0-2	"말리-(裁)-왔/었다"	32090-0-2	*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32091-0-1	찌드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왔/었다"	32091-0-2	찌여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32092-0-1	마시드라
32092-0-2	"마시-(飲)-왔/었다"	32092-0-2	마세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32093-0-1	시:드라
32093-0-2	"세:-(強)-왔/었다"	32093-0-2	시여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기드라
32094-0-2	"포개-(重疊)-왔/었다"	32094-0-2	포게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뛰딜드라(+ 단모음)
32095-0-2	"두드리-(敲)-왔/었다"	32095-0-2	뛰드러따(+ 단모음)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쓰드라
32096-0-2	"켜-(點燈)-왔/었다"	32096-0-1	써따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췌:드라(+ 단모음)
32097-0-2	"췌:-(바람을)-왔/었다"	32097-0-2	췌여따(+ 단모음)
32098-0-1	"췌-(老)-지, -고, -더라"	32098-0-1	췌:드라(+ 단모음)
32098-0-2	"췌-(老)-왔/었다"	32098-0-2	췌여따(+ 단모음)
32099-0-1	"췌:-(?) -지, -고, -더라"	32099-0-1	췌:드라+ 단모음)

32099-0-2	"쉬:-(?)-왔/엿다"	32099-0-2	쉬여따(+ 단모음)
32100-0-1	"회-(白)-지, -고, -더라"	32100-0-1	흐:가드라
32100-0-2	"회-(白)-왔/엿다"	32100-0-2	흐:게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보꾸드라
32101-0-2	"볶-(炒)-왔/엿다"	32101-0-2	보까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보듬떠라
32102-0-2	"안:-(抱)-왔/엿다"	32102-0-2	보드마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묻떠라
32103-0-2	"묻-(埋)-왔/엿다"	32103-0-2	무더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불:더라
32104-0-2	"불:-(吹)-왔/엿다"	32104-0-2	부러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빨더라
32105-0-2	"빨-(洗濯)-왔/엿다"	32105-0-2	빠라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죽떠라
32106-0-2	"죽-(死)-왔/엿다"	32106-0-2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32107-0-1	걸:뜨라
32107-0-2	"걸:-(步)-왔/엿다"	32107-0-2	거러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무라따
32108-0-2	"가물-(旱)-왔/엿다"	32108-0-2	가물드라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32109-0-1	졸:드라
32109-0-2	"졸:-(睡)-왔/엿다"	32109-0-2	조라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쓸:드라
32110-0-2	"쓸-(掃)-왔/엿다"	32110-0-2	씨러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감:뜨라
32111-0-2	"감:-(捲)-왔/엿다"	32111-0-2	가머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듬떠라
32112-0-2	"더듬-(摸)-왔/엿다"	32112-0-2	더드마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32113-0-1	굽:떠라
32113-0-2	"굽:-(炙)-왔/왔다"	32113-0-2	구워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겁떠라
32114-0-2	"무겁-(重)-왔/왔다"	32114-0-2	무거워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32115-0-1	인:떠라
32115-0-2	"잇:-(連)-왔/왔다"	32115-0-2	이서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빔떠라
32116-0-2	"빗-(梳)-왔/왔다"	32116-0-2	비서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꺼:마드라
32117-0-2	"까맣-(黑)-왔/왔다"	32117-0-2	꺼:메따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32118-0-1	여:트라
32118-0-2	"넣-(入)-왔/왔다"	32118-0-2	여: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굽:뜨라
32119-0-2	"고:-(煮)-왔/왔다"	32119-0-2	고와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32120-0-1	연:떠라
32120-0-2	"엎-(載)-왔/왔다"	32120-0-2	연저따
32121-0-1	"귀찮-(?) -지, -고, -더라"	32121-0-1	귀찬하더라
32121-0-2	"귀찮-(?) -왔/왔다"	32121-0-2	귀찬해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불구드라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왔/왔다"	32122-0-2	불가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1	말그드라
32123-0-2	"맑-(淸)-왔/왔다"	32123-0-2	말가따
32124-0-1	"끓:-(騰)-지, -고, -더라"	32124-0-1	끓:떠라
32124-0-2	"끓:-(騰)-왔/왔다"	32124-0-2	끓마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32125-0-1	국:떠라
32125-0-2	"끓:-(太)-왔/왔다"	32125-0-2	끓:거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32126-0-1	야:롭떠라
32126-0-2	"얇:-(薄)-왔/왔다"	32126-0-2	얇바따

32127-0-1	"쏟-(?)-지, -고, -더라"	32127-0-1	실트라
32127-0-2	"쏟-(?)-왔/었다"	32127-0-2	시러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1	일터라
32128-0-2	"잃-(失)-왔/었다"	32128-0-2	이러따
32129-0-1	"훔-(?)-지, -고, -더라"	32129-0-1	할떠라
32129-0-2	"훔-(?)-왔/었다"	32129-0-2	할터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1	자릅떠라
32130-0-2	"짧-(短)-왔/었다"	32130-0-2	잘바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1	놀리드라
32131-0-2	"놀라-(驚)-왔/었다"	32131-0-2	놀레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1	자더라
32132-0-2	"자-(宿)-왔/었다"	32132-0-2	자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1	모:다드라
32133-0-2	"못:하-(不爲)-왔/었다"	32133-0-2	모:테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1	모르더라
32134-0-2	"모르-(不知) -왔/었다"	32134-0-2	몰라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1	아푸더라
32135-0-2	"아프-(痛)-왔/었다"	32135-0-2	아퍼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1	크더라
32136-0-2	"크-(大)-왔/었다"	32136-0-2	커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1	쫼:떠라
32137-0-2	"꼬-(索, 새끼를)-왔/었다"	32137-0-2	파: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32138-0-1	쭈더라
32138-0-2	"쭈-(造粥)-왔/었다"	32138-0-2	쭈어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1	마추더라
32139-0-2	"맞추-(組合)-왔/었다"	32139-0-2	마차따
32140-0-1	"데우-(?)-지, -고, -더라"	32140-0-1	디:드라
32140-0-2	"데우-(?)-왔/었다"	32140-0-2	디여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1	이:드라
32141-0-2	"이:-(盖, 지붕을)-왔/었다"	32141-0-2	이여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1	갈기더라
32142-0-2	"갈기-(打)-왔/었다"	32142-0-2	갈겨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1	지달리드라
32143-0-2	"기다리-(待)-왔/었다"	32143-0-2	지달려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시:드라
32144-0-2	"세:-(算)-왔/었다"	32144-0-2	시여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드라
32145-0-2	"빼-(拔)-왔/었다"	32145-0-2	빼:따
32146-0-1	"켜-(툭을)-지, -고, -더라"	32146-0-1	썰:드라
32146-0-2	"켜-(툭을)-왔/었다"	32146-0-2	썩:러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되:더라
32147-0-2	"되:-(硬)-왔/었다"	32147-0-2	되야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쉬:더라(+ 단모음)
32148-0-2	"쉬:-(休)-왔/었다"	32148-0-2	쉬여따(+ 단모음)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32149-0-1	흙치드라
32149-0-2	"할퀴-(擻)-왔/었다"	32149-0-2	흙쳐따
32150-0-1	"눌:-(?) -지, -고, -더라"	32150-0-1	눌:트라
32150-0-2	"눌:-(?) -왔/었다"	32150-0-2	누러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32151-0-1	*
32151-0-2	"깨닫-(覺)-왔/었다"	32151-0-2	*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메랍뜨라
32152-0-2	"마렵-(오줌이)-왔/었다"	32152-0-2	메랍따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부끄럽떠라
32153-0-2	"부끄럽-(恥)-왔/었다"	32153-0-2	부끄러워따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참떠라
32154-0-2	"가깝-(近)-왔/었다"	32154-0-1	가차와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지푸더라
32155-0-2	"깊-(深)-았/었다"	32155-0-2	지퍼따
32156-0-1	"긔:-(割)-지, -고, -더라"	32156-0-1	끝떠라
32156-0-2	"긔:-(割)-았/었다"	32156-0-2	끄서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1	시치드라
32157-0-2	"씻-(洗)-았/었다"	32157-0-2	시처따
32158-0-1	"쫓-(搗)-지, -고, -더라"	32158-0-1	찌:트라
32158-0-2	"쫓-(搗)-았/었다"	32158-0-2	찌여따
32159-0-1	"꺠-(擻)-지, -고, -더라"	32159-0-1	갈그더라
32159-0-2	"꺠-(擻)-았/었다"	32159-0-2	갈가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32160-0-1	굶:떠라
32160-0-2	"굶:-(飢)-았/었다"	32160-0-2	굴머따
32161-0-1	"닢:-(似)-지, -고, -더라"	32161-0-1	타가더라
32161-0-2	"닢:-(似)-았/었다"	32161-0-2	타게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32162-0-1	실트라
32162-0-2	"싫-(厭)-았/었다"	32162-0-2	시러따
32163-0-1	"굶-(?) -지, -고, -더라"	32163-0-1	골더라
32163-0-2	"굶-(?) -았/었다"	32163-0-2	고라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32164-0-1	분떠라
32164-0-2	"붓:-(注)-았/었다"	32164-0-2	부서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1	타더라
32165-0-2	"타-(乘)-았/었다"	32165-0-2	탈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1	모르더라
32166-0-2	"마르-(乾)-았/었다"	32166-0-2	몰라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1	쓰더라
32167-0-2	"쓰-(苦)-았/었다"	32167-0-2	써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1	슬프더라
32168-0-2	"슬프-(哀)-았/었다"	32168-0-2	슬퍼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1	기푸더라
32169-0-2	"기쁘-(喜)-왔/었다"	32169-0-2	기퍼따
32170-0-1	"쏘-(?, 별이)-지, -고, -더라"	32170-0-1	쏄:터라
32170-0-2	"쏘-(?, 별이)-왔/었다"	32170-0-2	쏘아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1	주더라
32171-0-2	"주-(與)-왔/었다"	32171-0-2	주어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1	키:더라
32172-0-2	"키우-(飼育)-왔/었다"	32172-0-2	키여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1	과다따
32173-0-2	"가두-(囚)-왔/었다"	32173-0-2	과두더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1	부수더라
32174-0-2	"부수-(碎)-왔/었다"	32174-0-2	부사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1	난:뜨라
32175-0-2	"나누-(分)-왔/었다"	32175-0-2	나나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소기드라
32176-0-2	"속이-(欺)-왔/었다"	32176-0-2	소겨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32177-0-1	찌더라
32177-0-2	"끼-(插)-왔/었다"	32177-0-2	찌여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1	튀더라(+ 단모음)
32178-0-2	"튀-(跳)-왔/었다"	32178-0-2	튀여따(+ 단모음)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32179-0-1	곶:떠라
32179-0-2	"괴:-(滄)-왔/었다"	32179-0-2	고와따
32180-0-1	"여위-(?) -지, -고, -더라"	32180-0-1	야울더라
32180-0-2	"여위-(?) -왔/었다"	32180-0-2	야우라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1	맵:떠라
32181-0-2	"맵-(辛)-왔/었다"	32181-0-2	메와따
32182-0-1	"뀌:-(?) -지, -고, -더라"	32182-0-1	뀌:드라
32182-0-2	"뀌:-(?) -왔/었다"	32182-0-2	뀌여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1	고치드라
32183-0-2	"고치-(改)-왔/었다"	32183-0-1	고쳐따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32184-0-1	싣:떠라
32184-0-2	"싣:-(載)-왔/었다"	32184-0-2	시러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1	얻:떠라
32185-0-2	"얻:-(得)-왔/었다"	32185-0-2	어:더따
32186-0-1	"뺑-(粉碎)-지, -고, -더라"	32186-0-1	뺏떠라
32186-0-2	"뺑-(粉碎)-왔/었다"	32186-0-2	뺏사따
32187-0-1	"파랗-(碧)-지, -고, -더라"	32187-0-1	퍼:라드라
32187-0-2	"파랗-(碧)-왔/었다"	32187-0-2	퍼:레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1	틀리드라
32188-0-2	"다르-(異)-왔/었다"	32188-0-2	틀러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1	푸더라
32189-0-2	"푸-(汲)-왔/었다"	32189-0-2	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1	누더라
32190-0-2	"누-(尿)-왔/었다"	32190-0-2	누어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1	더:럽떠라
32191-0-2	"더:럽-(汚)-왔/었다"	32191-0-2	더러워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1	거두더라
32192-0-2	"거두-(收)-왔/었다"	32192-0-2	거뒀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1	끓더라
32193-0-2	"끓-(沸)-왔/었다"	32193-0-2	끄러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1	이기드라
32194-0-2	"이기-(勝)-왔/었다"	32194-0-2	이게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1	*
32195-0-2	"부시-(照)-왔/었다"	32195-0-2	*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1	자빠지드라
32196-0-2	"자빠지-(後倒)-왔/었다"	32196-0-2	자빠저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1	일씨드라
32197-0-2	"일으키-(使起)-왔/엿다"	32197-0-2	일췌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98-0-1	땅기드라
32198-0-2	"당기-(引)-왔/엿다"	32198-0-2	땅게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1	디네불더라
32199-0-2	"버리-(捨)-왔/엿다"	32199-0-2	디네부러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1	두르드라
32200-0-2	"훔치-(盜)-왔/엿다"	32200-0-2	둘러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1	지드라
32201-0-2	"지-(負)-왔/엿다"	32201-0-2	저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1	에야따
32202-0-2	"외:-(暗誦)-왔/엿다"	32202-0-2	에드라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1	사기드라
32203-0-2	"사귀-(交際)-왔/엿다"	32203-0-2	사게따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32204-0-1	씩떠라
32204-0-2	"씩-(腐)-왔/엿다"	32204-0-2	씩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1	질드라
32205-0-2	"질-(泥)-왔/엿다"	32205-0-2	지러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1	까불더라
32206-0-2	"까불-(箕)-왔/엿다"	32206-0-2	까부라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1	드물더라
32207-0-2	"드물-(稀)-왔/엿다"	32207-0-2	드무러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1	줄더라
32208-0-2	"줄:-(縮)-왔/엿다"	32208-0-2	주러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1	심:떠라
32209-0-2	"심:-(植)-왔/엿다"	32209-0-2	시머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210-0-1	쓰다듬떠라
32210-0-2	"쓰다듬-(撫)-왔/엿다"	32210-0-2	쓰다드머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싸:납뜨라
32211-0-2	"사:납-(猛)-왔/엿다"	32211-0-2	싸:나워따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가볍뜨라
32212-0-2	"가볍-(輕)-왔/엿다"	32212-0-2	가바와따
32213-0-1	"젓:-(?) -지, -고, -더라"	32213-0-1	저:뜨라
32213-0-2	"젓:-(?) -왔/엿다"	32213-0-2	저서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두껍떠라
32214-0-2	"두껍-(厚)-왔/엿다"	32214-0-2	두꺼워따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물러따
32215-0-2	"무르-(軟)-왔/엿다"	32215-0-2	무르드라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부질드라
32216-0-2	"분지르-(折)-왔/엿다"	32216-0-2	부지러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베:드라
32217-0-2	"배우-(學)-왔/엿다"	32217-0-2	베:따
32218-0-1	"다리-(?) -지, -고, -더라"	32218-0-1	데루더라
32218-0-2	"다리-(?) -왔/엿다"	32218-0-2	데뤄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32219-0-1	파더라
32219-0-2	"후비-(?, 귀를)-왔/엿다"	32219-0-2	파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에리드라
32220-0-2	"아리-(痛)-왔/엿다"	32220-0-2	에러따
32221-0-1	"그리-(晝)-지, -고, -더라"	32221-0-1	기리드라
32221-0-2	"그리-(晝)-왔/엿다"	32221-0-2	기레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32222-0-1	제리드라
32222-0-2	"저리-(癡)-왔/엿다"	32222-0-2	제레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32223-0-1	불리드라
32223-0-2	"불리-(增)-왔/엿다"	32223-0-2	불러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따습뜨라
32224-0-2	"뜨시-(溫)-왔/엿다"	32224-0-2	따수와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끼리드라
32225-0-2	"끓이-(使沸)-왔/었다"	32225-0-2	끼레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뉘비드라(+ 단모음)
32226-0-2	"누비-(縫)-왔/었다"	32226-0-2	뉘베따(+ 단모음)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꾸구적끼리드라
32227-0-2	"구기-(皺)-왔/었다"	32227-0-2	꾸구적끼레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1	비:드라
32228-0-2	"비:-(空)-왔/었다"	32228-0-2	비여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1	시쿠드라
32229-0-2	"식히-(使冷)-왔/었다"	32229-0-2	시퀴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1	메:드라
32230-0-2	"매-(除草)-왔/었다"	32230-0-2	메: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1	메:드라
32231-0-2	"매:-(結)-왔/었다"	32231-0-2	메: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1	뛰드라(+ 단모음)
32232-0-2	"뛰-(走)-왔/었다"	32232-0-2	뛰여따(+ 단모음)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1	담:떠라
32233-0-2	"담:-(盛)-왔/었다"	32233-0-2	다머따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32234-0-1	게랍떠라
32234-0-2	"가렵-(?)-왔/었다"	32234-0-2	게라와따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1	떼리드라
32235-0-2	"때리-(打)-왔/었다"	32235-0-2	떼레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1	어둡떠라
32236-0-2	"어둡-(暗)-왔/었다"	32236-0-1	어두와따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1	잡떠라
32237-0-2	"잡-(執)-왔/었다"	32237-0-2	자버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1	차더라
32238-0-2	"차-(蹴)-왔/었다"	32238-0-2	차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1	모:지레드라
32239-0-2	"모자라-(不足)-왔/었다"	32239-0-2	모:지레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1	부르더라
32240-0-2	"부르-(呼)-왔/었다"	32240-0-2	불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1	따루더라
32241-0-2	"따르-(注)-왔/었다"	32241-0-2	따뤄따
32242-0-1	"쫓:-(啄)-지, -고, -더라"	32242-0-1	조:떠라
32242-0-2	"쫓:-(啄)-왔/었다"	32242-0-2	조사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1	두더라
32243-0-2	"두-(置)-왔/었다"	32243-0-2	두어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1	시기더라
32244-0-2	"시키-(使)-왔/었다"	32244-0-2	시게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32245-0-1	제리드라
32245-0-2	"지리-(漏, 오줌을)-왔/었다"	32245-0-2	제레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뎡기드라
32246-0-2	"던지-(投)-왔/었다"	32246-0-2	뎡게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드라
		32247-0-1	모티드라
32247-0-2	"모이-(集)-왔/었다"	32247-0-2	모아따
		32247-0-2	모테따
32248-0-1	"만지-(?) -지, -고, -더라"	32248-0-1	멘치드라
32248-0-2	"만지-(?) -왔/었다"	32248-0-2	멘차따
32249-0-1	"쪼:-(?) -지, -고, -더라"	32249-0-1	쪼:드라
32249-0-2	"쪼:-(?) -왔/었다"	32249-0-1	쪼여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틀더라
32250-0-2	"비틀-(捻)-왔/었다"	32250-0-2	트러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32251-0-1	도옵떠라
32251-0-2	"돕:-(助)-왔/었다"	32251-0-2	도와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32252-0-1	씹떠라
32252-0-2	"씹-(咀)-왔/었다"	32252-0-2	씨버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끼럽떠라
32253-0-2	"미끄럽-(滑)-왔/었다"	32253-0-2	미끼러워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닫:트라
32254-0-2	"닿-(接)-왔/었다"	32254-0-2	닫: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32255-0-1	누르드라
32255-0-2	"누르-(壓)-왔/었다"	32255-0-2	눌러따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32256-0-1	주무르드라
32256-0-2	"주무르-(?)-왔/었다"	32256-0-2	주물러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32257-0-1	메꾸더라
32257-0-2	"메우-(填)-왔/었다"	32257-0-2	메꽂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꼬숯떠라
32258-0-2	"꼬시-(香味)-왔/었다"	32258-0-2	꼬수와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네리드라
32259-0-2	"내리-(降)-왔/었다"	32259-0-2	네레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구르더라
32260-0-2	"구르-(轉)-왔/었다"	32260-0-2	굴러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멘들드라
32261-0-2	"만들-(作)-왔/었다"	32261-0-2	멘드라따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32262-0-1	늡떠라
32262-0-2	"늡-(老)-왔/었다"	32262-0-2	늡거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트라
32263-0-2	"앓-(痛)-왔/었다"	32263-0-2	아러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따리드라
32264-0-2	"따르-(隨)-왔/었다"	32264-0-2	따러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드라
32265-0-2	"사-(買)-왔/었다"	32265-0-2	사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네드라
32266-0-2	"치우-(除)-았/었다"	32266-0-2	치:네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부러지드라
32267-0-2	"부러지-(被折)-았/었다"	32267-0-2	부러저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드라
32268-0-2	"다치-(傷)-았/었다"	32268-0-2	다쳐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니리더라
32269-0-2	"느리-(緩)-았/었다"	32269-0-2	니려따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드라
32270-0-2	"무치-(和,나물을)-았/었다"	32270-0-2	무쳐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32271-0-1	죄:드라
32271-0-2	"죄:-(締)-았/었다"	32271-0-2	죄야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폴더라
32272-0-2	"팔-(賣)-았/었다"	32272-0-2	포라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떠라
32273-0-2	"뽑-(選)-았/었다"	32273-0-2	뽑바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뒤지드라
32274-0-2	"뒤지-(索)-았/었다"	32274-0-2	뒤저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마추드라
32275-0-2	"마치-(終)-았/었다"	32275-0-2	마차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가니드라
32276-0-2	"절이-(鹽)-았/었다"	32276-0-2	가네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휘:더라(+ 단모음)
32277-0-2	"휘-(曲)-았/었다"	32277-0-2	휘여따(+ 단모음)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32278-0-1	준:떠라
32278-0-2	"줍:-(拾)-았/었다"	32278-0-2	주서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뺨:뜨라
32279-0-2	"빼앗-(奪)-았/었다"	32279-0-1	빼:서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울더라
		32280-0-1	지울드라
32280-0-2	"기울-(傾)-왔/였다"	32280-0-2	기우러따
		32280-0-2	지우러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떠라
32281-0-2	"아깝-(惜)-왔/였다"	32281-0-2	아까워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방갑떠라
32282-0-2	"반갑-(歡)-왔/였다"	32282-0-2	방가워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드라
32283-0-2	"찌-(蒸)-왔/였다"	32283-0-2	찌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라드라
32284-0-2	"노랑-(黃)-왔/였다"	32284-0-2	노:레따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퍼:라드라
32285-0-2	"푸르-(靑)-왔/였다"	32285-0-2	퍼:레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둘더라
32286-0-2	"서두르-(忙)-왔/였다"	32286-0-2	서두라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서투릅뜨라
32287-0-2	"서투르-(不熟)-왔/였다"	32287-0-2	서투루와따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기울드라
32288-0-2	"게으르-(怠)-왔/였다"	32288-0-2	기울러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뜩해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수와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뜩하드라
32289-0-2	"따뜻하-(溫)-왔/였다"	32289-0-2	따습떠라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32290-0-1	춡떠라
32290-0-2	"춡-(寒)-왔/였다"	32290-0-2	추와따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겁떠라
32291-0-2	"뜨겁-(極熱)-왔/였다"	32291-0-2	뜨거워따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멘자근하더라

32292-0-2	"미지근하-(微溫)-왔/었다"	32292-0-2	멘자근혜따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드라
32293-0-2	"차갑-(寒)-왔/었다"	32293-0-2	차와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부럽떠라
32294-0-2	"부럽-(羨)-왔/었다"	32294-0-2	부러워따
32295-0-1	"알뜰-(憎)-지, -고, -더라"	32295-0-1	*
32295-0-2	"알뜰-(憎)-왔/었다"	32295-0-2	*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슷하더라
32296-0-2	"비슷하-(類似)-왔/었다"	32296-0-2	비슷혜따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
32297-0-2	"새롭-(新)-왔/었다"	32297-0-2	*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1	서:럽떠라
32298-0-2	"서:럽-(悲痛)-왔/었다"	32298-0-2	서:러와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1	까:랍떠라
32299-0-2	"까다롭-(難)-왔/었다"	32299-0-2	까:라와따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1	웨롭떠라
32300-0-2	"외롭-(孤)-왔/었다"	32300-0-2	웨로워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1	아쉽떠라
32301-0-2	"아쉽-(不滿)-왔/었다"	32301-0-2	아수와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1	팡팡하더라
32302-0-2	"단단하-(固)-왔/었다"	32302-0-2	팡팡혜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32303-0-1	느떠라
32303-0-2	"늦-(晚)-왔/었다"	32303-0-2	느저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32304-0-1	남:떠라
32304-0-2	"남:-(餘)-왔/었다"	32304-0-2	나머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1	냉기드라
32305-0-2	"남기-(使餘)-왔/었다"	32305-0-2	냉게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32306-0-1	자빨씨드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왔/었다"	32306-0-2	자빨세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32307-0-1	쭈글씨드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왔/었다"	32307-0-2	쭈글세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1	*
32308-0-2	"견주-(比)-왔/었다"	32308-0-2	*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1	외더라
32309-0-2	"외우-(誦)-왔/었다"	32309-0-2	외야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1	문티드라
32310-0-2	"문지르-(摩)-왔/었다"	32310-0-2	문테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1	겔치드라
32311-0-2	"가리키-(指)-왔/었다"	32311-0-2	겔체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1	겔치드라
32312-0-2	"가르치-(敎)-왔/었다"	32312-0-2	겔체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1	저누더라
32313-0-2	"겨누-(照準)-왔/었다"	32313-0-2	저놔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1	*
32314-0-2	"겨루-(競)-왔/었다"	32314-0-2	*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리더라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기드라
32315-0-2	"달래-(慰撫)-왔/었다"	32315-0-2	달려따
32315-0-2	"달래-(慰撫)-왔/었다"	32315-0-2	달게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뿐바떠라
32316-0-2	"본받-(效)-왔/었다"	32316-0-2	뿐바더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어질드라
32317-0-2	"어지르-(散)-왔/었다"	32317-0-2	어지러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드라
32318-0-2	"달리-(走)-왔/었다"	32318-0-2	달려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위기드라
32319-0-2	"우기-(拗)-왔/었다"	32319-0-2	위게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씨부렁기리드라
32320-0-2	"중얼거리-(獨言)-왔/었다"	32320-0-2	씨부렁기레따
32321-0-1	"지꼴이-(騷)-지, -고, -더라"	32321-0-1	*
32321-0-2	"지꼴이-(騷)-왔/었다"	32321-0-2	*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뎡기드라
32322-0-2	"다니-(行)-왔/었다"	32322-0-2	뎡게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넬치드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왔/었다"	32323-0-2	넬차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드라
32324-0-2	"깨-(覺)-왔/었다"	32324-0-1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스드라
32325-0-2	"시-(酸)-왔/었다"	32325-0-2	서따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32326-0-1	손떠라
32326-0-2	"숫-(湧)-왔/었다"	32326-0-2	소사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조:트라
32327-0-2	"좋:-(好)-왔/었다"	32327-0-2	조아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가드라
32328-0-2	"빨강-(赤)-왔/었다"	32328-0-2	빨:게따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32329-0-1	끄떠라
32329-0-2	"끌:-(曳)-왔/었다"	32329-0-2	끄서따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32330-0-2	"얇:-(薄)-왔/었다"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32331-0-1	흐:가드라
32331-0-2	"하얇-(白)-왔/었다"	32331-0-2	흐:게따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기로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또
32333-0-1	논(沓)-이/가	32333-0-1	노니
32333-0-2	논(沓)-을/를	32333-0-2	노늘
32333-0-3	논(沓)-에(서)	32333-0-3	논 예서
32333-0-4	논(沓)-으로	32333-0-4	노니로
32333-0-5	논(沓)-도	32333-0-5	논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럴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러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도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멀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메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보미로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도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벌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비로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또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오설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세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시로
32337-0-5	옷(衣)-도	32337-0-5	오토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방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얼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에

32338-0-4 방(房)-으로
32338-0-5 방(房)-도

32338-0-4 방이로
32338-0-5 방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32339-0-1 나시
32339-0-2 나슬
32339-0-3 나제
32339-0-4 나지로는
32339-0-5 나또

32340-0-1 낮(顔)-이/가
32340-0-2 낮(顔)-을/를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0-0-1 나시
32340-0-2 나설
32340-0-3 나세
32340-0-4 나시로
32340-0-5 나또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32341-0-1 정제가
32341-0-2 정제를
32341-0-3 정제서
32341-0-4 정제로
32341-0-5 정제도

32342-0-1 밭(田)-이/가
32342-0-2 밭(田)-을/를
32342-0-3 밭(田)-에(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5 밭(田)-도

32342-0-1 바시
32342-0-2 바설
32342-0-3 바테서
32342-0-4 바트로
32342-0-5 바또

32343-0-1 앞(前)-이/가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3-0-1 아비
32343-0-2 아벌
32343-0-3 아페
32343-0-4 아피로
32343-0-5 압또

32344-0-1 녀(魂)-이/가
32344-0-2 녀(魂)-을/를
32344-0-3 녀(魂)-에(서)
32344-0-4 녀(魂)-으로
32344-0-5 녀(魂)-도

32344-0-1 너기
32344-0-2 너걸
32344-0-3 너게
32344-0-4 너그로
32344-0-5 녍또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1 흐기
32345-0-2 흐글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흐게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흐기로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또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야다리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야다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야다레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야달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야달또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돌로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쌀가비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가벌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쌀가베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쌀가비로
32348-0-5	값(價)-도	32348-0-5	쌀갑또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결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게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소:그로
32349-0-5	속:(內)-도	32349-0-5	속:또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널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네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도:느로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레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로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멸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메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벌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비로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또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시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슬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세가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시로
32354-0-5	낫(鎌)-도	32354-0-5	나또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얼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강이로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도
32356-0-1	젓(乳)-이/가	32356-0-1	저시
32356-0-2	젓(乳)-을/를	32356-0-2	저설
32356-0-3	젓(乳)-에(서)	32356-0-3	저세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4	저시로
32356-0-5	젓(乳)-도	32356-0-5	저또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시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설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세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시로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또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포시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포설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포세서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포시로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포또

32359-0-1 옆(側)-이/가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5 옆(側)-도

32359-0-1 여비
 32359-0-2 여벌
 32359-0-3 여폐가
 32359-0-4 여피로
 32359-0-5 엽또

32360-0-1 샀(賃金)-이/가
 32360-0-2 샀(賃金)-을/를
 32360-0-3 샀(賃金)-에(서)
 32360-0-4 샀(賃金)-으로
 32360-0-5 샀(賃金)-도

32360-0-1 품싸기
 32360-0-2 품싸글
 32360-0-3 품싸게서
 32360-0-4 품싸기로
 32360-0-5 품싸또

32361-0-1 닭(鷄)-이/가
 32361-0-2 닭(鷄)-을/를
 32361-0-3 닭(鷄)-에(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1-0-1 다기
 32361-0-2 다걸
 32361-0-3 다게서
 32361-0-4 다기로
 32361-0-5 닥또

32362-0-1 밖(外)-이/가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32362-0-4 밖(外)-으로
 32362-0-5 밖(外)-도

32362-0-1 베까시
 32362-0-2 베까설
 32362-0-3 베까테서
 32362-0-4 베끼테로
 32362-0-4 베까트로
 32362-0-5 베까또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1	네가
40101-0-2	내	40101-0-2	네거시라고
40101-0-3	나-를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4	나한테
40101-0-5	나-와	40101-0-5	나아고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	저
40102-0-1	저-가	40102-0-1	제:가
40102-0-2	저-의	40102-0-2	제꼇
40102-0-3	저-을/를	40102-0-3	저를
40102-0-4	저-에게	40102-0-4	저한테
40102-0-5	저-와/과	40102-0-5	저아고
40102-0-6	저-는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3	우리아부지
40104	저희	40104	저이지브로
40105	너	40105	너
40105-0-1	-가	40105-0-1	니:가
40105-0-2	-의	40105-0-2	니꺼시다
40105-0-3	-을/를	40105-0-2	니거시다
40105-0-4	-에게	40105-0-3	너덜
40105-0-5	-와/과	40105-0-4	너아고
40105-0-6	-는	40105-0-5	니한테
40105-0-7	-도	40105-0-6	너는
40106	자네	40105-0-7	너도
40107	당신	40106	아무게네아베
		40106	자네
		40107	어야
		40107	자네가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채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8 느그아버지
 40109 가:가
 40109-1 야:가
 40109-2 자:는
 40110 자기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나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이~냐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한테
 40112-0-5 누구하고
 40113 머:시냐
 40113 머:시요
 40113-0-1 머:시
 40113-0-2 먼:니를
 40113-0-3 머:다냐
 40113-0-3 먼: 머글레
 40113-0-3 머슬
 40113-0-4 머:다고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 가냐
 40115 언:제디야
 40116 어튼 지비
 40117 어째
 40118 언:마나
 40119 어뜨케
 40119 어치께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0 이거시
 40121 그거시
 40122 저거시
 40123 여그를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4 거그
40125 찌:그를
40126 요리
40127 고:리
40128 찌리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 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01 나락끄미
40202 코가
40203 코를
40204 무를
40205 어쁜 총가한테
40206 누구보고
40207 누구한테
40207 누구보고
40208 딸네지비
40209 다크 보세
40210 큰지베서
40210 큰집씨
40210 큰지비서
40210 딸네집씨 좀 만나까
40211 서울씨 만나세
40212 여그서 으베까장
40213 서:수기로
40214 지비로
40215 세네끼로
40216 열:로
40216 어디로
40217 수:바가고 차메아고
40218 나아고

40220 되야지마니로
40221 너마이로
40221 너망큼만
40222 머글만치만
40223 봉나마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24 어야 봉나미
 40224 봉나미 어야
 40225 영수야
 40226 누님
 40226-1 *
 40227 하납씨
 40227 하나부지
 40227-1 *
 40228 피기랑 수리랑
 40229 마:넌캥이는 처년도 업따
 40229 마:넌케~이는 처년도 업따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른 머거도 담베는 안 피여요
 40231 딸만 이:뻘하능가
 40232 키도 크고 이뿌기도 하더라
 40233 날마당
 40234 오늘뿌터
 40235 네일까장
 40236 머글 물조차
 40236-1 비알라
 40237 도:니사 만:치마는
 40238 요기랑은
 40239 부자래도
 40240 자네뿌니네
 40240 너베끼 업:따
 40241 싸:가꼬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머:다라 오라가나
 40242 나보고 오락헤 이라고도 하고
 40243 베까테 비가 와라우(+ 이중모음)
 40243 비가 와라
 40243 아러씨라우
 40244 암찌게 헤:찌라
 40244 짐장 헤찌라

4.3. 종결어미

1) 명령법

40301	-아라	40301	안저라
40302	-게	40302	앙께
40303	-으오	40303	안즈시오
40304	-으십시오	40304	안즈십시오
40305	-세요	40305	안즈십시오

2) 청유법

40306	-자	40306	가자
40307	-세	40307	가세
40308	-으오	40308	갑씨다
40309	-십시오	40309	아부지 가치 갑씨다
40310	-세요	40310	어머니 가치 갑씨다

3) 의문법

40311	-니	40311	너 언:제 오냐
40312	-나	40312	언:제 웅가
		40312	언:제 올랑가
40313	-오	40313	언:제 올라
		40313	언:제 오요
40314	-습니까	40314	언:제 오실라우(+ 이중모음)
		40314	언:제 오시오
40315	-나요	40315	언:제 오요
40316	-니	40316	어디 가냐
40317	-나	40317	어디 가능가
40318	-시오	40318	어디 가시오
40319	-십니까	40319	어디 가심닌짜
		40319	어디 가십니까
40320	-세요	40320	어디 가심닌짜

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너 밥 잘 명는다
-------	-----	-------	-----------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22 밥 잘 먹네
 40323 잘 잡썬요
 40323 잘 머그요
 40324 잘 잡썬습니다
 40325 잘 잡썬시요
 40325 잘 잡썬요
 40326 적:따
 40327 정:네
 40328 저:금니다
 40328 적:쏘
 40328 저:그요
 40329 적:썬니다
 40329 저:그요
 40330 저:그요

5) 반말

40331 -아
 40332 -지

 40331 어디 아퍼
 40332 가지

6) ‘이다’

40333 -이다	40333 니 생이리다
40334 -이니	40334 니 생이리냐
40335 -이네	40335 생이리세
	40335 생이링가
40336 -인가	40336 자네 생이링가
40337 -이오	40337 형님 생이리요
40338 -이오	40338 네이리 형님 생이리요
40339 -입니다.	40339 아버지 네일 생이리요
40340 -입니까	40340 네이리 아버지 생이리요
40341 -이시지요	40341 생이리지라우(+ 이중모음)
40342 -이시지요	40342 우리 어머니 생이리지라우(+ 이중모음)
40343 -이냐?	40343 그건 머:시냐
40344 -인가?	40344 머:싱가
40345 -이오?	40345 머:시요
40346 -입니까?	40346 머:시요
40347 -인가요?	40347 머:시요

40348 -이야?
40349 -어어요?

40348 머:싱가
40349 머:시요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0 차가 마:나요
40351 마:납떠다
40352 잘 먹꾸나
40353 잘 먹꾸만
40354 오렌마니세
40355 가꾸마
40356 가품세
40357 불넬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밤 먹꼬서
40402 밥도 머금시로 테레비도 보고 그랑께
40402 밤 머금시로 테레비 보네
40403 나리 추와서 모다따
40404 따순데 웅께 자몬다
40405 *
40406 지비 오다 비 마저따
40407 그사람 만나거든 꼭 저네라
40408 억떠구를 쓰드라도
40409 나나 무글라고
40410 빼가 녹뚜록 이:레따
40410 나리 세:두록 공부해따
40411 여물 들쭈로기 고게를 수긴다
40412 도:널 물쓰든 한다
40412 물쓰데끼 쓴다
40413 연속꿈만 보제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잘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2	잘 긴다
40603	크다	40603	누니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4	네이리 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40605	오고 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밤 머건냐
		40606	긴지 잡싸쏘
		40606	긴지 잡쭈게쏘
40607	왔었다	40607	와썬따고도 하고
40608	먹더라	40608	먹뜨라
40609	먹더냐	40609	소죽 잘 먹편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날마지 만나넌 사라미여
40611	만난 친구	40611	만난 칭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만나편 칭고
40613	만날 친구	40613	만날 칭고
40614	큰 아이	40614	키 큰 예기다
40615	크던 아이	40615	크던
40616	켰던 아이	40616	커편 예기가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암 머글라네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비 오건네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암머거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40703	앙께끄다다
	깨끗 안 하다	40703	깨끗 아나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앙가따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40705	아직 몸:만나따
	만나 안 보았다	40705	암만나바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먹또 아나고 잠만 자네
40706-1	먹도 않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몸:머거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마지요안

40708	안 마지요 안
40708	네마리안 마지요

4.8. 피동과 사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려따고
40802	늘리다	40802	니레따고
40803	말리다1(햇볕에)	40803	물리조
40804	말리다2(싸움을)	40804	말기조
40805	얼리다	40805	얼린다
40806	녹이다	40806	노킨다
40807	신기다	40807	싱킨다
40808	보이다	40808	벤:다
40809	알리다	40809	알린다
40810	입히다	40810	이핀다
40811	얹히다	40811	안친다
40812	벗기다	40812	비킨다
40813	웃기다	40813	우킨다
40814	씩히다	40814	씩쿤다
40815	숨기다	40815	숨킨다
40816	끓기다	40816	궁킨다
40817	깨우다	40817	켄:다
40818	돋우다	40818	도둔다

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제페따
40820	깎이다	40820	깨께따
40821	끼이다	40821	끼여따
40822	떼이다	40822	떠여따
40823	채이다	40823	치여따
40824	단히다	40824	다쳐따
40825	들리다	40825	디킨다
40826	엮히다	40826	어페따
40827	바뀌다	40827	베께따
40828	썩히다	40828	씨핀다

40829 얹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눌리다
40832 실리다
40833 끊기다
40834 긁히다

40829 연쳐따
40830 찌켜따
40831 눌러써
40832 실려가따
40833 끄게따
40834 글게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바꼬잡냐
40901 먹꼬자부요
40902 잘 멍능거 가트이~
40902 바비 잘 멍능가 십떠니 인자넌
안 멍는다 그라고
40903 이버 보시요
40904 다 머거부런네
40905 우리싼는다
40906 *
40907 자능거이다
40908 추웁거이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01 실큰 머거라
41002 마이~ 머거라
41003 너무
41004 쪼까만
41004 쪼:까만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릉
41008 기열코
41009 가:끔
41010 모냐 가거라

41011	나중에	41010	먼저
41012	가득	41011	낭:중에
41013	몽땅	41012	까드기
41014	모조리	41013	몽땅
41015	혼자	41014	다:
41016	항상	41015	한자
41017	똑똑히	41016	항:상
41018	겨우	41017	똑또가니
41019	늘	41018	포도시
41020	저절로	41019	늘창
41021	자꾸	41020	지절로
41022	설마	41021	자꼬
41023	하마터면	41022	설마 지:가 나사라 그랄라디아
41024	함께	41023	하메트라면
41025	걸핏하면	41024	항꾸네
41026	공연히	41025	삐씨게도
41027	그냥	41026	메:겹씨
41028	매우	41027	기양
41029	곧장	41028	검:나게
41030	벌써	41029	핑:하이~
41031	가장	41030	벌써
41032	가만히	41031	질:
41033	미리	41032	카마 이꺼라
41034	이따금	41033	미리
		41034	어짜다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아무게나베
		41101	아무게넘메
41102	여보세요	41102	여보
41103	들어가세요	41103	드러가거라 드러가씨요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수고해따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아:따 오렌마니세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긴지 잡수게쏘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41107	뵈입씨다

	올리면서 하는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돈 여기쪼
41109	예	41109	예 가따우(손위)(+ 이중모음)
		41109	어이 가따네(손아래)
41110	아니	41110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암시토 아네
		41111	암:상토 아네
41112	내버려 뒀	41112	네:비뒀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물고 다닌다"	41113	누구든지

2) 속담

41114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시리에 물부끼가따고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도두기 소도둑 뵈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부란년 기:뚜게 영기나건냐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